

空軍

1982
AIR FORCE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 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말씀 중에서-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民主統一) 방안 천명

-전두환(全斗煥)대통령, 새해국정 연설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새해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 제시했다.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강용구(姜容求) (12)
 새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에 생각한다 윤종현(尹宗鉉) (14)
 「올림픽국민(國民)」으로서의 바람직한 정신자세(精神姿勢) 지용우(池龍雨) (21)

특집 I(特輯 I)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

민주정치(民主政治)와 민주생활(民主生活) 박석균(朴錫均) (28)
 한국경제(韓國經濟) 재도약(再跳躍)의 전략(戰略) 이만기(李滿基) (36)
 창조적(創造的) 민족주의(民族主義) 장정효(張正孝) (54)
 정의사회(正義社會) 구현(具現)을 위한 국민적(國民的) 윤리(倫理) 김우식(金雨植) (68)

특집 II(特輯 II) 새시대 민족의 좌표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를 맞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문도빈(文道彬) (75)
 에너지전쟁(戰爭)과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 박희천(朴熙天) (83)
 민주시민(民主市民)과 의식혁명(意識革命) 류근일 (91)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이 거둔 성과(成果) 오광수(吳光洙) (98)

현대국방체제(現代國防体制)와 미국(美國)의 당면과제(當面課題) 이선호(李善浩) (127)
 한반도(韓半島)와 국제정세(國際情勢) 변천과정(變遷過程) 백봉중(白奉鍾) (142)

논문(論文) 한국(韓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 서진태(徐鎭泰) (104)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体思想)의 형성배경(形成背景)과 그 실태(實態) 홍중도(洪鍾道) (229)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 비판(批判) 편집실(編輯室) (241)

항공 항공	SU-24전폭기(戰爆機) 이건순(李建淳) (151)
	소련전술방공(蘇聯戰術防空)의 발달(發達)과 운용실태(運用實態) 최양수(崔良洙) (165)
군사 軍事	TORNADO F-2기(機) 박종언(朴鍾彦) (177)
과학 科學	단(單)·복좌전투기(複座戰鬥機)의 비교(比較) 양광석 (198)
	A/FAC 일반론(一般論) 권재상 (206)

우수전투조종사(優秀戰鬥操縱士)의 조건(條件) 박범진(朴范鎭) (213)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열

민풍진작(民風振作)과 김종직(金宗直)의 효관(孝觀) (249)
 김흠춘장군(金欽春將軍) 삼대(三代)와 화랑정신(花郎精神) (254)

공군만상(空軍漫像) 보라매 일기 정운섭(鄭雲燮) (150)

단편(短編) 파란빛 파리떼 유금호(俞金浩) (259)



◇ 「탱크킬러」 A-10기(機) 전개 환영식 거행 (3.3) ◇



◇ 전군지휘관회의(全軍指揮官會議) 개최(開催) (81. 12. 22) ◇

82년도(年度) 역점사업 및 당면과제를 중점 토의



이날 기념식에 주미공사(周美公使) 오윤환(吳潤煥) 공관장(公館長), 미국주한
 미대사(駐韓美大使) 로버트 로버트, 미주한미(周韓美) 오윤환(吳潤煥)
 공관장, 여진민(尹誠敏) 공관장의 장례 비문 쓰기 전 참모총장 등
 한미 고위장성들이 참석, A-10 기(機) 를 맞이했다.

◇ 준장 이재규 외 12명으로부터 장군

진급 신고를 받고 있는 이희근(李喜根) 참모총장 (1. 1) ◇



◇ 어제와 오늘의 보람매가 민주주의 발전과 영예찬
 권력에 다진다 (1.7) ◇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 (전(前) 공군참모총장)과
 굳게 악수를 나누는 이희근(李喜根) 참모총장



◇ 공군(空軍) 제(第) 9기(期) R. O. T. C 교육수료 및 임관식 거행
 항공대학(航空大學) 대강당 2. 24 ◇

이날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우광하 소위가, 참모총장상은 조진규 소위가,
 교육사령관상은 안광호 소위가 각각 차지했다.



◇ 공군정신전력(空軍精神戰力)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 개최
(제1회의실, 2. 5) ◇



◇ 82년도 제1차 정훈참모회의 개최 (2. 12) ◇

이날 「정훈장교의 도(道)」
5개항을 제정, 정훈장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 특별강연회 개최
(2. 20) ◇

3대 부정심리 추방과 새
시대 인간상을 강조하는 박
완일교수



공군

제 178 · 179 합병호

1982년 제 1 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완벽(完璧)한 영공방위태세(領空防衛態勢) 확립(確立)

항시전장(恒時戰場)

정병강군(精兵強軍)

절용증강(節用增強)

공군본부(空軍本部)

새해의 새 결의(決意)



정훈감(政訓監) 대령(大領)
강 용 구 (姜容求)

봄의 새 기운(氣運)이 대지(大地)에 밀려온다. 심산유곡(深山幽谷)의 잔설(殘雪)마저 녹아 연못을 채우고 있다.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이라 읊었던 도연명의 착상 그대로이다.

분홍기운이 스쳐간다. 아직도 완연한 봄은 아니건만 추위를 이겨낸 민감(敏感)한 계절 감각(季節感覺) 때문일까? 영춘(迎春)의 예(禮)삼아 「대길(大吉)」의 춘첩자(春帖子)를 대문(大門)에 붙였던 조상(祖上)들의 지혜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혹한(酷寒)을 이겨낸 대견함에 스스로 맛보는 희열(喜悅) 때문일까?

그것보다는 자연(自然)의 섭리(攝理) 속에 봄이 지닌 사랑과 평화(平和), 자유(自由)와 정의(正義) 그리고 어머니 마음같은 관용(寬容)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통금(通禁)」, 「교복(校服)」 같은 묶임을 풀게 한 성숙(成熟)한 온기(溫氣), 그리고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소망(所望)인 조국(祖國) 통일(統一)을 이룩하자는 평화(平和)의 열기(熱氣)는 결빙(結氷)의 북한(北韓)땅을 녹여야 할텐데……. 자연(自然)의 순리(順理)와도 같은 민족(民族)의 소망(所望)을 거부(拒否)하는 김일성(金日成)의 검은 속셈은 무엇인지, 한(恨)스럽기 그지 없다.

지난 1월 22일 전두환(全斗煥) 대통령(大統領) 각하(閣下)께서는 국정연설(國政演說)을 통해 민족통일(民族統一)에의 새 이정표(里程標)를 제시하셨다. 즉 남과 북의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민족통일협의회(民族統一協議會)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통일헌법(統一憲法)을 공동기초(共同起草)하여 국민투표(國民投票)로 헌법(憲法)을 확정(確定)시킨 후에 이 헌법(憲法)을 토대로 총선거(總選舉)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국(統一民主共和國)을 완성(完成)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본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暫定協定)」을 체결코자 7개항의 원칙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 있게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허구에 찬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만을 거듭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말았으니…….

삼천리(三千里) 금수강산(錦繡江山)을 하나로 이어 빛나는 통일조국(統一祖國)을 새롭게 키워 나가려는 간절한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의 음흉한 속셈이 끝나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를 생각할 때, 중국(中國)의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시구(詩句)가 떠오른다.

「강벽조유백(江碧鳥噓白) 산청화욕연(山青花欲燃)
금춘간우과(今春看又過) 하일시귀년(何日是歸年)」
(강은 푸르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붉게 타려는데
금년 봄도 또 지나가는 걸 보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이뇨)

간절한 심경 그대로이다. 6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 통일에의 그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아무리 추웠던 겨울도 새 봄이 오면 따사로움이 돌고, 구슬픈 이별도 만남의 날이 있건만, 한 덩어리 한 핏줄 조국 대한의 통일은 왜 그렇게 힘든가?

이제 우리나라엔 자율화(自律化)의 의지(意志)가 널리 퍼지고, 개방에의 문이 활짝 열리었다. 번영(繁榮)을 향(向)한 도약(跳躍)의 발판도 닦아 놓았다.

대통령 각하의 통일외지(統一意志)는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부여된 사명완수(使命完遂)에 총력매진(總力邁進)해야 할 것이며, 북괴(北傀)가 적화야욕(赤化野欲)을 버리고 대화합(大和合)의 장(場)으로 나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며 줄기차게 노력해야 하겠다. 자유대한(自由大韓)에 봄이 온다. 통일(統一)의 대도(大道)가 밝혀졌다.

새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에 생각한다

그 개막(開幕)과 우리의 역할(役割)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 그리고 신뢰(信賴)받는 한국(韓國)으로서의 발전(發展)을 위해 우리 자신(自身)의 노력(努力)과 전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윤 중 현 (尹宗鉉)

〈한국일보(韓國日報) · 논설주간(論說主幹)〉

(I)

제5공화국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韓國)은 분명히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의 넓은 문(門)을 열며 깊숙이 진입해 가고 있다. 「푸르른 태평양(太平洋)시대 · 위대(偉大)한 태평양(太平洋)시대」라는 표현은 우리들의 피부감각과 의식 속에 평범할 정도로 젖어든 80년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 서구(西歐)보다 아시아 · 태평양(太平洋)지역이 더 중요한 국제무대(國際舞臺)가 된 것을 뜻한다.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적(文化的)으로 그런 변화의 향방(向方)이 내다 보이며 특히 평화안정(平和安定)과 개발번영(開發繁榮)의 진척을 이 곳 무대(舞臺)에서 기대하려는 나라마다의 지향(志向)이 뚜렷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韓國)은 동(東)아시아 · 태평양(太平洋)지역의 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모든 나라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유일한 분단국가(分斷國家)이다. 어려운 여건(與件)과 환경(環境)을 극복하면서 남들이 놀라는 국가(國家)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추구하는 역내(域內) 모범국가에 속한다.

특히 10 · 26사태 후의 일시적인 내부혼란과 북(北)으로부터의 위협을 슬기롭게 수습하면서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건설의 깃발을 나누끼며 전진하는 새 공화국(共和國)의 영상(映象)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깊은 관심(關心)과 경의(敬意)를 사게 되었다.

미국(美國)을 비롯한 우방(友邦)들은 물론 비적성공산국(非敵性共產國)들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공산(北韓共產)집단 또한 적지 않은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우리의 현실(現實)을 평가치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데 따르는 남들의 경쟁대상(競爭對象)의식이 상대적으로 부푸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는 없다.

그에 보태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싼 주변강국간의 역학(力學)관계 변화는 크게 일렁이고 있다. 대소(對蘇)견제를 목표로 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친해지던 미 · 일 · 중공(美 · 日 · 中共)관계는 요즘 협력(協力)체제, 연계(連繫)체제를 계속 무르익혀가는 참이다. 환태평양(環太平洋)시대의 도래도 밝게 트여져가고 있다.

역내(域內)의 평화(平和)발전과 공동(共同)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또 이는 분명히 대남 폭력적화(對南 暴力赤化)를 노리는 북한(北韓)집단에 중대(重大)할 타격(打擊)을 가하는 반면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繁榮)발전과 평화적(平和的)인 조국통일노력(祖國統一努力)을 고무 격려하는 상황전개이다.

이제 안으로 나라의 위국(危局)을 물리치며 새로운 전진(前進)태세를 정비하고 밖으로 북한(北韓)집단보다 유리한 국제적 기운(國際的 氣運)을 포착하면서 원대한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의 개막(開幕)에 도전, 그 한 주체(主體)로서 양양(洋洋)만 역내(域內)에 무지개를 퍼 보려는 한국(韓國)의 의지(意志)는 확실히 세기적 · 역사적(世紀的 · 歷史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그 구체적(具體的)인 전개(展開)는 우선 연초에 있었던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의 방미외교(訪美外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10박 11일간의 여정으로 1월 28일 출발했던 전(全)대통령의 방미(訪美)성과는 한(韓) · 미동반(美同伴)의 새 지평(地平)을 엮고 동시에 두 나라를 축(軸)으로 하는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의 푸른 수평(水平)을 전개케 하는 것이었다.

그 미국(美國)방문과 레이건대통령(大統領)과의 한(韓) · 미정상회담(美頂上會談)의 개최는 우선 레이건 미(美)대통령이 취임후 첫 손님으로 맞이 한 우방국(友邦國) 원수(元首)로서 양국이 가장 가깝고 중요한 맹방(盟邦)임을 세계 앞에 과시한 셈이었다.

그것은 기존 유대(紐帶)의 단순한 재확인(再確認)정도에 그치지 않은 전향적(前向的)이고 지속적인 의의(意義)를 내다보게 한 성사였다.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의 유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 상호 신뢰(信賴)의 바탕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대한 「보장(保障)과 기여(寄與)」의 새 국면 개척(局面開拓)을 자신(自信)갖고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80년대 초반에 서울이 「새시대(時代)」건설을 다짐하고 워싱턴이 「중공시대(中共時代)」개막을 선언하는 시점(時點)에서 두 나라 새 지도자(指導者)간에 좌표인식(座標認識)과 상호신뢰(相互信賴)에 걸쳐 의기투합(意氣投合)이 이루어졌음을 관측케 하였다.

그러서 지난 70년대의 「불편했던 관계」는 양국의 정부(政府)관계 뿐만 아니라 두 국민의 심정(心情)에 걸쳐 말끔히 해소되고 새로운 내일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하고 또한 힘을 모을 수 있는 전기(轉機)가 도래했던 것이다.

한(韓)·미(美) 정상회담(頂上會談)의 공동성명(共同聲明)은 무엇보다도 한반도(韓半島)의 전략적(戰略的) 중요성(重要性), 그리고 동북아(東北亞)에서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유지의 긴요성에 관한 공동인식(認識)의 바탕위에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의 확고한 준수를 다짐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운위(云謂)되던 주한(駐韓) 미(美) 지상군(地上軍) 철수계획은 백지화(白紙化)되었고 한국군(韓國軍)의 전력(戰力)증강을 위한 진일보(進一步)한 지원이 약속된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韓國)의 평화통일외교정책(平和統一外交政策)과 남북대화(南北對話) 재개(再開)노력에 대한 미국(美國)측의 전폭적 지지가 천명되었으며 특히 한국(韓國)의 그 대화재개 노력 및 전(全)대통령의 1·12대북제외(對北提議)에 대한 미국(美國)의 지지(支持)를 뚜렷이 하였다.

그뿐 아니라 북괴(北傀)측이 노리던 대미직접협상(對美直接協商)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韓半島)를 에워싼 대중(對中)·소(蘇)관계에서도 한국(韓國)의 주장에 따른 상호주의원칙(相互主義原則)을 견지할 것이 확실히 천명되었다.

이는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뿐만 아니라 동북아(東北亞)의 평화(平和)를 확보하는데 있어 크게 이바지할 합의(合意)의 성립을 뜻한다. 북괴(北傀)의 오관을 막고 또 그 배경국(背景國)들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 관한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을 긴 안목(眼目)에서 촉구하려는 포석이다. 한국(韓國)의 국내(國內) 정치안정과 국제지위(國際地位)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측정계 할 수 있는 요목이라 하였다.

이러한 합의(合意)는 또한 세계전략(世界戰略)의 요충(要衝)에서 한국(韓國)이 믿음직한 군사(軍事), 정치(政治), 외교적(外交的) 역량(力量)으로 건재(健在)하며 북괴(北傀)의 남침기도(南侵企圖)를 제어하고 소련(蘇聯)의 팽창주의를 견제함으로써 태평양국가(太平洋國家)인 미국(美國)에 지극히 귀중한 기여(寄與)가 될 것이다. 미국(美國)은 또 한국방위(韓國防衛)에 관한 불퇴전(不退轉)의 공약(公約)준수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 지역(地域)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전지구적(全地球的)으로 동맹국(同盟國)다운 신뢰감(信賴感)을 확산시킬 수 있다.

흔히 새 한(韓)·미(美)관계를 가리켜 「성숙한 동반자(同伴者)」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과 한국(韓國)의 자주적(自主的) 기여도가 점차 확연해지는데서다. 그러나 GNP의 6%를 국방비(國防費)로 투입하고 본시 부존자원이 적은 여건하에서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처지인만큼 경제(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는 확실히 높다.

전(全)·레이건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는 이런 문제상황을 또한 직시(直視)하면서 양국간의

교역(交易)확대와 한국상품규제(韓國商品規制)완화, 미곡(米穀) 및 에너지수요에 대한 호응·지원을 미(美)측은 보장하였다. 나아가서 두 수뇌(首腦)는 환태평양지역(環太平洋地域)의 더욱 폭넓은 국제협력(國際協力)의 진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기도 한 것이었다.

〈III〉

태평양(太平洋)시대는 한(韓)·미정상간(美頂上間)의 이런 합의(合意)로서 고동(鼓動)을 높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개막(開幕)을 바라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안보(安保), 경협(經協)관계는 연대성(連帶性)을 더욱 확고히 해 갔다. 한때의 어색했던 모든 사연을 정리하여 보다 새로운 내일의 동맹(同盟)을 내다보게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작년에 열리지 못했던 연례안보회의(年例安保會議)가 일찌감치 올 4월에 열리고 연례정책(年例政策)협의회, 경제(經濟)협의회가 뒤따르는가 하면 문화협력(文化協力)위원회도 발족하였다. 아시아·태평양(太平洋) 지역의 평화(平和)와 안보상(安保上) 차지하는 한국(韓國)의 위치를 감안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安保)와 경협(經協)의 불가분성(不可分性)을 강조하는 레이건행정부(行政政府)의 성향은 그 대공(對共)강경정책과 더불어 매우 진해지고 있다.

이런 한(韓)·미(美)관계의 진전(進展)을 배경으로 새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를 맞는 두 번째의 점화(點火)는 전(全)대통령의 아시아 5개국 순방(巡訪)에서 당겨졌다. 6월 25일부터 14박 15일간의 긴 일정으로 동남아국가연합(東南亞國家聯合)(아세안) 5개국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泰國), 필리핀을 각각 방문한 그 정상외교(頂上外交)는 세계 속의 한국상(韓國像)과 아시아의 새 협력유대(協力紐帶)를 다지려는 우리 외교이정(外交里程)의 한 웅비(雄飛)였다.

2월 미국(美國)방문에 이어 태평양(太平洋)시대 정상외교(頂上外交)의 다음 대상지를 아세안제국(諸國)으로 선택한 것은 우선 아세안지역(地域)이 지리적(地理的)으로 가까우면서도 5개 북수국가로 구성되었고 한국(韓國)에 대한, 특히 우리 경제(經濟)발전, 국가(國家)개발에 대한 그들의 인식(認識)이 깊어 국제외교의 한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였을 것이다.

보태서 그 모든 나라들이 중립(中立)을 표방하면서도 친미(親美), 친서방적(親西方的)인테다 자유민주(自由民主)체제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지난날 남의 압제를 받은 경력(經歷)이나 오늘의 경제(經濟)개발을 위한 지향성(指向性)이 우리와 흡사하여 개발협력(開發協力)추진에 공동된 인연을 또한 찾을 법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과(成果)는 과연 빛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한국(韓國)으로 하여금 앞으로 도래할 「새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에 찬연히 빛날 「동방(東方)의 별」이 되게 하는 전향적(前向的) 가능성(可能性)을 아로새기게 한 점을 먼저 특기할 수 있겠다.

일련의 정상회담(頂上會談)과 기자회견(記者會見) 그리고 시찰(視察)여행과 각종 환영행사 참석을 통해 전(全)대통령은 그의 솔직하고 소탈한 인품과 대도(大度)로 하여 5개국 지도자 및 2억 6천만 현지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야흐르 한국(韓國)과 아세안 5개국간에는 상호 보완적(補完的) 협력(協力)을 다지는 새시대(時代) 진입의 정지작업(整地作業)이 이룩된 셈이다. 나라에 따라 특색있는 협력(協力)내용(例)컨대 인도네시아와의 원유(原油)공동개발합의, 말레이시아와의 어업합작(漁業合作)진출, 싱가포르와의 해운(海運)분야 협력확대, 태국(泰國)경제개발에의 참여, 필리핀의 제철(製鐵)공업개발지원같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보다 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순방 성과의 대목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게 하였다.

첫째, 정치(政治)·외교(外交)·안보(安保)면에서 기조(基調)로 된 것은 한국(韓國)과 아세안 제국(諸國)간의 다각적인 공감대(共感帶)형성이며, 또 공통적 좌표(座標)인식의 확립이다. 한결 같이 평화(平和)와 안정(安定) 속에 개발(開發) 및 번영을 추구한다는 목적(目的)의식이 일치한 것은 가장 소중한 협력(協力)증진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

또 같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인 쌍방들은 개방적(開放的) 자유시장경제(自由市場經濟)를 유지하며,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를 추진하면서도 현실적 안보(安保)위협(來源)이 어디인가를 명백히 관측하는 공통적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전(全) 대통령과 방문국정상(訪問國頂上) 및 수뇌인사(首腦人士) 사이의 공동성명(共同聲明)은 한반도(韓半島)를 주축으로 한 동북아(東北亞)의 안정(安定)과 평화(平和)가 동남아(東南亞)의 그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韓國)의 평화통일외교정책(平和統一外交政策)과 남북한(南北韓) 유엔동시가입안(同時加入案) 그리고 1·12 및 6·5 대북제재(對北提議)에 대한 아세안 제국(諸國)의 지지가 천명되었다.

다른 한편 한국(韓國)은 아세안 우방(友邦)들의 대인지반도정책(對印支半島政策)을 포함한 대외정책(對外政策)과 안보적(安保的) 유대감(紐帶感)에 대한 지지를 다짐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의 다변적(多邊的) 적극화(積極化)를 내다보게 하는 동시에 국제정치(國際政治)무대에서의 상호협력(協力)증진을 확신갖고 전개(展開)케 하는 좋은 계기의 마련이었다.

둘째, 순방외교(巡訪外交)의 두드러진 성과 중에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개척여지를 바라보게 하는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진이 유난하게 부각되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세안 제국(諸國)은 세계 굴지(屈指)의 부존자원(資源)과 풍부한 인적자원(人的資源) 그리고 폭넓은 시장성(市場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韓國)은 같은 개도국(開途國)이면서도 그동안의 공업화(工業化)경험과 기술인력(技術人力)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합작투자(合作投資)의 국면(局面)개척, 새마을운동의 경험 및 기술이양을 다질 수 있는 입장이다.

셋째, 그밖에 또 한국(韓國)과 아세안 우방국(友邦國)들이 일부 선진국(先進國)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 국제경제질서(國際經濟秩序)를 위한 지향에 있어 인식일치를 보였다는 사실을 처듬게 한다. 아세안 제국(諸國)의 경제개발(經濟開發)에 대한 참여와 협력(協

力)의 자세에 있어 일부 선진국(先進國)의 형태에 드러난 거래상의 고자세(高姿勢)라든지 기술(技術)이양의 인식성 등 편향은 한국(韓國)의 동반자적(同伴者的) 협력(協力)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IV〉

보태 뒤야 할 수확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국제적(國際的) 지위가 절로 부각되고 폐쇄사회인 북한(北韓)과 남한(南韓)의 자유개방(自由開放)사회의 차이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되었다. 미국(美國)방문이나 아세안 순방(巡訪) 때마다 현지 교포(僑胞)들의 긍지와 감명은 끌어올렸으며, 내외 모든 국민(國民)들의 애국심·사명감은 훨씬 고조되는 것이었다

방미전(訪美前)까지만 해도 좀 냉(冷)하던 일본(日本)의 스즈끼(영목(鈴木))정권(政權)이 한(韓)·일정상(日頂上)회담을 호소하게 되고 머지 않아 「트뢰도」 캐나다 수상(首相)의 내한(來韓)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역시 새 태평양(太平洋)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는 접근(接近)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정부(日本政府)의 자세전환과 더불어 한(韓)·일(日)관계는 벌써 외상회담(外相會談), 각료(閣僚)회의, 의원연맹(議員聯盟) 회의 등을 거치면서 정상회담(頂上會談)을 위한 정지(整地)작업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물론 그렇다고 80년대 한(韓)·일(日)관계의 재정립(再定立)을 바라는 우리 측의 목표가 그리 쉽게 타결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韓)·미(美) 새 관계(關係)에 이끌리며 안보(安保) 및 경제(經濟)면에서 대한협력(對韓協力)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日本)의 처지이고 보면 「공짜안보(安保)」의 이기(利己)를 벗고 아(亞)·태지역(太地域)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의 시대적(時代的) 책무는 어떤 형태로든 더 부과돼 갈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처럼 우리 한국(韓國)과 미국(美國)을 축(軸)으로 하며 양국이 주도(主導)하는 새 태평양시대(太平洋時代)는 날로 활력(活力)과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소련(蘇聯)을 비롯한 공산세력(共產勢力)의 침투를 막고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전진시키면서 역내(域內)의 공동번영을 기(期)하려는 이상(理想)과 설계(設計) 및 진행(進行)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한 향도역(嚮導役)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韓國), 한국민(韓國民)의 역할과 책무는 확실히 세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새시대(時代)를 개화(開花)시키는 사명(使命)의 열쇠와 지름길 또한 바로 그 완수(完遂)에서 찾아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 앞에 우리는 첫째로 새 태평양(太平洋)시대의 주역(主役)으로서 자체의 내부 안정기조(安定基調)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모처럼 부푼 해외동포사회의 새 기운까지 합(合)치면서 온갖 부문에 걸친 밝은 건설(建設)과 단결(團結), 공헌으로 동참(同參)의 날개를 펼쳐나가야 한다.

둘째, 이미 확보한 성과를 놓침없이 다지고 확대시키며 활착(活着)시킬 일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경우 모든 상대방과 우호, 친선을 앞세우고 동반자적(同伴者的) 상호보완 및 실천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우월감(優越感)이나 일방적인 이해(利害)타산에 집착하는 자태는 삼가해야 한다. 지난날 식민(植民)시대를 경험한 동남아(東南亞)지대 여러 나라에선 이 점(點)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밖으로 미국(美國)과의 유대(紐帶)관계를 보다 돈독히 함은 물론, 안으로 개발(開發)과 근대화(近代化)의 본보기로서 우리 자신의 자체확인(自體確認)을 실질화하는 가일층의 분발이 촉구된다. 특히 과학기술(科學技術)의 향상과 자본축적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와 아세안 우방(友邦)들의 실질협력(實質協力)증진에 대하여 북괴(北傀) 등 일부 바깥 세력이 질시와 방해공작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에 상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방면적인 대응(對應)자세 정비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한편 다른 진출경쟁국(進出競爭國)들에 대한 경계 또한 소홀히 말 일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은 「세계 속의 한국(韓國), 그리고 신뢰(信賴)받는 한국(韓國)」으로서의 발전(發展)을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전진이다. 그리고 우방국(友邦國)들과의 「협력(協力)의 확대」에 즈음한 우리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정직(正直)해야 하고 상호신뢰(相互信賴)를 기초(基調)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當爲性)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신생(新生) 개도국(開途國)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활력(活力)과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민족적(民族的) 자긍심(自矜心)에 관하여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영예로운 희망(希望)과 기대(期待)에 설레이면서도 장기적(長期的)이고 벽찬 역할(役割)과 과제(課題)가 우리들 어깨에 걸려 있음을 다가선 태평양(太平洋) 새시대(時代)는 가리켜 주고 있다.

「올림픽 국민(國民)」으로서의 바람직한 정신자세(精神姿勢)

올림픽이란 지(智)·덕(德)·체(體)의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총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바, 국민(國民) 모두의 단합된 힘과 예지(叡智)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지 용 우 (池龍雨)

〈경향신문(京鄉新聞) · 논설위원(論說委員)〉



바덴바덴의 압승(壓勝)이 뜻하는 것

한국(韓國)이 세계 16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말이 쉽지 올림픽이라면 범세계(汎世界) 최고 최대의 스포츠 제전(祭典)으로서 그 방대한 예산과 경비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들조차 선뜻 유치할 엄두를 못내는 거창한 행사인 것이다. 하물며 한국(韓國)과 같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 그런 세기적(世紀的) 잔치를 베풀 개최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경이(驚異)임에 틀림없다.

근대 올림픽 사상(史上) 개발도상국으로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나라는 멕시코(68년) 밖에 없었다. 멕시코가 선례(先例)를 남기기는 했지만 개발도상국가이자 동시에 분단국(分斷國)으로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아직 없었다. 분단국으로는 서독(西獨)이 72년 뮌헨올림픽을 치른 바 있으나 서독(西獨)은 선진국이므로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개도국(開途國)이자 분단국(分斷國)이란 2중 헨디캡을 안고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는 한국(韓國)이 처음인 셈이다.

지난 9월 30일 바덴바덴총회에서 한국의 서울이 일본(日本)의 나고야를 압도적 표차로 물리치고 88년 하계(夏季)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을 때 세계가 놀랐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북한(北韓)의 끈질긴 방해와 일본의 오랜 유치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압승(壓勝)한 것은 한 마디로는 설명될 수 없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순수 스포츠 이념적(理念的)으로는 국가와 인종(人種)과 종교와 정치를 초월하는 올림픽정신의 승리라고 우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으로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신장됐음을 뜻한다. 국제적 지위의 신장은 튼튼한 국력(國力)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그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반증(反證)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표(票)의 분포를 보아 중(中)·남미세력(南美勢力)을 비롯한 제3세계(世界) 표의 상당수와 일부 공산권(共產圈)까지도 「서울찬성」에 가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한국의 눈부신 국력(國力)성장과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의 정치적 정통성(正統性), 궤도에 오른 서울시(市)의 올림픽 준비작업, 올림픽의 선진국(先進國) 독점(獨占)경향에 대한 제3세계회원국들의 반발 등 복합적(複合的)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선 바덴바덴의 승리는 올림픽 유치성공이라는 단순한 의의를 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영향력 증대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몽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7년, 7년 뒤면 싫든 좋든 우리는 올림픽의 「호스트(주인)국(國)」이 될 수밖에 없다. 7년이라는 긴듯 하면서도 짧은 기간이다. 이제부터는 올림픽 유치의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기분으로 돌아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국력과 대회개최 능력을 신임한 때문이며, 신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계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선진국도, 경제대국도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제 한창 뻗어나는 개발도상국의 하나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택한 것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올림픽 시설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지구(地球)의 오지(奧地)에 있는 진기(珍奇)한 나라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 같은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다만 극동(極東)의 이 작은 분단국이 그 만만치 않은 국력이나 국민의 의욕(意慾)을 보아 올림픽도 능히 치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어보자는 생각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7년간 대회준비를 하는데 필요 이상의 재정적 압박(壓迫)이나 강박관념(強迫觀念)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선불리 선진대국을 흉내내다 참가국들로부터 냉소(冷笑)를 사느니 보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한국적(韓國的)인 맛과 개성(個性)을 살려 지구가족의 마음 속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文化)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양식(良識)있는 지성인들의 여론은 「88 서울올림픽」을 스포츠 만이 아니라 「문화(文化)의 올림픽」으로도 승화(昇華)시켜 보자고 호소한 바 있다. 올림픽을 주최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문화민족의 자존(自尊)과 긍지를 지켜 「문화의 올림픽」에

서도 금메달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국(開國)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올림픽이야말로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당당한 문화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이다. 사실 우리의 이웃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에게 비친 한국은 아직도 중국(中國)이나 일본문화권(日本文化圈)에 종속돼 있는 약소국(弱小國)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독자적인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세계인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스포츠외적(外的)으로도 얼마나 큰 비중(比重)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는 역대(歷代)대회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68년에 개도국(開途國)으로서의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주최한 멕시코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땀는지는 기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올림픽기간에 목격한 찬연한 마야 문명(文明)의 매혹만은 좀처럼 기억에서 지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멕시코는 올림픽을 활용한 전통문화소개(傳統文化紹介)에 크게 성공, 묻혀있던 마야문명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각광을 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부수적으로 멕시코관광(觀光)붐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日本)도 역시 도요쿄올림픽 기간 중 전통예술인 「노오」(능(能)와 「가부끼」를 비롯해 여성복장(女性服裝) 2천년전(展), 찻잔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심지어 일본도(日本刀)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일본적(日本的)인 것」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이기 이전에 춤과 노래와 기예(技藝)가 있는 문화의 향연(饗宴)이었다. 그러므로 「문화」가 배제된 올림픽이란 삭막하고 냉랭한 메달경쟁일 따름이다. 역대 올림픽이 그러했듯이 전통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들은 경기 프로그램 못지않게 예술전시와 민속(民俗)행사를 중요시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왔다. IOC현장에도 높은 수준의 예술전시(건축, 음악, 회화, 조각, 사진, 교향악단 등)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대회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체육의 기량을 겨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도 피크를 이루는 종합예술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대회운영과 조직력이 다소 미숙하다 하더라도 대신 문화, 예술부문에 참가 각국 선수와 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미숙은 능히 커버되며 「성공적」이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어떤 것이 「한국적(韓國的)」인 올림픽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자(論者)에 따라서 견해가 구구할 것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해 볼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세계에서 몰려 올 선수 및 임원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가장 한국적(韓國的)인 문화유산과 풍물(風物)들」을 유감없이 보여주도록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짜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앉아서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인들에게 깊이 부각(浮刻)시켜 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써가면서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展)」의 미국(美國)순회를 비롯해 민속 예술공연단, 국악(國樂)연주단 등의 해외파견을 추진해 왔다. 그 경비의 10분의 1만 들여도 서울 올림픽기간 중엔 그 몇 10배 아니 몇백배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당장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만 추려보아도 순수 「한국적(韓國的)인 것」은 너무도 많다. 「한국(韓國)미술 5천년전」만 해도 훨씬 큰 규모의 국보급(國寶級) 문화재 보물 등이 총망라된 전시장을 서울과 경주(慶州)에 나누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경연(民俗競演)대회도 각도의 무형(無形)문화재와 토속(土俗)문화를 망라해 외국인들의 눈에 흥미진진하게 보이도록 엮을 수 있고 그밖에 국악(國樂)연주공연, 한국 공예전(工藝展), 전통오페라에 해당하는 창(唱)과 굿, 탈춤, 농악(農樂) 등 얼마든지 있다.

바람직한 문화국민(文化國民)의 자세(姿勢)

이 모든 물리적(物理的) 조건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위(品位)있는 문화국민, 문화시민의 정신(精神)자세를 갖추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전통 속에 은연 중에 형성되어 온 내적(內的) 자각(自覺)이며 자존(自尊)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민으로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7년 안에 얼마든지 개선(改善)할 수도 있는 의식(意識)의 세계(世界)라고 본다.

우리가 아무리 올림픽을 시설과 조직, 운영 면에서 완벽하게 치른다고 해도 만일 무질서(無秩序), 부도덕(不道德)한 시민상(像)이 이방인(異邦人)들의 눈에 비친다면 코리아의 이미지는 두고 두고 나쁜 것으로 투영될 것이므로 결국 서울올림픽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품위(品位)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문화국민의 기품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설혹 진행과정에 실수가 있다 해도 한국민(韓國民)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될 것이다.

진부(陳腐)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 알려져 왔다. 장유유서(長幼有序), 남녀유별(男女有別), 겸양지덕(謙讓之德) 관념 등이 유독 까다로왔던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던 독특한 질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儒敎的)인 영향 탓 인지는 몰라도 지난날에는 오히려 너무도 지나칠 정도로 예의범절(禮儀凡節)이 까다로왔던 게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변질(變質)되기 시작 어느덧 부도덕하고 물염치한 군상(群像)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줄서기 보다 새치기를 요령(要領)의 본분으로 착각하고, 거리에 침을 마구 뱉고 휴지, 궤종 등을 함부로 버리며, 관광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능사로 삼는 상도의부재(商道義不在) 등이 활개치는 문화국민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본바탕에는 없던 이런 악습(惡習)과 폐풍(弊風)들은 분명히 일제(日帝) 36년 통치기간에 생성된 민족성의 굴절(屈折)현상이며, 해방 36년간 퇴폐적 서구(西歐)문화의 무비판, 무

차별 수용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밴 제2의 천성(天性)인 것이다.

이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역사의 수난기(受難期)와 과도기에 생성된 이같은 악습과 폐풍을 말끔히 몰아내고 우리 민족 본래의 미풍(美風)과 양속(良俗)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버릇은 국가발전, 민족번영의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하루 속히 추방되어야 할 정신공해(公害)인 것이다.

「나」 아닌 「우리」의 의식(意識)의 중요성(重要性)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직(正直), 질서, 창조(創造)의 기치아래 사회정화(淨化)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의로운 민주복지(福祉)사회」를 구현하자면 먼저 그 정지(整地)작업으로서의 사회정화(淨化)부터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혁기에 정부 주도로 단행된 사회정화운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묵은 때와 부조리(不條理)를 씻어낸 것이 사실이다. 사회정화운동으로 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공공연한 뇌물(賂物)행위나 반질서(反秩序)사범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민원부조리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국민의 「의식개혁(意識改革)」으로까지 연결되려면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국민 개개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우리」보다 「나」와 「내가족」이란 이기(利己)가 훨씬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것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대아(大我)관념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는 문화국민이 될 것이다.

두 서너사람만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례로 줄을 설 줄 아는 질서의식이 아쉽다. 교통순경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엄격히 교통신호와 표지판대로 움직여주는 운전자들의 자율성(自律性)이 아쉽다. 우리는 일본인(日本人)들을 「섬나라 근성(根性)」이나 「경계동물」이나 혹 평하면서 그 몸에 밴 친절성(親切性)을 본받는 데는 인색하다. 그네들의 친절을 감흥도 없는 「기계적인 친절」이라고만 비꼬울 줄 알았지 그 기계적인 친절이나마 닮아보려는 노력은 추호도 하지않고 있다.

올림픽은 모두(冒頭)에서도 강조했듯이 단순한 체육제전(祭典)만은아니다. 이를테면 지(智)·덕(德)·체(體)의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총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림픽은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몇몇 사람의 머리와 수완(手腕)만 가지고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온 국민이 호흡을 같이하는 단합된 힘과 예지(叡智)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선 한꺼번에 지구상의 온갖 종족(種族)을 손님으로 맞게 되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친절하고도 성실한 접대정신이라 하겠다. 물론 그것이 「비굴한 친절」이나 분수에 넘치는 「과잉 서어비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과 분수내에서의 봉사(奉仕)가 요청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지금부터 가꾸어 이방인(異邦人)들에게 정결(淨潔)한 코리아의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자면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문화시민의 자세와 긍지가 필요하다. 거리에 침을 뱉는 일, 휴지나 담배꽂이를 되대로 팽개치는 행위, 차도를 무단(無斷)횡단하는 일, 경기장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빈병 따위를 집어던지는 행위 등은 절대금물이다. 경기장에서선 선수만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스탠드의 관중(觀衆)도 장내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 1등국민의 면모를 과시해야 하는 것이다.

「타율(他律)」 아닌 「자율(自律)」질서(秩序)의 요청

한 나라, 한 국민의 문화수준은 질서외식의 높낮음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서란 시민들의 자율적(自律的) 이성(理性)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원초적(原初的) 도덕규범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질서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혼란과 혼돈과 불안, 불편(不便), 불화(不和)만이 사회를 어지럽힐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값비싼 대가(代價)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공동의 선(善)인 질서만은 기어이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당위(當爲)를 안게 된다.

질서의 근본개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일견(一見) 「질서」 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질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질서란 타율(他律)이 개입(介入)되지 않은 자율질서를 가리킨다. 자율에 맡기면 지켜지지 않고 타율과 강제(物理的)의 힘이 가해져야 비로소 유지되는 질서야말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사이비(似而非) 질서인 것이다. 교통질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해방후 36년동안 해마다 연중(年中)행사처럼 「강조기간」이다, 「특별단속기간」이다, 설정해 놓고 그 여행(勵行)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다. 효과는 그때 뿐, 그 기간이 지나기가 무섭게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하여 「단속과 위반(違反)」의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미완(未完)의 숙제인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주국민으로서 중진권(中進圈)도 서서히 벗어나 선진권(先進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로서 여지껏 사회 기강의 초보라 할 거리질서 하나 바로잡히지 않고 있대야 어디 문화민족임을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 하잘 것 없는 미물에 불과한 벌과 개미 그리고 하늘을 줄지어 날으는 기러기의 세계에도 엄격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향차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임을 자처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질서외식이 희박하다면 그야말로 어부성설(語不成說)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점은 시간관념이 정확한 국민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국제화(國際化)시대와 개방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비단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각종 국제대회가 잇달아 열릴 것이다. 경기장 내의 시설들이 아무리 초(超) 현대적이고 전산화(電算化)되어 있다 해도 정작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희박하다면 비문화인(非文化人)이란 평가절하를 면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한때 「코리아 타임」의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붙어다녔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짜증이 난 어느 외국인의 입을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다면 그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한국인들의 시간관념도 많이 개선되어 「코리아 타임」이란 한때의 유행어도 사라져 버린 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정시(正時)보다 보통 5~6분 늦어지는 일이 흔하다. 연(延)·발착(發着)이 잦은 KAL노선을 가리켜 어느 미국인이 「코리아 에어라인 올웨이즈 레이트」(Korean airline always late)의 약자(略字)라고 꼬집은 해학도 예사로 웃어넘길 일은 아닌 성 싶다.

아름든 지금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 및 86년 아시안 게임이란 2대 국제(國際) 스포츠 잔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두 국제행사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깨끗한 시민의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문화시민(文化市民)의 높은 질서외식과 민주시민상(像)을 보여 주도록 국민 각자가 배전의 노력과 자각(自覺)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해 둔다.

민주정치(民主政治)와 민주생활(民主生活)

민주적(民主的) 가치관(價值觀)이 국민(國民) 개개인(個人)에게 내면화(內面化)되고 그것이 다시 생활(生活)로 표현(表現)됨으로써 정치적(政治的)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이루어진다.

박 석 균 (朴錫均)
 <KBS 연구위원(研究委員)>

1. 민주주의(民主主義)

2차대전(次大戰) 이후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시대 조류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던 파시스트가 패망하자 민중에 대한 민주주의의 호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어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민주주의의 탈을 쓰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됐다.

민주주의가 이처럼 보편적(普遍的)으로 쓰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주의의 정의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링컨의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과 「국민의」 정치란 히틀러나 스탈린까지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비(非)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기준은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나 아니냐에 있다. 그러나 그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것도 그것이 정치의 사회화과정(社會化過程)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로서의 권력구조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제도로서의 권력구조가 서구 의회(議會)민주주의의 그것을 본뵈었다든가 보통, 비밀, 평등 선거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전후(戰後) 신생독립국가들이 거의 예외없이 서구의 의회민주주의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정치실상(實相)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협잡, 매수,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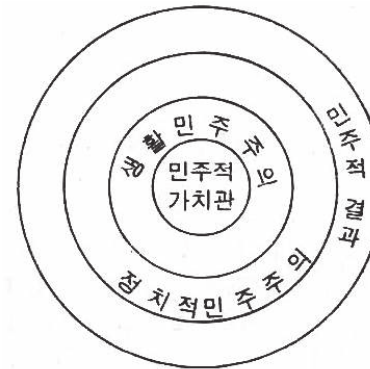
박, 탄압 등 허다한 부정(不正)선거가 판을 쳐, 집권당만이 유리한 고지를 독점하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느 한 면만으로 보아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서구의 현대 민주주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멀리는 그리스시대의 도시 국가(Polis)의 참정권(參政權)시대를 거쳐 봉건시대(封建時代)의 왕(王)과 영주간(領主間)의 계약정신(契約精神)을 이어 받고 기독교의 만민평등사상(萬民平等思想)을 수용하면서 이것들이 현대적(現代的)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온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역사, 철학, 문화, 정치제도 등 다각도로 조감했을 때 비로소 그 실체(實體)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적 가치관이 국민 개개인에게 의심할 바 없는 가치관으로 내면화(內面化)되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 일상화해야만 비로소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 민주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이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는 ① 이념과 가치관 ② 정치체제 ③ 생활민주주의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체제란 사실상 민주적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민주주의의 외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후의 신생 독립국들이 이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히려 외적 표현인 정치제도만을 중시해 온 경향이 있다. 후진국 민주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점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민주주의적 가치관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수단(手段)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 「인간」의 범주에서 평민이 제외된 적도 있고 노예가 제외된 적도 있다. 혹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또는 교육의 수준에 따라 「인간」은 선발된 사람만에 국한하는 수가 많았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부(天賦)가량(天賦不可浪)의 권리(權利)를 가졌다고 인정(認定)되기는 근세에 와서나 이루어졌다.

어떻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시부터 선(善)한 것이고 현대적(現代的)이고 양심적이며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결국 양심적이고 선한 그리고 정의의 개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이고 사회의 「일반의지(一般意志)」는 이 개개 인간들의 의사를 산술적으로 집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개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도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하는 인생(人生)존중의 사상이 일찍부터 발달해 왔으나 그것이 서양처럼 의회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동양의 인간이 가족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 간주된 것에 반해 서양의 인간은 독립된 개개인이 전제되고 그러한 개인의 집합체로서 사회를 파악하고 있는 개인주의 철학과 집단(가족)주의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 문화의 에퍼크(Epoch)를 보면 동양은 대가족제도로 될 수밖에 없었고, 서양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서양의 원시사회는 유목사회였다. 유목사회는 혼자서 양(羊)떼를 몰고 천하를 유랑하는 것이다. 독립된 개인으로 돌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철학은 개인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양은 원시사회부터가 정착농경사회(定着農耕社會)였다. 정착농경사회는 천하를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뿌리를 박고 대대(代代)로 사는 것이다. 토지의 부양(扶養)능력은 유목농지보다는 농경농지가 훨씬 좋다. 따라서 자연히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많은 인간을 부양할 수 있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며, 여기서는 개인주의보다 대가족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개인주의와 대가족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철저히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자유이다. 이를테면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풀이 떨어져, 산을 넘으면 풀밭이 있을 줄 알고 양떼를 몰고 산 넘어에 갔더니, 그곳엔 풀은 한 포기도 없고 돌자갈 밖에 없었다고 하자. 그러면 양떼는 굶어 죽게 마련이다. 양떼가 굶어 죽으면 사람도 굶어 죽는다. 그러나 이 때에 굶어 죽는 책임은 양떼를 그리로 몰고 간 자기 자신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자유는 「자유」의 결과에 대해 자기 스스로 100%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자유인 것이다. 라스키 교수가 자유는 책임이다(Liberty means personal responsibility)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도 음미해 볼만하다. 이 밖에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써 『자유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때의 양심이란 「방종(放從)(License)이 아닌 책임 질 수 있는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유란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의 조건이며, 너의 자유는 나의 자유의 조건』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따

지고 들어가면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책임과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스키의 말대로 한 마디로 『자유는 책임(責任)인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의 대가족제도에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벌, 가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자기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어느 집안의 한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잘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어른의 막내」라든가 「동생」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그 집단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한 집안에 탕아가 있고 생산능력이 없는 불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 안에서 부양되고 교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하여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몬순시대(Monsoon)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의 민족들이 말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없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양문화를 흔히 신민문화(臣民文化), 권위주의적문화(權威主義的文化), 유교문화(儒敎文化) 혹은 농경문화(農耕文化)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3. 민주시민 상

민주주의는 앞에서 누누히 얘기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들이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는 권리만을 달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핵가족화(核家族化)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젊은 여성(女性)들이 결혼할 때는 친가에서 되도록 많은 지참금품(持參金品)을 가져가려 한다. 이것은 분명히 대가족제도의 유물이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딸이 결혼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家門)에서 자기집 가인(家人)을 다른 가문으로 출가(出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딸의 출가를 통해 자기집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참금품(持參金品)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現代)여성도 대가족제도의 유물인 결혼 지참금품을 되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핵가족(核家族)을 주장하며 시부모의 부양과 같은 대가족제도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한다. 결혼은 대가족제도의 풍속대로 하되 살기는 핵

가족제하(核家族制下)에서 살겠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 선택하겠다는 이기주의(利己主義)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자유를 부여한 것이 동양에서는 에고이즘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다른 동양사회에 서양의 개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접착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평등의 이념도 동양사회에서는 다분히 왜곡되고 있다. 원래 평등은 「만인(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며 조건의 평등이지 사회적 지위나 부(富)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나와 남이 동질(同質) 동량(同量)의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부자가 된다는 것도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남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이 부자가 되고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생겨나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합리화 해주는 구실을 평등이 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의 이념은 「이기주의」로 화하고 평등의 이념은 「질투심」으로 변신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 될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일본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여 그것을 토착화(土着化)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평등에 따르는 분수(分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생활이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나 스스로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자아의 발견과 계발

민주주의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아(自我)의 발견(發見)」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통적 신분사회로부터의 자아의 발견, 신(神)으로부터의 인생(人生)의 해방, 자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각성 등은 모두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평가는 그가 소속된 집단이나 신분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되게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노력과 능력 이외의 어떤 조건도 개인을 속박하지 않는다는 사회가 바로 「자각(自覺)된 자아(自我)」로 형성된 사회인 민주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랜 동안 대가족제도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인간을 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보다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어느 대학(大學)을 나왔느냐? 어느 지역출신이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더 중히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벌(門閥), 지연(地緣), 학벌(學閥), 혈연(血緣) 등에 의해 개인이 평가되고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이론을 입으로 훌륭하게 말하는 지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의 생활이 문벌(門閥), 지연(地緣), 학벌(學閥) 등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결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육성됐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과제는 대가족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인 인정, 정의(情直), 상부상조, 옷사람에 대한 존경(굴종이 아님), 공동체 의식을 살리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를 계발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와 철학의 변용의 문제로서 필자도 명백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도전의 상대인 것이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자아의 발견이라는 주제는 계급의식(階級意識)과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급주의(階級主義)(예(例)컨대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인생(人生)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階級)이라는 집단에 소속된 분자(分子)로 밖에 보지 않는다. 때문에 몇몇 분자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여 전체(全體)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자아, 즉 개인은 집단 속에 매몰되고 만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의 인권(人權)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집단주의 소산이라고 할 밖에 없다.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상으로서 「자아의 각성」 다음으로 강조돼야 할 것은 사회적 지성을 개발함으로써 자아를 끊임없이 계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지성은 다르다. 지식이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 또는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은 지각(知覺)된 것을 정리,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성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번영케 하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 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혁명주의요, 또 다른 하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발해 나아가자는 점진주의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혁명이 인류에게 평화, 번영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 예는 없다. 오히려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천천히 나아가는 점진주의가 민주주의로 꽃피웠고 복지국가의 실현도 가능케 했다. 요컨대 혁명이란 반사회(反社會)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反)사회적 지성인 것이다. 우리가 혁명의 열정에 들끓고 있는 허다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혼란과 혼미를 볼 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반(反)사회적 지성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특히 이 사회적 지성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사회적 지성으로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타인과의 협력이라는 태도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독립해서 또는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사회적 산물이다. 생산의 가장 원시적 단계

라고 하는 농업생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정성어린 땀방울은 말할 것도 없고 비료 공장, 농기구 공장, 수송과정과 판매과정 등 허다한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란 협력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계급주의자(階級主義者)들은 계급(階級)과 계급간의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협력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증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자유가 자유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의 조건이어야 하고 너의 자유는 나의 자유의 조건』이어야 한다. 인간이 서로 투쟁만을 한다면 너의 자유는 나의 부자유의 원인이며 나의 자유는 너를 속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폭력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회적 지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편견(偏見)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몽테스키외는 『국민이며 편견에서 해방되라!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편견에서 해방되라!』고 강조하였지만 편견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것을 사회적 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多數)의 횡포(橫暴)」도 「소수(少數)의 비굴이나 반항(反抗)」도 모두 편견인 것이다. 다수(多數)는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사회적 지성은 개발되고 사회 그 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리의 과제

민주사회의 특징을 열거한다면 ①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회, ②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③ 자율적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 ④ 지성 우위의 사회 ⑤ 다원(多元)사회 ⑥ 공개사회 ⑦ 진보적 사회 ⑧ 타협과 협동의 사회 ⑨ 다수와 소수가 다 함께 존중되는 사회 ⑩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회 ⑪ 과학적 실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존중되는 사회 ⑫ 법치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보더라도 좋지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현상이란 좋다고만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그러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양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을 민주적 자질이라고 해도 좋다. 이러한 민주적 자질을 심리적 특성으로 구체화하여 분류하여 주요한 것을 예시한다면 ① 독립성과 주체성 ② 자율성 ③ 타인에 대한 존경심 ④ 이견(異見)의 존중 ⑤ 타협심 ⑥ 협동심 ⑦ 신뢰성 ⑧ 개방성 ⑨ 도덕성 ⑩ 질서의 존중 ⑪ 실험적 태도 ⑫ 창의성 ⑬ 집단에 대한 신념 ⑭ 적극적인 사회참여 태도 ⑮ 사회적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말하면 국민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느냐고 했을 때 선듯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민주주의란 원래 현실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 완성적인 이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

주주의는 기성품이나 완성품이 아니라 단지 민주화의 정도를 나타내 줄 뿐인 개념인 것이다.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도 비(非)민주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완성품으로서의 서구 민주주의도 수 세기에 걸쳐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이룩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진전해오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짧은 것이다.

오히려 일본 식민지하에 수탈 당하고 해방과 더불어 분단의 비극 속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서 냉전의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때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선량들이 일본식민지하에서 생겨났던 수탈을 위한 관료의 권위위식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러한 이미지로부터 해방돼 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한때 정치를 말로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일이 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정상배만은 정치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국민적 의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와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장래를 크게 좌우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국민의 태도도 또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치지도자를 향해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민이 자기 양심을 향해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민주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경제(韓國經濟) 재도약(再跳躍)의 전략(戰略)

성장(成長)과 분배(分配), 성장(成長)과 안정(安定), 안정(安定)과 보장(保障) 등은 어느 것을 추구(追求)하면 어느 것을 양보해야만 하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관계에 있는데…….

이 만 기 (李滿基)

〈한양대(漢陽大) 경영대학원장(經營大學院長)〉

1.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새 목표(目標)

지금까지 개발 초기에는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 중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원칙적으로 국부(國富)의 증대와 균등한 분배와 경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개발계획, 즉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기개발국(既開發國)인 선진국은 경제의 안정과 분배를 위한 조정정책을 위주로 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초기단계에는 경제성장, 곧 국부(國富)의 증대가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물질적 기반과 국가사회의 공동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70년대까지 가난을 벗고 잘 살기 위하여 10%의 높은 성장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왔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하였거니와 최근에는 그러한 성장(成長)의 결과가 소수의 대기업가와 그들을 지원한 지배층에게만 돌아가고 근로자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므로 성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빈부(貧富)의 격차, 즉 분배(分配)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서민생활의 어려움, 즉 안정(安定)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분배(分配)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같이 잘 살자는 것, 즉 분배(分配)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창의(創意)와 노력(努力)으로 돈을 번 사람과 게으르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면 누구도 잘 살려고 노력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창의력(創意力)이 있고 노력만 하면 다같이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그 결과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해도 돈과 요령만 있으면 잘 살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댓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 한다. 부조리를 제거하여 정의로운 사회(社會)를 만들자는 것이 그 뜻일 것이다.

더우기 개발초기에는 중요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먼저 발전하게 하는 불균형 성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유명한 후진국 경제의 이론의 하나인 「허쉬만」의 불균형(不均衡) 성장론(成長論)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할 일은 많은데 적은 돈과 적은 힘으로 동시에 다 성장시킬 수 없으며 중요한 산업을 먼저 발전시키면 다른 산업은 이에 뒤따라 발전하게 되어 결국은 모든 산업이 발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비료공장을 지어서 비료를 값싸고 풍부하게 생산 공급하면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어 농업부문도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불균형성장방식(不均衡成長方式)을 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먼저 성장한 기업이 뒤에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도록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업의 생산을 독점하고 다른 기업(企業)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로막았던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만일 비료(肥料)공장을 지었다라도(이 부분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몇몇 기업(企業)이 비료(肥料)생산을 독점하여 싼값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농업부문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우기 독점해서 번 돈으로 농업부문까지 손을 대서 다른 사람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았다면 그것은 기회(機會)의 균등을 저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있어 정책지원을 받고 성장한 대기업은 여러 관련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뒤따라 발전하도록 길을 터주지 않고 그러한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미 있었던 중소기업까지 흡수 합병하여 재벌군을 형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도록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을 할 것이며 정부는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도록 간접적인 조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물가(物價)가 오르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경제의 흐름을 비뚤어지게 하여 기회의 균등을 해치게 하므로 물가(物價)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物價)가 오를 때에는 모든 것이 똑같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비싸게 판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경제활동의 댓가를 불공평하게 배분시킨다. 또

한 석유파동 후에는 원가로부터 모든 값을 추켜올리므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다같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 어려움을 고르게 분담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역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비해 봉급이 적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창의(創意)와 노력(努力)에 의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 공정하게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불의(不意)의 재난과 불행을 방지하고 인간(人間)다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궁극목표라고 보아야 한다.

2. 경제정책(經濟政策)의 과제(課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과거에는 성장(成長)만을 추구했으나 앞으로는 성장(成長), 분배(分配), 안정(安定), 보장(保障)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성장(成長)과 분배(分配), 성장(成長)과 안정(安定), 안정(安定)과 보장(保障) 등은 어느것을 추구하면 어느것을 양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균등(均等)한 분배를 목표로 재산(財産)소득에 과세를 중하게 하면 저축을 적게 하여 성장(成長)을 적게 해야 하며 반대로 재산(財産)소득에 세금을 적게 하면 분배가 불공평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자의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점차 재산소득(財産所得)에도 중과(重課)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성장(成長)과 안정 등 다른 목표 상호간에도 생긴다. 서로 충돌되는 목표를 조화있게 조정하지 못할 경우 두 마리의 새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간적(時間的) 선택(選擇)과 어떤 산업,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공간적(空間的) 선택(選擇)을 적절히 하면서 전체적인 산업발전(產業發展)과 국민(國民)의 부(富)를 증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과거 19세기에 산업혁명(產業革命)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같이 서로 다른 정책 목표(政策目標)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역사학파(歷史學派)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치적(政治的) 또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 사회개량정책(社會改良政策)을 제시하였다.

「슈몰러」는 「경제적부정(經濟的不正)을 배제하여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중류(中流) 또는 하층계급(下層階級)의 도의적(道義的), 물질적(物質的) 향상(向上)을 보증할 수 있는 사회입법(社會立法)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이와같은 사회윤리적(社會倫理的)인 주장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形式的)이고 주관적(主觀的)인 가치판단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들을 강단사회주의자(講壇社會主義者)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특히 「막스 베버」는 주관적(主觀的)으로 무엇이 옳다든가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個人的)이거나 어떤 계층이나 당파(黨派)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같이 옳다든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윤리적(倫理的) 가치판단(價值判斷)을 내리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정책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목표에 대해 무엇이 부정(不正)이고 무엇이 정의(正義)라고 할 수 있을까. 예컨대 성장(成長)은 부정(不正)하고 분배(分配)는 정의(正義)로운 목표인가 라는 뜻이다.

개개의 경제행위(經濟行爲)에 대한 부정(不正)은 법(法)이 따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목표(目標)가 무엇이 부정(不正)이고 무엇이 정의(正義)로운가를 객관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論議)는 많은 억지 또는 가설(假設) 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모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주장할 때에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더욱이 현재에는 「성장(成長)과 안정(安定)」 등의 두 개의 목표중 어느것이 더욱 중요한가 따지기 이전에 안정(安定) 그 자체도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과 불황(不況)이 겹쳐있기 때문에 물가(物價)를 안정시키려고 긴축을 할 것인가, 불황(不況)을 벗어나려고 긴축을 풀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79년에 우리는 덮어놓고 긴축만을 계속해 보았다. 당시의 경제팀은 해방후 고질화된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긴축을 계속했다. 그러나 원가(原價)가 오르는데 긴축을 해봐야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억제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경제를 깊은 불황(不況)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경제팀은 경제이론에 밝은 분들로 현실의 분석도 정확해서 매우 적절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물가(物價)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경기부양책(景氣浮揚策)을 쓴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누구도 인플레이션과 불황(不況)을 속시원하게 퇴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850년에 철학자 「칼라일」이 경제학자 「리카도」와 「멜터스」를 가리켜 「우울한 학문(學問)(Dismal Science)에 종사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풍자했었는데 60년대까지 화려했던 경제학(經濟學)은 70년대부터 우울한 경제학으로 변한 것 같다.

60년대에 「한센」은 「흔들이 의자는 없어졌다」고 큰소리쳤고 「새뮤얼슨」은 경제학이 「사회과학(社會科學)의 여왕(女王)」이라고 말했는데 없어졌던 「흔들이 의자」(경제불안(經濟不安)을 뜻함)가 되살아 났고 이제는 이를 제거할 방법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마치 암(癌)을 퇴치하려고 연구하는 의학자처럼 경제학자는 새로운 질병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어려운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개발초기(開發初期)에도 저수지가 없어서 물가(物價)가 오르고 노동력(勞動力)은 남아 실업자(失業者)가 많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미 경험한 셈과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당시 저수지의 과제는 자본재(資本財)인데 이는 자본제생

산국(資本制生産國)과의 경제협력(차관(借款))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문제되는 자원(資源)은 그러한 해결방법도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석유파동(石油波動)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새로운 질병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정책당국(政策當局)은 의사가 없는 질병과 싸우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며 과학적(科學的)으로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궁극에 있어 국부(國富)를 증진시키고 복지사회(福祉社會)를 구현하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좌표(座標)

한반도(韓半島)는 미국(美國)의 한 주(州)와 비슷한 작은 면적이면서 동북(東北) 「아시아」의 가장 요충지에 있으나 현재 남(南)·북한(北韓)이 양단된채 서로 동서(東西)양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하여 서로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렵고 불리한 지역에 놓여 있다. 한국(韓國)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특별히 한국(韓國)을 방문할 목적이 없으면 오다가다 들릴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일본(日本)은 태평양(太平洋)의 요새에 있고 이따금 소련(蘇聯)의 자극을 받기는 하나 직접적인 공산국(共產國)과의 대결의 위험도 적으면서도 우리보다 자유진영과의 왕래에 있어 좋은 위치에 있다. 더우기 일본(日本)은 공산국(共產國)과도 일찍부터 교역을 했고 앞으로 큰 제한이 없이 모든 접촉이 가능하다.

대만(臺灣)도 중공(中共)을 의식해야할 입장이나 세계무역(世界貿易)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보다 좋으며 또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무역(貿易)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무역(貿易)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 처럼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도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앞에서 말한대로 자원(資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아 무역(貿易)을 많이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할지 20년이 못된다. 영국(英國)은 1750년대부터 2백년 이상, 다른 「유럽」과 미국(美國)은 1850년대부터 1백년 이상, 일본(日本)은 1900년대부터 60년 이상 경제개발을 해왔다. 물론 2차의 세계대전(世界大戰)으로 그동안 파괴와 정체가 있기는 했으나 이를 빼더라도 모두가 50년, 1백년 이상의 경제개발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들 중 2차대전후의 신생국(新生國)들은 개발의 역사가 비슷하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는 과거 선진국(先進國)들이 오랫동안 걸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사회의 변천을 짧은 기간에 경험해야 했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구와 함께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를 결론짓는 것조차 간단하고 쉽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개발(經濟開發)을 통해 경제발전(經濟發展)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어

왔으나 최근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저수지의 확대가 더 어렵게 되었음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진 여건에서도 더 열심히 저수지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土地)와 자원(資源), 자본(資本), 노동력(勞動力)을 최선을 다해 이용하고 부족한 것은 외국(外國)에서 사오며 또한 기술(技術)을 개발하여 많은 생산물(生産物)을 생산하여 외국에도 수출(輸出)하고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국민생활(國民生活)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위하여는 우리의 형편에 맞고 장래성 있는 산업(産業)을 선택하여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토지(土地)와 자원(資源)이 매우 적다. 북한(北韓)을 제외하고 우리가 갖는 국토면적(國土面積)은 9백84만8천ha로 미국 9억3천6백31만2천ha의 95분의 1, 일본(日本) 3천7백23만1천ha의 4분의 1, 「필리핀」 3천만ha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人當) 토지(土地)는 26.2ha로서 미국 425.4a의 16.2분의 1, 일본(日本) 32.1a의 1.2분의 1, 「필리핀」 62.9a의 2.4분의 1이다.

국토(國土)가 이처럼 좁을 뿐 아니라 산악(山岳)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경지, 공장부지, 주택지, 도로 등의 가용토지(可用土地)는 전체 국토의 32.4%에 불과하다. 더우기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주요원료인 석유(石油)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철광석(鐵鑛石)은 경제적(經濟的) 가채량(可採量)이 1억2천만톤으로 포항제철에서 5년동안 쓰면 다 없어질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67.6%가 산악(山岳)이면서 임산자원(林産資源)도 없어 매년 원목(原木)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상과 같이 토지(土地)와 자연자원(自然資源)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부(天賦)의 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발전 요소를 자본(資本)과 기술(技術) 그리고 노동력(勞動力)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는 「쿠웨이트」와 같이 석유(石油)만 수출해서 1인당 1만4천8백90달러(1978)로 세계 제일의 고소득국(高所得國)도 있지만 한편 「스위스」와 같이 기름도 없고 농경지도 없는 산악지대(山岳地帶)에서 부존자원은 없지만 1인당 소득이 1만2천달러로 미국에 못지않은 높은 소득(所得)을 올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나 동남 「아시아」에는 1인당 소득이 아직도 2백 달러가 안 되는 절대빈국(絶對貧國)이 있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일본(日本) 및 「유럽」 각국은 1인당 소득(所得)이 8천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자연자원(自然資源)이 부족하지만 「유럽」이나 일본(日本)과 같이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산업(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자원(資源)과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유럽」의 경제소국(經濟小國)이 어떤 산업(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외국과

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자원(資源)과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유럽」의 경제소국(經濟小國)이 어떤 산업(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를 보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도 경제소국(經濟小國)이므로 이들의 발전(發展) 모습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도약(跳躍)

제(第)2의 도약(跳躍)은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도약을 의미한다. 과거 경공업(輕工業)을 중심으로 제1의 도약(跳躍)에는 비교적 쉽게 성공했으나 중화학공업은 개발이 힘들고, 석유(石油)파동으로 여건도 나빠서 몇년간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중화학을 잘 개발하여 다시 도약을 해야 함은 앞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 발전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해외시장에서 외국과 경쟁하여 이겨야만 가능하다. 국내시장이 작기 때문에 웬만한 산업(産業)은 수출을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없고 더우기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은 수출없이 출발조차 어렵다. 수출경쟁은 매우 치열해서 마치 전쟁과 같다.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작전계획(作戰計劃)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잘해서 우수한 전력(戰力)을 갖추어야 한다.

작전계획은 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계역사를 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영국(英國)보다 한발 앞서 신세계를 개척했으나 얼마 못가서 영국(英國)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것은 수출산업이 없어 수출경쟁에 져기 때문이다. 영국(英國)은 양을 쳐서 양모(羊毛)를 만들고, 인도(印度)에서 원면을 들여와 방직기계를 발명해서 직물을 대량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타국(他國)이 이를 따라 올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어느나라이든 국제수준에 이르는 생산력(生産力)을 갖는 산업(産業)이 있어야 수출(輸出)이 가능하며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생산력(生産力)을 그와같이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산업도 있다. 더구나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은 경공업(輕工業)에 비교가 안될만큼 업종(業種)도 많고 부품도 많아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한 것이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손대려할 때에 이 광범위하고 낯선 분야를 덮어놓고 대들지 말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생산잠재력(生産潛在力)이 있는 업종(業種)이어야 한다.

자원(資源), 자본(資本), 노동(勞動) 및 기술(技術)의 네가지 생산요소 중에서 어느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投入)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자원집약적(資源集約的) 산업(産業)을 개발하여 경쟁에 이길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는 노동이 풍부했으나 장래에는 점차 노동(勞動)도 귀해질 것이므로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 산업(産業)은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컸으나 점차 약해질 것이다. 현실에 있어 72~76년까지 노동력인구(勞動力人口) 증가율은 4.38%이었으나 77~78년에는 3.3%로

줄었고 앞으로 20여년 뒤에는 현재의 총인구(總人口) 증가율 1.6%와 비슷해질 것이다.

한편 총투자율(總投資率)은 26.9%에서 29.8%로 높아졌다. 이는 점차 노동집약(勞動集約) 산업으로부터 자본(資本)이 더 드는 분야를 택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근로집약 산업의 경쟁상대국은 노동이 풍부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므로 앞으로 후발공업국(後發工業國)이 뒤를 이어 경쟁상대국으로 등장하면 우리는 경쟁이 힘들게 된다. 그렇다고 노동집약산업을 당장 버려야 할 것은 아니나 장래에까지 미련을 가질 것은 못된다.

한편 우리는 최근 투자율(投資率)이 늘어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자본집약산업(資本集約産業)을 개발한 까닭인데 이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자본이 차츰 늘기는 하겠으나 자본(資本)이 많이 드는 산업을 1위의 수출국 그룹에 들게 하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 분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 서독(西獨) 등의 자본(資本)이 많은 경제대국(經濟大國)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79년 우리의 저축총액(貯蓄總額)은 1백72억 달러로 미국(美國)의 3천 8백72억달러의 23분의 1, 일본(日本)의 3천3백억달러의 19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人當) GNP는 91년에 가도 75년 가격으로 3천8백97달러로서 미국(美國)이나 일본(日本)의 79년 현재의 수준에 못미치며 그때에 설사 저축률이 40%(지금까지 세계 제1의 일본(日本)보다 높다)가 된다 해도 1인당(人當) 저축은 1천5백57달러도 79년 현재의 미국의 1천7백59달러나 일본(日本)의 2천8백49달러에 못미친다. 그러므로 자본집약산업(資本集約産業)을 개발하여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요원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업종에 따라 이 분야도 경쟁력을 기르면서 분수에 맞게 개발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정보산업에 가장 역점(力點)을 두어야 한다.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의 경제소국(經濟小國)들이 이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 기계(機械), 전자(電子), 일부의 석유화학(石油化學) 등은 노동, 자본, 자원의 원가구성화(原價構成化)보다 기술개발비가 높고 우회생산(迂廻生産)의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附加價值) 생산성이 높아서 개발할 가치가 크다.

우회생산(迂廻生産)이란 말은 생산의 단계가 여러 단계임을 가리킨다. 기계나 전자제품은 많은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며 부품을 만들기 위해 중간재료(中間材料)를 만든다. 그리하여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원료(原料)→소재(素材)→부품(部品)→조립(組立)→완제품(完製品)의 다섯단계가 있어 원료를 집어넣어서 당장 완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소비재나 자본집약적 산업보다 우회도(迂廻度)가 매우 높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다만 얼마씩 부가가치(附加價值)를 높이므로 전체의 부가가치(附加價值)가 높다. 이러한 제품값은 국제적으로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군용기(軍用機), 정밀기계(精密機械), 정밀전자기계(精密電子機械) 등은 유가상승(油價上昇)보다 더 빠르게 그 값이 오르고 있다.

자원이 없는 「스위스」, 「스웨덴」 등의 경제소국(經濟小國)이 잘 사는 것은 이러한 산업을 주력업종으로 갖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이 분야도 앞선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어려우나 수 많

은 전문부품업종 중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우수한 잠재인력이 있으므로 피나는 노력만 하면 단시일에 수출국 그룹에 끼일 수 있을 것 같다.

5. 기술(技術) 및 인력개발(人力開發)

작전계획을 세웠으면 전력(戰力)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과 자본형성일 것이다.

기술집약산업이 경제소국(經濟小國)의 전략산업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밀착은 인적자원(人的資源)이므로 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 및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77년에 한국(韓國)을 방문했던 「스웨덴」의 「허먼 허드베리히」 씨는 한국(韓國)의 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① 교육열이 높고 ② 관리능력이 있으며 ③ 생산기술을 빨리 배우고 ④ 근면하여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꼭 외국인의 말을 인용할 까닭은 없으나 자국민(自國人)은 주관적일 수 있고 특히 「스웨덴」은 경제소국(經濟小國)이어서 그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참고될 것 같다.

우리는 인구가 많지 않다. 국토에 대한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이어서 항상 인구(人口)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나 3천8백만 인구는 미국(美國)의 2억, 일본(日本)의 1억2천만명보다 적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量)보다 질(質)이 중요하다. 인구가 적으면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생산에 있어서도 미국(美國)의 GM이나 포드자동차회사와 같이 40만의 노동력을 거느릴 수 없다.

적은 인구를 갖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적(知的)수준과 솜씨 및 숙련을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집약산업이 유리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좋아서 이 분야의 개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동란 중에도 학교 교육을 중단치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교육기관(教育機關)이 더 늘어났으며 손재주가 있어 청소년(靑少年)들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년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기술개발은 빈약하다. 기술개발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피라미트와 같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장 밑바닥의 저변(底邊)에는 일반 교육투자가 차지하고, 중간에는 산업분야별 연구개발이, 상층에는 각 기업의 연구개발이 각각 차지한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이 높고 가계비에서 교육비의 지출(支出)은 엄청나게 크나 아직도 교육(教育)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다. GNP에 대한 교육투자의 비율이 79년 현재 2.6%로 경제소국(經濟小國)인 「네덜란드」의 7.9%(73년), 「덴마크」의 7.1%(74년), 「노르웨이」의 7%(74년)보다 현저하게 적고 경제대국(經濟大國)인 미국(美國)의 6.6%(74년), 일본(日本)의 4.3%(74년) 보다도 적다. 더우기 우리는 56년에는 4.7%이던 것이 61년에는 4.4%, 79년에는 2.6%로 경제가 성장될수록 상대적으로 교육(教育) 투자(投資)가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제(經濟)가 커지기 위해 생산투자는 많이 했으나 장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등한히 하였던 것이다.

산업별(產業別)로는 예컨대 기계공업분야는 기계공업기술, 석유화학분야는 석유화학기술, 전자분야는 전자기술 등이 필요하며 이는 각 분야별 연구기관(研究機關)과 연구투자지원이 담당한다.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년에 0.81%로서 미국(美國)의 2.16%(77년), 일본(日本)의 1.55%(76년)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비율이다. 기업의 각각 총매상액에 대한 연구비 지출은 78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0.7%로서 미국(美國)의 3.1%(75년), 서독(西獨)의 3.3%(75년) 일본(日本)의 1.6%(76년)에 비하여 역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비싼 돈으로 외국의 기술을 사오면서 스스로 연구하는 데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돈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의 기술보다 외국인의 기술이 좋다는 선입관(先入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암암리에 외국의 것이 좋다는 사대주의적 생각을 한다. 학자도 외국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기술도 외국인이 좋고 부품도 외국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의 것도 존중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술인력(技術人力)을 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잠재력을 다른 곳으로 전향시킨다. 분명히 외국유학생을 보면 물리학, 화학, 의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치(政治)와 법학(法學), 경영학 등에 더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생산직보다 사무직, 기술인력보다 관리인력이 우대받고 존중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직업관과도 관련이 있다.

이조후기 실학자(實學者)인 「박제가(朴齊家)」 씨는 「북학의(北學儀)」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사민사상(四民思想)을 개탄한 일이 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차별을 두는 사민사상(四民思想)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독일사람들은 직업관이 뚜렷하며 전문가와 기술자를 가장 우대한다.

독일어의 직업이란 단어 베루프(Beruf)는 ① 부르심을 받는 것 ② 천직(天職) ③ 전문가 ④ 직업이란 뜻으로 본래 부른다는 뜻인 루펜(Rufen)이란 말에서 유래되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 번역할 때 처음 직업이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은 근대화에 있어 철저한 직업관(職業觀)이 확립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우리도 모든 직업(職業)에 대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특히 기술(技術) 및 전문직을 존중하여 인재(人材)를 널리 길러야 할 것이다.

6. 민간주도(民間主導)와 기업(企業)의 책임(責任)

우리 나라 기업은 정부의 성장정책에 따라 재정(財政), 금융(金融) 그밖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결정에 있어 그 사업의 채산성과 그 기업의 전문적인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政府主導)의 경제성장이 개발초기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점차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정책지원을 받는 부문은 지나친 과잉투자를 하고 다른 부문은 과소투자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관련산업이 형편에 맞게 잘 발전될 수 없었다. 예를들면 기계공업(機械工業)이 중요하다고 정책당국이 판단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기업이 이에 참가해서 너무 많은 투자(投資)를 하였으나 기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산업에는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기계(機械)의 판매가 잘 안 되며 또한 부품(部品)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지 않아서 부품(部品)조달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그 앞에는 그 제품(製品)을 사용하는 산업(產業)이 있고 그 뒤에는 부품(部品)을 생산하는 산업(產業)이 있어 앞과 뒤에 서로 관련된 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관련산업(產業) 부문이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느 한 부문에만 집중투자하면 산업간의 관련성이 단절(斷絶)되어 모든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관련산업을 분담해서 투자하도록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경영자세(經營姿勢)를 새롭게 확립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짐해야 하겠다.

기업은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담당하여 좋은 재화(財貨)와 서비스를 값싸고 풍부하게 생산하여 국내 외에 공급하고 적자(赤字)를 내지 말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여 성장하면서 고용(雇傭)을 증대시키고 임금(賃金)과 배당(配當)을 주어 소득(所得)을 분배(分配)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기능(經濟的機能)을 담당한다. 즉 기업(企業)은 생산(生産), 고용(雇傭), 분배(分配), 대외무역(對外貿易) 등의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성장(成長)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는 값싸게 생산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고르게 분배하기 보다 오직 성장만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먼저 성장한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여 장차 건전한 전문기업(專門企業)이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한 기업이 국내시장을 77년에 36.4%나 독점하였고, 두 개의 기업이 51.6%, 세 개 기업은 86.1%나 독점하였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체는 나머지 13.9%를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대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아 자신만 비대해지기 위해 과다한 부채와 부실한 경영을 해왔다. 이들은 정책지원(政策支援)만 받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문 분야를 개척하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나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특정기업(特定企業)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자기책임(自己責任) 아래 전문분야의 사업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 80년대에는 민간주도(民間主導)의 경제운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전문사업을 서로 분담하여 개척하고 지식과 정보(情報)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이겨나가야 한다. 생산(生産)을 전문화(專門化)하고 품질(品質) 좋은

생산물(生産物)을 값싸게 만들어야 해외시장(海外市場)에 많이 팔수 있고 국내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이 없는 사업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모든 분야를 이와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유리한 분야(分野)를 분담하여 전문화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原價)를 절감해야 석유파동(石油波動) 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대외경쟁에 이길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과 원만한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유지하고 적절한 분배(分配)와 고용(雇傭)증진에 힘써야 한다. 종업원과 관계가 원만해야 생산성(生産性)도 높아지며 모든 사회문제(社會問題)도 생기지 않는다. 최근 성장무용론(成長無用論)까지 대두된 것은 기업이 성장하여도 일반 종업원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은 데서 생긴 것이다.

이밖에 기업은 생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식품위생을 유지하며,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 보존에 힘쓰는 등 모든 부작용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社會的) 책임(責任)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실사 노력을 많이 했고 운도 좋아서 기업이 커졌다고 해도 노동자와 가계 등 전체의 경제주체 및 사회발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국민생활과 사회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기업만이 독주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기업은 다른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유기적인 동반자가 되고 사회발전과 문화창조(文化創造)에 기여해야 한다.

7.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육성(育成)

그동안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당면과제가 많다.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개발하면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수 많은 전문분야에 걸친 중소기업의 관련부품(關聯部品)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80년대에 들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화학(重化學)은 관련산업이 수없이 많으며 이 모든 분야가 반드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산업개발의 전략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중에서 기술정보(技術情報) 집약적인 업종이 적합함을 지적하였다.

이 분야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도 많은 것이다.

지난번 우주(宇宙)왕복여행에 성공한 콜롬비아 우주선(宇宙船)을 비롯하여 우주선(宇宙船)의 부품은 1백만개가 넘는다.

이 많은 부품(部品)은 여러 기업들이 분담하여 생산한 것이다. 한 개의 로케트는 각각 세 개의 회사가 분담했고 수 많은 전자부품(電子部品)은 7백개 이상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생산했다. 미국(美國)의 저력은 이러한 광범위한 부품(部品)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있다는 데 있다.

자본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대기업(大企業)은 설비투자에 비해 가득움이 적는데 중소기업의 전문부품생산(專門部品生産)은 가득움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고급기술집약산업(高級技術集約產業)은 반드시 큰 규모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기업(大企業)만 성장시켜서 국제경쟁에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경제소국(經濟小國)들과 같이 양(量)보다는 질(質)을 택하는 중소 전문기업(中小專門企業)들을 육성하여 이들이 국제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中小企業)들이 각각 ① 그에 적합한 산업분야(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전문부품(專門部品))를 선택해서 ② 노동과 자본에 고도의 기술과 정보(또는 지식(知識))를 결합하여 ③ 기업규모는 작더라도 다른 기업(企業)에서 만들기 힘든 독특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製品)을 생산하는 한편 ④ 규모가 작은 만큼 경영에 있어 기동성을 살려 효율적인 경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정세가 불투명한 때에는 경직적인 대규모기업보다 기동성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오히려 적응력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의 상품수요(商品需要)가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므로 대량생산(大量生産)보다 소량의 상품질생산(商品質生産)이 요구되고,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도 자원(資源)과 자본(資本)이 많이 드는 산업보다 기술(技術)과 숙련도(熟練度)와 높은 가공도(加工度)가 요구되는 전문제품(專門製品)과 부품(部品)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이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소기업(中小企業)은 강력한 적응력과 왕성한 활력(活力)으로 불투명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기동성 있게 적응함으로써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석유과동후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작은 것의 세계(世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일본대사관(日本大使館)에서 벌어다본 문화영화(文化映畫)에서 일본(日本)사람들은 옛날부터 작은 것의 세계를 즐겨온 까닭에 오늘날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집안 뜰안에 산(山)과 바위의 축소판을 실현시켰고 방안에는 분재(盆栽)나 꽃꽂이로 작은 자연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작고 섬세한 부채살과 경도(京都)지방의 직물들을 개발했던 그 솜씨로 작고 정밀한 전자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을 확대하려했지 전문화(專門化)시키려 하지 않았고 수 많은 작은 기업은 존립(存立)하지 못하고 큰 기업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러나 일본(日本)은 대기업(大企業)과 중소기업이 계열화되어 서로 손잡고 발전해간다.

일본(日本)은 76년에 전 기업의 60.7%가 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비하여 우리는 개년 현재 18.2%만이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도 대기업이 직접 맡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구가 있기는 하나 정부의 시책도 역시 대기업(大企業) 중심의 성장

정책(成長政策)을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79년 현재 중소기업은 전제조업 생산액(生産額)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과거에 비해 점점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73년에 비해 79년에 제조업 전체의 생산량은 3.24배가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량은 2.54배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개발을 계기로 정책 지원이 대기업(大企業)에 집중되었고 무역(貿易)의 창구도 재벌들의 종합무역상사(綜合貿易商社)가 도맡아 중소기업은 직접 외국인(外國人)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상품이 다양화되어 개성(個性)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생산업체(專門生産業體)가 없고, 또한 직접 수요자(需要者)와 접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 뒤지는 것이다. 대기업만 창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의 창구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밀하고 높은 가공도가 요구되며 다품종의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려면 새로운 기능과 정보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소 전문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美國)의 우주선이 그러했듯이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금속, 기계공업 등의 분야는 수 많은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전문기업의 광대한 저변(底邊)이 있어야만 한다. 이제는 몇 개의 대기업만 국제수준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다같이 국제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8. 노사관계(勞使關係)의 재정립(再定立)

사람은 누구나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손을 갖고 태어났다. 입은 먹기 위한 것이며 손은 일하기 위한 것이라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에서 입은 하나인데 손은 둘이라면 잘못일까.

과거에는 먹기 위해 일을 했고 노동(勞動)을 하나의 상품(商品)처럼 취급했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은 한계비효용(限界非効用)과 같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한계비효용이란 무슨 뜻이나 하면 고통(苦痛)이란 뜻이다. 말하자면 임금은 고통의 댓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고통이란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계의 석학(碩學) 「토인비」는 삶의 목적을 ① 사랑을 하는 것 ② 공부하고 일하는 것 ③ 창조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일이 삶의 목적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할 일이 없으면 삶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노동(勞動)은 신성한 것이다. 노동(勞動)은 먹기 위한 것 또는 한낱 상품(商品)이 아니라 인간(人間)의 인격(人格)의 표현인 것이다. 노동은 가치(價値)의 창조를 통한 자아(自我)의 실현(實現)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개인(個人)의 재능(才能)과 소질(素質)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성한 노동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노동자의 인격(人格)을 무시하고 상품(商品)처럼 취급하며 노동자(勞

動者)도 인격(人格)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생산공장(生産工場)에서 일하는 여직공(女職工)들의 노동이 단순한 상품(商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들의 노동(勞動)이 수출과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큰 밑천이 되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와 같이 자연자원(自然資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창조적인 능력의 발휘(노동)만이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사회에서는 노동자(勞動者)는 지주(地主)의 지배를 받고 산업자본주의(産業資本主義)에서는 기업주에게 고용된 존재이며 공산사회(共產社會)에서는 중앙당국(中央當局)의 명령에 지배받아야 하나 복지자본주의(福祉資本主義)사회가 실현되려면 노동은 고도의 기술과 정보가 결합되어 모든 생산(生産)과정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 먹기 위해서도 아니며 명령과 지배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과 인격을 발휘하여 가치(價値)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勞動)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人格)의 자기표현(自己表現)이라는 단계에 도달하면서 먹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생존(生存)을 위한 수단은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지사회(福祉社會)에 있어서의 공통의 의무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존(生存)을 할 수 있는 천부(天賦)의 권리(權利)가 보장되고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생산적인 활동에 다같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존(生存)을 위한 수단을 사회(社會)가 보장하는 복지사회(福祉社會)에 이르지 못한 현단계에서는 노동자(勞動者)는 생존(生存)을 위하여 기업주(企業主)에게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勞動者)에게는 그들이 단결하여 임금(賃金)과 그 밖의 노동조건들을 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에따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을 만들고 기업(企業)에게 노동자의 일치된 의견을 표시하며 모든 노사문제(勞使問題)를 단체교섭(團體交涉)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勞動組合)은 기업(企業)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나아가서는 생산성을 높여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보금자리인 것이며, 기업(企業)이 발전되어야 노동자(勞動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現代)의 노동조합(勞動組合)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건 개선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조합원의 자질(資質)향상 등에 있어 기업측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분야도 많은 것이다.

「스웨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勞動組合)이 작업장의 내부 조건까지 결정하고, 서독(西獨)

에서는 경영에도 참가하여 노사(勞使)가 중요한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궁극에 있어 기업주와 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파트너)인 것이다.

더우기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경제사정(經濟事情)이 어려운 매일수록 노사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言及)하였듯이 석유(石油)파동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키고 고용(雇傭)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는 서독(西獨)과 일본(日本)은 노사관계가 동반자(同伴者), 또는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에 미국(美國)에서는 높은 임금(賃金)을 요구한 결과 고용감소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반세기전 광산노조의 지도자이었던 「루이스」(J. Lewis)는 광산을 떠나는 광부를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용감소(雇傭減少)를 불문하고 높은 임금(賃金)을 요구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그러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동료들의 일터를 잃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후 자동차노조의 대표인 「루더」(W. Reuther)는 임금(賃金)과 고용을 다같이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했다. 이와같이 고임금(高賃金)과 고용(雇傭)을 다같이 요구할 경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면 결국 그 주름살은 기업주(企業主)나 노동자(勞動者)가 다같이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西獨)과 일본(日本)에서 보여주는 동반자(同半者)관계나 가족(家族)관계와 같은 노사관계(勞使關係)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복지사회(福祉社會)에 있어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가치관(價値觀)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9. 금융(金融)의 자율화(自律化)

4월 27일 정부는 한일은행을 민영화(民營化)한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상업은행도 민영화(民營化)되었으나 무역협회(貿易協會)가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여 사실상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한일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민영화의 첫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상업은행도 무역협회의 주식을 팔아서 완전히 민영화시킨다고 했다.

시중은행(市中銀行)의 민영화가 금융자율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정부소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율화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금융(金融)의 자율화는 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없어져야 함을 뜻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인 이자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이에따라 모든 자금의 동원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의 부채(負債)가 너무 많아서 이자율을 올리면 모이자부담(母利子負擔)이 너무 커지는 반면 자금동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자율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0년 1월 이자율을 크게 늘렸으나 기업의 금융부담이 59.6%나 늘어 불황을 더 깊게 하고 저축은 자금수요를 감당할만큼 늘지 못했다. 이는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저축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筆者)는 이자율만 높이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으나 이자율이 물가보다는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62~64년과 74년 이후 이자율이 물가보다 싸서 금융저축(金融貯蓄)을 저해하고 자금수요는 과다하게 많아 통화(通貨)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물가(物價)는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자율이 물가(物價)보다 높아서 정(正)의 실질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자율이 적어도 물가보다는 비싸야 가능한 한 저축이 늘고 부동산 투기(投機)나 사금융(私金融)이 적어질 것이다.

금융시장(金融市場)은 되도록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필요한 산업자금(産業資金)을 적절하게 대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언제나 금융기관의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銀行)의 문턱이 높다」고 말해왔다. 60년대부터 은행(銀行)과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 많이 설립되었으나 이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하여 많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고 산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72년 8·3조치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사채(私債)를 동결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후 다시 사금융(私金融)이 비대해졌고 많은 주부(主婦)들은 계를 하고 있다.

때때로 거액의 사채(私債)가 부도되고 계가 깨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처럼 위험한 계나 사금융(私金融)이 왜 많은가? 그것은 금융기관이 저축자에게는 물가보다 싼 과실 밖에 안주고, 융자받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는 문턱이 높아서 국민경제(國民經濟)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까닭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이 되도록 많은 자금을 동원하려면 ① 물가(物價)보다는 적지않은 적절한 과실(果實)을 주고 ②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③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금융중개(仲介)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요구불예금은 일상생활에 쓰는 자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맡겨놓고 쓰는 것이며 저축성예금(貯蓄性預金)은 필요하면 찾아 쓸 수도 있고 약속기간까지 맡겨두면 물가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며 기간이 될 때까지 찾아 쓸 수없는 채권(債券)은 더 높은 과실을 주고 때로는 원본(元本)이 감소될 위험이 있는 주식은 기업의 형편에 따라 더 높은 과실을 주는 등 다양한 금융저축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과실(果實)은 적어도 안전하고 편리하며 어떤 것은 오래 기다리라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과실을 얻는 등 저축자가 형편과 마음내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저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예금(銀行預金)을 맡기고 찾는데 불편하고 물가(物價)보다 이자(利子)가 싸며 채권(債券)이나 신탁(信託)도 이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주식은 너무 불안하여 그 어느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생명보험(生命保險)은 의무원의 집요한 강요로 계약했다가 증도에 해약하면 원금(元金)도 되찾지 못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와 배당 등이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되고,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생명보험(生命保險)의 모집방법과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金融), 보험(保險), 증권(證券)이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금융시장(金融市場)이 동원한 자금의 운영이 다양해져야 가능하므로 자금수요자(資金需要者)의 신용(信用)과 사업전망에 따라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거의 확일적으로 저리(低利)의 정책금융(政策金融)과 경직적인 일반금융을 제공하고 채권이나 보험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중개(金融仲介)가 다양해질 수 없다. 외국에서는 은행이 신용을 조사해서 신용(信用)이 적으면 높은 이자(利子)를 받으며 때로는 펠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이자로 융자하며 또는 신용(信用)이 낮으면 높은 과실(果實)을 주는 채권을 발행한다.

우리 나라 금융시장(金融市場)은 이러한 다양성(多樣性)이 없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하며 그 때문에 사금융(私金融)의 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금융기관(金融機關)이 운영하는 것과 사금융(私金融)의 중간쯤되는 금융조건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더 많은 금융중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금융(金融)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조적(創造的) 민족주의(民族主義)

창조적(創造的) 민족주의(民族主義)는 새시대(時代) 새역사(歷史)의 문(門)을 열면서 민족의지(民族意志)를 구현(具現)하기 위(爲)해 추구(追求)하는 하나의 이상(理想)이요 목표(目標)이다.

장 정 효 (張正孝)

1. 창조적(創造的) 민족주의(民族主義)의 필요성(必要性)

인간에게는 자신이 처한 역경(逆境)이나 실패(失敗)의 원인(原因)을 외부에서 찾으려하며, 외적(外的)인 환경 속에서 역경이나 실패의 대치물(代置物)을 찾으려는 보편적인 성향(性向)이 있다. 그러나 항상 인간외부의 환경은 중립적(中立的)이고 비도덕적(非道德的)이었다. 그래서 외적(外的)인 환경은 인간(人間)의 의도(意圖)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여러 대상-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이든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이든-을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외적 환경 속에서 유리한 무엇을 찾기 위해 신비적(神秘的)인 존재에 의지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주술적(呪術的) 차원(次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인간(人間)의 심성(心性)은 보다 강한 충격을 받기 전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나 조만간(早晩間) 인간은 실패나 역경의 보다 심오한 원인이 내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시선을 자신의 내부에 돌리게 된다.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시선의 변화는 차원(次元) 높은 발전이며 비약(飛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중립적(中立的)이고 비윤리적(非倫理的)인 외부환경을 이용하는 주체적(主體的) 개인(個人)의 내부에서 진정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때 인간은 외적인 환경에서 찾은 문제점이 내적인 면에서 찾은 문제점에 비해 얼마나 비소(卑小)한 군더더기였는가를 발견하고는 새삼 놀라게 된다.

민족(民族)을 단위로 하나의 생존권(生存圈) 위에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성(社會性)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세계질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성장(成長)과 민족(民族)의 성장(成長)은 상호치환(相互置換) 가능한 등식(等式)이 성립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을

논(論)함에 있어서 개인이 민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문제(問題)는 인식(認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생활화(生活化)에 있다.

한 인간(人間)이 존재(存在)한다는 것은 생물학적(生物學的)인 의미(意味)에서 모든 신체의 기능이 작용(作用)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사회적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 속에서 생존(生存)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집단과 어떤 형태의 사회적 유대를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중에서도 민족(民族)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별(特別)한 관계(關係)이다. 집단으로서의 민족(民族)이 갖는 번영과 생존 그 자체는 개인을 통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실존적(實存的) 자아(自我)는 생물학적(生物學的) 존재가치(存在價值)를 포함하여 개인을 민족의 존재와 연결시킬 때 발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인간(人間)의 사회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탈옥(脫獄)하여 도피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아테네인으로 아테네 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독약(毒藥)을 마셨다.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아테네의 개인이었다. 또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진정한 실존적(實存的) 자아(自我)를 잃지 않으려는데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수천년 동안 인간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세계인으로 존재한 것은 그가 진정한 아테네의 개인이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전통의 단절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임이 분명하다. 이런 전통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의 개인이 되기 이전에 몰밀듯한 세계 조류에 편승한 허깨비 세계인으로서 자처해 왔음은 자타가 시인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한반도에서 민족(民族)의 역사(歷史)와 함께 생존한 개인은 생(生)을 영위한다는 단순한 존재 이상의 의미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의 일순간, 인간으로서 우리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우리를 잃고, 민족의 주체로서의 우리를 잃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를 잃은 진정한 우리를 상실한 인간이 아니었는가?

니이체의 말처럼 우리는 민족으로서의 우리 스스로를 상실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로 전진함에 있어 우리의 내부에서 찾아야 할 문제는 한국판(韓國版) 인간의 자기상실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민족 속의 개인, 영광된 미래의 조국을 구성하는 개별적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상태로의 전환(轉換)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가능하다면 개인은 민족적 입장에서 민족의지로 무장된 개인으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두번째의 문제는 이런, 개인적 의지의 종합과 그에 따른 방향제시라는 것이다. 이는 산만(散漫)한 개인적 의지를 종합하여 민족의 역량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매진케 할 수 있는 민족의지의 첨예화(尖銳化)와 민족의지를 민족의 번영과 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념 및 방향,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의 제시이다.

이런 과업은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론(民族主義論)에 해당하며, 이를 추진하는 주체세력(主體勢力)을 기준으로 민족엘리트론에 해당하며, 절차적인 문제는 항시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맞는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개인적 민족의지의 총합에 의한 민족역량(民族力量)의 첨예화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이 생물학적인 존재 외에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갖는 특유의 존재가치 즉 포괄적 의미에서 실존적 자아의 확립이후에 그 해결이 가능하며 민족 엘리트 그 자체도 하나의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문제는 인간회복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엘리트는 엘리트의 입장에서, 평범한 개인은 개인적 입장에서 그가 서 있는 현실에 근원적 기초를 두고 민족의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시키는 진정한 실존적 자아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찬란한 문명 창조는 지구의 나이에 비해 극히 짧은 역사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 역사시대를 통해 물질세계와 부단히 투쟁하였고, 인간고유의 창조적 자세를 잃지 않고 인간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활을 통해 점진적으로 물질세계를 정복해 왔으며, 인간의 문명창조와 발전은 물질세계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시대 전기간을 통해 이룩해 놓은 업적은 인간이 그 주체적 입장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사이에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시켜 놓고 있다.

인간은 끝없는 소외의식을 느끼고 이런상태에서 인간의 생존가치는 형이하학적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그가 생활해온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민족으로서의 실존적(實存的) 자아(自我)의 확립(確立)은 무의미하며, 민족의지(民族意志)의 생활적(生活的) 구현(具現)은 너무나 거리가 먼 옛 이야기일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사회성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이든 타인과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집단생활(集團生活)은 사실상 문명을 창조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유대관계가 정상적일 때 인간은 여기서 삶의 의욕과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의지에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대관계가 결렬되었거나 비정상적일 때, 또는 개인이 관계를 맺는 집단에 대하여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가치를 부여치 못할 때, 개인은 불안하며 이런 불안은 개인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준다. 그가 속한 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그는 창조적 의지와 의욕을 박탈당하고 그는 소외의식의 도피처로 물질에 대한 노예의 길을 택하는 자기상실의 길을 걷게 된다.

크로체의 주장처럼 과거는 죽어 버린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로 존재하여 현실을 끝없이 규제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영역과 사고방향은 그가 처해 왔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개인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현재화된 과거가 저변(底邊)에 깔려 인간의 사고와 행위유형(行爲類型)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해결의 역사적 작용성이란 것도 과거의 역사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과거의 역사는 그 진행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성에 지속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의 사회 속에서 역사를 갖고 살아온 개인들에게는 어떤 특유의 공통적인 성장이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상실이란, 첫째, 고립된 구체적 개인과 사회적 제집단(諸集團)을 포괄하는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판단 체계와 태도란 측면에서 구명(究明)되어야 하고, 둘째, 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현실적 영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역사적 작용성에 의해 받게 되는 지속적 영향의 누적된 결과로 표면화된 형태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면에서 새 시대, 새 역사의 장(章)을 열기 위한 창조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I. 민족주체세력(民族主體勢力)의 등장(登場)

중국대륙에 중심을 둔 정치·문화적 단일세력권하(單一勢力圈下)에서 다양한 정치·문화적 세력의 영향 하에 한반도가 노출되기 시작한 조선 중기 이후 한반도의 주체세력(主體勢力) 내지 지배계층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고유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가치관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채 자체분열(自體分裂)되어 그들은 민족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창조성(創造性)을 상실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조선사회는 외적(外的)으로 서양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내적(內的)으로는 조선 사회의 기반이었던 반상제도(班常制度)라는 신분제도가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조선말기에 이르러 서양세력의 급속한 진출은 조선사회의 탄력성(彈力性)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조선의 지배층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 제제도(諸制度)를 개혁하여 그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거나, 새롭게 변화된 사회의 힘을 대변하고 이를 종합하여 민족의 동적(動的)인 전진을 가능케 할 새로운 민족주체세력(民族主體勢力)에게 그들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창조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정권유지(政權維持)를 위한 탐욕 뿐이었기에, 외세(外勢)와 야합(野合)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나아가서 외세와 더불어 민족주체세력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지 않은 부류(部類)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복고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새역사의 변화에 무관심하였다.

동학혁명(東學革命)은 새로운 변화에 동적인 적응력을 상실한 조선의 지배층에 항거한 민족주체세력이 일으킨 민족주의적 혁명이었다. 만일 동학혁명이 성공했다면 조선사회에서 구지배층에 대신하여 민족주체세력이 등장하였으리라 추측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수난(受難)과 왜곡(歪曲)은 동학혁명의 실패에서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의 창조성 상실과 사회의 탄력성 상실로 인한 조선사회의 무기력에 대항하고 민족의 주

체성을 주장한 동학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시작된 이런 비극은 구지배세력을 대신할 새로운 민족주체세력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주체세력(主體勢力)이 외세에 의해 좌절(挫折)된 상태에서 우리 한민족이 감수(甘受)해야 했던 36년간의 일제의 식민통치는 일제와 타협한 보수세력과 일제식민당국과의 제휴를 통해 민족주체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주체세력은 말살 또는 추방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족주체세력이 해외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잔인하고 폭군적인 지배체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런 결과 민족주체세력은 한반도 내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크게 제약되고 오히려 해외에서 적극적 활동이 가능했다. 이국(異國)에서의 활동은 고독하고 괴로운 생활이 아닐 수 없다. 이질적인 생활과 풍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체세력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해방 후 주체세력의 분열현상은 타율에 의해 부여된 독립(獨立)과, 타율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족주체세력이 정치 전면(全面)에 나타나지 못하였고 전후(戰後) 냉전체제의 부속물로 한반도가 전락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8·15해방을 통해 한민족은 근대민족국가를 외적으로 형성했으나,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分裂)되었고, 남북한 공히 그 자체 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주의식에 기초한 민족을 형성치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열(分裂)된 남북한은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입장을 벗어나 강대국 위주의 냉전구조에 적합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들 남북정부는 민족의지(民族意志)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강대국의지(強大國意志)가 외적(外的)으로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해방 후 한민족의 지도층은 민족주체세력으로 등장될 수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민중에 기반을 둘 수 없었다.

외세(外勢)에 의해 타율적(他律的)으로 주어진 독립은 주체세력의 양분화현상(兩分化現象)과 더불어 주체세력을 약화시켰으며, 강력한 외세의 작용은 주체세력의 전면등장(全面登場)을 봉쇄하였다. 현실타협 과정에서 주체세력을 제거하고 일제에 협조했거나 동조적 보수주의자와 타협함은, 제1공화국이 민족의 의지를 대변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제와 야합하여 안주(安住)해온 보수세력은 제1공화국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무원칙과 야합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이들에게 정치의 참모습이란 무원칙과의 야합이며, 이런 착오는 정치의 전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은 시대와 정권의 교체에 따라 여러 번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하여 왔으나, 내적인 정치기질과 형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식민지하(植民地)에서의 안주(安住)를 위한 무원칙(無原則)의 타협(妥協)은 정권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식민지하의 피지배의식은 권위(權威)에 대한 도전(挑戰) 또는 반정부 의식으로 식민지 당국에 대한 아부윤리(阿附倫理)는 국민에 대한 권위와 지배의식으로서의 기이(奇異)한 변형을 거쳐 현실을 풍미(風靡)하였다. 이들에게는 민족의 궁극적 목적이나 민족국가의 발전 또는 민족생존 문제에서 어떤 동질성(同質性)도 발견될 수 없었다.

어떤 문제나 갈등과 반발이 뒤따르기에 민족주의의 내적인 기반인 원칙있는 타협은 존재치 않고 이기적 목적을 위한 야합이 뒷전에서 성행되었다. 모든 행위의 관념적 사고방식은 그 반대로 권력에 대한 조건반사식 투쟁과 연결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식민지(植民地) 근성(根性)의 변형(變形)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기존 보수세력은 해방 후 격동의 시대 속에서 현재까지 상존하여 민족을 지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민족주체세력(民族主體勢力)은 사회 제반분야에서 새로운 엘리트의 형태로 등장하여, 국가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인식, 민족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념에 따라 민족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민족주체세력이 사회의 전반적 개편에 착수하여 역사의 새로운 장(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며, 거센 물결로서 역사적 필연성(必然性)이고 당위(當爲)이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민족의지(民族意志)를 반영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民族主體勢力)의 등장은 80년대에서 시작되는 새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체세력의 정신적 기준으로 민족의지를 대변하는 이념, 즉 민족의 윤리적 가치관이 될 수 있고, 민족의 행위기준이 될 수 있는 창조적 민족주의의 고양(高揚)은 역사 전개의 필수적 전제라 하겠다.

III.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정(發展過程)

「세계사에 있어서 오로지 국가(國家)를 형성하는 민족(民族)만이 우리의 주목대상(注目對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는 자유(自由), 즉 절대적 궁극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點)과, 국가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존립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가치, 모든 정신적 현실을 인간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Hegel은 말하였다. 헤겔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민족주의의 가장 절실한 면을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동남(東南)아시아의 작은 반도, 제한된 인적(人的)·물적자원(物的資源)을 갖는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세계사의 한 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객관적 조건이 너무나 불리하다. 민족의 자기 존립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민족 국가의 수립은 민족최대(民族最大)의 과업(課業)이다.

해방 후 응결된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냉전구조(冷戰構造) 속에서 한국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완전히 남(南)과 북(北)으로 분열(分裂)되었다. 한반도에 통일(統一)된 민족국가(民族國家) 수립을 위해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치열한 민족주의(民族主義) 정통성(正統性)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남한(南韓)의 민족주의(民族主義)와 북한(北韓)의 민족주의(民族主義)간의 주도권 경쟁이 타결(妥結)될 때 통일된 민족주의의 현실적(現實的) 구현(具現)이 가능하며 한반도에 대한 외세간(外勢間)의 경쟁이라는 타율(他律)에 대하여 한반도의 자체역량(自體力量)인 자율(自律)이 상호 이질적(異質的)인 외세(外勢)에 창조적으로 응전(應戰)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작용(作用)하는 외세를 중화(中和)시켜 자율(自律)을 극대화(極大化)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민족주의의 자기전개(自己展開)는 자기분열적인 내적 모순과 한반도 주위의 국제정세라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 제한되며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1. 한국 민족주의의 발생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과연 한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정립되어 있던 시기에 살던 당시의 인간들에게 민족이라는 공통체의식이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근대적(近代的)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일민족에 의한 통일국가의 성립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민족(民族)개념은 통일신라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단순한 혈연적 일체감, 언어 및 지역적 공동체의식은 이 때부터 싹터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태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근원(根源)을 찾는다면 우리는 신라의 3국통일과 그 후 한반도에서 당(唐)나라의 세력을 축출한 676년 안동도호부 폐지를 전후하여 소위 「민족(民族)의 원형(原形)」이 잡혀졌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의 성장은 민족으로서의 자각 내지는 자의의식(自己意識)문제이다. 원래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의식」은 보편주의를 탈피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의식」 「자기 의식」 같은 민족의식적 동일체 의식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실험과 대두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대략 18세기 후반인 영·정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조에 이르는 시기이다. 특히 흥대용·정약용과 같은 인물에 이르면 화이관념(華夷觀念)을 탈피, 전근대적인 양반, 상인(常人)의 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즉 실학과 학자들 중에는 우리의 언어(言語), 역사(歷史), 지리(地理), 교육(教育) 등과 같은 우리 문화에 역점(力點)을 두어 지식체계를 확립하려고 애쓴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모화사상(慕華思想)과 현실적인 계급구조 등을 타파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민족문화 고양과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지식(知識)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의 사상은 분명히 선각자로서 그들의 범위 내에서 끝나버린 관계로 민족의식이나 현실적인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연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업적은 분명히 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형성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최초 서양세력과 이를 대변하는 일본의 독점지배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의식에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저항운동은 체계적이 아니고 또한 통합되지 않은 채 3·1운동 때까지 계속된다. 또한 초기에는 민족주의 운동에 복고적인 성향, 즉 전근대적 민족주

의 미통합성(未統合性)과 전근대성(前近代性)은 3·1운동을 계기로 하나의 민족주의(民族主義)로 통합되고, 전근대적 성격을 탈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3·1운동은 그때까지 계속된 다양(多樣)한 민족주의 운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로 지도계층 중심으로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이 전민중(全民衆)을 기반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었고, 민족주의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정체(政體)로 하는 통일된 민족국가 실현을 이상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3·1 운동에서 해방 때까지 한국 민족주의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자기분열의 씨앗을 배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2. 제1단계(~3·1 독립운동)

한국 민족주의는 19세기 중엽부터 심각하게 나타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대응하는 사상 내지 운동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전통적 질서라고 볼 수 있는 화이적(華夷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가치관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변동은 서양 근대 문명의 충격으로 발생되었고, 전통적 질서의 붕괴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실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정세 면에서 이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이 다원화(多元化)되고, 결국은 일본의 독점지배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반어속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주권을 상실한 종속적 위치는 분명히 아니었다.

이런 관계는 조선말에 들어와 서양문명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세력이 밀려오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은 본질적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과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세력과의 충돌이었다. 일본은 미·영을 비롯한 해양세력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목적이 제한적임을 명시하였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려는 미·영의 전략과 일치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유사 이래 최초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열강간의 경쟁적 관계가 종식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內的)으로 경쟁적 관계의 외세(外勢)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외세를 역이용하여 이를 중화(中和)시킴으로써 민족의 자기 전개에 필요한 계기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상황의 부정적 전개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주의는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일본의 독점지배로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외세와 동학혁명, 경향각지의 의병활동, 그리고 3·1운동 등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세력들과의 투

쟁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 사회의 지배층은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단절되어 있지도 않았고 권권 획득과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친일(親日), 친청(親淸), 친로(親露)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외세의존적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주의적 운동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민족(民族)의 혼(魂)을 이끌어갈 창조력(創造力)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지배층의 창조성 상실(創造性 喪失)과는 반대로 일부에서 서양문명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기 위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개된 것도 사실이었다.

서양문명(西洋文明)의 우월성은 본질적으로 근대화(近代化)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서양문명에 대응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초기부터 근대화(近代化)라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性格)이 달라진다. 그 태도를 대별(大別)하면 첫째, 서구문명(西歐文明)을 수용(收容)함으로써 민족(民族)의 새로운 활력소(活力素)를 획득하려는 개화자강 방향에서의 민족주의운동(民族主義運動), 둘째, 외세(外勢)를 배척(排斥)함으로써 민족(民族)의 잔존(殘存)을 확보하려는 배타적인 운동으로 척사위정(斥邪衛正) 방향의 민족주의운동(民族主義運動), 셋째, 외세의 배척과 민족의 고유한 내적요소(內的要素)를 개혁하여 민족의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민족주의 운동(동학운동)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조지훈(趙芝薰)교수는 그의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의 민족운동은 정반대되는 의식의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근대화운동(近代化運動), 즉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개화사상(開化思想)이요, 다른 하나는 보수근왕운동(保守勤王運動)으로서 신흥자본주의의 침략에서 조국을 방위하려는 충의사상(忠義思想)이 그것이다. 전자(前者)는 갑신정변(甲申政變),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나타났고, 후자(後者)는 을미(乙未), 병오(丙午), 정미(丁未)의 의병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에 삼정괴요(三政怪擾)와 동학란(東學亂)이 위치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동학란에 집약된 민중봉기는 봉건적 특권계급에 대한 반항인 점에서는 개화사상에 통하면서도 외국세력의 침투에 대해서는 보수사상에 뿌리박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적 역사는 이 세 가지 노선에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또 그것들은 어느것이나 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조선말 민족주의 운동은 조선말의 한국사를 인식하는 방향에 따라 기반(基盤)을 달리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의 단계에서 외적(外的)으로는 서구문명의 급속한 영향력 증대와 내적으로는 봉건질서의 해체라는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 추진력을 저항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민족주의(民族主義)는 저항의 대상이 사라질 경우 내적모순(內的矛盾)이 해결되지 않는한 자기분열적 요소를 갖게 되며, 결국은 민족주의의 자기전개(自己展開)가 제한적임은 확실하다.

조선말 민족주의 운동은 이를 주도한 세력의 역사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역사적 실천임무는 동일하였다. 즉 서구화에 기반을 둔 갑신정변의 개혁임무는 동학운동으로 전달되었고 동학운동이 수행하려는 이중임무(二重任務)는 그것이 실패하자 동학운동의 개혁적인 면은 갑오경장이라는 근대적 형식으로, 그리고 동학운동과 척사위정의 배타적, 저항적인 면은 의병 활동을 통해 3·1운동으로 계승된다.

3. 제2단계(3·1 독립운동~8·15 해방)

3·1운동은 전민족이 계급과 지역 그리고 신앙,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친 민족의식을 행동으로 과시하였고, 그로부터 민족의 동질성을 고양하였으며, 민중을 기반으로 일어난 민족주의운동(民族主義運動)이었다. 또한 3·1운동을 통하여 다양한 계보의 민족운동이 하나로 합류되었고, 따라서 3·1운동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민족주의 운동을 하나로 합류시키고, 앞으로 전개될 민족주의 운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의 저수지였다. 이런 면에서 3·1운동은 민족주의사에서 일대 전환점이었다.

-국제적 연관성-

3·1운동의 영향은 대외적으로 전파되었다. 즉 그해 5월 중국의 5·4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직접 받았고, 그해 4월 인도에서 일어난 샨타그라하운동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3·1운동은 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은 대외적(對外的)으로 민족의 자기완결을 주장하면서 독립의식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라는 세계사적 의식과 연결시켰고 종래 전근대적 성격이 두드러졌던 민족주의 운동에서 탈피함으로써 민족(民族)의 역사성을 세계사에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정신은 기미독립선언 뿐만 아니라 간도주민(間島住民)들의 시위운동(1920. 3. 26.)과 더불어 발표된 혼춘(琿春)독립운동집회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대내적(對內的) 의미(意味)-

대내적으로 보아도 3·1운동이 갖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의의(意義)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것이었다. 즉 3·1운동은 대외적으로 민족(民族)으로서의 자기전개(自己展開)를 주장하면서,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양반층, 지식층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온 민족주의적 개혁운동을 농촌으로 파급시킴으로써 민족주의 운동은 민중의 생활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민족의식은 지역, 종교, 성별, 계층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서 전민족이 통합된 유대의식으로 부각되었고 그런 의식은 3·1운동을 통해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고 이질적 요소를 초월한 「우리 의식」을 제1차적으로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주의는 명실공히 민족을 구성하는 전민중을 기반

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의 일본에 대한 일치(一致)된 단결은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면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같은 것도 정치적 자유를 넘어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모든 소비자층이 일치단결하여 전개했다는 면에서 「우리 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현존하는 모든 사회계층이 총망라됨으로써 민족내부에서 탈봉건(脫封建)·전근대성(前近代性)의 내재문제(內在問題)는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게 된다.

하여간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것의 구체적 구현형태로 민주주의적 정체를 그 이상으로 하여 출발했으며, 한국 민족주의에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전통이 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성장은 경제면에서도 뚜렷하다. 종래의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과 연결될 때 민족주권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다 해도, 민족의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의 인식은 하나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새로운 목표로 경제적 번영에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경제적 민족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의 일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민족(民族)의 저력(底力)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일본의 무단정치를 문화교린정책(文化交隣政策)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은 완화되었고, 3·1 운동을 추진했던 민족주의 운동의 열정이 추진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민족운동의 무대가 만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만주일대는 일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을 계기로 전민중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운동은 장족(長足)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분산되고 비체계적인 면은 통합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팽창정책이 노골화되자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었고, 일제가 민족주의 운동의 온상지(溫床地)라고 볼 수 있는 만주일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민족주의운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민중의 광범한 참여를 획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하운동으로 잠입한 소수 그룹에 의해 민족주의 운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政治的) 민족주의운동(民族主義運動)은 비정치적(非政治的) 민족주의운동(民族主義運動)을 표방하여 간접적으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운동의 대표적 인 예(例)가 「조선(朝鮮)」·「동아(東亞)」등 민간신문의 발간, 1928년에서 1934년까지 계속된 기독교계통의 농촌계몽운동, 조선어학회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저항적, 식민지적 민족주의를 자체탈피(自體脫皮)할 수 있을만큼 성장된 것은 아니었고, 일제 36년이 갖는 민족사적 전에서의 부정적 효과는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포괄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었다.

부정적(否定的) 효과(效果)란, 첫째, 우월한 사회조직의 침투는 조선이 가졌던 열등한 조직

을 일방적으로 해체시켜 사회전반의 약점을 무자비하게 노출시켰다. 이것은 조직적 식민통치기간을 거쳐 민족에게 토착문화 가치에 대한 자가부정적 비하풍조(卑下風潮)를 야기시켜 열등의식이 민중에게 만연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제식민통치의 꺾박에 쫓겨 유사 이래 최대의 민족이동이 이루어 졌다. 이들은 상이(相異)한 문화전통에 자기 적응이 강요되었으며 특히 러시아혁명후 극동에 전파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치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민족주의에 자기분열적인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주입되어 체내의 암조직처럼 그 독소를 온몸에 풍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4. 제3단계(해방 후 남북대화)

이 시기는 한국 민족주의에게는 외롭고 우울하며 괴로운 암흑기(暗黒期)였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에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식민지 민족주의를 탈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외세(外勢)에 의한 타율적(他律的) 획득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주권회복은 자체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외세(마·소)에 대항하여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성장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 미약했다.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를 형성 내지 발전시키려는 지속적 집단운동의 형태로 전개되므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표상으로 민족국가의 구현을 위해 일제 36년간 일본이라는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민족주의였고, 그 이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과 수치스런 남북양당의 형태로 부여받은 독립은 분명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그런 이상(理想)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세기(世紀)에 살고 있다. 오늘의 것은 내일이 되면 이미 다른 것이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도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말에 싹트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진 바람 속에서 성장해온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자기좌절(自己挫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족사의 저변을 꿰뚫는 일관된 사상임에는 틀림없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인적(人的), 물적(物的), 자원상(資源上) 부국강병(富國強兵)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는 남북한 대립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분열을 통해 더욱 제한받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통일(民族統一)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잠재 역량을 참여화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비극적인 한민족의 현실은 지정학적 위치도, 외세의 영향도, 우리의 숙명 때문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민족내부(民族內部)에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남한 자체 내의 사회적 불균형과 남북간의 대립이라는 내적갈등(內的葛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우리는 내적인 도전을 타파(打破)함으로써 가능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의로 자기전개가 가능하다.

새로운 차원의 민족주의란 저항적, 배타적 전통에서 성장한 비뚤어진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며, 남북한 민족주의 중 어느쪽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하는 기준은 식민지 민족주의의 전통탈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식민지 민족주의 전통이란,

첫째, 한국민족주의는 외세(外勢)에 대한 저항적, 배타적 동기에서 발생(發生)하여 외세에 대한 저항적, 배타적 성격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국민족주의는 사회 전반적인 주체적 자각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었다.

세째,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 전통은 그 반대 의미인 외세의존적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네째, 한국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지 못했다. 즉 전국민 개개인이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적 개체로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한국민족주의는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단일민족주의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 민족통일이야말로 한국 민족주의의 단일민족주의적 전통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우리는 제한된 자원이나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민족의 주체역량을 증대시키는 현명성(賢明性)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IV. 창조적 민족주의

우리는 일제 35년간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게 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은 창조적 민족주의의 주요한 내용이다.

창조적 민족주의는 새시대, 새역사의 문을 열면서 민족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요 목표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서구 민족주의가 내외적으로 공히 성숙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인 역사적인 민족의 주체적 잠재역량을 축적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환경과 시대적 조건에 적합한 현실적 적용방안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해방 후 우리가 범한 실수는 우리의 현실과 역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이며 완벽한 그 무엇-현재 서구제국에서 통용되는 제도(制度)-을 성급히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려면 민족성 내지 민족우월성(民族優越性)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민족우월론을 내세우는 기준은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문화창조능력(文化創造能力)과 타민족(他民族)에 대한 정치적지배(政治的支配)로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서양인들의 원주민에 대한 우월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는 자기중심주의적 착각에 기인하는 면이 있으니, 중국인 일본인의 우월의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족이 역사과정(歷史過程)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민족(民族)보다 열등한 문화를 소

유했다는 사실이 장래에도 그 민족의 열등성을 표시할 수는 없다. 과거 한국의 문화는 독창적이었는데 사장(死藏)되고 있었음이 최근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바와같이 적어도 한민족은 우리에게 우월성을 강조하는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歷史)였다. 선조들의 독창적(獨創的) 문화(文化)는 계속된 시련에 대한 창조적 응전의 결과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역사가 영광(榮光)스러운 것이나 굴욕적인 것이나 하는 것은 결정(決定)된 것이 아니고 선택(選擇)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즉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따라 결정(決定)되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試鍊)에 대하여 창조적 응전을 할 경우 영광된 내일을 기약받게 된다.

민족(民族)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민족(民族)이란 개인보다 월등히 높은 고차원적(高次元的) 존재(存在)이므로, 개인의 희생이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민족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 충성을 전제로 하고 논리를 전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족과 개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요 쌍무적(雙務的)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민족(民族)이란 신화적(神話的) 존재(存在)도 아니고 개인과 관계없이 개인 위에 군림하는 유기체(有機體)도 아니다. 민족은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민족(民族)에 대한 충성은 자의적(自意的)인 것이어야 한다. 어떤 민족의 진정한 힘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客觀的) 제시(提示)를 통한 개인의 자의적(自意的)인 힘의 총화가 민족의 잠재역량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개인의 무조건 희생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개인을 떠나서 민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민족의 중요성은 개인의 중요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의사회(正義社會) 구현(具現)을 위한 국민적 윤리(國民的 倫理)

극단적(極端的) 개인주의(個人主義)나 이기주의(利己主義),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 타협을 모르는 맹목적 흑백논리(黑白論理) 등은 배격(排擊)되어야 한다

김 우 식 (金雨植)
〈청주대(淸州大) 강사(講師)〉

I. 서론(序論)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가난을 숙명(宿命)처럼 여겨왔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순응(順應)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1960년대(年代)부터 시작된 근대화과정에서,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욕으로 땀흘려 일했고 차츰 발전되어가는 현실에 점차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이룩하여 물질적(物質的)인 면(面)에서의 절대적(絕對的) 빈곤(貧困)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심으면서, 물질적 풍요를 향해 계속 전진할 기틀을 다졌지만 정신개혁 면에서 슬한 문제점을 지닌 것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정의(正義)롭고 밝은 사회(社會)를 이루어, 서로 믿고 안락하게 잘 살아가려면, 물질적인 면에서의 지속적 성장은 물론(勿論), 정신적인 면에서도 성숙(成熟)을 기(期)해나가야만 조화(調和)된 발전(發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正義)로운 사회(社會)란 과연 어떤 사회(社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법(法)과 상식(常識)이 통용(通用)되고 정당(正當)한 노력(努力)에 정당(正當)한 대가(代價)가 지불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定義)는 일견(一見) 모순되는 것 같다. 법(法)과 상식(常識)은 통용(通用)되고, 정당(正當)한 노력(努力)에 정당(正當)한 대가(代價)가 주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當然)한 사리(事理)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부정(不正)이 정의(正義)처럼 둔갑하고, 부당(不當)한 노력(努

力)으로 더 많은 소득(所得)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한 입장에서 성실(誠實)한 사람이 우대받고 남을 악용(惡用)하여 부당(不當)한 소득(所得)을 취하는 사람이 징벌받는 사회를 동경(憧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는 과거의 모든 부정, 부패, 사회적 폐습을 말끔히 씻고 신뢰와 조화 속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社會)를 만들고자 국민전체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민전체의 의식구조개혁(意識構造改革)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顏淵篇)에 보면 신의(信義)를 강조한 부분이 있다. 즉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정치(政治)의 요체(要諦)를 물었을 때 공자(孔子)는 경제(經濟)(백성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 군비(軍備)(무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 신의(信義)(백성이 치자(治者)를 믿는 것)를 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요체(要諦)가 되는 것은 신의(信義)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의 핵심(核心)은 국민 의식구조 개혁과 신의(信義)를 회복(回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극단적 개인주의나 이기주의(利己主義), 무사안일주의, 타협을 모르는 맹목적 흑백논리(黑白論理) 등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II. 본론(本論)

우리의 근대화(近代化) 과정(過程)은 우선 경제발전(經濟發展)에 치중(置重)했었고, 그 속에서 슬한 폐단도 싹텄던 것이다.

먼저 그와같은 폐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근본원인(根本原因)을 알아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기로 한다.

1. 청탁풍조의 실상(實像)

폐단의 종류만 들어보아도 매우 많은 바, 권력형 부정부패, 부(富)의 편재(偏在), 도의(道義)의 타락,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 등이 그것이다. 그 속에서 정직(正直), 성실(誠實), 근면(勤勉)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못난 사람」 대우를 받는 풍조(風潮)가 조장되어 왔다. 특히 모든 부조리의 근본이라할 수 있는 청탁 풍조가 비밀비재했다. 우리가 잘 아는 「급행료」만 보아도 그렇다. 재력(財力)이 있는 사람은 매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불만이 싹트고 불신감(不信感)이 고조되어 간 것이다. 청탁은 정실관계(情實關係)를 따라 확대되기도 했으나, 「한 사람이 잘되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덕을 본다」는 옛말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공(公)을 사(私)에 앞세우기 힘들고, 국민계층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파주의를 고조시켰다.

특정 가문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사청탁(人事請託), 사업청탁(事業請託), 이권청탁(利權請託) 및 기밀누설 등, 법규정을 위반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하나의 청탁은 또다른 청탁의 근원(根源)이 된다. 소위 「청탁(請託)의 그레삼 법칙(法則)」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은 뒤로 밀리고 부당(不當)한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권력형 부조리에 썩기를 막았고, 지금도 깨끗한 정부 및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리 하여 대정부(對政府) 불신감(不信感)을 어느정도 해결해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전체의 의식구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 마디로 청탁을 하지 않는 자세가 의식화(意識化)되고 생활화(生活化)되어야 할 것이다.

2. 청탁풍조의 근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청탁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우리의 사회적 인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인습 중에서 부탁에 대하여 거절(拒絶)하기 힘든 면이 있다. 만약에 어떤 면에서든지 관련된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경우, 그것이 비록 부당하거나 위법(違法)인 경우일지라도, 철면피로 물리거나 물인정한 사람으로 낙인 아닌 낙인(烙印)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根本的)인 문제로 자원(資源)의 희소성(稀少性)을 들 수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에서는 정당한 경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부당한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청탁을 한 사람이 다른 문제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청탁을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청탁이 청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3. 청탁풍조(請託風潮)의 근절방안(根絶方案)

이상의 갖가지 형태의 부조리(不條理)를 없애기 위한 방법(方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청탁풍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론(方法論)을 들어보기로 한다.

크게 나눈다면 제도적(制度的)인 면(面)에서의 방안(方案)과 의식구조면(意識構造面)에서의 방안(方案)으로 된다.

전자(前者)에서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확립(確立) · 능력사회(能力社會) · 관료조직(官僚組織)의 합리적운용(合理的運用) · 국민(國民)의 기본욕구충족(基本欲求充足) 및 균등화(均等化) · 사회적제재(社會的制裁)의 강화(強化) 등이 있고, 후자(後者)에는 공익(公益)을 우선(優先)으로 여기며 청탁을 하지 않는 국민적 가치관의 정립이 있다.

가. 제도적(制度的) 측면(側面)

먼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확립(確立)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란 구미(歐美)에서 말하는 법률(法律)에 의(依)한 지배(支配), 또는 법(法)의 지배(支配)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률(法律)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실정법(實定法)(헌법, 형법, 민법, 상법...등)을 말하며 법(法)이란

추상적인 법원리(法原理)(관습법, 조례...등)를 말한다. 이와같은 법(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지배(支配)되는 사회(社會)가 법치주의사회(法治主義社會)이다. 법(法)은 엄연히 존재(存在)해도 법(法)이 없는 것처럼 비적정절차(非適正節次)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법치행정(法治行政)이 아닌 자의행정(恣意行政)의 폐습을 없애므로써 법(法)이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면 청탁이나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질 것이다. 법치행정(法治行政)이 이루어지고 적정절차(適正節次)가 제대로 운용되면 행정(行政)에 대한 신뢰도(信賴度)는 높아지고, 행정(行政)의 법적인정성(法的安定性)이나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이 확보(確保)된다.

이런 견지에서 청탁 안하기 운동은 바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사회 속에 확립시키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확립은 청탁배격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가 확립되려면 현행의 모든 법률(法律) · 제도(制度)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법(法) 앞에 평등(平等)」이란 말은 인간(人間)의 기본권리(基本權利)를 말하므로, 불평등(不平等)이 제도화(制度化)되는 모순된 법률(法律)이 생겨나거나 존재(存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정치세력(政治勢力)이나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법(法)의 운용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능력(能力)있는 사람이 인정(認定)받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Security(의식주를 포함한 개념), Response(모든 종류의 사랑을 포함한 개념), Recognition(특히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말하며, 명예심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New Knowledge and Experience(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욕구)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인정(認定)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시 되는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려면 정실(情實) · 압력(壓力) · 재력(財力)이 아닌 공개경쟁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각종 인사문제(人事問題)가 합리적(合理的)으로 운용되며, 성실(誠實)한 자(者)만이 공직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우리의 관료조직이 우선 합리적(合理的)으로 일을 처리해나가야 한다. 모든 업무가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순리적(順理的)으로 진행된다면, 청탁의 필요성(必要性)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당(正當)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며, 그것이 균등(均等)하게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토마스의 Security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장 저차원의 욕구인 반면, 가장 필수적인 요청이므로, 크게는 국가, 작게는 일정한 조직에서 개개 구성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균등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社會的) 제재(制裁)가 강화되어야 한다. 공직(公職)이나 기타 어떠한 조직체에 서든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原則)이 엄수될 때, 각종 무질서와 혼란은 줄어들 것이며, 국민기강이 수립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타개하여 정상(正當)으로 복귀(復歸)시키는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의식구조면

이상의 제도적(制度的)인 해결책이 아무리 완비(完備)된다고 하더라도, 제도(制度)를 운용(運用)하는 사람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이 합리적이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로 화(化)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정신개혁운동(精神改革運動)이 필요(必要)하며, 1970년대(年代)의 새마을 정신에 이어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에서의 정직(正直)·질서(秩序)·창조(創造)의 정신(精神)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強力)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민정신교육체제(國民精神教育體制)가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정신이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화(普遍化), 내면화(內面化)되어야만 건실한 사회분위기가 이룩되고, 건전한 정신풍토(精神風土)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류(部類)에서만 의식개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전체가 개조(改造)되었다고 할 수 없은 재론(再論)의 여지(餘地)가 없다. 더구나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확고(確固)한 가치관(價値觀)이 정립(定立)되어야 한다. 적어도 목표(目標)와 수단(手段)을 혼동(混同)하여 급기야는 양자(兩者)가 전도(顛倒)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즉, 목표(目標)의 달성(達成)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爲)한 수단, 방법, 절차, 과정 등이 더욱 중요시(重要視)되어야 한다.

또한 물질적(物質的) 성취에 앞서 정신적(精神的) 성숙(成熟)을 갈구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많은 일을 한 경우에는 그 보람을 잘 모를 것이며,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기준이 막연하다. 질적(質的)인 면에서도 분명한 정신기초가 없을 때는 수준이 떨어지기 쉽고, 새로운 창조란 거의 불가능(不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국가적(國家的) 목표(目標)와 수단(手段)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가 형성될 수 있고, 총화단결을 통한 민족번영(民族繁榮)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익(公益)을 먼저 내세울 줄 아는 사회(社會)가 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멸사봉공(滅私奉公) 또는 폐사입공(廢私立公)의 정신을 생활화해나갈 때 진정한 민주시민사회(民主市民社會)가 형성될 수 있다. 담당자(擔當者)도 아닌 사람을 특히 고위층(高位層)을 찾다니며 압력(壓力)이나 금력(金力)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思考方式), 지연(地緣), 혈연관계(血緣關係)를 이용하여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쪼먹는 행위, 소수인(少數人)에게 특혜(特惠)를 부여하는 권력남용(權力濫用), 자기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越權行爲) 등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根本的)이고 직접적(直接的)인 해결책은 역시 청탁(請託)을 하지 않는 것이다. 법규(法規)에 위배된 청탁, 행정적으로 부당(不當)한 결과를 가져오는 압력행위(壓力行爲), 공직자(公職者)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청탁 등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이를 거절(拒絶)하는 경우에도 이를 불평(不平)하거나 불만(不滿)을 품는 사례가 없어지고 오히려 본받을 수 있는 풍토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물론 청탁이 정당(正當)한 경우도 있다. 예(例)컨대 유권자(有權者)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회의원(國會議員)에게 호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위(爲)한 당연(當然)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사회(社會)에서는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가 뽑은 의원이 우리가 보호하자」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決意)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III. 결론(結論)

밝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시대적(時代的) 진운(進運)에 우리 모두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하얀 마음, 다른 하나는 검은 마음이다. 하얀 마음과 빛의 길은 이른 바 양심(良心)의 명령(命令)이요, 윤리적(倫理的)인 원칙(原則)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언뜻 보기에 매우 좁아보인다. 또한 매우 불편(不便)한 길이다. 반면 검은 마음과 어둠의 길은 유혹(誘惑)의 길이요 환각제(幻覺劑)와 같은 중독(中毒)의 길이다. 그러면서도 그 길은 매우 편리(便利)하고 넓어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유혹, 가정에서의 유혹, 동료사회(同僚社會)나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의 유혹, 대중 매스컴에 의한 유혹 등 숱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유혹과 압력과 심리적 집중호우(集中豪雨)의 급류(急流) 속에서 한 개인은 무력(無力)해지고, 그 중압(重壓)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될 때, 그는 마침내 편리(便利)하고 넓어 보이는 문(門)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며, 그 길로 들어갈 궁리를 하며, 그 길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적당한 「이론(理論)」을 고안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원래 용기(勇氣)란 옳지 못한 것을 물리 칠 수 있는 능력(能力)이기 때문이다. 그 용기에 대한 결과(結果)는 간혹 손해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나, 길게 볼 때는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익과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맑게 하려는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원亨利貞(元亨利貞)[건(乾)의 사덕(四德)을 말한다. 원(元)은 만물의 처음을 뜻하며, 봄에 해당되고 인(仁)을 의미한다. 형(亨)은 만물의 장(長)을 의미하고 여름에 해당되며, 예(禮)를 상징한다. 이(利)는 만물의 이름 즉 수(遂)를 의미하며 가을에 해당되고 의(義)를 나타낸다. 정(貞)은 만물의 완성 즉 성(成)을 의미하고, 겨울에 해당하며, 지(智)를 뜻한다.]의 좋은 수확을 거두리라는 확신(確信)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公職者)의 입장(立場)에서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特定人)을 위(爲)해서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 처리한다는 공익우선(公益優先)의 봉사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특정인이 아닌 국민전체를 기준으로 소신껏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할 때 청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청탁하려는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사회지도층(社會指導層)의 경우라면, 법규정(法規定)이나 원칙(原則)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거나 자기능력(自己能力)으로 이루지 못할 일들을 타인(他人)의 힘을 빌어 달성해 보려는 나쁜 타성(惰性)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不可能)한 일이므로, 의식구조개혁과 부단한 제도개선, 부조리를 근절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부(政府)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민창구(對民窗口)를 담당(擔當)하는 공직자(公職者)의 입장에서는 법(法)과 질서(秩序)를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직자(公職者)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즉 최일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責任意識)과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청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청탁행위의 결과가 선량(善良)한 국민의 권익침해(權益侵害)나 법적(法的), 사회적(社會的) 질서 또는 국가이익(國家利益)에 얼마만큼 해를 끼치는 것인가를 먼저 인식하고, 이른 바 배경(背景)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군인(軍人)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탁풍조를 배격하는 국가전반적인 움직임에 솔선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해야 함은 물론 군은 국민교육의 도장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다른 어떠한 조직체에서 보다도 깨끗한 분위기를 이룩해야 하며, 엄정한 기강(紀綱)을 확립(確立)해 나가야 한다. 이 길은 바로 군(軍)의 신뢰감(信賴感)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감형성(安定感形成)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며, 제(第)2의 도약(跳躍)을 통한 세계 속의 한국(韓國)을 심는데 초석(礎石)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 누구나가 각자(各自)의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될 바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합리적(合理的)으로 행동하게 되면, 저절로 제도개선(制度改善)도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청탁에 의한 부조리(不條理) 현상은 사라져 갈 것이다.

명장 명언(名將 名言)

부대(部隊)는 지휘관의 성격(性格)의 연장이며 부대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휘관(指揮官)은 항상 사무실을 떠나서 부대원의 작업장이나 훈련장에 나가서 그들과 토론(討論)하고 접촉하여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영향을 미쳐야 한다.

- 클라크 -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를 맞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한(韓)·미안보(美安保)유대가 강화되었다하나 미국(美國)은 어
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국가안보(國家安保)의 진정한
주체(主體)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문도빈(文道彬)

〈서울신문(新聞)·논설위원(論說委員)〉

1. 냉전(冷戰)의 부활(復活)과 국지분쟁(局地紛爭)의 격화(激化)

80년대 국제정세(國際情勢)의 추이는 한 마디로 말해 견잡을 수 없는 혼란(混亂)과 위기(危機)의 연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70년대말부터 미(美)·소(蘇)간의 데탕트(긴장완화)는 크게 깨져 가고 있었으며, 그 와중(渦中)에서 강대국(強大國)간의 대결(對決)과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지역분쟁(地域紛爭)은 점차 격화될 것이라는 불안(不安)한 전망(展望)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동향(國際動向)이다.

먼저 강대국(強大國)간의 대결양상(對決樣相)을 본다면, 70년대 국제정치(國際政治)의 긴장 완화구조를 유도함에 있어서 주도적(主導的) 역할을 수행했던 미(美)·소(蘇)관계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확실히 50년대의 냉전(冷戰)을 거의 그대로 재연(再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 책임(責任)이 소련(蘇聯)의 군사적(軍事的) 팽창주의(膨脹主義)에 있음은 재론(再論)의 여지조차 없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 후반에 북(北)「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만(灣)의 이른바 「전략적(戰略的) 초승달지대」에 침투한 뒤 서남아(西南亞)와 동남아(東南亞)에까지 계속 진출한 소련(蘇聯)은 최근에 이르러선 미국(美國)이 확고한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해 온 태평양(太平洋)에까지 힘을 투사(投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9년말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침공(武力侵攻)과 위성국화(衛星國化)는 약소국(弱小國) 또

는 중소국(中小國)에 대한 강대국(強大國) 지배(支配)의 냉엄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소련(蘇聯)의 이같은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美國)의 대응(對應) 역시 만만치 않다. 「로널드·레이건」 미국(美國) 대통령은 81년 1월 그의 취임사(就任辭)에서 힘의 우위(優位)를 통한 세계(世界) 평화(平和)라는 미국(美國) 외교정책(外交政策)의 근간을 천명하는데 이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소련(蘇聯)은 세계(世界) 제패(制覇)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데탕트는 소련(蘇聯)의 야욕달성을 위한 일방통로(一方通路)였을 뿐』이라고 신랄히 비난하고 그러한 소련(蘇聯)의 야욕을 분쇄하는 것을 미국(美國)행정부 외교정책(外交政策)의 최우선(最優先)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美國)지도자로서는 50년대 이래 가장 강경(強硬)한 대소공세(對蘇攻勢)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소련(蘇聯)의 태도 또한 『미국(美國)의 군사우위(軍事優位)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방(西方)의 주요 언론(言論)이 80년대 국제정치(國際政治)의 특징을 「냉전(冷戰)의 부활(復活)」 또는 「신냉전(新冷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美)·소(蘇)의 새로운 대결양상과 그로 인한 국제긴장(國際緊張)의 예각화(銳角化)추세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미(美)·소(蘇)관계가 이렇듯 「신냉전화(新冷戰化)」하면서 강대국(強大國)간의 전쟁(戰爭)의 위험성이 점고(漸高)하고 있는 것도 부인(否認)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예(例)가 최근의 「폴란드」 사태(事態)이다. 미국(美國)은 소련(蘇聯)에 전달한 외교문서(外交文書)를 통해 「폴란드」에 대한 소련(蘇聯)의 어떠한 군사개입(軍事介入)도 허용(許容)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다. 따라서 소련(蘇聯)이 「폴란드」에서의 자유화(自由化)운동을 군사력(軍事力)으로 진압하고자 할 경우 세계는 거의 확실히 대전(大戰)의 일보(一步) 직전(直前)에 돌입할 것이다.

국제긴장(國際緊張)은 비단 강대국(強大國)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고조(高潮)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간의 긴장은 강대국의 리해(利害)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분쟁(地域紛爭)에 즉각적으로 투영(投影)되어, 중소국(中小國)들 간의 갈등(葛藤)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例)가 「인도차이나」이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중(中)·소(蘇)대결은 친소(親蘇)의 공산(共產) 「베트남」과 친중공(親中共)의 「캄보디아」 사이에 대규모 무력충돌(武力衝突)을 낳게 했으며, 이것이 80년초에는 중공(中共)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함으로써 동남아(東南亞)의 안정(安定)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또 최근의 「이란」·「이라크」간의 전쟁과 남아공화국(南阿共和國)·공산(共產) 「앙골라」간의 전쟁 역시 지역국가(地域國家)간의 분쟁에 강대국(強大國)의 이해(利害)가 얽혀 장기소모전화(長期消耗戰化)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例)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狀況)의 전개는 그것들이 「피안(彼岸)의 불」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

다. 무엇보다도 한반도(韓半島)의 현상타파(現狀打破)를 줄곧 추구해 오고 있는 북괴(北傀)는 국제제류(國際潮流)의 난기류(亂氣流)를 무력남침(武力南侵)의 호기도래(好機到來)로 오판(誤判)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경계(警戒)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昨今)의 국제정세(國際情勢)인 것이다.

2. 소련(蘇聯)의 팽창주의와 한반도(韓半島)

앞에서도 지적했듯 소련(蘇聯)은 지난 70년대에 데탕트구조를 일방적(一方的)으로 이용하여 전 세계에 걸쳐 그들의 군사력(軍事力)을 급격히 증강시켜 왔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 거점(據點)을 확보한 것을 비롯 동(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太平洋)연안지역에서 그들의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미(美)·소(蘇) 양대세력의 대결장(對決場)인 한반도(韓半島)와 인지반도(印支半島) 그리고 일본(日本) 및 중공(中共) 등 미국(美國)의 우방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소련(蘇聯)은 2차대전 직후 그들이 강점(強占)한 일본북방(日本北方) 4개 도서에 현재 약 1만명의 병력(兵力)을 주둔시켜 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세계 최정예(最精銳)탱크과포용 건설으로 알려진 M-24 공격용 헬리콥터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또 최근 수년동안 극동(極東)지상군을 현저히 증강, 소위 극동통합(極東統合)사령부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고 그들 군사력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51개 사단(師團) 46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비(裝備)와 화력(火力)도 대폭적으로 증강, 종전에 배치됐던 MiG-21기(機)를 모두 MiG-23 최신편(戰爆機)로 대체하는 한편 SS-20 다탄두(多彈頭)이동미사일 1개 포대(砲隊)와 적어도 10대(臺)의 대함(對艦)미사일을 장비한 백파이어 폭격기(爆擊機), 그리고 「키예프」급(級) 항모(航母)를 일본북해도(日本北海島) 바로 건너편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군사기지(軍事基地)로 이동 배치하는 등 가공(可憐)할 공격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蘇聯)의 이같은 급격한 극동(極東)군사력 증강목적은 ① 일본(日本)과 영유권(領有權)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北方) 4개 도서에 대한 군사적 강점(強占)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② 앞으로 예견(豫見)되는 미(美)·일(日)·중공(中共)의 3각(角) 군사동맹(軍事同盟)에 힘으로 대항하며, ③ 「하와이」와 「알래스카」 사이를 연결하는 미군사력(美軍事力)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비상한 관심(關心)을 끄는 것은 소련(蘇聯)과 북괴(北傀)간의 최근 두드러져가고 있는 밀착기미(密着氣味)라 아니할 수 없다. 소련(蘇聯)과 중공(中共) 사이에 끼어 있는 북괴(北傀)는 이들 두 나라에 군사기지(軍事基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과거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78년 이래 북한(北韓)의 나진항(羅津港)을 소련(蘇聯)의 상선(商船) 및 유조선(油

措船)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얼어 선박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나진항(羅津港)을 통해 석유(石油)와 기타 물자(物資)를 철도(鐵道)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소련(蘇聯)에 개방(開放)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소식통(消息通)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하나는 최근 북괴(北傀)를 방문한 바 있는 재미(在美)한국인 학자 이용식(李應植)교수의 일본(日本) 마이니찌(매일(每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의 지적이며, 다른 하나는 「모스크바」 방송(放送)의 최근 보도가 그것이다.

이(李)교수는 북괴(北傀)가 소련(蘇聯)과의 공동개발(共同開發)로 확장한 함북(咸北)의 나진항(羅津港)을 소련(蘇聯)에 10년간으로 장기조차(長期租借)해주고 있으며, 소련인(蘇聯人)의 북괴(北傀)방문도 많은 등 쌍방간에 긴밀한 경제협력(經濟協力)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외통신(內外通信)이 지난 1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방송은 소련(蘇聯)의 많은 선박들이 북한(北韓)의 나진항(羅津港)에 빈번히 출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이들 선박 가운데는 소련(蘇聯) 「원동해운(遠東海運)사업소」 소속이 가장 많으며 이 배들의 수송 화물은 대부분 북괴지원용(北傀支援用)물자들이라고 밝혔다는 바 이는 이(李)교수의 앞의 지적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소련(蘇聯)이 나진항(羅津港)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태평양(太平洋)함대 모항(母港)인 북(北)쪽의 「블라디보스토크」 및 「페트로파블로스크」 항과 남(南)쪽 「베트남」의 「캄란」만(灣)을 연결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意義)를 갖는다. 소련은 미국(美國)이 과거에 시설해 놓은 「캄란」만의 항구(港口)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곳을 기지(基地)로 하여 동(東)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남지나해(南支那海) 및 극동해역(極東海域)과 서(西)쪽으로는 「페르시아」만(灣)·인도양(印度洋)에 이르는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들의 오랜 숙원(宿願)인 부동항(不凍港)을 얻게 된 셈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황(情況)은 북괴(北傀)가 대중공(對中共) 편향(偏向)에서 점차 궤도를 수정해 소련(蘇聯)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북괴(北傀)의 친소적(親蘇的) 움직임이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곧 반중공(反中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북괴(北傀)가 만일 반중공(反中共)노선을 걷는다면 그에 따른 많은 대가(代價)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공(中共)과의 원유(原油)도입을 비롯한 경제협력(經濟協力)문제, 중공세(中共勢)에 편승한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와 대서방(對西方)접근 및 군사지원(軍事支援) 등이 북괴(北傀)로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북방(北方) 3각(角)관계의 기류(氣流)로 보아 소련(蘇聯)의 팽창주의와 북괴(北傀)의 모험(冒險)주의가 서로의 이익(利益)을 위해 야합(野合)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蘇聯)과의 교착(膠着)심도 여하에 따라 반중공(反中共)으로 돌

아설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북괴(北傀)가 본격적으로 반중공(反中共) 친소화(親蘇化)한다면 한반도(韓半島)의 긴장(緊張)은 한층 고조(高潮)될 것이 틀림없으며, 미국방(美國防)당국은 이 점을 우려, 소련(蘇聯)의 팽창주의와 북괴(北傀)모험노선의 교착(膠着)가능성을 최근 기회있을 때 마다 누누이 경고(警告)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미국(美國)의 대소(對蘇)·대북괴(對北傀) 군사태세(軍事態勢)

「힘의 회복」, 「위대한 미국(美國)의 부활(復活)」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미국(美國)의 「레이건」 행정부는 현재 평화시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군비(軍備)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방성(美國防省)의 「방위(防衛)지침 83~87」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 5천억달러의 어마어마한 국방비(國防費)를 투입해 군사력(軍事力)을 대폭 증강할 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이미 「레이건」 행정부는 81~82회계년도(會計年度) 국방예산(國防豫算)을 「카터」 행정부 때보다 3백26억달러나 증액시켰다. 이 증액분이 쓰일 내용을 보면, 1척의 니미츠급(級) 항모(航母)를 포함한 1백44척의 각종 함정(艦艇) 건조에 37억달러, 전략핵무기생산(戰略核武器生産)에 31억달러, 아직 기종(機種)결정은 안 되었지만 장거리(長距離) 전략폭격기(戰略爆撃機) 개발에 24억달러, 신속배치군(迅速配置軍)(RDF) 설치에 25억 달러, 2대의 조기경보기(早期警報機)(AWACS), 60대의 대전차(對戰車)근접지원기인 A-10기(機) 그리고 F-15, F-16, F-18 등 각종 전투기(戰鬥機)와 3백60대의 M-1 탱크 등 생산에 총 1백57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5년간 1조 5천억달러의 국방예산(國防豫算)은 2차대전 후 최대규모의 것이며 월남전(越南戰)에 쓰인 전비(戰費)의 총액을 훨씬 상회(上廻)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국방예산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군사력면(軍事力面)에서 대소우위(對蘇優位)를 전제로한 미국(美國)의 세계전략(世界戰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0년대에 미국(美國)이 월남전(越南戰)의 늪에 빠져 국력(國力)을 소모할 때 소련(蘇聯)은 군사력을 착실히 증강해 70년대 중반부터는 전략핵(戰略核)무기, 공군력(空軍力), 심지어 해군력(海軍力)에서조차 미국(美國)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60년대까지 미국(美國)은 절대우위(優位)의 핵(核)전력을 바탕으로 2·5전쟁개념(戰爭概念)을 수립해 왔다. 이 전쟁 개념은 「유럽」에서 소련(蘇聯), 「아시아」에서 중공(中共)과의 전쟁을 각각 하나씩, 나머지 제(第)3세계지역(世界地域)에서의 전쟁을 0.5로하여 동시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는데 69년 이후 중(中)·소(蘇)분쟁이 격화되고 미(美)·중공간(中共間)의 국교(國交)가 이루어짐에 따라 1·5전쟁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蘇聯)의 팽창전략이 데탕트를 틈타 세계 곳곳에서 두각(頭角)을 나타내고 79년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西方) 측의 생명선인 중동(中東)이

위협을 받게되자 이같은 미국(美國)의 세계전략(世界戰略)은 무력(無力)하게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는 대소(對蘇)군사력의 우위(優位)회복을 절대 지지(支持)하는 국민 여론(國民輿論)에 바탕해서 전쟁개념을 전면적(全面的)으로 다시 수정하는 동시에 전기(前記)한 바와 같은 야심적인 군사력(軍事力)증강계획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레이건」 미(美) 행정부는 북괴(北傀)의 남침(南侵)위협에 공동(共同)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韓)·미안보협력(美安保協力)에 있어서도 새 이정표(里程碑)를 설정했다. 그것은 지난 4월말 미국(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13차 한(韓)·미연례안보협회의(美年例安保協議會議)의 합의사항(合意事項)을 담은 공동성명(共同聲明)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성명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友好)·동맹(同盟)·협력(協力)관계」를 선언한 지난 2월의 한(韓)·미정상(美頂上)회담 기본정신을 재확인함과 함께 미국(美國)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과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의 철회(撤回), 한국군(韓國軍) 전력증강계획 및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지원강화, 한(韓)·미(美)연합방위능력의 제고(提高)등에 관해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 성명에서 『한국(韓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이 동북(東北)「아시아」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의 주축(主軸)이며, 미국(美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필수적(必須的)』이라고 강조된 것은 미국(美國)의 전진방어(前進防禦)전략개념에서 볼 때 한반도(韓半島)가 동북아(東北亞)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그 전략적 가치판단(價值判斷)에 있어서는 북괴(北傀)의 위협뿐만 아니라 소련(蘇聯)의 군사(軍事)팽창주의까지 망라한다는 「레이건」 행정부의 「연계전략(連繫戰略)」개념을 명백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다음 한국(韓國)의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북괴(北傀)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한국(韓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양측의 의견(意見)이 완전히 일치된 것도 이 회의의 주목할만한 성과(成果)였다. 지난 71년의 「닉슨」 행정부에 의한 주한(駐韓) 미(美) 제(第)7사단(師團)의 철수조치, 77년 「카터」 행정부에 의한 잔여(殘餘)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단계적 철수결정 등은 모두 미국(美國)의 북괴(北傀)군사력 과소(過小)평가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과오(過誤)가 시인(是認)되어 철군(撤軍)계획이 철회되고, 그동안의 한(韓)·미(美) 군사협력 부진(不振)이 북괴(北傀)로 하여금 한국(韓國)보다 각종 장비면(裝備面)에서 2배 내지 4배의 우세(優勢)를 허용케된 사실에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에 따른 일련의 긴급대책(緊急對策)이 다음과 같이 강구되었다. F-16전투기 36대를 비롯한 스틱거 대공방어용(對空防禦用)미사일, M-551 경전차(輕戰車), M-88 구난전차(救難戰車) 등의 대한판매(對韓販賣)승인과 호크 대공(對空)미사일 등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신에 장비 일부를 한국군(韓國軍)에 이양키로한 합의가 그것이다.

한편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전력(戰力)도 현저히 강화될 것이 이 회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A-10 근접전투지원기, F-16 전투기, E-3A 조기경보기(早期警報機) 등을 한국(韓國)에 연내로 배치 하고, 주한(駐韓) 미(美)2사단(師團)의 장비(裝備)를 전면적으로 현대화(現代化)하며, 한(韓)·미연합사(美聯合同)의 지휘체적 보강(補強), 한(韓)·미간(美間) 조기경보 정보교환(情報交換) 체제의 강화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것은 한(韓)·미(美)연합방위능력의 획기적인 제고(提高)를 또한 기대(期待)케 하는 것이다.

4. 동반안보(同伴安保)의 전제(前提)는 자주국방(自主國防)

소련(蘇聯)의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차원(次元)에서의 미국(美國)의 대한방위의지(對韓防衛意志)는 미군부(美軍部)의 일선(一線)책임자들에 의해서도 자주 천명되고 있다. 「류앨런」 미공군(美空軍)참모총장은 지난 3월(月) 일본(日本) 「도오교(동경(東京))」 외신기자클럽에서 행한 한 연설(演說)에서 소련(蘇聯) 군사력의 무모한 팽창이 동(東)「아시아」와 태평양(太平洋) 지역의 안보균형(安保均衡)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과 함께 특히 북괴(北傀)의 군사력증강이 「불길(不吉)한 위협(威脅)」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美國)은 연간 대미(對美)무역량이 서(西)「유럽」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동(東)「아시아」와 태평양(太平洋)지역에 대한 공약(公約)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태평양지구 총사령관 「로버트롱」 제독(提督)은 지난 11월 18개국 군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닐라」에서의 한 군사(軍事)세미나에서 『오늘날 전략(戰略)폭격기, 미사일, 대륙간(大陸間)탄도미사일적재 잠수함(潛水艦) 등으로 형성된 미국(美國)의 핵우산(核雨傘)은 핵(核)전쟁을 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世界)군사력 경쟁에서 소련(蘇聯)의 세력증대를 저지(阻止)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美國)은 「아시아」·태평양(太平洋)지역에 대한 소련(蘇聯)의 꾸준한 팽창주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이 지역 주둔 미(美)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韓國)에 새로이 최신형 F-16 전투기와 A-10 근접공중지원기를 배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바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세삼 깨달아야 할 것은 미국(美國)의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이 앞으로는 과거의 일방지원(一方支援)과 달리 동반안보(同伴安保)의 성격을 띠고 이행될 것이며, 그 동반안보(同伴安保)는 우리의 튼튼한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을 기능발휘의 대전제(大前提)로 하고 있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지난 2월 방미(訪美)귀국인사에서 한(韓)·미안보(美安保)유대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미국(美國)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국가안보(國家安保)의 진정한 주체(主體)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점에 대한 지적이라 하겠다. 또 기실 「레이건」 미국(美國)대통령도 지난 1월 그의 취임사(就任辭)에서 『미국(美國)은 우방(友邦)들의 협조도(協調度)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支援)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性格)의 한(韓)·미(美) 동반안보(同伴安保)개념에 비추어 장차 예견되

는 북괴(北傀)의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군사모험(軍事冒險)가능성에 예의 대비(對備)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소위 위장혁명(僞裝革命)전쟁의 도발가능성이다. 즉 무장간첩(武裝間諜) 등의 대량남파(大量南派)로 우리의 내부정세(內部情勢)를 폭력혁명에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 미국(美國)의 개입(介入)명분을 배제한 비정규전(非正規戰)을 벌이겠다는 기도(企圖)이다. 또 하나는 소위 「3일전(日戰)」 등 단기속결전(短期速決戰)전략에 따른 선제(先制)기습공격이다. 즉 제한된 특정(特定)지역을 불의에 기습공격하여 미국(美國)이 참전(參戰)하기 이전에 점령(占領)지역이 확보되면 곧 바로 소련(蘇聯) 등 배후세력을 내세워 국제적 협상(協商)으로 이를 기정(既定)사실화한다는 기도이다.

우리의 자주국방개념(自主國防概念)은 이 같은 모든 사태(事態)에 대비 『외부지원 없이 북괴(北傀)가 단독남침(單獨南侵)을 해올 경우 우리도 우방(友邦)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국방력(國防力)을 갖추자』는 것이다. 따라서 새 냉전(冷戰)시대의 우리 안보(安保)는 우리의 자주국방(自主國防)태세가 확고할 때 비로소 온전히 유지되나갈 수 있다는 사리(事理)를 우리는 재삼 명심(銘心)해야 하겠다.

명언 명구(名言 名句)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 예수 -

에너지전쟁(戰爭)과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지속해 왔고 따라서 경제규모(經濟規模)도 커졌다. 수출에 의한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자원(資源)의 해외 의존도(海外依存度)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희천(朴熙天)

(국제경제연구원(國際經濟研究院) 수석연구원(首席研究員))

1. 머리말

무릇 경제(經濟)란 선택(選擇)의 연속(連續)이며, 보다 합리적(合理的) 선택(選擇)을 추구(追求)해가는 과정(過程)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경제(經濟)란 자원(資源)의 희소성(稀少性)에서 출발(出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經濟)가 폐쇄경제(閉鎖經濟)일 때는 자급자족(自給自足)으로 충분(充分)했지만, 생활양식이 복잡(複雜)해지고 점차 개방경제(開放經濟)로 변하면서 각국간(各國間) 상호의존(相互依存)의 필요성(必要性)이 매우 커졌다.

특히 자원면(資源面)에서는 석유(石油)가 무기화(武器化)되면서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가 대두되어, 우리와 같이 자원빈국(資源貧國)의 입장에서는 경제운용(經濟運用)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지난 73년과 79년의 1, 2차(次) 석유파동(石油波動)과 지난 해의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 등으로 우리 나라는 유례(類例)없는 경제적 진통(陣痛)을 겪었다. 문제는 자원빈국(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 단 하루도 석유(石油)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단 한방울의 기름도 나고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지속해 왔고, 따라서 경제규모(經濟規模)도 커졌다. 수출에 의한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원(資源)의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부터 자원확보책(資源確保策)의 일환인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最近) 자원확보대책(資源確保對策)에 대(對)한 토의내용(討議內容)들을 살펴보면, 개발수입(開發輸入)으로 모든 자원문제(資源問題)들이 해결될 듯한 인상을 받게된다. 그러나 자원(資源)의 안정적(安定的)인 확보책(確保策)으로는 개발수입(開發輸入) 이외에도 비축제도(備蓄制度), 장기수입계약(長期輸入契約), 국내자원(國內資源) 개발(開發), 자원절약(資源節約), 현(現) 선물시장(先物市場)의 활용(活用), 수입선(輸入線) 다변화(多邊化)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수입(海外資源開發輸入)도 종합자원확보책(綜合資源確保策)의 일환으로 토의(討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현재(現在) 우리나라의 경제실정(經濟實情)이나 외환사정(外換事情) 및 기술수준(技術水準)을 감안한다면, 단기적(短期的)인 자원확보책(資源確保策)으로는 장기수입계약(長期輸入契約), 현(現) 선물시장(先物市場)의 활용(活用)과 수입선다변화(輸入線多邊化)가 시급하며 중(中)·장기적(長期的)인 자원확보책(資源確保策)으로는 비축제도(備蓄制度), 자원절약 기술개발(資源節約 技術開發)과 개발수입(開發輸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便宜上) 요즈음 주요논의(主要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수입(海外資源開發輸入)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해외자원개발수입(海外資源開發輸入)의 의의(意義)

일반적으로 개발 수입은 투자매광(投資買鑛)과 융자매광(融資買鑛)으로 크게 분류(分類)된다. 투자측(投資側)은 투자매광(投資買鑛)의 경우 자본직접참여(資本直接參與)로 경영권(經營權)을 갖게되며, 융자매광(融資買鑛)의 경우 융자(融資)의 대가(代價)로 생산량(生産量)의 일부(一部)를 장기(長期) 안정적(安定的)으로 공급(供給)의 보장(保障)을 받는다.

근래(近來)에 와서는 장기공급계약(長期供給契約)에 의한 단순수입(單純輸入)의 경우에는 자원생산자(資源生產者)가 소비자(消費者)로부터 자원개발(資源開發)을 위한 선불(先拂)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융자매광(融資買鑛)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원개발(資源開發)의 경우 개발(開發)에 필요(必要)한 직접(直接) 투자(投資) 외(外)에도 간접적(間接的)으로 철도(鐵道), 도로(道路), 항만(港灣) 등 간접시설(間接施設)에도 투자(投資)되어야하기 때문에 막대(莫大)한 자본(資本)이 필요(必要)하며, 자원개발(資源開發)에 소요(消費)되는 기간(期間)이 적어도 5~10년(年)으로 자본회임기간(資本懷任期間)이 길며, 자본위험부담(資本危險負擔)이 크다.

그러나, 자원(資源)의 안정적(安定的)인 확보(確保)없이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그동안 확대(擴大)된 우리의 경제규모(經濟規模)나 철강(鐵鋼)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육성(重化學工業育成)에 따른 상당량(相當量)의 자원(資源)을 단순수입(單純輸入)에만 의존(依存)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80년대(年代)에 막대(莫大)한 자본투자(資本投資)와 위험부담(危險負擔)을 감수하며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을 확대(擴大)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입면(輸入面)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급(供給)이 없이는 수출(輸出)을 통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추진(推進)에 애로(隘路)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수입(開發輸入)은 그 중요성(重要性)이 더해진다고 생각된다.

3.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의 추진현황(推進現況)과 문제점(問題點)

개발수입의 인식(認識)이 변조(變潮)된 이래 정부(政府)는 78년(年) 12월(月) 5일(日) 해외자원개발촉진법(海外資源開發促進法)을 제정(制定)하였고, 79년(年) 5월(月)과 7월(月)에는 해외자원개발촉진법(海外資源開發促進法) 시행령(施行令) 및 시행규칙(施行規則)을 제정(制定) 발표(發表)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기금(海外資源開發基金)이 설치(設置)되었으며, 개발수입자원(開發輸入資源)의 우선구매권장(優先購買勸裝) 및 비축판매용자(備蓄販賣融資)와 채무보증제도(債務保證制度)가 실시되었다. 재벌기업(財閥企業)들도 81년초(年初) 자원공급선확보(資源供給先確保)를 위(爲)한 자원개발수입 관련기구(資源開發輸入關聯機構)를 신설(新設) 또는 확충(擴充)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企業)들은 현재(現在) 호주·미국·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석탄(石炭)을, 태국에서 주석과 아연을, 파라과이·가봉·수단에서 우라늄을, 필리핀에서 동광(銅鑛)을 개발(開發)하고 있다. 근래(近來)에 와서 이렇듯 활발한 해외자원개발추진(海外資源開發推進)은 앞으로의 자원확보(資源確保)에 밝은 전망(展望)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海外資源

海外投資現況

<表 1> (單位: 천달러, 81년6월 현재)

	허가(許可)	투자(投資)
광업(鑛業)	57,020	5,491
임업(林業)	41,078	19,184
수산업(水産業)	9,691	9,091
제조업(製造業)	40,892	22,933
건설업(建設業)	30,692	21,534
운수업(運輸業)	2,444	2,180
무역업(貿易業)	31,906	26,444
부동산(不動産)	17,442	10,086
기타(其他)	18,377	17,867
	249,542	134,810

자료(資料): 재무부(財務部) 재정금융통계(財政金融統計) (1981년 7월)

開發投資)는 우리의 경제규모(經濟規模)나 국제수준(國際水準)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보단계(初步段階)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事實)이다.

<표(表)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광산(海外鑛產) 자원투자(資源投資)는 허가기준(許可基準)으로 전체(全體) 투자(投資)의 23%인 5,700만달러에 불과하며 실제투자(實際投資)는 전체의 4%인 550만달러에 그쳐 단일(單一) 프로젝트 1건(件)의 재원(財源)에 불과한 실정(實情)이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빈약(貧弱)한 일본(日本)의 경우 GNP 규모면(規模面)에서 우리의 20배정도(倍程度)이지만, 80년 3월 현재 허가기준(許可基準)으로 광업부문해외투자(鑛業部門海外投資)는 전체(全體)의 20%에 달하는 65억(億)600만(萬)달러로 우리의 114배(倍)를 웃도는 수준(水準)을 보이고 있다. 일본(日本)의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이 우리보다 적어도 15년(年) 앞섰다고 하지만, 허가기준(許可基準)으로 1978년의 3억3,800만달러와 1979년의 8억5,700만달러의 일본(日本) 광업부문투자(鑛業部門投資)를 비교(比較)하면, 우리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너무 초라한 실정(實情)이다 (일본(日本) 주간(週刊) 동양경제(東洋經濟)의 「해외진출기업총람(海外進出企業總覽)」 참조(參照)).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자원탐사(海外資源探査) 및 개발지원(開發支援)을 위(爲)한 자원개발기금(資源開發基金)으로 1980년에 20억원(약 300만 달러)과 1981년에 40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와같은 자금규모(資金規模)는 1개 광산개발비(鑛產開發費)에도 미치지 못하며, 1980년 영국(英國) Rio TintoZinc 광산회사(鑛產會社)의 탐사개발비(探査開發費) 1억4,300만달러나, 미국(美國) AMAX 광산회사(鑛產會社)의 1억1,800만달러와 비교하여 보면 자원개발(資源開發)을 위(爲)한 기금확보(基金確保)는 매우 시급한 실정에 처해있다. 자원개발기금(資源開發基金) 이외에도 수출입은행(輸出入銀行)의 해외투자금융(海外投資金融)이 300억원정도가 확보(確保)되었다고 하나, 확보액(確保額)의 상당(相當) 부문(部門)은 어업(漁業)·임업(林業)·해운업(海運業)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동자부(動資部)가 발표한 광산물수출입현황(鑛產物輸出入現況)에 따르면, 광산물수요(鑛產物需要)가 매년 급증(急增)하여 1980년 광산물수입실속(鑛產物輸入實績)은 1979년에 비해 30.4%가 늘어난 9억2,100만달러로 유연탄(有煙炭)·철광석(鐵鑛石)·동광석수입(銅鑛石輸入)이 전체(全體) 광산물(鑛產物) 수입(輸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80년도 광산물(鑛產物) 수출(輸出)은 1억2,000만달러로 수입(輸入)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광산물(鑛產物) 수입(輸入)의 상당량(相當量)이 일본(日本)을 통(通)한 간접수입방식(間接輸入方式)이며, 개발투자(開發投資)에 의한 수입(輸入) 비중(比重)은 극히 미흡하다.

UN의 1980년 국제무역통계(國際貿易統計)에 따르면 1979년도 우리나라의 비철금속(非鐵金屬), 비금속(非金屬) 및 철광석(鐵鑛石) 수입(輸入)은 전체(全體) 상품수입(商品輸入)와

&.4%로 일본(日本)의 10.1%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日本)과 같은 자원다소비형(資源多消費型) 산업구조(產業構造)를 지양(止揚)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추진되는 경제정책(經濟政策)에 비추어 볼 때 80년대의 광산자원(鑛產資源) 수입비중(輸入比重)은 일본(日本)과 같은 수준(水準)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日本)은 동(銅)·아연·연(鉛)·우라늄·망강·석탄(石炭)·석유(石油) 천연(天然)가스의 해외개발(海外開發)에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자(投資)하고 있으며, 1974년과 1978년을 비교하여 보면, 원유(原油)(9.5%에서 9.8%로)를 제외하고는 투융자매광수입비중(投融資買鑛輸入比重)이 동광(銅鑛)의 경우 45%에서 37.8%로, 연광(鉛鑛)의 경우 11.7%에서 5.3%로, 아연광(亞鉛鑛)의 경우 12.2%에서 7.3%로, 알루미늄(보오크사이트)의 경우 6.9%에서 3.9%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日本)의 투융자매광(投融資買鑛)의 수입비중감(輸入比重減) 소요인(少要因)으로는 일본(日本) 광물자원수요(鑛物資源需要)의 급증(急增)과 자원생산국(資源生產國)에서 부가가치(附加價值)를 높이기 위(爲)한 수단(手段)으로의 지금수출확대(地金輸出擴大)를 들 수 있다. 일본(日本)의 투융자매광(投融資買鑛)의 수입비중(輸入比重)이 언급된 광물중(鑛物中) 동광(銅鑛)을 제외하고는 작은 이유(理由)는 일본(日本)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 보다는 아직도 장기계약(長期契約)으로 해외자원(海外資源)을 확보(確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現在) 일본(日本)은 수요(需要)의 100%까지 개발수입(開發輸入)과 장기계약수입(長期契約輸入)으로 자원(資源)을 확보(確保)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해외자원(海外資源)에 대(對)한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가 높은 서독(西獨)은 자원수요(資源需要)의 30~50%를 장기적(長期的)인 방법(方法)으로 확보(確保)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의 패북(敗北)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전부 상실한 서독(西獨)은 그동안 해외투자를 꺼려왔으나, 1차 석유파동(石油波動)이래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의 필요성(必要性)을 깊이 인식(認識)하여 근래에 와서는 개발투자(開發投資)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부흥기금(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1961년부터 1978년까지 독일회사(獨逸會社)들에게 7억2,400만달러를 융자(融資)해 주어 동기간중(同期間中) 28억달러의 해외광산투자(海外鑛山投資)를 유도하였으며, 1977년 소비기준(消費基準)으로 매년 철광석소비량(鐵鑛石消費量)의 27.6%, 니켈소비량(消費量)의 43.7%, 동광석소비량(銅鑛石消費量)의 9.1%, 아연소비량(亞鉛消費量)의 4%, 보오크사이트 소비량(消費量)의 24.7%와 연광석소비량(鉛鑛石消費量)의 1%를 장기수입확보방식(長期輸入確保方式)으로 자원확보효과(資源確保效果)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탐사보조금(獨逸探査補助金)으로 1억3,100만달러의 해외탐사활동(海外探査活動)을 지원(支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獨逸)은 1979년 가격(價格)으로 108억5,700만달러 상당의 광물(鑛物)을 장기공급보장(長期供給保障)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1 : 83이라는 탐사비용대(探査費用對) 확보(確保)된 광산물량(鑛產物量) 비중(比重)은 국제적(國際的)으로 높은 수준(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적(世界的)으로 광산개발투자(鑛山開發投資)는 극히 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은행(世界銀行)은 80년대 광물자원(鑛物資源)의 공급(供給)과 수요(需要)의 균형(均衡)을 위한 광산투자(鑛山投資)를 연간 100억내지 120억달러로 추정(推定)하고 있으며, 독일기술발전연구소(獨逸技術發展研究所)(ITE)는 알루미늄·연(鉛)·아연(亞鉛)·동(銅)·니켈과 주석부문(朱錫部門)에서 필요(必要)한 광산투자(鑛山投資)만도 1975년도 가격(價格)으로 연간 80억달러로 집계(集計)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IBRD) 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투자(投資)되는 비용은 연간 26억내지 34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같은 광산투자(鑛山投資)의 저조(低調)는 그동안 원유가격(原油價格)의 인상(引上)과 물가상승(物價上昇)으로 인한 광산투자비용(鑛山投資費用)의 급상승(急上昇)과 국제경기침체(國際景氣沈滯)에 따른 광물자원가격(鑛物資源價格) 하락(下落) 및 위험부담(危險負擔)이 높은 광산투자(鑛山投資)에 필요(必要)한 막대한 자금부족(資金不足)에서 그 요인(要因)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Cash-flow가 든든한 세계(世界) 굴지의 정유회사들도 광산개발(鑛山開發)에 직접(直接) 참여(參與)하는 것보다 기존(既存) 광산회사(鑛山會社)들의 인수(引受)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이 지속될 경우 8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철광석(鐵鑛石)이나 동광석(銅鑛石) 같은 주요(主要) 광물자원(鑛物資源)의 공급난(供給難)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對備)하여 문제(問題)가 되는 주요(主要) 광물자원(鑛物資源)의 해외자원개발투자(海外資源開發投資)를 서둘러야 하겠다.

4. 맺음말

우리나라 기업(企業)들은 해외광산개발(海外鑛山開發)에 있어서 신참자(新參者)(Late Comer)로서 영(英)·미(美) 광산회사(鑛山會社)들과 같이 자본(資本)이 충분(充分)치 않으며 아직 석탄(石炭)과 철광석(鐵鑛石)을 제외하고는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과 같이 막대한 수요(需要)를 바탕으로 하는 Bargaining Power도 약한 실정이다. 또한 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이 정부(政府)로부터의 금융지원(金融支援)도 부족하며, 해외개발(海外開發)을 담당(擔當)

하는 일본종합상사(日本綜合商社)들과 같이 그룹내의 은행제도(銀行制度)를 활용(活用)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財源)을 충당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AMAX 광산회사(鑛山會社)는 지난 10년간(年間) 주로 몰리브덴 채광이익(採鑛利益)으로 50억달러 규모(規模)의 개발투자(開發投資)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狀況)의 극복책(克服策)으로 정부(政府), 종합상사(綜合商社)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의 협의하(協議下)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자원확보대책(綜合資源確保對策)이 수립되어야 하며, 종합대책(綜合對策)에 따른 장기해외자원개발계획(長期海外資源開發計劃)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政府)의 금융지원(金融支援), 개발(開發)·탐사지원(探査支援) 및 세제상(稅制上)의 지원(支援)아래 일본(日本)의 경우와 같이 실수요자(實需要者)는 아니지만, 기능면(機能面)에서 신축성(伸縮性)있고 정보(情報)가 빠른 종합상사(綜合商社)를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海外資源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자본(資本)이나 기술수준(技術水準)으로는 단독개발투자(單獨開發投資)보다는 제(第)3국(國)과의 합작개발투자(合作開發投資)나 용자매광(融資買鑛)으로 자원확보(資源確保)를 하며 점진적(漸進的)으로 자원개발기술(資源開發技術)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종합상사(綜合商社)들은 개발투자(開發投資)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런던·뉴욕·시카고와 같은 자원시장(資源市場)에서 무역활동(貿易活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확보(資源確保)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長期的)으로 런던 광물시장(鑛物市場)에 Ring Trader 자격을 가진 기존회사(既存會社)의 인수(引受)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원(資源)의 장기공급확보(長期供給確保)를 위해 수요(需要)의 100%까지를 개발투자(開發投資)나 장기계약(長期契約)에 의존(依存)할 필요는 없으나, 재원(財源)이 허락하는 한 가격(價格)의 꾸준한 상승(上昇)이 예상되는 에너지 자원(資源) 즉, 원유(原油)·천연(天然)가스·석탄(石炭)·우라늄 등의 확보량(確保量)은 많을수록 좋다고 사려(思慮)된다.

가격변동(價格變動)이 심한 비철금속(非鐵金屬)의 경우 수요(需要)의 30~40% 이상을 장기확보(長期確保)한다면 가격위험부담(價格危險負擔)이 지나치게 크며, 비철금속(非鐵金屬)자원은 에너지자원(資源)과 달라 채광(採鑛)한 상태 그대로는 소비(消費)되지 않기 때문에 원광석(原鑛石)부터 지금(地金)까지의 각 제련과정별(製鍊過程別)로 안정적(安定的) 확보(確保)가 필요(必要)하다.

마지막으로 80년대의 안정적(安定的) 경제성장(經濟成長)에 필요한 해외자원개발활동(海外資源開發活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既存) 수출입은행(輸出入銀行)의 해외개발투자금

용(海外開發投資金融)의 확대(擴大) 및 해외자원개발은행(海外資源開發銀行)의 설립(設立)과 해외개발기금(海外開發基金)의 확대(擴大)를 위하여 수출입시(輸出入時) 일정범위의 관세(關稅)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겠다.

또한 해외개발투자(海外開發投資)를 촉진(促進)하기 위하여 해외(海外) 개발활동비(開發活動費)의 일부(一部)나 전액(全額)을 국내(國內) 기업활동(企業活動)에서 공제(控除)할 수 있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도 도입(導入)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제(第)2의 경제도약(經濟跳躍)을 이룩하려면, 이제 좀더 거시적(巨視的) 안목(眼目)에서 세계경제(世界經濟)를 관찰하면서, 특(特)히 우리 경제(經濟)에 큰 영향력(影響力)을 미치는 주요(主要) 경제지역(經濟地域)(미국(美國), 일본(日本), 중동(中東), ASEAN지역… 등)을 우리 경제정책입안시(經濟政策立案時) 고려(考慮)하면서 국내조건(國內條件) 활용(活用)에 최대(最大)의 노력(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88년의 서울 올림픽은 어떤 의미(意味)에서는 경제도약(經濟跳躍)의 발판이 될 것이므로 정부(政府)를 비롯한 기업인(企業人)은 물론(勿論) 온 국민(國民)들이 합심노력(合心努力)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절대적(絶對的) 빈곤(貧困)이 존재(存在)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民主市民)과 의식혁명(意識革命)

정치(政治) · 경제(經濟) · 사회(社會)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先進化)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時代的) 지향(指向)을 상기할 때 우리 사회(社會)의 민주시민사회적(民主市民社會的)인 의식(意識)의 정립(定立)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류근일

〈조선일보(朝鮮日報) · 논설위원(論說委員)〉

시민정신의 원류(源流)

민주사회란 인간의 합리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사회이다. 이점에서 민주사회는 노예적 굴종 위에 군림하는 고대국가와도 다르고, 현대의 공산독재나 근세 초기의 절대군주제(絶對君主制)와도 구별된다. 중세기의 신정적(神政的) 통치이론 또는 20세기 중반(中半)를 풍미했던 나치스 국가 역시 민주사회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런 사회나 국가는 인간 또는 신민(臣民)의 자율능력(自律能力)을 불신하거나 부정(否定)하기 때문에 피치자(被治者)의 동의(同意)에 바탕한 민주정치 또는 민주사회란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 제도는 시민 하나 하나가 다 자기자신을 합리적으로 운신(運身)할 줄 아는 자율능력(自律能力)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서 이른바 피치자(被治者)의 동의(同意)에 입각한 사회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제도가 있기 전에 민주시민이 있어야 하는 셈이고, 민주시민이 있으려면 먼저 민주시민적인 덕목(德目)과 자질(資質)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西)유럽의 민주제도 발전과정에서 볼 때, 시민사회를 탄생시킨 시민정신의 기초는 합리주

의와 청교도적(淸教徒的) 윤리의식 그리고 영리(營利)추구의 이 3자(者)를 하나로 결합시킨 이른바 근대정신이었다.

합리주의는 말하자면 이성(理性)의 법칙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간단한 이치에서부터 갈등의 해소는 폭력에 의하는 것보다는 대화(對話)를 통한 조정(調整)에 의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이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사리(事理)에 맞게 처리하는 행동률(行動律)이 다름아닌 합리주의다. 쉬운 예(例)를 들자면 프로 레슬링 같은 반칙(反則)의 게임은 합리주의가 아니요,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 같은 것이 바로 합리주의다.

청교도적(的) 윤리의식이란 절대자의 선(善)한 뜻을 신앙하면서 묵묵히 지상(地上)에서의 자신의 천직(天職)에 성실 근면하게 정진하는 자세이다. 이 천직(天職)에의 경건한 소명의식(召命意識)이야말로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직(專門職)의 발생과 안정을 보장해 준다.

근대정신의 또 하나의 지주(支柱)인 영리(營利)추구란 흔히 자본주의 정신(精神)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참다운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精神)이란 원래 청교도적(淸教徒的) 윤리의식에 바탕한 지극히 건실한 개념이며,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서구 산업문명(産業文明)을 발단시킨 모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다운 자본주의 정신(精神)은 그 이전(以前)에 있었던 중상주의(重商主義) 경제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약탈적 치부철학(致富哲學) 또는 졸부철학(猝富哲學)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前者)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이상의 3가지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근세 서구의 시민세력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 시민사회를 이룩했는데, 이 사회는 그 발전 과정에서 그밖의 다른 많은 덕목(德目)과 행동률(行動律)을 쌓아올렸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정한 계약관념(觀念)이다. 중세고대사회나 동양(東洋)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개인과 공공집단의 관계를 흔히 인정(人情)과 의리(義理)의 관계 또는 정실(情實)관계로 맺어놓는 경향이 매우 짙었다.

이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관계는 잘못하다가는 옳바른 사리(事理) 보다는 억지와 무리와 부패 그리고 불공정한 관계를 호도하는데 악용될 우려를 단순히 안고 있다. 가령 아랫 사람의 정당한 요구를 의리(義理)의 이름으로 묵살한다든가, 또는 사사롭게 친한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에 할 수 없이 동조해주어야 하는 곤란한 상태를 겪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예(例)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풍토에서는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없어지고, 공인(公人)의 공인의식(公人意識)이 흐려져서 공권(公權)과 사물화(私物化)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공정한 계약 관계에서 설정되면 각자는 그 공정한 약속에만 철저히 하면 될 뿐이지, 인격적인 예속관계나 치사스러운 정실(情實)관계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

게 된다. 모두가 피차 명예롭고 정당한 계약 당사자로서 떳떳이 일하고 떳떳이 협력하면 되는 것이다.

계약사상의 한 당연한 파생물로서 나오게 되는 공(公)·사(私)의 구별이야말로 민주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덕목(德目)이다.

왕조사회(王朝社會)나 가산제(家産制) 국가(國家)에 있어서는 공권(公權)이란 바로 사권(私權)으로 통하는 것이었고, 공인(公人)의 직권(職權)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하는 특권으로 통했다. 그리고 피치자(被治者)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家族)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인(公人)으로서의 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저버려도 그만이란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적 도덕관(道徳觀)은 동(東)·서(西)를 막론하고 수 많은 열녀(烈女)와 효자(孝子), 충신(忠臣)을 만들어냈지만 그 열녀(烈女), 효자(孝子), 충신(忠臣)들이 반드시 민주시민사회의 건실한 시민(市民)이 되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선 일말의 회의가 없을 수 없다. 왜냐 하면 효자(孝子)와 열녀(烈女), 충신(忠臣)이 발휘하는 사적(私的)인 도덕(道徳)과 시민(市民)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윤리(倫理)와는 간혹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사당(私黨)이나 봉당(朋黨) 또는 지연(地緣), 혈연(血緣)에 얽힌 전근대적 사인의식(私人意識)이란 때때로 심각한 사회적 역기능(逆機能)을 발휘하는 요소이다.

시민사회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덕목(德目)은 이른바 페어 플레이 정신(精神)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利害)의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을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하는 신사도(紳士道)의 모랄이라 할 수 있다.

우격다짐이나 억지 또는 반칙(反則)에 의거하는 「진흙탕 속에서의 난투(이전투구(泥田鬪狗))」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신사적으로 경쟁하다가 심판(審判)의 판정(判定)이 나면 그에 허심탄회하게 승복하고서 피차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는 것- 이것이 다름아닌 페어 플레이 정신이다. 정치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모두 이런 식으로만 전개한다면 인간사회에는 정글속과 같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이나 무법천지(無法天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理想)에 가장 접근한 행동률(行動律)이 바로 페어 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시민사회적 모랄이다.

페어 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화(對話)의 기법(技法)이다. 대화(對話)와 대화(對話)의 예술(藝術)이야말로 민주시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운용방식(運用方式)이다. 민주시민사회란 다른 무엇보다도 이해(利害)의 대립(對立)을 싸움에 의해 「해결」하려하는 대신 대화에 의해 「조정(調整)」하려는 사회이다. 이것은 따라서 일방(一方)의 타방(他方)에 대한 1백%의 전승(全勝)이나, 일방(一方)에 의한 타방(他方)의 1백%의 완패(完敗)를 지향하는 사고(思考)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대화(對話)에 의한 조정(調整)은 항상 타협(妥協)을 지향하며,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공존(共存)의 원칙을 준수한다.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관해 피차 신사적인 토론을 전개하여, 양측이 다함께 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다음, 일단

그것에 합의하면 깨끗이 토론을 마치고 축배를 드는 과정이 곧 대화(對話)의 길이다. 이것이 이를테면 동의(同意)에 의한 결정(決定)이란 것이다. 어떤 결론이든 이렇게 나와야만 모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정당성이 확보돼 있어야만 사회내적(社會內的) 평화(平和)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윤리(市民倫理)는 그런 것들에 그치지 않는다. 납세자(納稅者)로서 또는 소비자(消費者)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투철한 주인의식(主人意識)이라든가, 공공사회(公共社會)의 구성원으로서의 왕성한 참여의식, 그리고 공공(公共)질서를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준법정신 같은 것이 다 시민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덕목(德目)들은 시민사회의 공고한 정합성(整合性)을 보장하는 진지한 연대의식(連帶意識)이 없으면 하나의 모래알처럼 흩어지기가 쉽다. 민주시민사회란 물론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이지만, 그 개인주의를 만약 잘못 해석할 경우엔 사회의 공고성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적 개인주의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다른 것이다. 참다운 의미의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강한 책임의식과 연대(連帶)정신에 뿌리 박은 것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사회 역시 각자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무책임하고 자율능력(自律能力)이 없는 중우(衆愚)들만 있을 때에는 민주시민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모두가 동물적인 충동에만 이끌려서, 질서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자기의 천박한 이기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난투극을 벌이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선 민주시민사회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성숙(成熟)한 한국인상(韓國人像)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서구(西歐)에 있어서의 민주시민사회의 정신적 기초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현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시민정신은 오늘날에 왜 비단 서양(西洋)의 유산임을 초월해서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보편화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 가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근대의식(近代意識)이라 부를 만한 사고(思考)의 싹은 실학사상(實學思想)으로부터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듯 하다. 이 실학파(實學派)의 대두를 계기로, 전통적인 주자학(朱子學)의 공리공론성(空理空論性)과 비(非) 후생성(厚生性)이 비판되고, 실용(實用)과 복리(福利) 그리고 민본(民本)을 중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기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싹은 꽃을 피우기도 이전에 한말(韓末)의 전반적인 붕괴와 더불어 막(幕)을 내렸고, 그로부터 한국인(韓國人)들은 정상적인 정신적 발전의 궤도를 달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일제(日帝)의 침략과 식민통치, 8·15후의 혼란과 6·25동란(動亂)이란 기나긴 역사(歷史)의 풍파를 겪어오면서, 한국인(韓國人)의 의식은 여러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 멍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인(韓國人)들의 심층의식 속에는 어딘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식의 각박한 생존철학이 짙게 침윤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韓國人)의 정상적인 근대의식(近代意識)의 성장을 적잖이 방해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식민통치에 시달리고, 공산당의 남침(南侵) 때문에 난리를 치러야 하다보니,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염치고 체면이고 가리지 않고 이것 저것 다해야 한다는 철학이 뇌리에 꽉 박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생존철학은 자연히 규칙을 무시하고 남을 깔아봉개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한다는 식의 반칙(反則)의 게임을 낳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德目)이 아마도 공공(公共)질서의 관념일듯 싶다.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이 바로 공공(公共)질서 관념(觀念)인데, 우리는 아직도 줄서기 습성(習性) 하나 완전하게 익히지 못하지 않았나 싶다. 자기 집단이나 안방은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 놓으면서도 공중변소나 공공시설에서는 마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다는 듯이 무질서하고 불결하기까지 하다.

자기 가정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공손하다가도 일단 길거리에만 나왔다 하면 그야말로 피차 「용맹스럽게」 대하는 불친절과 무례함도 우리의 결점중의 하나이다. 길거리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양보의 미덕(美德)이나, 먼저 앉으시지요 하는 풍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떠미는 습성은 아마 대학을 나온 인텔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듯 하다.

토론(討論)과 싸움의 차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덕목(德目)중의 하나다.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정당한 토론의 과정을 밟아 조용히 조정하는 습성보다는 이내 큰 소리가 나오고 샷대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의 큰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일이다.

무서운 엄부(嚴父)가 있거나, 가부장적(家父長的) 권위(權威)가 있을 때는 규칙을 할 수 없이 지키다가도, 그런 두려운 존재가 없다 싶으면 별안간 방종해지는 습성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 공(公)과 사(私)에 대한 분간이 희미하고, 매사를 주먹구구로 적당히 넘겨버린다거나, 공공사회의 모랄 보다는 혈연(血緣)과 지연(地緣)에 얽힌 사적(私的)인 규범에 더 연연해하는 관념도 잔존하고 있다. 직장이나 소속집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규칙대로 무엇을 처리하기보다는 규칙 「밖」에서의 「수근거림」이나 정실(情實)관계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풍습도 많이 생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의식의 잔재를 헤아리자면 아마 이 정도에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족한 점을 언제까지건 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부

터나마 본격적인 민주시민사회의 덕목(德目)을 착실히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先進化)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지향(指向)을 상기할 때,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사회적인 의식(意識)의 정립(定立)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다.

합리성과 공공윤리(公共倫理)의식 그리고 사회정의를 핵심으로하는 민주시민 의식은 가정(家庭)과 직장(職場)과 중간단체(中間團體)와 공직자(公職者)사회 그리고 모든 사회분야(分野)에서 진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오래 끌 수만도 없는 일이다.

우선 바람직한 것은 전사회적(全社會的)인 교육장화(教育場化)이다. 마침 평생교육(平生教育)이다, 사회교육(社會教育)이다 하는 개념도 헌법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이나 주부(主婦), 노인(老人), 직장인들에 대해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덕목(德目)을 주지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다른 교육기회는 적잖이 마련되어 있다. 꽃꽂이 교육이나, 자동차 운전, 종교 교육, 어학 교육, 기능교육 등 수 없이 많은 교육기회가 있지만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신사교육」의 기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교육은 물론 「돈」이 생기는 교육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구히 의식(意識)의 후진성(後進性)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의식(意識)이 뒤쳐져있으면 물량(物量)이 아무리 선진화(先進化) 되어도 그것을 잘 운용(運用)하기가 어렵다.

쉬운 예(例)로 몇 해전에 있었던 이리(裡里)폭발사건을 들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다이내마이트를 싣고 가는 화물열차 안에서, 운반 책임자라는 사람이 촛불을 켜놓고 소주를 마시다가 졸았으니, 이것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失手)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큰 갭(Gap)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 사건이었다. 그 갭이란, 바로 물량적(物量的)인 성장(成長)과 의식상(意識上)의 미숙성(未熟性) 사이의 간격이라 할까 또는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물량적(物量的)으로는 자꾸만 어른이 되어가는데, 의식(意識)은 아직도 어린이 되지 않은 까닭에, 그 불일치(不一致)가 그런 상상도 못할 사고를 빚어낸 셈이다. 고도(高度) 산업사회에는 고도(高度)의 시민윤리와 시민적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성숙(成熟)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숙한 시민이란 자기가 할 바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줄 아는 책임감과 양식(良識)이 갖춰진 시민을 말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한 마디로 성숙사회(成熟社會)에의 지향(指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성숙사회는 첫째, 자율적(自律的)인 컨트롤에 의해 움직여지고 유지되는 사회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하고 안할 일을 안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성숙사회는 수분(守分)의 사회이다. 수분(守分)이란 자기 분수를 지키는 양식인데, 가령 돈이나 직권을 쥐었다고 해서 별안간 큰 집을 짓고 별안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셋째로, 성숙사회는 균형된 사회를 말한다. 한 방면으로는 급속히 줄달음질을 치면서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식의 불균형은 성숙된 풍토가 아니다.

끝으로 성숙사회란 그야말로 「얼렁뚱땅」이 통하지 않는 성실(誠實)의 자세, 근면과 노력이 통하는 공정(公正)한 사회이다. 이러한 기준이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기 어렵다.

지나간 20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덕택에 그래도 이만한 정도의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물량적(物量的) 성장을 계속 밀고나가는 한편으로, 그에 합당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공고하게 다져나가야 하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아랫물도 자발적으로 맑아져야 상하(上下)가 함께 맑아질 수 있다. 이 자발성이야말로 시민정신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지키는 가운데 명예와 염치와 공공윤리를 중시하는 참된 민주시민사회의 정신적 성숙이 완성돼야 할 시점(時點)이다.

〈 화제(話題)의 원천(源泉) 〉

◆ 공처가의 거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치페는 악처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만한 철인(哲人)쯤 되면 처가 좋고 나쁘고는 문제도 되지 않는 듯하다.

처의 간소리에 대하여 그는 「물방아 도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듣기 싫지 않게 된다」고 말했으며 머리에 물을 뒤집어 쓰고도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오는 법」이라며 상대를 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난폭한 말을 타는 데에 익숙해지면 다른 말을 타기는 쉽다. 내가 이 여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천하에 사귀기 힘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이 거둔 성과(成果)

우리는 훌륭한 옛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계승될 수 있는 정신적 혈액으로서 약동하지 못할 때 한갓 유물(遺物)에 머물고 말 것이다.

오 광 수 (吳光洙)
〈미술평론가(美術評論家)〉

I.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은 근래의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문화(傳統文化)에 대한 해외소개(海外紹介)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후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진출은 꾸준히 있어온 일이다. 대체로 이들 해외소개와 진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의 해외소개라든지 진출이 극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것이어서 일시적인 효과와 반향(反響)을 얻는데 그친 인상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극히 순간적인 것이어서 그 여운이 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미국에서 열린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은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것일 뿐 아니라 본격적인 기획이었다는데서 그 반향(反響)의 여운은 더 깊고 오랜 것이 되지 않았나 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인식시킨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다.

미국내 주요 8개 도시(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캔사스, 와싱턴)의 유명 미술관에서 2년 5개월에 걸쳐 순회 전시되었으며, 이 전시를 관람한 인원이 2백 26만 2천명이라고 하니 이 숫자는 미국인 1백명 중 1명 이상이 이 전시를 관람했다는 기록이 된다. 실로 그 반응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던 필자(筆者)가 미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와싱턴 전시를 볼 수 있었다. 관람하는 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운 표정과 감탄을 거듭하는 광경을 보고 신문지상으로만 듣던 이상으로 그 반응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전시된 작품보다도 이들 관람객의 반응이 더욱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우리들 박물관에서 보아오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역만리(異域萬里) 남의 땅에 와서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남의 땅, 남의 사람들이 의외로운 표정과 감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층 우리를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박물관에서 무심히 보아버릴 수 있었던 것과는 전연 다른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 것을 상황의 대비적(對比的)인 효과 속에서 되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미술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와 그리고 동행했던 현대미술가들이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우리의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워주었던 사실은 잊을 수 없다. 참으로 귀한 체험이었다. 사실 이 미국전시가 이루어 지게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일본(日本)에서의 「5천년전(千年展)」이라고 듣고 있다. 이번 미국전시 못지않게 일본(日本)에서의 전시도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상(紙上)을 통해 접한바 있다.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문화(日本文化)가 한반도(韓半島)와 얼마나 밀착된 관계 속에서 꽃이 피었는가를 일본(日本)의 역사는 왜곡(歪曲)해 왔으며,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고 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5천년전(千年展)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전시가 계기가 되어 일본내의 비뚤어진 한국문화(韓國文化)에 대한 눈이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었다는 것과 양식적(良識的)인 일부 학자들 사이에 일본역사(日本歷史)를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성이 대두된 것은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전(美國展)은 이같은 일본전(日本展)이 불러 일으킨 충격적 반향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들고 있다. 일본전(日本展)에 참관하였던 미국인 학자들이 일본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기반으로 솔선 미국전시를 주선하였다고 한다. 물론 미국내의 반응은 일본에서의 그것과는 질이 다르다고 보겠다. 한국(韓國)과 일본(日本)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본전(日本展)에 비해 보다 넓은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이라는 대비적인 입장이 앞서고 있으며, 동양삼국(東洋三國) 가운데서의 독자적인 한국미술(韓國美術)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미국전시의 의의가 있었지 않았나 본다.

동양(東洋) 삼국(三國) 가운데서도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은 서구(西歐)에 많이 소개되고 이해도 된 반면 한국(韓國)은 지나치게 무시되어 온 사실에서 미국전의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치부해 볼 수 있다. 뉴욕 타임즈가 밝힌바 「평범한 서양의 미술애호가에게 있어서 한국미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中國)이나 일본미술(日本美術)은 서구(西歐)에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미술(韓國美術)은 무시되었었기 때문이다」란 말 속에서도 이번 미국

전은 서양사람들에게 한국미술(韓國美術)이 갖는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이해시켜준 기회였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이 전시가 한국미술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름있는 유럽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한국(韓國)의 역사(歷史)나 미술(美術)은 중국(中國)의 아류(亞流)나 일본(日本)의 영향(影響)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비뚤어진 한국역사(韓國歷史) 내지 미술관(美術觀)을 교정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우리의 문화적(文化的) 주권(主權)을 회복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듣건데, 이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학술(學術)심포지움이 열리어 상호토론 가운데서 왜곡(歪曲)된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전시는 단순히 우리 것을 보여주고 이해시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 전시의 더욱 높은 의도는 상호이해의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은 우리 미술문화를 단순히 미국내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두 개의 이질(異質)한 문화(文化)의 상호이해와 접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 두 민족간의 유대의 강화가 이 전시가 지니는 궁극적인 목적이야 한다는 것이다. 불티모어선 지(紙)에서 밝힌바 「만일 이번 전시회가 한국인들의 생각과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케하는 교량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두 개의 엄청나게 다른 두 문화를 보다 가까이 접근시킨다는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란 말도 두 나라 사이의 유대를 문화를 통해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현실적인 정치(政治), 경제(經濟)의 교류 못지 않게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은, 문화가 곧 정신활동의 결정체로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화가 모든 분야의 가장 근원적인 부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적(文化的) 차원에서의 해외와의 유대형성은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온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지나치게 형식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상도 없지 않다. 이런 모든 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이 거둔 성과(成果)는 아무리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II.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에 출품된 문화재는 정수문화재 264건에 354점이라고 한다. 5천년전의 선사시대(先史時代) 빗살무늬 토기(土器)에서 현대의 동양(東洋) 화가(畫家)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의 산수화(山水畫)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의 역사를 한눈으로 조망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숫자는 우리의 문화유적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문화 5천년의 발전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며, 한국을 직접 보지 않는 외국인들이라도 이만한 엿센스면 충분히 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 전시에 대한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반응과 관심을 종합해보기로 하자. 현지의 신문이나 교포들을 통한 그 곳 사람들의 한국미술에 대한 태도는, 우선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미술의 독자성과 예술적 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보아진다. 한국미술이 특히 동양 3국 가운데 독자한 영역을 유지해 왔으며 그 수준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보아 그러지 동양3국(東洋三國)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양식으로서의 불교적(佛敎的) 문화재(文化財)나 아카데미한 회화예술(繪畫藝術) 쪽 보다는 풍토적 감각과 한국인 감성에 더욱 밀착된 부류의 것이 더욱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지상에서도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필자가 직접 목격한 바로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금관(金冠)이나 고려(高麗)와 조선조(朝鮮朝)의 도자기(陶磁工藝) 쪽에 비상한 관심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신라 금관(新羅金冠) 앞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고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금(金)으로 만든 왕관(王冠)이라는 옛 왕조의 권위에 대한 호기심도 있겠으나, 이 금관(金冠)을 통해 수렴되는 이 시대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가장 직절(直截)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 과거에 이렇게 수준높은 문화가 한반도(韓半島)란 지역에 꽃을 피웠다고 하는 사실의 확인, 그래서 그것이 고대(古代)의 어느 지역 문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거듭 음미하는 인상이었다.

어느 나라의 미술이든 그것이 제나라에 있을 때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심코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다른 지역, 다른 환경 속에 옮겨 놓았을 때 한결 돋보인다는 것은 역시 다른 지역의 미술과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라 본다. 이는 비단 미술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국미술(韓國美術)이 일본(日本)이나 미국(美國)이란 다른 지역에 전시됨으로써 더욱 그 특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곳의 이질한 미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日本)전시 때,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이 일본의 국보(國寶) 1호(號)인 광릉사(廣隆寺)목조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너무나 유사하여 이를 비교해보는 일본인들이 경악케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 틀림없다는 과학적 조명이 가해지게 된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일본문화(日本文化)는 한국이 그 연원(淵源)이란 사실을 자각한 것도, 한국미술 속에서 발견되는 각가지 혈통적인 요소들이 자신들의 미술과 비교해 봄으로써 너무나 자명하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한국미술은 이와같은 사례는 일어날 수 없지만,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문화(文化)의 비교란 점에서 한국미술의 독자성이 한층 부각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의 미술은 서양의 미술이나 같은 동양권의 미술에 비해 부드럽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감성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밝힌바 특성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불상(佛像)이나 고려(高麗), 조선조(朝鮮朝)의 공예품(工藝品) 또는 조선조회화(朝鮮朝繪畫)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는 한결같이 소박하고 어질면서 구수한 맛을 지니고 있음이다. 미술사학자(美術史學者) 고유섭(高裕燮)이 이미 지적한 바 「구수한 큰맛」으로서의 소박하고 건실함을 지니고 있다. 또 「무계획의 계획」으로서 항상 자연에 회귀(回歸)하려는 무위(無爲)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은 서구의 미술에선 아무리 찾으려해도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일찌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해 온 것도 미술작품 속에 연면하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특성에서 반영되고 있다. 미국인들에겐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미술작품을 통해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신문 문화강좌를 통해 보고 강연이 있는 자리에서 최순우(崔淳雨) 국립중앙박물관장(國立中央博物館長)은 「한국미술처럼 부당하게 냉대를 받아온 것은 없었다. 이 전시회는 미국시민의 가슴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파문을 새겼다」고 이야기 하였다. 바로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파문이야말로 한국미술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특성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미술이든, 그 지역의 환경조건과 인간의 심성의 반영이란 점에서 한국미술은 곧 한반도의 환경적 조건과 한국인의 심성의 표현임에 다름 아니다. 한국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한국인의 심성,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III.

어쨌거나 이 전시는 우리순화, 우리의 찬란한 전통을 되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다. 미국내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를 계기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졌다는 소식도 이 전시가 거둔 성과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나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지나친 우월감은 객관성을 흐리게하고 맹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맹목화가 심화되면 국수주의(國粹主義)에 빠지게 된다. 과거 우리의 미술사(美術史)를 기술해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같은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객관성을 잃고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인 자기도취에 빠진 사례들을 얼마든지 보아왔다. 덮어놓고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의 찬사와, 덮어놓고 우리 것이면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수식하는 감상주의적(感傷主義的) 기술이 커다란 폐단이었음은 이제금 반성되고 있는 터이다.

또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과거를 존송하고 현재를 비하하려는 콤플렉스이다. 과거의 찬란한 문화에 비해 현대는 너무 초라하다는 강박관념이 자기 비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현대를 덮어놓고 부정하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과거에만 메달리는 태도도,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다같이 지나간 처사이다. 우리의 문화정책(文化政策)이 지금까지 주어진 이미지가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가 찬란한만큼 상대적으로 오늘의 문화를 진작시켜야한다는 정책보다는 편리하게 과거 속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현대문화(現代文化)가 꽃피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확실히 좋은 과거의 문화(文化)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계승될 수 있는 정신적 혈맥으로서 약동하지 못할 때 한갓 유물(遺物)에 머물고 말며, 과거의 추억 속에 칩거하는 늪은이의 몸물이 되고 만다. 그것이 전통(傳統)이 맥락(脈絡) 속에 회생되고 오늘의 문화(文化)속에 맥박하는 정신의 샘이 될 때 비로소 과거는 그 찬란한 의미를 오늘에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은 우리의 유산을 해외에 전시함으로써 찬란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 현대문화를 건설하는 정신적 바탕으로서 재생되게끔 각가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를 통해 현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미술(韓國美術) 5천년전(千年展)」이 갖는 또 다른 의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미(美) 공군대학원(空軍大學院) 전략정책(戰略政策)과정을 우등(優等)으로 수료(修了)함과 동시에 어번대학교(大學校) 석사(碩士)과정을 우수한 성적(成績)으로 졸업(卒業)하여 미국(美國) 정치학회(政治學會) 회원자격(會員資格)을 취득(取得)한 바 있는 필자(筆者)가 해외유학(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공(提供)한 당시 어번대학(大學) 정치학(政治學) 석사(碩士)과정의 졸업논문(卒業論文)이다.

한국(韓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

- 4강(強)을 중심(中心)으로 -

서진태 (徐鎭泰)

I. 서론(序論)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 직후(直後)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비적성신생국(非赤性新生國)들의 지도원리(指導原理)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후(後)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이를 채택(採擇)한 각(各) 나라의 정치(政治) 현실(現實)과 상충(相衝)하게 되었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의 전통이념(傳統理念)과 관습(慣習)에 정면(正面)으로 충돌(衝突)했다. 이념(理念)을 바탕으로 아직도 부분적(部分的)으로 분단(分斷)된 세계(世界)에 있어 신생독립국(新生獨立國)들이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지향(指向)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중대(重大)한 문제(問題)다.

한국동란(韓國動亂) 때까지 세계(世界)는 한반도(韓半島)의 중요성(重要性)을 차지하고 그 존재(存在)조차 거의 알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韓國)은 미국(美國)이 깊이 개입한 세계(世界)에서 몇 안 되는 국가중(國家中)의 하나다. 미국(美國)은 9천명(千名)의 공군외(空軍外)에 3만여명(餘名)의 지상군(地上軍)을 한국(韓國)에 주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司令部)와 한(韓)·미연합사령부(美聯合司令部) 아래 강력(強力)한 60만 한국군(韓國軍)을 작전통제(作戰統制)하고 있다. 1945년(年) 이후(以後) 미국(美國)은 70억불(弗)의 군사원조(軍事援助)와 60억불(弗)의 경제원조(經濟援助)를 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동란(韓國動亂)에 쓴 수십억불(弗)과 수천명의 인명(人命)은 따로 계산된다. 한국(韓國)은 미(美)·소(蘇)·일(日)·중(中) 4강

(強)이 만나는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색(特色)을 갖고 있다.

특(特)히, 1979년(年) 10월(月) 고(故) 박 대통령(朴大統領) 암살 이후 사람들 사이에 한국(韓國)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불안(不安)에 대(對)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韓國)의 장래(將來)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혼동(混同)과 왜곡(歪曲)은 주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인(美國人)들은 한국(韓國)에 대(對)해 너무 아는게 적다. 그래서 한국(韓國)의 사정(事情)과 입장(立場)에 대(對)한 솔직하고 체계있는 평가(評價)와 제시(提示)가 요구(要求)된다. 서구(西歐)수준에 맞춰 동떨어진 먼 나라를 이해(理解)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한국(韓國)의 지위(地位)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변수(變數)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해(理解) 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나는 한국(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問題)를 좀더 잘 이해(理解)할 필요가 있는 미국인(美國人)들을 위하여 이러한 변수(變數)를 분명히 밝히고 이들이 한국(韓國)에 끼치는 영향력(影響力)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먼저 한국(韓國)의 지리적(地理的),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을 고찰(考察)하고, 이러한 배경(背景)이 불가피(不可避)하게 현재(現在)의 문화적(文化的) 환경(環境)에 중대(重大)한 영향(影響)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문화적(文化的) 환경(環境)에 대(對)하여는 제(第)3장(章)에서 사회(社會), 경제(經濟) 및 정치적(政治的) 발전(發展)의 관점(觀點)으로부터 고찰(考察)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韓國)은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들의 대외정책상(對外政策上) 희생물(犧牲物)로서 한국(韓國)의 안보(安保)에 대(對)하여 고찰(考察)하려면 우선 제(第)4장(章)에서 다룰 한반도(韓半島)에 얽힌 이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第)5장(章)에서는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싼 국제정세(國際情勢)와 한국내(韓國內) 한(韓)·미(美) 양군(兩軍)의 군사태세(軍事態勢)에 관계(關係)된 군사적(軍事的) 환경면(環境面)에서 한반도(韓半島)의 안보환경(安保環境)을 살펴 보겠다. 마지막으로 제(第)6장(章)에서는 한(韓)·미안보체제(美安保體制) 및 경제협력관계(經濟協力關係)의 효과적(效果的) 유지에 역점(力點)을 두고, 4강(強)의 역학관계(力學關係) 속의 한국(韓國)의 지위(地位)를 향후(向後) 10년간(年間) 한국(韓國)의 주요과제(主要課題)에 집중(集中)시켜 다루겠다. 이 장(章)에서는 또한 한(韓)·일경제관계(日經濟關係)의 재정립과 이 지역안보(地域安保)에 대(對)한 일본동참문제(日本同參問題)를 다루겠다.

본(本) 논문(論文)의 논지(論旨)는 미국인(美國人)을 상대(相對)로 하여, 21년간(年間) 공군(空軍)에 복무(服務)하는 동안 얻은 경험(經驗)과 관찰(觀察)에서 나온 엄밀한 사건(私見)이며 반드시 정식(正式) 학구적(學究的) 분석(分析)에 바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 둔다.

II. 한국(韓國)의 지리적(地理的),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1. 지리(地理)

한국(韓國)은 동북(東北)아시아 남(南)쪽으로 600마일 뻗친 반도(半島)이며 일본열도(日本列島)와는 120마일 떨어져 있다. 동(東)으로 동해(東海)와 서(西)로 황해(黃海)에 접(接)해 있고 북(北)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境界)를 짓고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수도(首都) 서울은 동경(東京)에서 서(西)로 700마일, 선양에서 동남(東南)으로 300마일, 오키나와에서 북서로 800마일 떨어져 있다.

반도면적(半島面積)은 221,325km² (약(約) 8,600평방마일)이며 미국(美國)의 테네시주(州)와 켄터키주(州)를 합(合)친 면적(面積)과 거의 비슷하다. 현재(現在) 이 땅은 공산북괴(共產北傀)와 자유대한(自由大韓)으로 양분(兩分)돼 있으며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은 반도(半島)의 약(約) 45%를 점(占)하고 있어 대략 켄터키주(州)와 포르투갈 영토(領土)와 같다.

중국(中國) 및 러시아의 대륙세력(大陸勢力)과 일본(日本)에 인접(隣接)한 한반도(韓半島)는 오랜동안 대륙문화(大陸文化)를 일본(日本)으로 전(傳)하는 육교(陸橋)역할을 했다. 반도(半島)의 위치(位置)는 인접문화(隣接文化)에 쉽게 접근(接近)하는 잇점과 이웃의 침공목표(侵略目標)가 되는 불리점(不利點)을 함께 갖고 있다.

2. 인구(人口)와 이민(移民)

1978년(年) 남한인구(南韓人口)는 약(約) 3,700만명(萬名)에 북한인구(北韓人口)는 1976년대비(年對比) 약(約) 1,650만명(萬名)으로 추산(推算)된다. 제(第)2차세계대전전(次世界大戰前) 한국인(韓國人)은 만주와 일본(日本)으로 이주(移住)했고 현재(現在) 일본(日本)에 약(約) 60만(萬)의 교포(僑胞)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1945년(年) 이후(以後)와 한국동란중(韓國動亂中)(1950~1953) 많은 사람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월남(越南)한 사실은 최근(最近)에 일어난 가장 중요(重要)한 이주사례(移住事例)가 되고 있다.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이 끝나고 소련(蘇聯)이 북한(北韓)을 점령(占領)한 1945년(年) 이후(以後) 약(約) 200만(萬)의 동포(同胞)가 월남(越南)했다. 한국인(韓國人)은 단일민족(單一民族)에 단일(單一) 어(語)(한글)를 사용(使用)하며 소수민족(少數民族)이 없다.

급속(急速)한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산업화(產業化)는 한국(韓國)에서 도시화(都市化)를 가속(加速)시켰다. 남한(南韓)의 도시인구(都市人口) 증가(增加)는 농촌인구(農村人口)의 감소(減少)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975년(年) 인구(人口)센서스에 따르면 48.5%) 농촌(農村)에 살고 있다. 농촌인구(農村人口)의 대부분(大部分)은 농업(農業)에 종사(從事)하고 있고 그 분포(分布)는 경작지(耕作地) 분포(分布)와 거의 일치(一致)하고 있다.

인구밀도(人口密度)는 수도(首都) 서울과 항도(港都) 부산(釜山)이 특(特)히 조밀(稠密)하며 서울의 인구(人口)는 지난 2~30년간(年間) 크게 증가(增加)해 1978년(年)에 780만(萬)에 달하고 있다.

도시경관(都市景觀)도 1960년대(年代) 말(末)부터 크게 변(變)해 1960년(年) 이전(以前)에는 하늘을 치솟는 현대식(現代式) 고층건물(高層建物)이 서울에 없었으나 1970년대초(年代初) 30층(層)이 넘는 수십개(數十個)의 빌딩이 서울의 상가(商街)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잇따라 거리가 확장됐고 유(有)·무료(無料)의 고속도로(高速道路)가 생겼다. 전차(電車)는 1969년(年)에 철거(撤去)됐고 지하철(地下鐵)이 1974년(年)에 완성(完成)됐으며 계속해서 지하철(地下鐵)이 건설중(建設中)에 있다. 수도통신(水道通信), 가스같은 공공시설(公共施設)이 확장(擴張)되고 있지만 항상 수요(需要)가 공급(供給)을 앞지르고 있다.

3. 한국약사(韓國略史)

한국(韓國)은 오랜 역사적(歷史的) 유산(遺産)과 민족전통(民族傳統)을 간직한 풍부(豐富)하고 독특(獨特)한 독자문화(獨自文化)를 갖고 있다. 또 자연(自然)이 아름다워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린다. 그러나 세계사(世界史)의 가장 비극적(悲劇的)인 국가중(國家中)의 하나로, 나라가 작고 약한데다 미(美)·소(蘇)·일(日)·중(中)의 이해(利害)가 교차(交叉)되는 전략적(戰略的) 위치(位置)에 있기 때문에 한국(韓國)은 거듭되는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의 침공(侵攻)과 역침공(逆侵攻)의 희생물(犧牲物)이 되었다(한국인(韓國人)들은 역사상(歷史上) 900회(回) 이상(以上)의 외침(外侵)을 받았다.). 수세기(數世紀) 동안 한국(韓國)은 중국(中國)의 문화문명(文化文明)을 일본(日本)에 전(傳)해 주었다.

19세기(世紀) 마지막 4반세기(半世紀)가 시작(始作)됐을 때 한국(韓國)은 1910년(年) 일제(日帝)에 주권(主權)을 빼앗기기 전(前)까지 이 나라를 다스려온 이조(李朝)의 통치하(統治下)에 있었다. 이때는 엄격하고 계급적(階級的)인 유교(儒敎)에 바탕을 둔 오랜 이조(李朝)의 정치(政治), 사회(社會), 윤리제도(倫理制度)가 붕괴(崩壞)되고 해체(解體)되는 과도기(過渡期)였다. 전제정부(專制政府)에는 당쟁(黨爭)과 귀족들의 권력암투(權力暗鬪)가 횡행(橫行)했고 사회(社會)는 전통(傳統)에 묶여 정적(靜的)이었으며 귀족계급(貴族階級)(양반)과 평민계급(平民階級)(상인)으로 층(層)을 이루었다. 귀족계급(貴族階級)인 양반은 부(富)와 권력(權力)과 특권(特權)을 누리 반면(反面)에 평민(平民)은 가난과 무지 아래 억압받았다. 사회경제구조(社會經濟構造)는 농업(農業)을 기본(基本)으로 공업(工業)과 상업(商業)은 중시(重視)하지 않았다.

정치구조상(政治構造上) 중앙정부(中央政府)는 약(弱)하고 국민(國民)들과 떨어져 있었다. 지방정부(地方政府)는 강력(強力)했고 중앙정치(中央政治)에 대(對)한 지방민(地方民)의 행동거취(行動去就)를 좌우(左右)했다. 중앙(中央)과 지방간(地方間)의 거리가 멀어 정부(政府)의 실권(實權)과 행정(行政)은 끊임없이 감투싸움만 일삼던 위정자(爲政者)들에 의해 행사(行使)됐다.

왕(王)은 이론상(理論上) 국가절대군주(國家絶大君主)였지만 실제 정부(政府)의 정치(政治)와 조치에 대한 통제권(統制權)이 없었다. 한마디로 한국(韓國)은 중세(中世)의 다른 나라처럼 계급적(階級的) 봉건적(封建的) 사회(社會)였으며 전통(傳統)에 얽매어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자각의식(自覺意識)이 결여(缺如)된 국민(國民)을 가진 귀족정치국가(貴族政治國家)였다. 한국인(韓國人)들은 근대세계(近代世界)의 변모(變貌)와 근대(近代) 서구문화(西歐文化)로 이룩된 제국주의(帝國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 경제외교주의(經濟外交主義)의 새 힘을 알지 못했다. 단일왕조(單一王朝)의 간단(間斷)없는 장기통치(長期統治)와 함께 단일문화(單一文化), 단일어(單一語)는 한국사회(韓國社會)를 단일화(單一化)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것이 외부세계(外部世界)의 힘이 한국(韓國)의 잠자는 사회(社會)와 통치자(統治者)들에 의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릴 때 지배했던 한국(韓國)의 사회정치(社會政治) 사정(事情)이었다. 이러한 쇠국자세(鎖國姿勢)는 16, 17세기(世紀)에 만주, 몽고, 일본인(日本人)들에 의해 거듭된 외침(外侵)의 경험(經驗)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서양이방문명(西洋異邦文明)에 대(對)한 쇠국정치(鎖國政治)는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이 서양(西洋)에 의해 문을 연 후에조차 완고하게 시행(施行)됐다.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양대(兩大) 이웃에 낀 한국(韓國)의 위치(位置)가 역사(歷史)에 걸쳐 많은 문제(問題)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한국인(韓國人)은 몽고족(族) 통치(統治)의 1세기(世紀)를 제외(除外)하고는 거의 2천년간(千年間) 독립국가(獨立國家)로서 독자문화(獨自文化)를 잘 유지(維持)했다. 한편 한국(韓國)은 대부분(大部分)의 문제(問題)를 스스로 처리했지만 유교형제국(儒教兄弟國)으로 중국(中國)을 섬기도록 강요당했다. 비록 한국(韓國)은 강대(強大)한 군사적(軍事的) 전통(傳統)은 갖고 있지 않지만 때때로 다른 나라의 전쟁(戰爭)을 위한 전장(戰場)이 되었고, 한국인(韓國人)은 항상 그들이 보여준 굳센 끈기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韓國人)들은 놀라운 예술적(藝術的), 기술적(技術的) 창조성(創造性)을 보였다. 한국(韓國)은 세계(世界) 최초(最初)로 금속활자(金屬活字)를 사용(使用)했으며 한글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문자체제중(文字體制中) 가장 정교(精巧)하며 실용적(實用的)인 글자로 간주(看做)되고 있다. 16세기(世紀)에 한 해군제독(海軍提督)은 일본(日本)의 침입(侵入)을 물리치려고 세계(世界) 최초(最初)로 철갑선(鐵甲船)인 거북선을 발명(發明)했다. 미술(美術)에 있어 한국인(韓國人)들은 전통적(傳統的)으로 자기(瓷器), 그림, 목공예(木工藝), 편직(編織), 건축(建築)에 뛰어났다. 오늘날에 가장 완숙(完熟)한 솜씨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및 가수중(歌手中) 일부는 한국출신(韓國出身)이다.

정치(政治)에 있어 당쟁(黨爭)은 끊임없는 재앙(災殃)이었다. 당쟁(黨爭)은 이조시대(李朝時代) 부패(腐敗)와 정체(滯滯)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이었다. 이조(李朝)의 붕괴(崩壞)는 1894~1895년(年)의 중(中)·일(日) 전쟁(戰爭)의 결과(結果) 한국(韓國)에서 오랜동안 영향력

(影響力)을 행사(行使)해 온 중국(中國)을 대신하여 일본(日本)의 공동통치(共同統治)를 가져왔고 1910년(年)에 일본(日本)에 공식적(公式的)으로 합병(合併)됐다. 수년간(數年間)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의 모든 것을 말살(抹殺)하고 한국인(韓國人)을 2급(級) 일본인(日本人)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일본인(日本人)이 이용(利用)했던 한국인(韓國人)의 민족성중(民族性中) 하나는 근면(勤勉)이었다. 일본(日本)의 지주(地主)와 업자(業者)들은 일제(日帝)에 식량(食糧)과 원자재(原資材), 기초산업(基礎產業)을 제공(提供)하는데 한국인(韓國人)의 노동력(勞動力)을 충분(充分)히 이용(利用)했다.

1945년 일본(日本)으로부터의 해방(解放)은 얼룩진 승리(勝利)였다. 한국(韓國)은 다시 한번 강대국(強大國)인 소련(蘇聯)과 미국(美國)의 볼모가 되었다. 이 임의적(任意的)인 국토분단(國土分斷)은 거대(巨大)한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정치적(政治的) 문제(問題)를 초래(超來)했고, 남북간(南北間)의 전쟁(戰爭)은 문제(問題)를 보다 복잡(複雜)하게 만들었다. 불행(不幸)에 낯설지 않은 한국인(韓國人)도 한국동란(韓國動亂) 때보다 고통(苦痛)받은 적은 없었다. 전후(戰後) 미국(美國)의 원조(援助)가 많이 왔고 매우 유익(有益)했지만 국토(國土)의 황폐(荒廢)와 정치지도자(政治指導者)의 결여(缺如)로 전쟁(戰爭)의 상처를 치료(治療)하는 데는 오랜 시일(時日)이 걸렸다.

위기(危機)가 신생한국(新生韓國)에 덮혔을 때 한국인(韓國人)들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조치(措置)를 취했다. 그들은 대한민국(大韓民國) 초대(初代) 대통령(大統領)이자 강력(強力)하고 명석(明皙)한 프린스톤대학(大學) 출신(出身) 정치지도자(政治指導者) 이승만박사(博士)에게 비상권(非常權)을 주었다. 1948년(年) 8월(月) 15일(日) 정부수립후(政府樹立後) 수년간(數年間) 이대통령(李大統領)과 입법부(立法府) 사이에 끊임없는 세력(勢力)다툼이 있었다. 이박사(李博士)는 4년임기(年任期)의 3선(選)을 금지(禁止)하는 헌법(憲法)을 개정(改正)하여 대통령직(大統領職)을 연장(延長)하려고 했다. 그의 권력(權力)이 커지고 정부(政府)의 부패(腐敗)가 만연(蔓延)하자 정부(政府)에 대(對)한 불만(不滿)이 늘었다. 1960년(年) 3·15부정선거(不正選舉)는 이러한 분노(憤怒)와 좌절(挫折)을 “4·19학생의거(學生義舉)”로 폭발(爆發)시켰다. 이 혁명(革命)의 결과(結果)로 새 정부(政府)가 들어섰고 헌법(憲法)이 개정(改正)됐으며 대통령책임제(大統領責任制)가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로 바꿨다. 이정권(李政權)의 몰락후(沒落後) 얼마동안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꽃이 피는듯 했으나 끝내 만발(滿發)하지는 못했다. 결국 제(第)2공화국(共和國)(1960.4.19~1961.5.16.)은 국민(國民)들의 많은 정당(正當)한 불평(不平)을 처리하는데 부적격(不適格)함이 입증(立證)되었다. 이 정부(政府)의 짧은 집권기간(執權期間)은 부패(腐敗), 족벌주의(族閥主義), 고실업(高失業)과 끊임없는 데모 그리고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되어야 할 인권(人權)의 무책임(無責任)한 남용(濫用) 등(等)으로 계속 점철(點綴)됐다. 학생봉기(學生蜂起)는 사실상(事實上) 대의명분(大義名分)없어도 거리로 나서는 것이 행동(行動)하는 길임을 국민(國民)들에게 명확(明確)히 인식(認識)시켰다. 국내정치(國內政治),

경제문제(經濟問題)는 점차 악화(惡化)돼 가는데 정부(政府)의 여러 정당(政黨)은 서로 싸움만 계속했다.

1961년(年) 5월(月) 16일(日)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가 쿠데타로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하고 즉각 헌법(憲法)을 정지(停止)시켰다. 민정(民政)이 회복(回復)되자 대통령책임제(大統領責任制)를 지지(支持)하는 새 헌법이 발효(發効)됐다. 비록 박정희장군(朴正熙將軍)이 쿠데타로 권력(權力)을 잡았지만 나중에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1963년(年)과 1967년(年)의 대통령선거(大統領選舉)에서 대통령(大統領)으로 피선(被選)됐다. 1969년(年) 당시 헌법(憲法)으로는 박대통령(朴大統領)이 세 번 출마(出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여당(政府與黨)은 그가 다시 출마(出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을 통과(通過)시켰다. 1971년(年)에 그는 1975년(年)으로 종료(終了)되는 새 임기(任期)의 대통령(大統領)으로 선출(選出)됐다. 1971년(年) 선거(選舉)당시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전적(全的)으로 서구식(西歐式)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合當)한지 엄밀히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는 여론(輿論)이 미디어와 지식층(知識層) 사이에서 논의(論議)됐다. 그들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그 전통(傳統)과 문화(文化), 그리고 잠정적(暫定的)인 요구(要求)에 맞는 어떤 새 형태(形態)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발전(發展)시킬 것을 주창(主唱)했다. 1972년(年) 10월(月)에 박대통령(朴大統領)은 계엄령(戒嚴令)을 선포(宣布)하고 특별성명(特別聲明)을 발표(發表)하여 헌법(憲法)의 일부(一部)를 정지(停止)하고, 국회(國會)를 해산(解散)하고, 정당행위(政黨行爲)와 집회(集會)를 금지(禁止)시켰다. 박대통령(朴大統領)은 이러한 모든 것이 또 한 번의 헌법개정(憲法改正) 속에 소위(所謂) 유신개혁(維新改革)을 단행(斷行)하고 국가(國家)를 평화적(平和的)으로 재통일(再統一)하는데 필요(必要)하다고 주장(主張)했다. 그 후(後) 곧 계엄령하(戒嚴令下)에서 국민투표(國民投票)가 실시(實施)되고 유신헌법(維新憲法)이 채택(採擇)됐다.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이어 곧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라 불리는 선거인단(選舉人團)이 완전(完全)히 박대통령(朴大統領)에게 충성(忠誠)하는 사람들로 구성(構成)되어 그를 6년임기(年任期)의 대통령(大統領)으로 재선(再選)시켰다.

박대통령(朴大統領) 정부(政府)의 업적(業績)은 잘 알려져 있다. 비록 박대통령(朴大統領)이 보통 서구민주주의(西歐民主主義)에 입각(立脚)한 행정(行政), 입법(立法), 사법부간(司法府間)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 위에 대통령제(大統領制)를 새 헌법(憲法)에 마련하는데는 실패(失敗)했지만 한국(韓國)의 최근세사중(最近世史中) 최초(最初)로 정치적(政治的) 안정(安定), 경제(經濟) 발전(發展), 국가안보(國家安保)를 보장(保障)하려는 순수한 국민노력(國民努力)이 기울여지게 되었다.

4. 한반도(韓半島)의 분단(分斷)

제(第)2차세계대전중(次世界大戰中)인 1943년(年) 11월(月)의 카이로회담(會談)에서 한국

(韓國)의 장래(將來)가 연합국측(聯合國側)에 의해 처음 언급(言及)되었다. 미(美)·영(英)·중(中) 삼국(三國)은 「한국민(韓國民)의 예속상태(隸屬狀態)를 인지(認知)하여 가까운 장래(將來)에 한국(韓國)을 자유(自由)롭게 독립(獨立)시킬 것을 결정(結定)했다」는 선언문(宣言文)을 발표(發表)했다. 1945년(年) 2월(月) 미국(美國)의 루스벨트대통령(大統領)은 소련(蘇聯)의 스탈린과 알타에서 비밀회담(秘密會談)을 갖고 이 회담(會談)에서 루스벨트는 미(美)·중(中)·소(蘇) 삼국(三國)이 한국(韓國)을 신탁통치(信託統治)할 것을 제안(提案)했다. 중요(重要)한 것은 일단 일본(日本)의 항복(降伏)이 접수(接受)되고 신탁통치(信託統治)가 실시(實施)되면 미(美)·소양군(蘇兩軍)은 한국(韓國)에서 철수(撤收)한다는 루스벨트와 스탈린간의 협약(協約)이었다. 이 당시(當時) 북한(北韓)에 있는 일본군(日本軍)의 항복(降伏)은 중국군(中國軍)이 접수(接受)하고 남한(南韓)의 일본군(日本軍)은 미국군(美國軍)이 접수(接受)할 예정(豫定)이었다. 당시엔 미국군(美國軍)이 배로 남한(南韓)에 들어오고 중국군(中國軍)이 육로(陸路)로 북한(北韓)에 들어가는 것이 일본(日本)의 항복(降伏)을 접수(接受)하는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방법(方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945년(年) 8월(月) 6일(日) 히로시마의 원폭(原爆)은 소련(蘇聯)에게 “연한 버터를 칼로 자르듯이” 만주를 떼어낼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한국(韓國)에서 일본군(日本軍)의 항복(降伏)을 접수(接受)하는 것이 현지(現地)로부터는 불가능(不可能)했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미군(美軍)이 한국(韓國)에 도착(到着)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미국정부(美國政府)는 1945년(年) 8월(月) 10일(日) 밤에 처음의 계획(計劃)을 수정(修正)할 것에 동의(同意)했다. 이 날 미국(美國)은 소련군(蘇聯軍)이 이미 압록강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蘇聯)에게 38° 이북(以北) 일본군(日本軍)의 항복(降伏)을 접수(接受)하도록 허락(許諾)하고 미군(美軍)이 도착(到着)하는 대로 그 이남(以南)을 미국(美國)이 접수(接受)할 것을 결정(結定)했다. 불행(不幸)하게도 제(第)2차세계대전말(次世界大戰末) 미(美)·소간(蘇間)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상충(相衝)하였고 그 결과(結果) 일본통치(日本統治)로부터 해방(解放)된 후에도 이미 언약(言約)받은 자주통일(自主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신 한반도(韓半島)를 영원(永遠)히 두 개(個)의 적대진영(敵對陣營)으로 갈라 놓았다. 미(美)·소양군(蘇兩軍)은 단순히 항복(降伏)한 일본군(日本軍)을 무장해제(武裝解除)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편의상(便宜上) 한반도(韓半島)를 38선(線)으로 임의 분단(任意分斷)시켰다.

미국(美國)의 원조(援助)와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남한(南韓)을 지배(支配)한 반면(反面) 소련(蘇聯)은 자국(自國)의 영향력(影響力)을 극동(極東)에 확대(擴大)시키기 위하여 북한(北韓)에 공산주의이념(共產主義理念)을 주입(注入)시켰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은 단일민족(單一民族), 단일어(單一語), 단일(單一) 문화(文化)를 갖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일본(日本)의 통치(統治)와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한 깃발아래 참된 동질성(同質性)을 찾을 만한 시간(時間)을 갖지 못하고 있다.

III. 한국(韓國)의 문화환경(文化環境)

1. 경제발전(經濟發展)

문화환경(文化環境)을 알아보려면 경제환경(經濟環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같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經濟)를 분석(分析)함에 있어 먼저 우리는 한국(韓國)의 놀라운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알아본다. 최근(最近)의 한 세계은행(世界銀行) 보고서(報告書)에 따르면 「중요(重要)한 천연자원(天然資源)의 혜택(惠澤)도 없이 불유쾌(不愉快)하게도 국제소득수준(國際所得水準)의 밑바닥에 맴돌던 한국(韓國)은 세계(世界)에서도 놀라운 성공 사례(成功事例)의 하나가 된 산업성장과정(產業成長課程)에 접어들었다」고 적고 있다. 1962년(年) 제(第)1차경제개발계획(次經濟開發計劃)에 착수(着手)한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는 연평균(年平均) GNP성장률(成長率) 10%를 지속(持續)했다. 이 빠른 성장(成長)은 자급농업(自給農業)으로부터 현대제조업(現代製造業)으로 구조적(構造的)으로 전환(轉換)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國內市場)의 제약(制約)으로 우리는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산업전략(產業戰略)을 채택(採擇)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韓國)에 있어 외국자본(外國資本)은 빠른 산업화(產業化)를 위한 수입요구(輸入要求)에 재정(財政)을 충당(充當)하고 투자(投資)로 이용(利用)할 수 있는 불충분(不充分)한 국내자본(國內資本)을 보충(補充)하는 2중작용(重作用)을 했다. 15년간(年間)의 급성장후(急成長後) 한국경제(韓國經濟)는 자본형성(資本形成)과 지불균형(支拂均衡)에 있어 자립(自立)할 정도(程度)로 상당히 호전(好轉)됐다.

한국(韓國)이 현재(現在)의 국내(國內) 및 국제지위획득(國際地位獲得)과 이것을 가능(可能)케 한 경제기적(經濟奇蹟)은 봉건시대(封建時代)와 고립시대(孤立時代)를 벗어난지 불과 30년(年) 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놀라운 것이다. 한국(韓國)은 산업혁명(產業革命)을 시작(始作)해 가장 어려운 순간(瞬間)을 성공적(成功的)으로 겪어냈다. 한국(韓國)은 자유세계(自由世界) 특(特)히 미국(美國)의 수원국(受援國)이라는 과거(過去)의 지위(地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韓國)은 극동(極東)의 중요경제국(重要經濟國)으로서의 지위(地位)를 획득(獲得)했다. 게다가 한국(韓國)은 국내안정(國內安定), 근면성(勤勉性), 높은 생산성(生產性)을 보이고 공산주의(共產主義)에 대항(對抗)하여 자유월남(自由越南)을 직접 지원(支援)함으로써 국제적(國際的)인 인정(認定)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위업(偉業)을 달성(達成)할 수 있었으며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치룬 댓가는 무엇인가? 한국(韓國)의 기적(奇蹟)이 다른 형태(形態)의 정부(政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는 논박(論駁)할 여지(餘地)가 없다. 그러나 다른 정부(政府)가 같은 시기(時期)에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논의(論議)될 여지(餘地)가 있으며, 그것은 이미 발표(發表)된 경제개발오개년(經濟開發五個年) 각(各) 계획(計劃)의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한 관점(觀點)에서 볼 때가 가장 효과적(效果的)일 것이다. 1960년(年) 4월(月)의 학생의

거(學生義舉)와 5·16군사혁명(軍事革命)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절망적(絶望的) 상태(狀態) 때문에 일어난 큰 사건(事件)이었다. 양대사건(兩大事件)은 변함없는 가난과 무능(無能)한 정부(政府)에 견딜 수 없게 된 국민(國民)들이 보다 잘 사는 길로 이끌 수 있는 정부(政府)를 열망(熱望)하는 가장 심원(深遠)한 국민감정(國民感情)의 발로(發露)였다. 당시(當時) 상황하(狀況下)에서 혁명지도자(革命指導者)들은 먹는 문제(問題)가 정치(政治)에 앞서야 한다는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을 갖고 정권(政權)을 잡았다. 필요(必要)하다면 일부 사회문제(社會問題)를 희생(犧牲)하더라도 가능(可能)한 한 빨리 자립경제(自立經濟)를 이룩하는데 우선권(優先權)이 주어졌다. 배가 불러야만 예술(藝術)을 즐길 수 있고 사회발전문제(社會發展問題)를 편히 얘기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었다.

가.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1960년(年) 수출소득(輸出所得)은 불과(不過) GNP의 3.3%에 달한 반면(反面) 소비자(消費者) 소비(消費)는 GNP의 98.6%에 달했다. UN측(側)의 10개년개발계획(10年開發計劃) 선언(宣言)에 즈음하여 한국(韓國)은 IMF와 IBRD와 같은 국제재정기구(國際財政機構)로부터 원조(援助)와 협조(協助)를 얻기 위해 종합적(綜合的)인 개발계획(開發計劃)을 세워야 했다.

1962년(年) 제(第)1차경제개발오개년계획(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시작(始作)됐을 때 한국(韓國)의 소요투자(所要投資)는 대부분 외자(外資)로 충당(充當)됐다. 외국인(外國人) 투자(投資)를 촉진(促進)시키기 위해 한(韓)·일(日) 관계정상화조약(關係正常化條約)이 체결(締結)된 1965년(年)에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이 제정(制定)됐다. 제(第)1차오개년계획(次五個年計劃)의 목표(目標)는 1950년대(年代) 미국(美國)의 무상원조(無償援助)로 들어왔던 소비재(消費財)의 대용품(代用品)을 수입(輸入)하는 것이었다. 1962~66기간중(期間中) 연평균(年平均) GNP성장률(成長率)은 7.8%였다.

1967년(年)에 시작(始作)된 제(第)2차경제개발오개년계획(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정책(成長政策)에 역점(力點)을 두었다. 천연자원(天然資源)이 부족(不足)한 한국(韓國)으로서는 공산품수출(工產品輸出)이 원자재수입(源資材輸入)을 통(通)해 서만이 가능(可能)했다. 우리가 버는 것은 가공처리비(加工處理費)이다. 따라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수입의존도(輸入依存度)는 제(第)1차오개년기간중(次五個年期間中)의 16.7%로부터 제(第)2차오개년계획기간중(次五個年計劃期間中)에는 26.3%로 늘어났다. 1차오개년기간중(次五個年期間中) 연평균(年平均) 수출액(輸出額)이 1억(億) 3,720만(萬)달러에서 2차오개년기간(次五個年期間)(1967~71)에는 5배(倍)나 증가(增加)한 6억(億) 8,950만(萬)달러로 경증(輕重) 뒤였다. 제(第)2차오개년개발계획기간중(次五個年開發計劃期間中) 연평균(年平均) GNP성장(成長)은 9.2%였다. 이 기간중(期間中)에 주목(注目)할 만한 특징(特徵)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를 통(通)한 농업생산성(農業生產性)의 향상(向上)과 정부(政府)의 높은 곡물수매가격정책

(穀物收買價政策)으로 농가소득(農家所得)이 보다 높아진 것이었다.

정부(政府)는 외국은행(外國銀行)들의 한국지점(韓國支店) 신설(新設)을 허락(許諾)하는 한편 국내저축(國內貯蓄)으로 소요투자(所要投資)를 충당(充當)키 위해 국내금융제도(國內金融制度)를 다양화(多樣化)시켜야 했다. 1966년(年) 6월(月)에 한국외환은행(韓國外換銀行)이 설립(設立)됐고, 1967년(年) 7월(月)에 주택은행(住宅銀行)이 신설(新設)됐으며, 1968년(年) 12월(月)에는 한국신탁은행(韓國信託銀行)이 개장(開場)됐다. 한편 정부(政府)는 공사(公社)의 민영화(民營化)를 장려(獎勵)하고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를 통(通)해 민간저축(民間貯蓄)을 늘려 나갔다.

제(第)3차경제개발오개년계획(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1972~76)은 경제안정(經濟安定)과 균형(均衡)을 이룬 가운데 성장(成長)을 조화(造化)시키고 자립경제체제(自立經濟體制)를 확립(確立)시키며 각지역간(各地域間)의 고른 발전(發展)을 조장(助長)하도록 계획(計劃)되었다. 3차오개년계획(次五個年計劃)은 농촌경제(農村經濟)의 혁신적(革新的)인 발전(發展)과 중화학공업육성(重化學工業育成)에 중점(重點)을 두었다. 3차오개년계획기간중(次五個年計劃期間中)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은 평균(平均) 11.2%였고 1973년(年)에는 16.7%로 절정(絶頂)을 이루었다.

제(第)4차경제개발오개년계획(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1977~81)은 1978년(年)의 제(第)2차석유위기(次石油危機)와 1979년(年) 박대통령시해사건(朴大統領弒害事件)으로 심각한 문제(問題)에 봉착(逢着)했다. 이러한 세계적(世界的)인 경제위기(經濟危機)와 국내사건(國內事件)으로 인(因)하여 한국경제(韓國經濟) 성장(成長)의 패턴이 뒤바뀌게 되었다. 1980년(年) 2/4분기(分期) 한국(韓國)의 GNP는 지난해보다 5.9% 떨어졌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GNP는 -4%의 성장률(成長率)을 보이게 되었다. 1979년(年) 후반기초(後半期初)부터 시작(始作)된 경제후퇴(經濟後退)는 박대통령(朴大統領)의 서거(逝去)로 야기(惹起)된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불안정(不安定)한 국면(局面)으로 더욱 심화(深化)되었다. 게다가 유류파동(油類波動)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해외요인(海外要因)이 국내(國內) 총생산(總生産)을 더욱 압박(壓迫)한 중요원인(重要原因)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인(韓國人)들은 -5% 성장률(成長率)에서 경제후퇴(經濟後退)를 억제(抑制)하는데 성공(成功)한 것으로 보인다.

나. 1981년(年)의 한국경제(韓國經濟)

한국경제(韓國經濟)는 1960년대말(年代末)부터 놀라운 호황(好況)을 누린 이래 최악(最惡)과 슬럼프에 빠졌다가 연말(年末)부터 회복기(回復期)에 들어섰다. 신병헌(申秉鉉) 부총리(副總理)겸 경제기획원장관(經濟企劃院長官)은 워싱턴포스트지(誌)에서 1981년(年)에는 5~6%의 GNP성장(成長)이 기대(期待)되며 1982년(年)까지는 경제기적(經濟奇蹟)을 이룩한 1970년대(年代)의 성장추진력(成長推進力)에 버금가는 8~9%의 성장(成長)이 기대(期待)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보도(引用報道)됐다. 이 신문(新聞)은 나아가 한국경제(韓國經濟)는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이며 이러한 높은 성장기대(成長期待)는 공업생산력(工業生産力)과 지난 10년간(年間) 지속(持續)돼 왔던 것과 같은 정치적(政治的) 안정(安定)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신문(新聞)은 「몇 가지 중요(重要)한 징조(徵兆)가 보다 유리(有利)한 방향(方向)으로 나타났다. 수출분야(輸出分野)에서 나타나는 가장 믿을 만한 표징(表徵)인 신용장(信用狀)이 39% 증가(增加)했고 그것은 1981년(年) 상반기(上半期)가 바뀔 것을 예고(豫告)하고 있다」고 썼다. 짧은 기간(期間)동안 인플레이 비율(比率)을 단단위 숫자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1982년(年) 인플레이 비율(比率)은 10%수준(水準)으로 억제(抑制)될 수 있을 것이다. 창고(倉庫)의 재고품(在庫品)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공업생산(工業生産)은 급속히 증가(增加)하고 있다. 선적(船積)을 위한 해외주문(海外注文)이 홍수처럼 닦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예상(豫想)이 신빙성(信憑性)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조선협회(大韓造船協會)에서 수집(蒐集)한 통계(統計)에 따르면 1981년(年) 1월(月)에만도 4개(個)의 조선소(造船所)가 금년(今年) 선박수출목표(船舶輸出目標)(20억(億)달러)의 13.6%인 10척(隻)의 배에 총(總) 2억(億) 6,600만(萬) 달러 상당의 조선계약(造船契約)을 획득(獲得)했다.

다. 앞으로의 전망(展望)

한국(韓國)은 경제난국(經濟難局)을 극복(克服)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韓國)이 향후(向後) 5년(年), 특(特)히 올해의 도전(挑戰)에 어떻게 대처(對處)하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質問)에 대(對)한 답(答)이 될 것이다. 그 도전(挑戰)들은 겹겹이 에워싼 심각한 것들이다. 1970년대(年代)에 수출(輸出)에 지나치게 중점(重點)을 두었다는 논란(論難)이 있지만 아무도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으로 성장(成長)하는 한국(韓國)의 꿈을 실현(實現)시키는데 있어서 수출(輸出)의 필연적(必然的)인 중요성(重要性)을 부정(否定)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現在)의 발전기간(發展期間)동안 무역적자(貿易赤字) 균형(均衡)을 계속해서 잘 맞추는 것이 적절(適切)하지만 이치(理) 요구(要求)되는 수입품(輸入品)의 대부분(大部分)은 현재(現在) 수출(輸出)을 통(通)해 얻어진 돈으로 아직은 지불(支拂)돼야만 한다.

공업화(工業化)가 시작(始作)됐을 때 그 생산이익(生産利益)은 놀라운 것이었다. 생산노동기반(生産勞動基盤)이 확대(擴大)되자 이익달성(利益達成)은 보다 견고(堅固)해 졌다. 그래서 1970년대(年代)에는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서 년(年) 11%, 농업부문(農業部門)에서 년(年) 3%의 생산증가(生産增加)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問題)는 일어나고 있었다.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對)한 투자(投資)가 경공업(輕工業) 투자(投資)에서 경험(經驗)한 만큼의 성과(成果)를 얻지 못했다. 생산성(生産性)이 낮아지면 단위원가(單位原價)가 치솟아 생산품(生産品)이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 유리(有利)하게 팔릴 수 없다. 그래서 당시(當時)의 도전(挑戰)은 많은 경비(經費)가 든 회사(會社)들이 생존(生存)할 수 있도록 한국(韓國)의 현대식(現代

式) 공장(工場)들을 충분(充分)히 가동(可動)시키는 것이 임금문제(賃金問題)다. 근면성(勤勉性)과 최대(最大) 노동생산성(勞動生產性)에 있어 한국(韓國)에 필적(匹敵)할 수 있는 나라는 있다고 해도 많지 않다.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의 경쟁력(競爭力)은 인건비(人件費)에 좌우(左右)된다. 한국(韓國)의 3대수출산업(大輸出產業)인 직물(織物), 의류(衣類), 전자제품(電子製品)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기타 빠른 개발국(開發國)들의 심각한 도전(挑戰)을 받기 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시장(世界市場)에는 한정(限定)된 수출실적(輸出實績)을 위해 경쟁(競爭)하는 국가(國家)들에 대(對)한 보호책(保護策)이 없어서 중요(重要)한 것이 가격(價格)과 품질문제(品質問題)인 것이다.

두번째 도전(挑戰)은 인플레이를 유발(誘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勞動者)의 정당한 임금(賃金)과 생산성(生產性)에 위협을 주지 않고서도 노동자(勞動者)의 합당(合當)한 물질적(物質的) 요구(要求)를 충족(充足)시키는 문제(問題)다. 세번째 도전(挑戰)은 국내시장(國內市場)에 큰 충격(衝擊)을 주는 어찌할 수 없는 해외변수(海外變數)에 있다. 세계(世界) 인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수입가(輸入價)를 올린다. 계속해서 튼튼하고 건전(健全)한 기업(企業)이 육성(育成)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는 진정(鎮靜)되어야 한다. 특(特)히 제한적(制限的)이나 유가인상(油價引上)은 우리와 같이 자원(資源)이 빈약(貧弱)한 국가(國家)의 무역균형문제(貿易均衡問題)를 악화(惡化)시킨다. 1980년대(年代) 최종(最終) 도전(挑戰)은 다양(多樣)한 정치문제(政治問題)에 놓여 있다. 국내외적(國內外的)으로 문제(問題)를 기회(機會)로 바꿀 수 있는 정치문제(政治問題)의 노련한 조종(操縱)이 필요(必要)하다.

아마 정치문제(政治問題)가 가장 힘든 도전(挑戰)이고 국민단합(國民團合)을 요(要)하는 경제문제해결(經濟問題解決)에도 절대(絶大) 필요(必要)하다. 더우기 현(現) 개발기간(開發期間) 동안은 더욱 많은 외자(外資)와 기술(技術)이 필요(必要)하며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시 여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과 경쟁(競爭)해야만 한다. 투자자(投資者)들은 매력적인 사업환경(事業環境)과 사회질서(社會秩序)의 안정(安定)이 기대되어야만 한국(韓國)을 계속 지원(支援)할 것이다. 이런 점(點)에서 최근(最近)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은 희망적(希望的)인 면(面)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最近) 동아일보(東亞日報)는 존·A·워컴 유엔군사령관(軍司令官)이 미하원군사위원회(美下院軍事委員會)에서 한국(韓國)의 국방태세(國防態勢)에 관한 그의 증언(證言) 속에 지적(指摘)한 바를 인용보도(引用報道)했는데 「한국(韓國)은 좋은 맹방(盟邦)이며 미군철수중지(美軍撤收中止)와 우리의 안보공약(安保公約)의 재천명(再闡明)은 전쟁억제력(戰爭抑制力)을 강화(強化)시켰다. 한국경제(韓國經濟)의 활력(活力)과 계엄령해제(戒嚴令解除), 국민투표단행(國民投票斷行), 국내안정증대(國內安定增大) 그리고 충분(充分)한 국방협력관계(國防協力關係)를 유지(維持)하겠다는 한국(韓國)의 계속적인 확고(確固)한 결의(決意)와 같은 모든 것이 미래(未來)에 대(對)한 밝은 조짐이 되고 있다」 고 했다. 또 이 신문(新聞)은 미래(未來)의 한국경제전망(韓國經濟展望)에 대(對)한 낙관적(樂觀的)인 예상(豫想)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美

國)의 한 주간지(週間誌) Business Week지(誌)를 인용(引用)했는데 「비록 한국(韓國)이 현재(現在)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經濟的)인 어려움을 해결(解決)하는데 시간(時間)이 좀 걸리겠지만 한국(韓國)은 장기적(長期的)인 면에서 아시아의 소일본(小日本)이 되는데 성공(成功)할 것이다」 라 했다.

2. 사회개발(社會開發)

한국(韓國)의 사회환경(社會環境)을 살펴보면 한국민(韓國民)의 궁극적(窮極的)인 목표(目標)인 민주복지국가건설(民主福祉國家建設)에는 시간(時間)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韓國民)들은 이러한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해 최선(最善)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點)에서 한국(韓國)이 1980년대(年代)에 정직(正直)한 사람이 보상(補償)받을 수 있는 민주복지사회(民主福祉社會)를 건설(建設)하기 위한 확고(確固)한 기반(基盤)을 구축(構築)하기 위해 한국민(韓國民)들이 현재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계획(計劃)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는게 바람직하다. 다루어야 할 문제(問題)가 많지만 간단히 (1) 인구억제(人口抑制) (2) 고용(雇用) (3) 주택(住宅) (4) 보건의료(保健醫療) (5) 사회보장(社會保障) (6)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공해방지(公害防止) (7) 새마을운동(運動)과 같은 기본문제(基本問題)를 다루겠다.

(1) 인구억제(人口抑制)

1960년대(年代) 높은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2.7%)은 한국경제발전(韓國經濟發展)과 소득증대(所得增大)를 저해(沮害)하는 한 요인(要因)이었다. 가족계획(家族計劃)이 일련(一連)의 경제발전계획(經濟發展計劃) 속에 우선사업(優先事業)으로 주어지자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이 년(年) 1.9%로 떨어졌다. 이것이 1975년(年)에는 1.8%, 1978년(年)에는 1.58%로 더 떨어졌다. 1960년대(年代)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人口構造)는 연령(年齡) 의존율(依存率)이 높은 피라밋형(形)이었다. 1970년대(年代)에 평균예상수명(平均豫想壽命)이 늘기 시작(始作)해서 1975년(年)에는 68.1세(歲)가 됐고 1980년대초(年代初)까지는 72.7세(歲)로 늘어날 것이 예상(豫想)된다. 순수(純粹) 탄생율(誕生率)과 사망율(死亡率)이 보다 줄고 있어 인구증가(人口增加)의 패턴도 점차 방중형(紡錘型)으로 바뀌고 있다. 연령의존율(年齡依存率)과 경제의존율(經濟依存率) 모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따라서 불가피(不可避)하다.

1962년(年)에 시작(始作)된 헝가리계획사업(現家族計劃事業)은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을 1% 미만으로 유지(維持)하려는 궁극적(窮極的)인 목표(目標) 속에 앞으로 한층 더 활발(活潑)히 실시(實施)될 것이다. 이 사업(事業)속에는 정관절제수술(精管節制手術), 개복수술(開腹手術), 자궁내기구(子宮內器具), 콘돔 및 경구(經口)알약의 광범위(廣範圍)한 사용(使用)이 포함(包含)된다.

가족계획(家族計劃)과 병행(並行)하여 해외인구분산(海外人口分散)이 또한 장려(獎勵)되고 있다. 이민법(移民法)이 제정(制定)된 1962년(年) 이후(以後) 1978말(末)까지 총(總) 341,157명(名)이 이민(移民)했다. 지역별(地域別)로는 미국(美國)에 266,246명(名), 캐나다에 17,527명(名), 파라과이에 14,168명(名), 브라질에 10,031명(名), 스웨덴에 4,597명(名), 아르헨티나에 4,181명(名), 기타 지역(地域)에 24,407명(名)이 있다. 이민(移民)을 촉진(促進)하기 위하여 정부(政府)는 해외개발공사(海外開發公社)를 민영(民營)에서 국영사업(國營事業)으로 전환(轉換)시켰다. 호주(濠州)와 남미국가(南美國家)들을 중점(重點)으로 연간(年間) 총(總) 50,000명(名)이 해외이민(海外移民)을 신청(申請)할 것이 예상(豫想)된다. 동시(同時)에 장래(將來)에 이민(移民)갈 사람들을 위한 기술(技術), 지리(地理), 언어교육(言語教育)에 특별(特別)한 관심(關心)이 주어지고 있다.

(2) 고용(雇用)

수출증대(輸出增大),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확대(擴大), 중소기업개발(中小企業開發)의 결과(結果)로 국민경제영역(國民經濟領域)이 넓어지자 노동력(勞動力)의 실질적(實質的)인 부분(部分)이 농업(農業)에서 비농업부문경제(非農業部門經濟)로 옮겨갔고 이러한 모든 것은 고용구조면(雇用構造面)에도 같은 변화(變化)를 가져 왔다.

고용자(雇用者) 수(數)는 계속 늘고 있으며 정부(政府)는 새로 직업(職業)을 찾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이 일은 주로 노동부지청산하(勞動部支廳傘下)에서 맡고 있다. 1978년(年)에 35개(個) 노동부산하(勞動部傘下)에서 251,731명(名)에게 직업(職業)을 찾도록 도와 주었다. 더 우기 기존 사설직업소개소(私設職業紹介所)가 비영리단체(非營利團體)로 재조직(再組織)되었고 부수적(附隨的)으로 기존 공공직업안내소(公共職業案内所)도 수적으로 증가(增加)됐다. 총(總) 35개(個)의 지방실업상담소(地方失業相談所)가 실업자(失業者)가 많거나 실업상태(失業狀態)가 불안(不安)한 지역(地域)에 설립(設立)되어 각지역(各地域)에서 모든 관계기관(關係機關) 및 사기업(私企業)의 협조(協助) 속에 일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력개발공사(海外人力開發公社)가 설립돼 해외(海外) 취업기회(就業機會)를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해외취업(海外就業)을 적극(積極) 장려(獎勵)하려 하고 있다. 1963년(年)에서 1978년(年) 동안 총(總) 324,000명(名)이 해외취업(海外就業)했고 오늘날에는 약 4~5만(萬)의 한국인(韓國人)이 중동(中東)에서 일하고 있다.

(3) 주택(住宅)

한국(韓國)에 있어 주택문제(住宅問題)는 전반적(全般的)인 인구증가(人口增加) 때문 뿐만 아니라 대가족전통(大家族傳統)에서 핵가족체제(核家族體制)로의 전환(轉換)과 급속(急速)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결과(結果)로 도시(都市) 인구(人口)가 증가(增加)하기 때문에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1975년(年) 통계조사(統計調查)에 따르면 6,754,000 가구(家口)가 4,869,000 호(戶)에 살고 있어 1,885,000호(戶)가 부족(不足)함을 나타냈다. 1972년(年)에 이러한 부족(不足)을 메꾸려고 정부(政府)는 10개년(個年)(1972~1981) 주택계획(住宅計劃)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住宅建設促進)을 위한 특별법(特別法)을 제정(制定)했다.

제(第)3차오개년계획기간(次五個年計劃期間)동안 총(總) 760,500채(공공부문건립(公共部門建立) 226,800채, 민간건립(民間建立) 533,700채)가 건립(建立)됐는데 이것은 833,000채의 건립목표계획(建立目標計劃)의 91%에 해당(該當)하는 것이다. 1978년(年) 한해에 총(總) 277,000채가 건설(建設)됐는데 이것은 6,349,000 가구(家口)에 대(對)하여 5,146,000 가구(家口)가 주택을 갖게 된 것이다. 동시(同時)에 주택문제(住宅問題)를 완화하도록 많은 조치(措置)가 취해졌다. 그들 가운데 중요(重要)한 것이 많은 가족(家族)이 살 수 있도록 내부구조(內部構造)의 표준화에 중점(重點)을 두고서 도시교외(都市郊外)에 택지(宅地)를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제(第)4차오개년계획(次五個年計劃)이 사회개발(社會開發)과 복지문제(福祉問題)(과거(過去)의 경제성장지향적(經濟成長指向的) 계획(計劃)과는 달리)에 역점(力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주택건설(住宅建設)에의 투자(投資)가 예상(豫想)된다.

(4) 보건의료(保健醫療)

높은 수준(水準)의 건강증진(健康增進)은 사회개발(社會開發)의 목적(目的)이며 수단(手段)이다. 이 목표(目標)가 많은 의료시설(醫療施設)의 확충(擴充)과 전국민(全國民)에 대(對)한 의료혜택(醫療惠澤)의 확대(擴大), 전염병(傳染病) 예방(豫防), 생활환경(生活環境) 및 위생시설(衛生施設)의 개선(改善), 의약품질향상(醫藥品質向上) 등(等) 여러 가지 정책(政策)을 통(通)해 추구(追求)되고 있다.

(5) 사회보장(社會保障)

한국(韓國)의 사회보장(社會保障)은 사회보험(社會保險), 대중구제계획(大衆救濟計劃), 사회복지계획(社會福祉計劃)의 세 가지 범주(範疇)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사회보험(社會保險)으로는 산재보험(產災保險), 의료보험(醫療保險), 연금보험(年金保險)이 있고 연금(年金)에는 국민복지연금(國民福祉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教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이 있다. 대중구제계획(大衆救濟計劃)에는 사회적(社會的) 무능력자 보호(無能力者保護), 일시적(一時的) 재난구제(災難救濟), 퇴역군경구제(退役軍警救濟) 등(等)이 있다.

(6) 환경보호(環境保護)와 공해방지(公害防止)

최근(最近)의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따른 산업화(產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환경(環境)에 유해(有害)한 영향(影響)을 끼치고 있다. 특(特)히 도시(都市), 강(江), 바다가 전체적으로 오염(汚染)되고 있다. 그 한 예(例)가 서울시민(市民)이 이용(利用)하는 한강(漢江)인데 오염(汚染)은 800만(萬) 서울시민(市民)이 버리는 오수(污水) 때문에 악화(惡化)돼 가고 있다. 서울의 오수문제(污水問題)를 해결(解決)할 한 방안(方案)이 현재(現在) 강구중(講究中)에 있다.

현대화(現代化)로 빚어진 또 하나의 중요(重要)한 결과(結果)가 공기오염(空氣污染)이다. 통계(統計)에 따르면 전국(全國)의 석탄(石炭) 및 석유(石油) 총수요량(總需要量)의 1/4을 소모(消耗)하는 서울에 있어 호흡기질환자(呼吸器疾患者)가 농촌(農村)사람보다 6배(倍)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행정수도(行政首都)의 건설(建設)과 공업시설(工業施設)의 분산(分散)을 통(通)해 도시(都市)의 인구증가(人口增加)를 줄이는 등(等)의 여러 가지 조치(措置)를 강구중(講究中)에 있다.

환경보호(環境保護)는 물론 공해문제(公害問題)에 대처(對處)하려는 정부(政府)의 결의(決意)는 1977년(年) 9월(月)의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과 해상공해방지법(海上公害防止法)의 제정(制定)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政府)는 모든 문제(問題)를 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그린벨트」가 대도시주변(大都市周邊)을 둘러싸고 있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건축물(建築物)도 허용(許容)되지 않으나 내부도시(內部都市)는 끊임없이 쇄신(刷新)되고 있다. 또한 전국(全國)을 보다 가깝게 묶기 위한 고속도로망(高速道路網)이 계속 확장(擴張)되고 있고 정부(政府)의 막대한 자금지원하(資金支援下)에 현대식(現代式) 편의시설(便宜施設)이 농촌사회(農村社會)로 들어 갔으며 그밖에 관련사업(關聯事業)에도 대대적(大大的)인 지원(支援)이 주어져 정부융자(政府融資)에 의한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이 활발히 진행(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상황(狀況)에 맞도록 법(法)과 규정(規定)이 계속해서 제정(制定)되고 재검토(再檢討)되어 개정(改定)되고 있다.

환경오염(環境汚染)은 정부(政府)만의 문제(問題)가 아니며 또한 국가경제성장과정(國家經濟成長過程)의 필요악(必要惡)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이 문제(問題)는 단순한 경제성장(經濟成長)보다 더 높은 차원(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마 그것은 일부 경제학자(經濟學者)와 사회학자(社會學者)가 지적(指摘)한대로 생명(生命)의 본질문제(本質問題)를 능가하는 문제(問題)일 것이다. 공해(公害)는 한국(韓國)에만 특유(特有)한 문제(問題)는 아니다. 선진국(先進國)조차 이 문제(問題)를 성공적(成功的)으로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最近) 한국(韓國)은 앞서말한 법제정(法制定)으로 나타났듯이 이 문제(問題)에 진지하게 착수(着手)하기 시작(始作)했다. 한국(韓國)은 지난날 여러 가지 중대(重大)한 문제(問題)에

접근(接近)했던 것과 똑같은 정력을 갖고 언제나처럼 이 문제(問題)를 처리할 것이다. 첫째로 한국인(韓國人)들은 스스로의 아름다운 환경(環境)을 너무 사랑하여 자연(自然)이 황폐(荒廢)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오늘날 한국(韓國)을 지배(支配)하는 정치철학(政治哲學)은 단순한 근대화(近代化)나 경제복지문제(經濟福祉問題)를 초월(超越)한다. 한국민(韓國民)은 전체적(全體的)으로 정신(精神)과 물질(物質)의 조화(造化)있는 만족(滿足)을 추구(追求)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自然)과의 동화(同化)를 바라는 것이다.

(7) 새마을 운동(運動)

1970년대(年代)가 전개(展開)됐을 때 2차(次)의 경제개발(經濟開發)5개년계획(5個年計劃)(1962~1971)의 성공적(成功的)인 수행(遂行)의 결과(結果)로 한국(韓國)의 도시(都市)들은 눈부시게 발전(發展)하고 있었던 반면(反面)에 농촌(農村)은 무기력(無氣力)과 불활발(不活潑), 심지어 냉소(冷笑) 속에 침체(沈滯)되어 있었다. 농민(農民)들은 도시민(都市民) 뒤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런 상태(狀態)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했고 농민(農民)들도 깨어야 했다.

농촌(農村)의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지위향상(地位向上)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1970년(年)에 소개(紹介)됐다. 한글의 「새」는 새로움을 뜻하고 「마을」은 Village나 Community를 뜻한다. 또 운동은 Movement나 Campaign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運動)은 영어(英語)로 New Village Movement이다. 새마을운동(運動)의 기본이념(基本理念)은 농민(農民)들에게 근면(勤勉), 자조(自助), 협동(協同)의 세가지 미덕(美德)을 발휘(發揮)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발전(個人發展)과 결부(結付)시켜 국가발전(國家發展)을 위하여 국민(國民)들의 자발적(自發的)인 참여(參與)의식을 기르는데 바탕을 둔 민족근대화운동(民族近代化運動)이다.

근면(勤勉)은 몸에 익혀야 할 첫 교훈(教訓)이었다. 새마을운동(運動)은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더 내용(內容)있는 삶을 추구하는 국민운동(國民運動)이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 이것은 한국(韓國) 같이 천연자원(天然資源)이 매우 부족(不足)하고 과거의 어려운 국내외문제(國內外問題)를 현재도 안고 있는 한국민(韓國民)에게는 특(特)히 진리(真理)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勤勉), 검약(儉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은 국가발전(國家發展)의 저해요소(沮害要素)다. 근면정신(勤勉精神)이 밝은 미래(未來)를 보장(保障)하고 또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새마을 정신(精神)의 한 중요요소(重要要素)다. 자발적(自發的)인 노력(努力)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욕구(欲求)와 능력(能力)을 의미하는 창조력(創造力)이 뒤따

라야만 한다. 과거(過去)보다 나은 현재(現在)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 운동(運動)이 전개(展開)된 이후(以後) 근면(勤勉)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다. 근면(勤勉)은 허영(虛榮)과 사치(奢侈)와 낭비(浪費)를 배격(排擊)하고 저축(貯蓄)하고 절약(節約)하는 정신(精神)을 길러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저축(貯蓄)을 원하고 힘들여 번 것을 낭비(浪費)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저축(貯蓄)은 생활(生活)을 향상(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國民經濟)의 활력(活力)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계속>



명장명언(名將名言)

부하(部下)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장교(將校)는 조기에 부대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부하들은 공정(公正)하기만 하면 오히려 엄격한 장교(將校)를 더욱 존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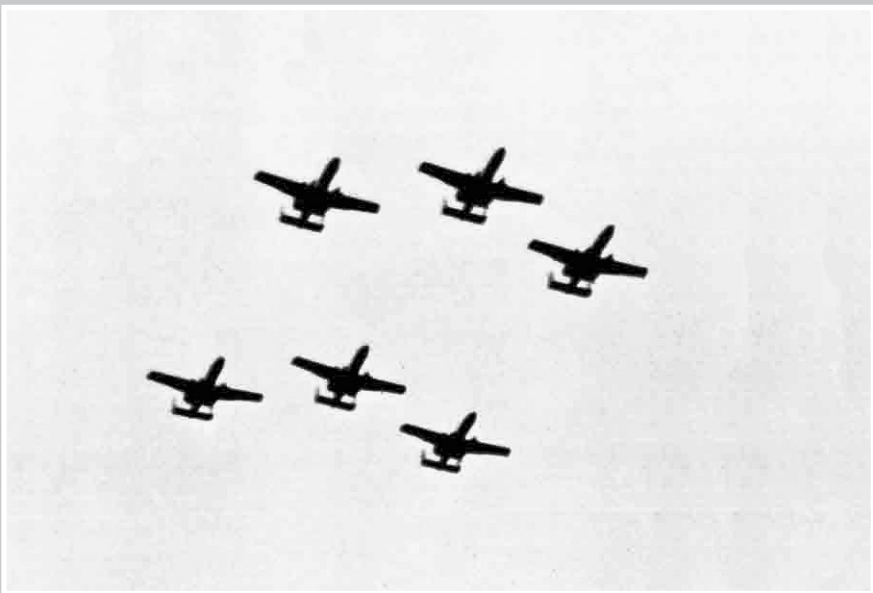
- 크라크 -

사상(思想)으로 무장(武裝)된 병사(兵士)만큼 강(強)한 군인(軍人)은 없다.

- 스피노자 -

하늘의 용사

보아라 찬란한 조국하늘에
새로운 평화를 누리는 우리
드높이 폭음소리 꽃구름속에
오늘도 떠나간다 하늘 아득히
보아라 햇빛에 빛나는 날개
조국의 하늘을 지켜갈 우리
새로운 겨레의 우리는 보라매
오늘도 떠나간다 승리의 용사
〈후렴〉
창공을 차고 높이 올라라
별처럼 빛나라 하늘의 용사



이제 A-10기(機) 전개를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태세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동북아(東北亞) 및 태평양지역 평화(平和)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 미국(美國) 본토로부터 태평양(太平洋)을 건너 이곳에 도착한 한 미군조종사를 격려해주는 이희근(李喜根) 참모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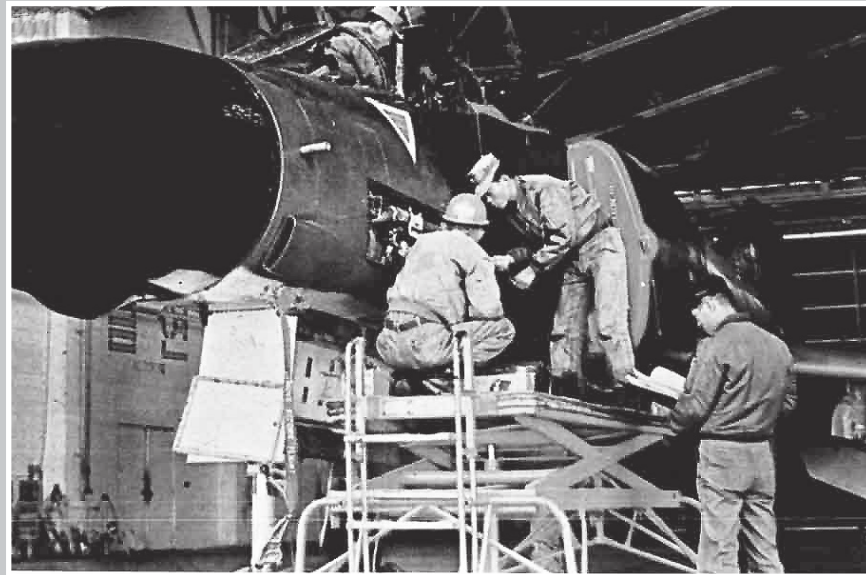


◇ 고정익의 1인승 쌍발제트기(機)로 각종 폭탄 1만 8천 5백 파운드를 적재할 수 있고 대전차 공격용 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

◇ 브라스웰 미태평양 공군 사령관과 편대장 유진·마이애스 대령 ◇

마이애스 대령의 등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달아주었다”는 한·미양국의 국기 밑에 「이 사람은 미국 조종사입니다. 이분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협조하여 주십시오」라고 수놓여 있어 많은 이의 눈길을 끌었다.





◇ 오직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애기의 정비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정비사들의 장한 모습 ◇

◇ 체력(體力)과 국력(國力)이요, 곧 전투력(戰鬪力)이다. 각종 안보(安保)능력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장병(將兵)의 모습에서 국의(國)의 의지가 보인다. ◇



현대국방체제(現代國防體制)와 미국(美國)의 당면과제(當面課題)

이 선 호 (李善浩)
 <국방대학원(國防大學院) 교수(教授)>

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전쟁시(戰平時)를 막론(莫論)하고 군사력(軍事力)을 관리(管理)하고 운용(運用)하는 조직(組織)과 기능(機能)이 필요(必要)한데 이것이 곧 국방체제(國防體制)이다. 즉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군사력(軍事力)을 조성(造成), 유지(維持), 운용(運用)하는 체제(體制)로서 세계각국(世界各國)은 그 나름대로의 국방체제(國防體制)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전제(前提)로 국력(國力)을 효과적(效果的)으로 전력화(戰力化)하기 위해 군사력(軍事力)을 중심(中心)으로 타국력(他國力)의 제요소(諸要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必要)한 제반(諸般) 조직(組織)과 기능(機能)이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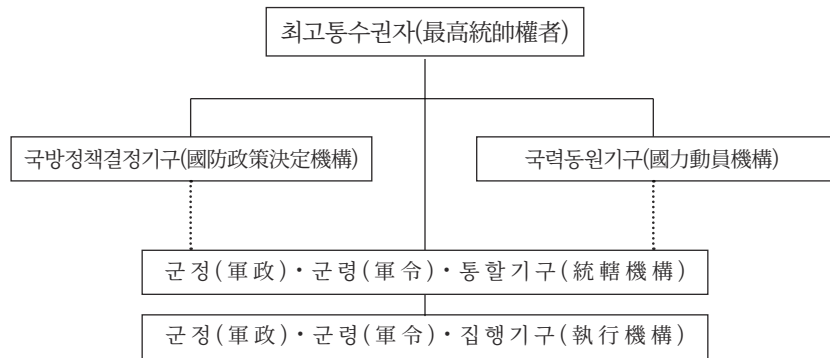
광의(廣義)의 국방(國防)이 안보(安保)이며, 협의(狹義)의 안보(安保)가 국방(國防)이라고 볼 때,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국가안보(國家安保)를 확고(確固)히 하기 위하여 군사력(軍事力)을 중심(中心)으로 모든 국력(國力)을 종합(綜合)하여 총체적(總體的)인 국력(國力)으로 승화(昇華)시키고 계획(計劃)의 수립(樹立)에서 집행(執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各級) 기구(機構)로서 이루어진 종합체계적(綜合體系的)인 조직(組織)과 이의 운용(運用)을 총칭(總稱)한다 (1).

현대(現代) 국방체제(國防體制)는 최고통수권자(最高統帥權者)와 그의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보필(補弼)하는 국력동원기구(國力動員機構) 및 국방정책기구(國防政策機構) 그리고 통수권자(統帥權者)의 군사대권(軍事大權)을 통할(統轄)하는 군정(軍政)·군령통합기구(軍令統轄機構)와 이를 집행(執行)하는 군정(軍政)·군령집행기구(軍令執行機構)의 5개요소(個要素)로 구성(構成)되는 포괄적(抱括的)이고 종합체계적(綜合體系的)인 국방기구(國防機構)와 국방의 사결정(國防意思決定) 및 의사소통절차(意思疎通節次)를 망라(網羅)한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현대적(現代的) 개념(概念)의 국가안보정책(國家安保政策)은 국가(國家)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대내정책(對內政策) 그리고 군사정책(軍事政策)을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차원(次元)에서 통합(統合)·조정(調整)한 것이므로, 이는 국력(國力)의 제요소중(諸要素中)에서 하나의 선택(選擇)된 힘을 중심(中心)으로 타요소(他要素)를 이에 보완(補完)하는

것인데 반(反)하여, 국방정책(國防政策)은 군사력(軍事力)을 중심(中心)으로 다른 국력(國力)의 요소(要素)들로 뒷받침 받는 정책(政策)인 것이다. 따라서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국가안보(國家安保)의 일환(一環)으로서 군사력(軍事力)을 건설(建設), 유지(維持), 운용(運用)하고, 군사정책(軍事政策)을 창출(創出)하고 집행(執行)하는 조직(組織)과 기능(機能)을 뜻하는 것이다.

현대(現代) 국방체제(國防體制)의 구성(構成)



본고(本稿)는 민주헌정체제(民主憲政體制) 속에서 200여년간(餘年間) 성장(成長) 발전(發展)해 온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가 지니고 있는 당면과제(當面課題)와 그 발전추세(發展趨勢)를 개관(概觀)해 봄으로써 아직 발전(發展)이 일천(日淺)한 우리의 국방체제(國防體制)가 올바른 방향설정(方向設定)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케 하고, 개방체제(開放體制) 속의 자유민주주의하(自由民主主義下)에서 문민우위(文民優位)와 군정(軍政), 군령(軍令) 문화원칙(文化原則)을 견지(堅持)해 오고 있는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의 강점(強點)을 도입(導入)할 수 있는 동기부여(動機賦與)에 일조(一助)할 것으로 본다.

2. 미국방체제(美國防體制)의 당면과제(當面課題)

가. 국가통수체제(國家統帥體制)(National Military Command System)의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

(1) 전쟁지도(戰爭指導) 및 위기관리상(危機管理上)의 당면문제(當面問題)

미국(美國)의 현(現) 국가통수구조(國家統帥構造)는 1958년(年)에 정착(定着)된 이래(以來)

근본적(根本的)인 변화(變化)는 없었으나 꾸준히 보완(補完) 강화(強化)되어 왔다. 이 체제(體制)는 각(各) 군(軍)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초월(超越)한 통합노력(統合努力)의 요구(要求)와 전통적(傳統的)인 지상(地上), 해상(海上) 그리고 공중전장(空中戰場)을 바탕으로 한 개별군(個別軍)의 자치영역(自治領域)을 고정(固定)하려는 요구간(要求間)의 절충(折衷)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따라서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헌법(憲法)에 의(依)하여 부여(賦與)되어 있는 대통령(大統領)의 3군사령관(軍司令官)으로서의 통수권행사(統帥權行使)가 전통적(傳統的)인 3군체제하(軍體制下)의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라는 국가통수구조(國家統帥構造)의 절차(節次)를 통(通)하여 수행(遂行)되는데, 이는 국가안보회의(國家安保會議)라는 문무합일(文武合一)의 자문기관(諮問機關)을 통(通)하여 보필(補弼)되고, 양병(養兵)(군정(軍政))과 용병(用兵)(군령(軍令))업무(業務)를 통할(統轄)하는 국방장관선(國防長官線)에서 일원화(一元化)되어 집행(執行)된다.

즉(卽), 양병분야(養兵分野)(Producer)는 내국(內局)(OSD)의 참모기능(參謀機能)으로 처리(處理)되어 국부직할기관(國部直轄機關)과 각군성(各軍省)(Service Department)에 의(依)해서 집행(執行)되며, 용병분야(用兵分野)(User)는 합참(合參)의 참모기능(參謀機能)으로 처리(處理)되어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에 의(依)해서 집행(執行)되는 복잡(複雜)한 절차(節次)를 취(取)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가통수구조(國家統帥構造)는 거의 4반세기(半世紀) 동안 그대로 유지(維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체제(體制)가 현대적(現代的) 국가안보(國家安保)에 적응(適應)할 수 있는 국방체제(國防體制)인지에 대(對)하여 논란(論難)이 제기(提起)되고 있다. 오늘날의 핵상황(核狀況)에 대처(對處)하기 위해 미국(美國)이 갖고 있는 통수체제(統帥體制)는 전략적(戰略的) 지휘(指揮), 통제(統制) 및 통신체제(通信體制)(C3 System)로서 대통령(大統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도 융통성(融通性) 있는 작전체제(作戰體制)를 가능(可能)케 하기 위(爲)하여는 국가통수기능(國家統帥機能)의 생존(生存)과 주요(主要)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과의 부단(不斷)한 고통통신유지(交通通信維持)가 그 관건(關鍵)이 된다. 이른바 범세계(汎世界) 군사지휘(軍事指揮), 통제(統制) 및 통신체제(通信體制)(WWMCCS)는 수개(數個)의 고정(固定) 및 이동지휘소(移動指揮所)와 충분(充分)한 통신수단(通信手段)을 갖춘 중추적(中樞的)인 역할(役割)을 하는 국가통수체제(國家統帥體制)(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와 「아파라차」 산맥하(山脈下)에 위치(位置)한 지하화(地下化)된 연방재배치권(聯邦再配置圈)(Federal Relocation Arc)이라고 불리는 국가예비통수본부(國家豫備統帥本部)(Alternative Military Command Center)와 국가비상공중지휘본부(國家非常空中指揮本部)(National Emergency Airborne Command Post)로서 구성(構成)되며 (3), 이들 체제(體制)는 예하(隸下)의 핵군(核軍)과 계속 교신(交信)하고 있는 4개(個)의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

軍) 「유럽」사령부(司令部), 대서양사령부(大西洋司令部),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 및 전략공군사령부(戰略空軍司令部)의 고정(固定) 또는 공중지휘소(空中指揮所)와도 연결(連結)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통수체제(統帥體制)는 1958년(年)에 정립(定立)된 이래(以來)로 꾸준히 개선(改善) 발전(發展)되어 왔다.

그동안 이 체제(體制)를 시험(試驗)하기에 적합(適合)한 핵상황하(核狀況下)의 전쟁(戰爭)은 아니었지만 월남전(越南戰)을 치루었으며, 1967년(年)의 제(第)3차(次) 중동전쟁(中東戰爭), 1968년(年)의 「푸에블로」호(號) 나포사건(拿捕事件), 1973년(年)의 제(第)4차중동전쟁(次中東戰爭), 1974년(年)의 「사이프러스」전쟁(戰爭), 1975년(年)의 「마야케즈」호(號) 탈취사건(奪取事件), 1976년(年)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蠻行事件) 등 허다(許多)한 위기사태(危機事態)를 통(通)하여 현재(現在)의 국방체제(國防體制)를 시험평가(試驗評價)할 수 있는 기회(機會)가 있었는데, 통수체제상(統帥體制上)의 구조적(構造的)인 모순이나 문제점(問題點)은 없었으나, 그 운용상(運用上)에 여러 가지 복잡(複雜)한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직(組織)의 원칙(原則)과 전쟁(戰爭)의 원칙(原則)의 상충(相衝), 문민통제체제하(文民統制體制下)에서 야전지휘관(野戰指揮官)의 지휘권(指揮權) 및 통솔(統率)의 범위(範圍)에서 온 갈등 등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2) 지휘권(指揮權) 통일원칙(統一原則)의 침해(侵害)

국방체제(國防體制)는 최고통수권자(最高統帥權者)의 명령(命令)이 수직(垂直)·일원적(一元的)으로 신속(迅速)히 통수(統帥) 및 지휘계통(指揮系統)에 따라 하달(下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그러나 통신(通信) 기술(技術)의 발달(發達)과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의 강화(強化)로 원격의사결정자(遠隔意思決定者)(a remote decision maker)가 현장지휘관(現場指揮官)(an on-scene commander)에게 직접(直接) 의뢰(依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수(統帥) 및 지휘계통상(指揮系統上)의 중간지휘관(中間指揮官)이 방청자(傍聽者)(Monitor)가 되고 상급지휘관(上級指揮官)과 미단지휘관(未端指揮官)이 직접(直接) 교통(交通)하는 「바이패스」현상(現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71년(年)에 국방성(國防省)의 전면적(全面的) 체제개편(體制改編)을 건의(建議)한 이른바 「부루리본」위원회(委員會)의 건의(建議)를 비판(批判)한 한 논문(論文)에 의(依)하면, 지나치게 복잡(複雜)한 다단계적(多段階的) 행정절차(行政節次)(Redtape)를 취하게 되어 있는 현(現) 통수체제(統帥體制)에 옥상옥(屋上屋)으로 1개(個)의 중간지휘계통(中間指揮系統)인 전략사령부(戰略司令部)(전술임무(戰術任務)를 수행(遂行)하는 통합군(統合軍)으로 구성(構成)를 신설(新設)함으로써, 통수체제(統帥體制)와 그 계층구조(階層構造)가 다단계화(多段階化)되고 지휘(指揮)의 폭(幅)이 더욱 좁아져서 군정(軍政), 군령임무(軍令任務)를 혼성(混成)해 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루리본」의 건의(建議)는 통수권(統帥權) 체제(體制)의 구조상(構造

上) 및 조직(組織)의 원칙상(原則上) 불합리(不合理)하다고 지적(指摘)하였다 (5).

사실(事實) 현(現) 체제(體制)에 있어 전시(戰時)에 「워싱턴」의 지휘소(指揮所)에서 명령(命令)을 발(發)하게 될 때 이 명령(命令)을 실제(實際)로 집행(執行)하여 통합군(統合軍)의 한 기동편성부대사령관(機動編成部隊司令官)(Task Force Commander)에게 전달(傳達)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段階的) 절차(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大統領)이 국방장관(國防長官)에게 명령하달(命令下達)

둘째, 국방장관(國防長官)이 합참의장(合參議長)에게 명령하달(命令下達)

셋째, 합참의장(合參議長)은 특정(特定) 통합군(統合軍) 또는 특수군(特殊軍) 사령관(司令官)에게 명령하달(命令下達)

넷째, 특정(特定) 통합(統合) 및 특수군사령관(特殊軍司令官)은 예하(隸下) 기동편성부대사령관(機動編成部隊司令官)에게 명령하달(命令下達)

따라서 위급사태시(危急事態時) 시간(時間)과 노력절약(努力節約)을 위(爲)해서 뿐만 아니라 상급지휘관(上級指揮官)이 작전(作戰)의 성패(成敗)에 집착(執着)한 나머지 원색적(原色的)인 세부사항(細部事項)을 직접(直接) 확인(確認)하려는 의지(意志)가 강(強)하게 작용(作用)하기 때문에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국가원수(國家元首)도 때에 따라서는 기동편성부대장(機動編成部隊長)의 직접보고(直接報告)를 받기 원(願)하는 사태(事態)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事態)는 중간지휘관(中間指揮官)의 창의적(創意的)인 상황처리능력(狀況處理能力)과 진취적(進取的)인 기상(氣象)을 저해(沮害)하고 권한(權限)과 책임(責任)의 불일치(不一致)로 작전(作戰)에 부정적(否定的)인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특(特)히 유념(留念)해야 할 것은 만일 중간지휘관(中間指揮官)이 국방장관(國防長官)의境遇(境遇)라고 한다면, 이는 대통령(大統領)의 통수권(統帥權) 독립(獨立)이라는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될 소지(素地)를 갖게 되므로 문민통제(文民統制)와 군정군령일원화(軍政軍令一元化)란 대원칙(大原則)을 범(犯)하게 된다.

(3) 문민우위체제하(文民優位體制下)의 문군갈등(文軍葛藤)

문민우위(文民優位) 또는 문민통제(文民統制)(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는 미국(美國)의 민주헌정수립(民主憲政樹立) 이후(以後) 내려오는 하나의 기본질서(基本秩序)이며 국방체제(國防體制)의 대원칙(大原則)이 되어 왔다. 이는 일찍이 「크라우제비츠」가 그의 전쟁론(戰爭論)에서 전쟁(戰爭)은 다른 수단(手段)에 의(依)한 정치(政治)의 연장(延長)이라고 한 대전제(大前提)가 아직도 적용(適用)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美國)은 국가안보법상(國家安法上)에 문민우위(文民優位)를 제도적(制度的)으로 보장(保障)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後進國)이나 일부(一部) 개도국(開途國)의 군부우위체제(軍部優位體制)와는 근본적(根本的)으로 성격(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대통령(大統領), 국방장관(國防長官), 국방차관(國防次官), 각군장관(各軍長官) 그리고 국방성(國防省) 및 각군성(各軍省) 차관보(次官補) 등 핵심적(核心

的인 직위(職位)는 모두 민간인(民間人)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국(內局)의 요원(要員)은 전원(全員)이 민간인(民間人)인 것이다. 합참(合參)에도 법정(法定) 정원(定員)인 400명(名)의 현역장교(現役將校)(합동참모(合同參謀)를 제외(除外)하고도 대략(大略) 동수(同數)의 민간인(民間人)이 근무(勤務)하고 있다. 특(特)히 국방장관(國防長官)은 현역(現役)을 필한 후 10년이 지나야 임용(任用)이 가능(可能)케 되어 있다.

한국전쟁당시(韓國戰爭當時) 「유엔군」 사령관(司令官) 「맥아더」 장군(將軍)이 「트루만」 대통령(大統領)에 의(依)해서 해임(解任)되고 최근 주한미군철수문제(駐韓美軍撤收問題)에 대(對)하여 비판(批判)하였던 「싱글러브」 장군(將軍)이 「카터」 대통령(大統領)에 의(依)해 해임(解任)되었음은 문민우위체제하(文民優位體制下)의 문군충돌(文軍衝突)의 일면(一面)인 것이다. 통수권자(統帥權者)는 확립(確立)되어 있는 문민우위(文民優位)의 원칙(原則)에 도전(挑戰)하려는 군인(軍人)의 행동(行動)을 헌정질서(憲政秩序)의 수호(守護)와 국가(國家)에 대(對)한 충성(忠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재(制裁)를 가(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성(國防省)의 계선(系線) 및 참모조직구조(參謀組織構造)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葛藤)은 1949년(年)에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이 개정(改正)됨으로써 전통적(傳統的)인 대통령(大統領)의 각료급(閣僚級)으로서의 각군(各軍) 장관(長官)이 2단계하위(段階下位)인 국방차관(國防次官)과 차관보(次官補)의 중간지위(中間地位)로 격하(格下)됨으로써 각군(各軍) 참모총장(參謀總長)의 지위(地位)도 상대적(相對的)으로 각군(各軍)에서 차관보(次官補)와 동격(同格)인 서열(序列) 3위(位)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군본부(各軍本部)를 각군성(各軍省)으로 각군(各軍)의 제(第)1인자(人者)를 장관(長官)으로 호칭(呼稱)하고 있음은 각군(各軍)의 전통지향적(傳統指向的) 속성(屬性)을 부정(否定)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국방장관(國防長官)과 각군장관(各軍長官) 그리고 합참의장(合參議長) 간(間)의 서열의식(序列意識)이 이따금 문제(問題)가 될 수 있으나, 조직(組織)의 원칙(原則)에서 볼 때 장관(長官) 부재시(不在時) 차관(次官)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는 제(第)2인자(人者)임에 틀림없으며, 합참의장(合參議長)은 현역중(現役中) 최상위(最上位)의 직급(職級)이지만 국방장관(國防長官)의 자문(諮問)일 뿐이며, 그 계급(階級)이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과 같은 바, 각군차관(各軍次官)보다 하위(下位)인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과 연관(聯關)하여 볼 때 각군장관(各軍長官)보다 상위직(上位職)일 수는 없으나 이들 상호간(相互間)에 알력(軋轢)이 발생(發生)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또한 내국(內局)의 차관보급(次官補級)의 각군성(各軍省), 합참(合參) 그리고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의 지휘관(指揮官) 및 참모(參謀)에 대(對)한 직권행사(職權行使)가 법(法)에 의(依)한 문민통제(文民統制)의 범위(範圍)를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민감(敏感)하게 받아들여 짐으로써 상호간(相互間)에 마찰(摩擦)을 야기(惹起)시키게 된다.

나.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의 구조적(構造的)인 모순(矛盾)

현(現)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Joint Chiefs of Staff)의 편성(編成), 기능(機能) 및 절차상(節次上)의 문제점(問題點)을 알아 본다.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Office of Joint Chiefs of Staff)는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합동참모부(合同參謀部)(Joint Staff) 그리고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 직할기관(直轄機關)(Joint Chiefs of Staff Agencies)으로 구성(構成)된다.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법적(法的)인 지위(地位)와 기능(機能)은 1947년(年)의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으며 그 후(後) 근본적(根本的)인 변화(變化)없이 존속(存續)해 오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大統領)은 1958년(年) 통합군(統合軍)의 지휘체제(指揮體制)를 확립(確立)하는 것을 포함(包含)한 국방체제(國防體制)의 개편(改編)을 위(爲)한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 개정(改正) 제안설명(提案說明)에서 “개별(個別) 지상(地上), 공중(空中) 및 해상작전(海上作戰)은 영원(永遠)히 사라졌다. ……미국(美國)의 국가안보요구(國家安保要求)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단일군체제하(單一軍體制下)의 전쟁개념(戰爭概念)에 의존(依存)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지적(指摘)하였던 바 (6), 이는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은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위원(委員)으로서 기타(其他)의 모든 임무(任務)에 우선하여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3중기능(重機能)인 대통령(大統領), 국방장관(國防長官) 및 안보회의(安保會議)의 주군사자문역(主軍事諮問役)을 수행(遂行)하도록 강조(強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 편성(編成), 기능(機能) 및 절차상(節次上)에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된다.

첫째,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위원(委員)으로서의 각군(各軍) 최선임장교(最先任將校)인 참모총장(參謀總長)이 자군장관(自軍長官)의 군사참모(軍事參謀)일 뿐만 아니라 군사(軍事)에 대(對)한 주집행관(主執行官)으로서 전비태세(戰備態勢)를 유지(維持)시키는 2중직능상(重職能上)(Dual-hatted)에 문제(問題)가 있다. 참모총장(參謀總長)은 자군(自軍)의 행정업무(行政業務)가 합참회의(合參會議)의 업무(業務)에 못지 않게 과다(過多)하며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업무수행(業務遂行)을 위(爲)해 일부(一部) 자군유관업무(自軍有關業務)(Service Related Duty)를 참모차장(參謀次長)에게 위임(委任)하도록 되어 있지만, 권한(權限)은 위임(委任)할 수 있으나 책임자체(責任自體)가 완전(完全)히 위임(委任)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중적(重的)인 신분(身分)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립적(中立的)이고 일관성(一貫性) 있는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업무수행(業務遂行)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 의장(議長)은 현역군인중(現役軍人中) 최고위직(最高位職)이지만 지휘권(指揮權)이 없으므로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를 주재(主宰)하고 대표(代表)하는데 통솔상(統率上)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안보회의(安保會議)의 상설위원(常設委員)이 아닌 그는 군사자문(軍事諮問)의 자격(資格)으로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를 대표(代表)하여 참석(參席)하나, 국방장

관(國防長官)과 대통령(大統領)에 대(對)한 군사자문역할(軍事諮問役割)은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대표자격(代表資格)이 아니라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의 일원(一員)이란 자격(資格)으로 접촉(接觸)하게 된다.

셋째, 문민우위체제하(文民優位體制下)에서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는 집단의사결정(集團意思決定)이 다수결제(多數決制)가 아니고 전원일치제(全員一致制)이므로 자군(自軍)의 이해관계(利害關係) 때문에 원활(圓滑)을 기(期)하기가 어렵고, 보수주의적(保守主義的)인 자군중시사상(自軍重視思想) 때문에 효과적(效果的)인 합동자문(合同諮問)(Joint Advice)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방장관(國防長官)이나 대통령(大統領)이 때로는 민간인(民間人) 군사전문가(軍事專門家)의 조언(助言)을 직업군인(職業軍人)의 조언(助言)보다 더 관심(關心)을 기울이게 되는데도 문제(問題)가 있는 것이다 (도표(圖表) 2 참조(參照)).

다.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의 당면과제(當面課題)

(1) 통합군(統合軍)의 책임지역(責任地域) 재조정(再調整) 문제(問題)

5개(個)의 통합군중(統合軍中) 전비사령부(戰備司令部)(Readiness Command) 외(外)는 모두 특정전구(特定戰區)를 책임지역(責任地域)으로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오늘날 세계경찰군(世界警察軍)이 아닌 이상(以上) 지구전역(地球全域)을 총망라(總網羅)한 책임지역(責任地域)을 담당(擔當)할 필요(必要)가 없게 됨으로써, 현재(現在)의 담당지역(擔當地域)은 주(主)로 해양(海洋)과 대륙(大陸)의 지리적(地理的) 경계(境界)를 중심(中心)으로 분할(分割)하고 있는데, 지리적(地理的) 중요성(重要性)과 면적(面積), 자원(資源) 그리고 정세(情勢)가 다양(多樣)하지만 안배(按配)와 균형(均衡)을 전제(前提)로 할 때 일부(一部) 통합군(統合軍)의 작전책임지역(作戰責任地域)의 재조정(再調整)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① 「유럽」 사령부(司令部)

현재(現在) 동사령부(同司令部)가 맡고 있는 책임지역(責任地域)은 「이란」 이동(以東)의 중동(中東)과 「유럽」 전역(全域)인데, 「유럽」 사령관(司令官)이 「나토」 연합군(聯合軍) 「유럽」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NATO Supreme Allied Commander)을 겸무(兼務)하고 있으며, 전시(戰時)에는 「나토」의 지원사령부(支援司令部)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럽」 사령부(司令部)의 책임지역(責任地域)이 「나토」의 「유럽」 담당지역(擔當地域)과 일치(一致)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關聯)하여 중동(中東)에 투입(投入)케 될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이 전비사령부(戰備司令部) 예하(隸下)에 편성(編成)되어 있으나 항공기(航空機)는 공수사령부(空輸司令部)(Military Air Lift Command) 소속(所屬)이고, 태평양(太平洋)과 인도양(印度洋) 상공(上

空)이나 「디에고갈사」에서 사전배치부대(事前配置部隊)와 합류(合流)하여 「페르샤」 항(港)으로 해상접근시(海上接近時)는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의 작전통제(作戰統制)를 받아야 하고, 일단 「페르샤만(灣)을 통과(通過)하여 중동(中東)에 상륙(上陸)하면 지휘권(指揮權)이 다시 바뀌어 「유럽」 사령부(司令部)의 통제(統制)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複雜)한 지휘계통(指揮系統)에 얽혀 있다.

② 대서양사령부(大西洋司令部) 및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

대서양사령부(大西洋司令部)는 중남미(中南美)의 태평양연안(太平洋沿岸)과 「카리브」 해(海) 그리고 대서양(大西洋) 전역(全域)을 맡고 있으므로 대서양사령부(大西洋司令部)의 책임해역(責任海域)은 남미대륙(南美大陸)으로 말미암아 양분(兩分)되어 있고,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와의 한계(限界)가 애매하다. 또한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의 책임해역(責任海域)은 태평양(太平洋)과 인도양(印度洋)으로서 전지구(全地球)의 1/2를 초과(超過)하고 있는 바, 그 세력(勢力)에 비(比)해 책임지역(責任地域)이 너무 광대(廣大)하다.

(2) 통합군(統合軍)의 전략작전(戰略作戰) 임무(任務) 불균형(不均衡)

① 남방사령부(南方司令部)의 비전술적(非戰術的) 임무(任務)

통합군(統合軍)은 행정지원부대(行政支援部隊)가 아니고 전략(戰略), 전술임무(戰術任務)를 수행(遂行)하는 작전부대(作戰部隊)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방사령부(南方司令部)는 「파나마」 운하(運河) 통제(統制)와 교육훈련(教育訓練)의 2가지 임무(任務)를 주(主)로 수행(遂行)하고 있으니, 이는 전술임무(戰術任務)보다 행정지원임무(行政支援任務)에 더 치중(置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行政的) 성격(性格)의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기 위(爲)해 방대(龐大)한 통합군사령부(統合軍司令部)를 설치(設置) 운용(運用)함으로써 자원(資源)의 낭비(浪費)를 초래(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②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의 임무편중(任務偏重)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는 책임지역(責任地域)이 타지역(他地域)의 2배(倍) 이상(以上)이 되므로 가용세력(可用勢力)에 비(比)해 과중(過重)한 임무(任務)가 부여(賦與)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東北亞)와 「페르샤」 항(港)이란 2대(大) 분쟁지역(紛爭地域)의 위기통제기능(危機統制機能)을 맡고 있으므로 1개지역(個地域)에 사태(事態)가 발생(發生)하면 주력(主力)을 사태지역(事態地域)으로 전환(轉換)해야 하는, 이른바 「스윙」 전략(戰略)(Swing Strategy)을 활용(活用)케 되므로 해당지역(該當地域) 동맹국(同盟國)의 방위공약(防衛公約)에 신뢰성(信賴性)을 저하(低下)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韓美聯合司)가 창설(創設)됨으로써 태평양사령관(太平洋司令官)은 한미연합사(韓美聯合司)의 상위(上位) 의사결정기구(意思決定機構)인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위원(委員)으로서의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해야 하는 등 그 임무(任務)가 과중(過重)하다.

3. 미국방체제(美國防體制)의 발전추세(發展趨勢)

현대(現代) 군대(軍隊)의 민주화(民主化)(Democratization), 민간화(民間化)(Civilianization), 교화(教化)(Civilization), 그리고 세속화(世俗化)(Sophistication) 추세(趨勢)와 더불어 군사기술(軍事技術)의 혁신(革新)과 무기체계(武器體系)의 고도화(高度化)가 가져 온 전쟁공간(戰爭空間)의 광역화(廣域化)와 전쟁수단(戰爭手段)의 입체화(立體化)에 따라 제(第)2차세계대전이후(次世界大戰以後) 정립(定立)된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特性)을 시현(示顯)하고 있다.

가. 통합(統合) 및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Corporate and Collective Leadership)

중세(中世)와 같이 장수(將帥)가 마상(馬上)에서 전장(戰場)을 지휘(指揮)함으로써 승패(勝敗)를 가름하고 그가 전쟁(戰爭)을 직접(直接) 계획(計劃)하고 집행(執行)한 그러한 사례(事例)는 이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은 거대(巨大)한 군사조직(軍事組織)과 초현대화(超現代化)된 무기체계(武器體系)를 움직이려면 1인(人) 지도체제(指導體制)로서는 전쟁(戰爭)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수(小數)의 전문화(專門化)된 참모(參謀)의 보좌(補佐)가 의사결정(意思決定)의 합리화(合理化)를 도모(圖謀)하고 전횡(專橫)과 탈권(脫權)을 방지(防止)하는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의 역할(役割)을 하게 된다. 국방체제(國防體制)의 「메카니즘」은 통수권자(統帥權者)가 문무합일(文武合一)의 의사결정기구(意思決定機構)인 안보회의(安保會議)를 통(通)하여 건전(健全)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하도록 보장(保障)하고, 이를 국방성(國防省)이라는 군정(軍政)·군령통할기구(軍令統轄機構)에서 각군(各軍)과 야전작전부대(野戰作戰部隊)(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에 하달(下達)함으로써 집권화(集權化)된 통제(統制) 속에 분권화(分權化)된 집행(執行)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통합(統合) 및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의 순기능(順機能)을 제도화(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민우위(文民優位)와 군정(軍政)·군령(軍令) 일원화(一元化)

군사력(軍事力)이 너무 약(弱)하면 국가(國家)를 외침(外侵)으로부터 방호(防護)할 수 없으나, 너무 강(強)하면 국가원수(國家元帥)의 통제(統制)에서 벗어남으로써 국법(國法)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軍事)는 정치(政治)에 복종(服從)하도록 장치(裝置)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수단(暴力手段)인 군사력(軍事力)은 국가(國家)의 원수(元帥)가 헌법(憲法)에 따라 통수권자(統帥權者)로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議會)가 그 독주(獨走)를 막기 위(爲)하여 여러 가지 입법절차(立法節次)와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견제(牽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國防長官)을 비롯한 각료(閣僚)는 통수권자(統帥權者)의 군사적(軍事的) 행동지시(行動指示) 문서(文書)에 그들이 부서해야만 집행(執行)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함으로써 폭력(暴力)의 오용(誤用)이나 남용(濫用)을 방지(防止)토록 제도화(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軍)이 정치(政治)에 복종(服從)하고 정치권력(政治權力)을 통제(統制)하는 것은 민주헌정체제하(民主憲政體制下)의 군(軍)에 대(對)한 문민우위(文民優位)의 확립(確立)된 기본원칙(基本原則)이다. 이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기 위(爲)하여 군정(軍政)·군령일원화체제(軍令一元化體制)를 도입(導入)하고 있는 것이다. 통수권자(統帥權者)의 군사대권(軍事大權)은 크게 나뉘어 군정(軍政)(양병(養兵))과 군령(軍令)(용병(用兵)) 분야(分野)인데, 이 양대기능(兩大機能)이 각료(閣僚)의 일원(一員)인 국방장관선(國防長官線)에서 일원화(一元化)됨으로써 통수권(統帥權)의 독립(獨立)(이원화(二元化))를 방지(防止)하게 된다. 만일 통수권(統帥權)이 이원화(二元化)되어 군사력(軍事力)을 사용(使用)하는 지시(指示)를 국가원수(國家元帥)와 폭력(暴力)이 야합(野合)하여 국가(國家)의 헌정질서(憲政秩序)를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군정(軍政)·군령(軍令)의 일원화(一元化)가 필요(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國防長官)은 민간인(民間人)으로서 국방체제(國防體制)의 계획(計劃)과 집행기구(執行機構)의 상하(上下)를 연결(連結)시키는 기능(機能)을 함과 동시(同時)에 용병(用兵)과 양병(養兵)의 양기능(兩機能)을 분립병존(分立並存)시키면서도 교호보완(交互補充)시켜 이를 일원화(一元化)함으로써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 차원(次元)에서 국방체제(國防體制)를 총력전체제(總力戰體制)로 확립(確立) 유지(維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 집권화(集權化) 관리(管理) 및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

군(軍)은 폭력행사(暴力行使)를 할 수 있는 특수무력집단(特殊武力集團)이며, 장교(將校)는 폭력관리(暴力管理)의 전문가(專門家)이다. 오늘날 군(軍)이 전문성(專門性)과 단독활용(單獨活用)의 여지(餘地)가 확대(擴大)됨으로써 급속(急速)한 성장(成長)과 발전(發展)을 가져 오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권위주의(權威主義)와 군사(軍事) 제일주의(第一主義)로 치닫(墜落)해 지나친 군사력(軍事力)의 대형화(大型化)를 가져오는 역기능(逆機能)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政治權力)이 군사력(軍事力)을 적정규모(適正規模)로 유지(維持)토록 하기 위(爲)해 부단(不斷)한 노력(努力)은 국방체제(國防體制)의 집권화(集權化) 관리(管理)로 표현(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특(特)히 핵(核)의 확산(擴散)과 무기체계(武器體系)의 정교화(精巧化)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가 세계(世界) 전역(全域)에 배치(配置)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效果的)으로 통제(統制)하기 위(爲)해서는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체제(體制)가 불가피(不可避)하다. 집권화통제(集權化統制)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휘(指揮), 통제(統制), 통신(通信) 및 정보(情報)(C3I)체제(體制)가 상호교신(相互交信)이 가능(可能)케 연결(連結)되며, 발달(發達)된 「컴퓨터」의 기능(機能)이 또한 이 체제(體制)를 원활(圓滑)하게 소통(疎通)되도록 보장(保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는 계층구조(階層構造)를 높게 지휘(指揮)의 폭(幅)을 넓게 만듦으로써 권한(權限)과 책임(責任)의 불균형(不均衡) 및 전력(戰力)과 전략(戰略)의 불용

납(不容納)이란 부(負)의 효과(効果)를 가져오는 측면(側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비용(費用) 대(對) 효과면(效果面)에서의 경제성(經濟性)과 능률성(能率性)을 추구(追求)한 나머지 다수(多數) 국가(國家)가 오늘날 이러한 집권화(集權化) 체제(體制)를 지향(志向)하고 있으나, 민주성(民主性)에 역행(逆行)할 수도 있다. 통합군(統合軍)은 군종별(軍種別) 3군체제(軍體制)를 없애고 병종별(兵種別) 기능군체제(機能軍體制)로 전환(轉換)하든지, 군종별(軍種別) 체제(體制)를 유지(維持)하면서 야전부대(野戰部隊)만 병종별(兵種別) 체제(體制)로 통합(統合)하는 체제(體制), 그리고 군종별(軍種別) 체제(體制)의 계층구조(階層構造)를 강화(強化)하여 단일(單一) 지휘관(指揮官)이 군종별(軍種別) 지휘관(指揮官)을 통할지휘(統轄指揮)하는 체제(體制) 등 여러 가지 유형(類型)의 집권화(集權化) 체제(體制)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는 정치권력(政治權力)과 군사력(軍事力)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 전략(戰略)과 전력(戰力)의 조화(調化), 군배비(軍配備)의 분산(分散)과 분리(分離) 등 제원칙(諸原則)에 입각(立脚)하여 각국(各國)이 자국(自國)의 안보환경(安保環境)에 맞는 체제(體制)로 변형(變形) 운용(運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국방체제(現代國防體制)가 갖는 제특성(諸特性)과 변화추세(變化趨勢)에 비추어 볼 때,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2세기(世紀)에 걸쳐서 발전(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 가장 전형적(典型的)인 현대국방체제(現代國防體制)의 요건(要件)을 갖춘 조직(組織)과 기능(機能)으로 정착(定着)하였다.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의 발전(發展)을 거시적(巨視的)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3차(次)에 걸친 분수령(分水嶺)을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 국방체제(國防體制)의 탄생(誕生)

미국(美國)은 국방체제(國防體制)가 없는 가운데 양차(兩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을 치루고 모두 승리(勝利)로 이끌었던 것은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핵전력(核戰力)이 아닌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으로 전쟁(戰爭)을 치루었기 때문에 가능(可能)했다.

일본(日本)에 투발(投發)된 2발(發)의 핵무기(核武器)는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의 보완수단(補完手段)으로 사용(使用)되어 종전(終戰)을 가져온 직접적(直接的) 요인(要因)은 되었으나, 핵전력(核戰力)으로서 조성운용(造成運用)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 당시(當時)는 전쟁성(戰爭省)과 해군성(海軍省)이 분립(分立)한 가운데 국가안보(國家安保)란 차원(次元)이 아닌 자군(自軍)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중심(中心)으로 전쟁(戰爭)을 치루므로써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야기(惹起)시켰던 것이다. 전후(戰後) 양성통합(兩省統合)의 기운(氣運)이 고조(高潮)되어 1947년(年)에 국가안보법(國家安本法)이 통과(通過)됨으로써, 국가(國家)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대내정책(對內政策), 그리고 군사정책(軍事政策)을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 차원(次元)에서 조정(調整) 통합(統合)하기 위(爲)한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마련하고 국방체제(國防體制)의 기반(基盤)을 조성(造成)하였던 것이다.

즉(卽) 국가안보회의(國家安保會議)와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의 설치(設置), 국방장관(國

防長官) 임명(任命), 국가군사기구(國家軍事機構) 설치(設置), 그리고 공군성(空軍省)의 설치(設置)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도 국방장관(國防長官)만 임명(任命)되었을 뿐 그 보조기관(補助機關)과 보좌기관(補佐機關)을 갖춘 국방성(國防省)은 창설(創設)되지 않고 있었다. 2년후(年後)인 1949년(年)에 국가안보법(國家安本法)이 개정(改正)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국방성(國防省)이 창설(創設)되고 각군성(各軍省)은 각료급(閣僚級) 장관(長官)이 지휘(指揮)하는 성(省)에서 국방성(國防省) 예하(隸下)의 성(省)으로 격하(格下) 개편(改編)되었다. 그리하여 국방체제(國防體制)가 집권화(集權化)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통합군(統合軍) 지휘(指揮) 및 군령(軍令) 군정일원화(軍政一元化) 체제(體制) 확립(確立)

국방체제(國防體制)의 초창기(初創期)에는 국방체제(國防體制)의 제원칙(諸原則)이 확립(確立)되지 않아 각군간(各軍間)의 불화(不和)와 대립(對立)이 계속되었는데, 특(特)히 연구개발 분야(研究開發分野)의 중복(重複)과 분산(分散)으로 군사기술(軍事技術)의 발전(發展)이 부진(不振)하고 대소경쟁(對蘇競爭)에 열세(劣勢)를 보여 대륙간탄도탄(大陸間彈道彈)을 소련(蘇聯)이 먼저 발사(發射)하는 결과(結果)를 빚기도 했다. 또한 통합군(統合軍)에 대(對)한 일관(一貫)된 작전통제체제(作戰統制體制)가 확립(確立)되지 않아 각군장관(各軍長官)이 변칙적(變則的)인 지휘권(指揮權)을 행사(行使)하는 난맥상(亂脈相)을 보이기도 하였다.

○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에 대(對)한 작전지휘계통(作戰指揮系統)을 대통령(大統領), 국방장관(國防長官), 합참의장(合參議長)으로 하고 행정지휘(行政指揮)만 각군장관(各軍長官)이 담당(擔當)하도록 한 체제(體制)를 확립(確立)하였다.

○ 합참의장(合參議長)에게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에서 투표권(投票權)을 행사(行使)하도록 하고, 합동참모부(合同參謀部) 장교(將校)를 400명선(名線)으로 그 정원(定員)의 대폭(大幅) 증가(增加)를 가져왔다.

○ 군정(軍政)·군령(軍令)의 일원화체제(一元化體制)를 확립(確立)하여 용병(用兵)과 양병분야(養兵分野)를 병립(並立)시키되 국방장관선(國防長官線)에서 일원화(一元化)되도록 하였다.

○ 양병분야(養兵分野)의 하나인 연구개발(研究開發)과 집권화관리(集權化管理)를 위(爲)해 동분야(同分野)의 차관보(次官補)를 신설(新設)하여 각군(各軍)의 사업(事業)을 중점적(重點的)으로 중앙집권(中央集權) 통제(統制)토록 하였다.

셋째, 국방관리체계(國防管理體系)의 혁신(革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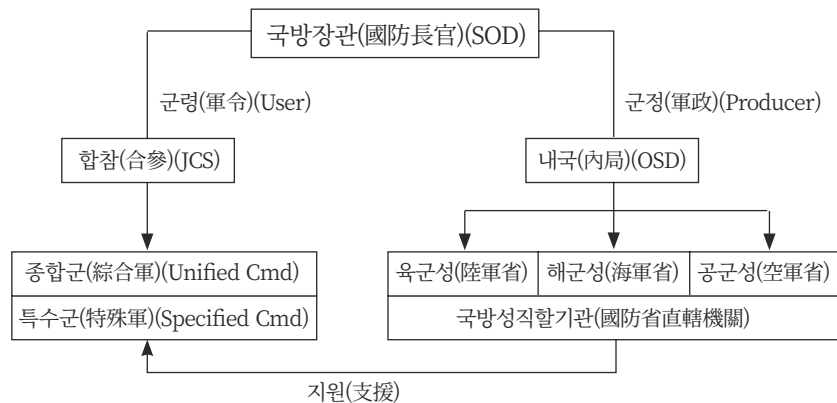
「맥나마라」 국방장관(國防長官)에 의(依)한 국방기획(國防企劃) 계획예산제도(計劃豫算制度)(PPBS) 도입(導入)으로 군별(軍別) 예산배당방식(豫算配當方式)이 임무별(任務別) 예산배당방식(豫算配當方式)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방장관(國防長官)의 각(各) 군(軍)에 대(對)한 통제권(統制權)이 고도(高度)로 강화(強化)되고, 특(特)히 연구개발사업(研究開發事業)과 체

계분석업무(體系分析業務)의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가 확립(確立)되고, 국방관리(國防管理)의 획기적(劃期的) 개혁(改革)을 통(通)하여 가격인하(價格引下)와 예산절감(豫算節減)의 효과(效果)를 가져옴과 아울러 국방행정상(國防行政上)의 관료주의화(官僚主義化)와 군산복합체(軍產複合體)라는 부정적(否定的) 측면(側面)도 노출(露出)되었다.

이상(以上)과 같은 3단계(段階)의 큰 변화(變化)를 겪는 동안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는 국제환경(國際環境)과 국내정세(國內情勢)에 적응(適應)할 수 있는 조직(組織)과 기능(機能)을 갖춘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거대기구(巨大機構)로 성장(成長) 발전(發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美國)의 현국방체제(現國防體制)는 통수권(統帥權) 관계(關係)에서는 문민우위(文民優位)의 군정(軍政)·군령(軍令) 일원화체제(一元化體制)이고, 조직구조상(組織構造上)으로는 3군체제하(軍體制下)의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이며, 국방관리기능상(國防管理機能上)으로 볼 때 참모기능별(參謀機能別) 집권화(集權化) 관리체제(管理體制)라고 할 수 있다.

미국(美國)의 국방체제(國防體制)가 변천(變遷)해온 과정(過程)을 돌아켜 보는데, 체제(體制)의 변화(變化)가 결코 단기간내(短期間內)에 급격(急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정권(政權)이 교체(交替)될 때마다 제기(提起)된 도전(挑戰)과 비판(批判) 속에서도 문민우위(文民優位)와 군정(軍政)·군령일원화(軍令一元化)라는 대원칙(大原則)은 흔들리지 않은 채 전통적(傳統的)인 3군체제(軍體制)를 유지(維持)하면서도 작전부대(作戰部隊)를 통합군체제(統合軍體制)로 운용(運用)하는 현체제(現體制)를 지켜 왔다는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미국방체제(美國防體制)는 도전(挑戰)을 겪으면서 민주헌정체제(民主憲政體制)와 더불어 지난 200여년(餘年) 동안 꾸준히 성장(成長)하여 현대국방체제(現代國防體制)로서의 모든 요건(要件)을 다 갖춘 오늘의 체제(體制)로 정착(定着)되었다.

군정(軍政)·군령일원화체제(軍令一元化體制)



<주기(註記)>

- (1) 장위국(莊緯國), 국방체제론(國防體制論), 자유중국(自由中國), 삼군대학(三軍大學), 1975, p.10.
- (2) The 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 Department of Defense, 1978, p. 3.
- (3) U.S. News and World Report, Sept 5, 1977.

이 공중지휘본부(空中指揮本部)는 「보잉」 707을 개조(改造)한 것으로 대통령(大統領)을 비롯한 15명(名)의 전투참모(戰鬪參謀)와 일부보좌관(一部補佐官)이 동승(同乘)하도록 되어 있다. 재급유(再給油)하면 4일간(日間) 공중체재(空中滯在)가 가능(可能)하며 국가통수체제(國家統帥體制)의 각(各) 구성요소(構成要素) 및 4개(個)의 통합(統合) 및 특수군(特殊軍)과도 「테레타이프」로 연결(連結)된다. 국가비상공중지휘(國家非常空中指揮) 본부(本部)와 국가에 비통수본부(國家豫備統帥本部)는 합참(合參) J-3의 전략(戰略) 및 일반작전차장(一般作戰次長)(Deputy Director of Operations, Strategic and General Operation) 하(下)에 상설기구(常設機構)로 편성운영(編成運營)되고 있어 유사시(有事時)의 기능수행(機能遂行)에 대비(對備)하고 있다.

- (4)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Y 1979, 1980, pp.132~133.
- (5) George Fielding Eliot, Blue Ribbon and Red Tape,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Vol. II, National Decision Making and Defense Management, Air University, USAF, 1971, p.32.
- (6) The 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 Department of Defense, 1978, p.48.

명장명언(名將名言)

누구나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는 자는 없다. 문제(問題)는 이미 범한 과오(過誤)를 알아차리고 시정(是正)하느냐 못하느냐에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

- 류코무 -

고독할 때 인간은 참다운 자신을 안다.

- 톨스토이 -

한반도(韓半島)와 국제정세 변천과정(國際情勢 變遷過程)

세계(世界)의 분쟁가능지역(紛爭可能地域)에 있어서
미국(美國)의 방위공약(防衛公約)의 재확인
소련(蘇聯)의 팽창을 견제하는데 강력한 수단도 되나
지역(地域)에 따라서는 분쟁(紛爭)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백 봉 중 (白奉鍾)
〈정박(政博), 공군대학교수(空軍大學教授)〉

서론(序論)

냉전(冷戰)이란 용어(用語)는 미국(美國)의 평론가(評論家) 리프만(Walter Lippmann)이 1947년(年) 최초로 사용한 “Cold War”의 번역이다. 이는 원래 제(第)2차대전후(次大戰後) 공산진영(共產陣營)과 자유진영(自由陣營)간의 양극적(兩極的)인 권력투쟁(權力鬭爭)을 의미하고 있으나 핵심(核心)의 본질(本質)은 미(美)·소(蘇)의 대립(對立)이다. 그러므로 미(美)·소대립(蘇對立)의 성격(性格)과 양상(樣相)에 따라 그들의 동맹국(同盟國)들의 대립(對立) 양상(樣相)도 달라지며 나아가 남북한(南北韓)의 대립관계(對立關係)도 미(美)·소관계(蘇關係)의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冷戰)은 제(第)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련(蘇聯)이 그들의 세력(勢力)을 팽창하려고 시도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美國)은 이러한 소련(蘇聯)의 팽창세력을 견제(牽制)하기 위하여 봉쇄정책(封鎖政策)과 전략(戰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대전후(大戰後) 지금까지 미(美)·소(蘇)간에는 근본적으로 냉전관계(冷戰關係)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美國)의 대소정책(對蘇政策)과 전략(戰略)에는 대소봉쇄(對蘇封鎖)가 그 기초(基調)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政策)과 전략(戰略)에 따라 한국(韓國)은 극동(極東)에 있어서 최전초(最前哨)의 봉쇄선(封鎖線)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관계(狀況關係)로 인하여 냉전강도(冷戰強度)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1947년대(年代) 유럽에서 냉전체제(冷戰體制)가 완전히 굳혀져 갈 때 한반도(韓半島)에서는 남북한(南北韓)이 분단(分斷) 고착(固着)되었고, '40년대말(年代末) 냉전(冷戰)이 격화되자 1950년(年) 6월(月)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열전(熱戰)이 발발

(勃發)하였다. 그러나 '70년대(年代) 들어 동서(東西)간의 화해(和解)로 소위 「데탕트」가 시작하자 남북한(南北韓)간에는 대화(對話)가 시작되었다.

'8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그간의 소련(蘇聯)의 팽창에 대한 미국(美國)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하여 다시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신냉전(新冷戰)은 1940~50년대(年代)의 냉전(冷戰)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는 하나 한반도(韓半島)에서의 남북한(南北韓)의 긴장고조(緊張高潮)에 박차를 가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냉전(冷戰)이 격화되면 소련(蘇聯)의 극동진출(極東進出)의 전초(前哨)인 북한(北韓)에 대한 지원(支援)은 더욱 적극화 되고 또한 북한(北韓)은 이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70년대(年代) 중반(中盤)부터 소련(蘇聯)의 팽창이 대리전(代理戰) 형식과 직접적인 개입의 성격으로 변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80년대(年代)의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에 있어서 한반도(韓半島)의 상황(狀況)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北韓)은 이미 소련(蘇聯)의 대리(代理)로써 세계분쟁지역(世界紛爭地域)에 부분적으로 많이 개입하여 왔으며, 소련(蘇聯)의 극동진출(極東進出)을 위하여 나진항(羅津港)을 소련(蘇聯)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내적(對內的)으로는 미국(美國)의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에 대한 확인을 역이용(逆利用)하여 전쟁위기(戰爭危機)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80년대(年代)의 신냉전기(新冷戰期)를 맞아 한국(韓國)의 안보(安保)에 대한 위협을 재정리(再整理)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전쟁(韓國戰爭)과 냉전체제(冷戰體制)의 실증(實證)

1950년(年) 6월(月) 25일(日)의 한국전쟁(韓國戰爭)은 자유진영(自由陣營)과 공산진영(共產陣營)간의 냉전체제(冷戰體制)의 본질(本質)을 열전(熱戰)으로서 증명한 것이다. 즉, 이는 냉전(冷戰)이 격화되면 열전(熱戰)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韓國戰爭)은 비록 북한(北韓)의 단독남침(單獨南侵)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쟁(戰爭)의 성격(性格)은 소련(蘇聯)이 세계혁명(世界革命)을 통해서 지구상(地球上)에 단일공산국가(單一共產國家)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전쟁(戰爭)이 발발하자 남북한(南北韓) 단독(單獨)의 전쟁(戰爭)이 되지 않고 곧 미국(美國)을 비롯한 자유진영대(自由陣營對) 공중(中共)을 비롯한 공진영(共陳營)간의 전쟁(戰爭)으로 화(化)한 것으로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전쟁(韓國戰爭)은 1945~47년(年)의 냉전(冷戰)의 개시기(開始期)를 지나 1948년(年) 소련(蘇聯)의 베를린 봉쇄(封鎖)를 극(極)으로 1947~49년(年)의 냉전(冷戰)의 격화기(激化期)를 맞이하고 드디어 열전화(熱戰化)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美)·소(蘇)의 냉전(冷戰)은 전세계(全世界)에 걸쳐서 격화되고 있었으나 이와 한도를 넘어 열전화(熱戰化)된 부분이 한국(韓國)이었다. 이는 미국(美國)의 세계적(世界的)인 대소봉쇄선(對蘇封鎖線)에서 소련(蘇聯)과의 가장 이해(利害)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소련(蘇聯)이 가장 팽창하기가 용이한 점(點)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전쟁(韓國戰爭)을 계기로 냉전(冷戰)은 확대(擴大)되었다.

1950년(年) 6월(月) 25일(日) 한반도(韓半島)에서 열전(熱戰)이 발발할 때까지의 미국(美國)의 대한정책(對韓政策)과 소련(蘇聯)의 대북한정책(對北韓政策)은 판이하였다. 1950년(年) 6월(月) 한국전쟁(韓國戰爭)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냉전격화기(冷戰激化期)에 있어서 미국(美國)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대(對)유럽정책(政策)이나 또는 아시아에 있어 대일(對日)·대중공정책(對中共政策)처럼 확고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제(第)2차대전전(次大戰前)부터 미국(美國)의 극동정책(極東政策)은 미(美)·일관계(日關係)나 미(美)·중관계(中關係)가 중심이 되어 왔다. 미국(美國)은 항상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 세력균형유지(勢力均衡維持)로써 그들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추구하였다. 제(第)2차대전(次大戰) 중 미국(美國)은 일본(日本)의 중국정복(中國征服)을 그들의 이익(利益)에 반(反)한다고 하였다. 종전(終戰)직후 미군(美軍)이 한반도(韓半島)에 상륙(上陸)한 것은 미국(美國)에 대한 한반도(韓半島)의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련(蘇聯)의 남진(南進)에 대한 반사작용(反射作用)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국(韓國)이 미국(美國)의 안보(安保)에 직결된다는 전제하(前提下)에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미국(美國)의 안보(安保)에 대한 한반도(韓半島)의 중요성은 미국(美國)의 대소협상실패(對蘇協商失敗)와 중국문제(中國問題)가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중국본토(中國本土)가 공산화(共產化)되고 소련(蘇聯)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팽창하자 미국(美國)은 한반도(韓半島)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한국(韓國)을 지탱할 여력이 있고 또한 지탱 가능한 방법을 발견할 경우 한국(韓國)은 우리에게 전략적(戰略的)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絶對的)으로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美國)은 불안(不安)한 한반도(韓半島)에 깊이 개입됨을 반대하고 미군(美軍)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였던 것이다. 1949년(年) 6월(月) 미국(美國)은 500여명(餘名)의 군사고문단(軍事顧問團)만 남겨놓고 주한미군(駐韓美軍)을 한국(韓國)으로부터 완전히 철수시켰다. 그리고 1950년(年) 1월(月) 12일(日) 「애치슨」 국무장관(國務長官)은 미국(美國)의 태평양방위전초선(太平洋防衛前哨線)에 일본(日本), 오키나와 필리핀은 포함시켰으나 한국(韓國)과 대만(臺灣)을 여기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정책결정(政策決定)은 유럽지역에서 미국(美國)의 능력(能力)약화를 막기 위해 군사적(軍事的) 가치가 보다 낮은 한반도(韓半島)에서 인적(人的), 물질(物的) 소모(消耗)를 피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취해진 것이다. 「애치슨」과 동일한 견해는 당시 미국동군사령관(美極東軍司令官)이었던 「맥아더」 원수(元帥)에 의해서도 1949년(年) 3월(月) 2일(日) 이미 기술되었다. 그러나 1950년(年) 6월(月) 25일(日) 북한(北韓)이 남침(南侵)을 하자 미국(美國)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돌변하였다. 미국(美國)은 종래 한국(韓國)의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值)의 저평가(低評價),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撤收), 한반도(韓半島)의 분쟁(紛爭)에 개입치 않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로 즉각 참전(參戰)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소극적(消極的)인 대한정책(對韓政策)이 적극적(積極的)인 정책(政策)으로 전환한 것

이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미국(美國)의 극동정책(極東政策)과 전략(戰略)에도 확고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국(美國)이 이렇게 정책(政策)을 돌변(突變)하여 참전(參戰)하게 된 것은 한반도(韓半島)의 군사적(軍事的) 전략가치(戰略價值)가 새로이 높게 평가(評價)되어서가 아니라 한국(韓國)에서 터진 대소봉쇄선(對蘇封鎖線)을 막지 못하면 유럽과 일본(日本)의 안보(安保)가 위협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전한반도(全韓半島)가 공산화(共產化)되면 일본(日本)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불균형(不均衡)은 유럽에서도 불균형(不均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참전(參戰)하자 전세(戰勢)는 역전(逆轉)되어 이번에는 소련(蘇聯)으로 하여금 미국(美國)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韓半島)의 통일(統一)을 목전에 두자 중공군(中共軍)이 개입(介入)하였다. 이러한 역학관계(力學關係)에 의하여 한국전쟁(韓國戰爭)은 다시 원상(原狀)에서 휴전(休戰)을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국전쟁(韓國戰爭)은 미(美)·소(蘇)간에 냉전(冷戰)이 격화(激化)되면 부분적으로 열전(熱戰)이 발발하고, 또한 이러한 열전(熱戰)은 미(美)·소(蘇)의 냉전체제(冷戰體制)라는 바탕 위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데탕뜨」와 북한(北韓)의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強)

미(美)·소(蘇)간의 냉전관계(冷戰關係)는 1960년대(年代)에 들면서 「평화공존(平和共存)」 '70년대(年代)에 들어 「데탕뜨」로 표현되면서 다소 완화(緩和)되어 갔다. 이러한 기간에 있어서 표면상 냉전체제(冷戰體制)는 화해(和解) 또는 다극화(多極化) 등으로 변화(變質)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소련(蘇聯)과 북한(北韓)은 내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증강(軍事力增強)에 주력하여 소련(蘇聯)은 미국(美國)과의 격차를 좁혔고, 북한(北韓)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군사적(軍事的)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공존(平和共存)은 1962년(年) 미(美)·소(蘇)간에 「쿠바 미사일 위기(危機)」를 계기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공존(平和共存)은 핵(核)의 가공(可恐)할 만한 파괴력으로 인하여 소련(蘇聯)이 그들의 전쟁관(戰爭觀)인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을 버리고 소위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으로 정책(政策)을 전환하고서 미(美)·소(蘇)간에 현실공존(現實共存)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蘇聯)의 정책적(政策的) 슬로우건에 의하여 미국(美國)은 이를 안이(安易)하게 받아들여 현상유지(現狀維持)의 군사력(軍事力)을 유지(維持)하였다. 이러한 미국(美國)의 군사정책(軍事政策)은 자연히 대한군정책(對韓軍政策)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韓國)의 군사력(軍事力)은 현전력유지(現戰力維持)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본래 소련(蘇聯)이 주장한 평화공존(平和共存)의 진의(眞意)는 미국(美國) 즉, 자본주의세계(資本主義世界)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核)을 중심으로 한 전면전쟁(全面戰爭)에 의한 세계적화(世界赤化)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면(全面) 핵전쟁(核戰爭)의 수단(手

段)은 포기하더라도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나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에 의한 적화혁명(赤化革命)은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소련(蘇聯)은 평화공존(平和共存) 기간에 미국(美國)보다 열세(劣勢)하였던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 증강에 총력을 기울임과 더불어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에도 계속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서방세계(西方世界)에 대소어론(對蘇輿論)을 호도(好導)하고 사실상 군사적(軍事的)으로는 핵(核)에 있어서 미국(美國)과 핵균형(核均衡)(Nuclear Parity)를 이루었고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은 미국(美國)보다 훨씬 우세(優勢)를 확보하였다.

'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평화공존(平和共存)이 「데탕트」 시대(時代)로 점변(漸變)하여 냉전체제(冷戰體制)가 와해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다극화체제(多極化體制)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적(平和共存的) 긴장완화기(緊張緩和期)라고 할 수 있다. 다극화(多極化)는 특히 중공(中共)의 대두로 인하여 중(中)·소대립(蘇對立)에서 주요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蘇聯)의 「데탕트」의 주요목적은 중공(中共)을 서방진영(西方陣營)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외부적(外部的)으로 미국(美國)과 서방세계(西方世界)에 온화한 인상을 부각시키는 기간을 이용해서 강력한 군사력(軍事力)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7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는 미국(美國)과의 군사적(軍事的) 대결(對決)에 있어서 자신을 가지게 되자 그들의 세계적(世界的) 세력 팽창은 표면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0년대(年代) 후반(後半)에 있어 그들의 세력팽창은 '40년대말(年代末)에서부터 '50년대초(年代初)와는 달리 직접(直接) 및 대리적(代理的) 형태(形態)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평화공존(平和共存)과 「데탕트」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이면에서 군사력증강(軍事力增強)과 세력팽창을 시도한 소련(蘇聯)의 「모델」은 바로 북한(北韓)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북한(北韓)은 1960년대초(年代初)부터 4대군사노선(大軍事路線)을 그들의 우선정책(優先政策)으로 내걸고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強)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군사력(軍事力) 증강의 정책(政策)이 실효를 거두자 이를 바탕으로 '60년대(年代) 중반(中盤)에는 3대혁명역량전략(大革命力量戰略)을 내걸고 '60년후반(年後半)부터 대한민국(大韓民國)을 무력(武力)으로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例)가 1968년(年) 1월(月) 「푸에블로」 호(號) 납북사건(拉北事件)과 11월(月)의 올진(蔚珍)·삼척(三陟) 무장공비사건(武裝共匪事件)이었다. '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미(美)·중공화해(中共和解), 미(美)·소(蘇)의 「데탕트」에 편성하여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응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군사력(軍事力)을 급격히 증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화(對話)를 하는 동안에도 남침(南侵)담굴을 파는 등 그들의 남한적화(南韓赤化)의 기본노선(基本路線)을 조금도 변경(變更)치 않았다. 즉,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응한 것은 대외적(對外的)인 선전용(宣傳用)으로서 대남적화(對南赤化)의 기반조성(基盤造成)을 위한 전술(戰術)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70년대(年代)에 들면서 미국(美國)이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정책(撤收政策)을 취하자 그들은 조기철수(早期撤收)의 분위기를 조성으로 대미접근(對美接近)을 시도하기도 했다. 반

면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는 반대로 세계도처(世界到處)의 분쟁(紛爭)지역에서 소련(蘇聯)의 대리역(代理役)을 맡아 왔다. 특히 북한(北韓)은 지금까지 중(中)·소(蘇)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有利)하게 군사력(軍事力)을 증강하다가 '70년대(年代) 미(美)·중공(中共)이 화해(和解)하자 소련측(蘇聯側)에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北韓)은 중공(中共)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가까웠고 군사적(軍事的)으로는 소련(蘇聯)과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狀況)도 1976년(年) 모택동(毛澤東)이 사망(死亡)하고 중공(中共)이 신서방적(新西方的)인 노선(路線)을 수용하게 되고, 특히 미국(美國)의 군사적(軍事的) 기술(技術)을 도입(導入)함에 따라 더욱 소련(蘇聯)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말(年代末)에 소련(蘇聯)의 군사적(軍事的) 팽창과 북한(北韓)의 군사력(軍事力) 증강이 동조(同調)를 이루게 됨으로써 북한(北韓)의 군사적(軍事的) 위협(威脅)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3. 신냉전(新冷戰)과 북한(北韓)의 위협(威脅)

'7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 소련(蘇聯)의 노골적인 군사적(軍事的) 개입(介入)이 세계(世界) 각지역(各地域)에서 표면화 되자 즉, 1975년(年) 앙골라에 군사지원(軍事支援), 1977년(年) 이디오피아·소말리아의 분쟁개입(紛爭介入) 그리고 1979년(年) 아프카니스탄에 직접침입(直接侵入)으로 미(美)·소(蘇)간에 다시 긴장(緊張)이 고조되었다. 특히 미(美)·소(蘇)간의 긴장을 다시 첨예화(尖銳化)한 주요 사항(事項)은 극동(極東) 및 인도양(印渡洋)으로의 소련해군력(聯蘇海軍力) 진출과 아프카니스탄의 무력침공(武力侵攻)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레이건」 정부(政府)는 더 이상의 후퇴(後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積極)인 대소견제정책(對蘇牽制政策)을 표방하고 실제로 군사력증강(軍事力增強)과 해외주둔(海外駐屯) 전력(戰力)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80년대(年代)에 들면서 미(美)·소(蘇)간에는 새로운 냉전시대(冷戰時代)로 다시 접어들게 되었다.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에 들어와 레이건정부(政府)는 극동(極東)에 있어서의 대소전략(對蘇戰略)의 일환으로 한국방위(韓國防衛)를 다시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전쟁억지력(戰爭抑止力)을 증가하는 것이었다. 북한(北韓)과의 군사적(軍事的) 불균형(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레이건은 주한(駐韓) 미지상군(美地上軍) 철수정책(撤收政策)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전력(戰力)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렇게 미국(美國)은 정책(政策)을 전환하여 한국(韓國)의 방위공약(防衛公約)을 재확인하였으나 전세계(全世界)에 걸쳐 대소견제(對蘇牽制)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지역(他地域)과의 우선문제(優先問題)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소련(蘇聯)이 앙골라, 짐바베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지역(地域)과 니카라과아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을 포함한 중남미지역(中南美地域)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남(南)에멘 등이 중심이던 중동지역(中東地域)에 있어서 공산정권(共產政權)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直接), 간접(間接)으로 개입하는 것 외에 미국(美國)과 직접적인 무력분쟁(武力紛爭)

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은 페르시아만(灣)이다. 그러므로 미국(美國)은 이러한 지역(地域)에 있어서도 방위(防衛)를 공약(公約)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軍事力)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세계(世界)의 어느 분쟁지역(紛爭地域)에서도 소련(蘇聯)으로부터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사력(軍事力)을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大規模)의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RDF)을 유지(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世界)의 분쟁가능지역(紛爭可能地域)에 있어서의 미국(美國)의 방위공약(防衛公約)의 재확인(再確認)은 소련(蘇聯)의 팽창을 견제(牽制)하는데 강력한 수단도 될 수 있으나 지역(地域)에 따라서는 분쟁(紛爭)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미국(美國)이 비록 세계(世界)의 최강군사력(最強軍事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동맹방위(同盟防衛)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나 소련(蘇聯)과의 군사적(軍事的) 균형(均衡) 내지 부분적(部分的) 열세하(劣勢下)에서 분쟁(紛爭)이 하나 내지 몇 개(個)의 지역(地域)에서 동시에 발발한다면 미국(美國)은 그들의 국가이익(國家利益)에 입각한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韓半島)의 방위(防衛)는 미국(美國)의 대외방위(對外防衛)에 있어 얼마만한 우선순위(優先順位)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미(美)·소(蘇)가 한반도(韓半島)에서 보다는 더 상호이익(相互利益)이 상충되는 페르시아만(灣)을 비롯 타(他) 지역(地域)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北韓)으로서는 오히려 이를 호기로 착각할 수가 있다. 현재 북한(北韓)은 전쟁(戰爭) 준비(準備)를 완료하여 놓고 있어 소련(蘇聯)의 적극적(積極的)인 지원여하(支援如何)에 따라 분쟁(紛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미국(美國)이 한국방위(韓國防衛)를 재확인하고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유지(維持)하고 있고 중공(中共)과 정상적(正常的)인 관계(關係)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일단 분쟁(紛爭)이 야기되면 상황(狀況)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미국(美國)이 타지역(他地域)의 분쟁(紛爭)에 개입(介入)되어 있을 때 북괴(北傀)가 무력침략(武力侵略)을 할 것인지, 또는 침략(侵略)의 규모(規模)나 양상(樣相)에 따라 미국(美國)의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공약이행(公約履行)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둘째, 중공(中共)이 현재는 소련(蘇聯)과 적대관계(敵對關係)에 있고 반면 미국(美國)과는 협조관계(協助關係)에 있다고 하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자(主義者)이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이고 반자본주의자(反資本主義者)이기 때문에 일단 분쟁(紛爭)이 일어나기만 하면 북한(北韓)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年代)의 신냉전시대(新冷戰時代)에도 북한(北韓)의 위협(威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結論)

제(第)2차대전후(次大戰後) 미(美)·소관계(蘇關係)는 냉전(冷戰)이라는 성격(性格)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는 이 냉전(冷戰)의 변화(變化)에 동조(同調)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0년말(年末) 냉전(冷戰)이 격화(激化)되어 미국(美國)이 적극적(積極的)

인 대소봉쇄정책(對蘇封鎖政策)을 취했을 때 오히려 한반도(韓半島)에는 열전(熱戰)이 발발하였다. 냉전(冷戰)이 1960년대(年代)와 '70년대(年代)에 들어와 평화공존(平和共存)과 「데탕트」관계(關係)로 탈바꿈하자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 증강 「모델」에 따라 북괴(北傀)도 군사력(軍事力) 증강에 광분하였다. 따라서 한반도(韓半島)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安定)된 현상(現狀)을 유지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북괴(北傀)에 의하여 불안(不安)한 현상(現狀) 즉 현상타파(現狀打破)가 추진되고 있었다.

'80년대(年代)에 들어와 미국(美國)이 소련(蘇聯)의 팽창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함에 따라 한반도(韓半島)의 방위공약(防衛公約)이 확고해 졌다고 하나 이는 미국(美國)의 세계적(世界的)인 차원(次元)에 있어 대소견제정책(對蘇牽制政策)의 일환(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駐韓美軍)의 군사력(軍事力)이 한국방위(韓國防衛)에 절대적인 역할(役割)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한반도(韓半島)만을 위한 군사력(軍事力)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특히 냉전(冷戰)의 격화(激化)에 의한 미국(美國)의 대소강경정책(對蘇強硬政策)이 한국(韓國)의 안보(安保)에 위협을 초래하였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할 때 더욱 그러하다. '80년대(年代)를 신냉전기(新冷戰期)라고 한다면 냉전(冷戰)이란 고유의 성격에 의하여 오히려 한반도(韓半島)에서 북한(北韓)의 위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군(美軍)이 한국(韓國)에 주둔해 있고 그들이 방위(防衛)를 확약(確約)할 때를 기하여 보다 자주적(自主的)이고 능동적(能動的)인 안보태세(安保態勢)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명언명구(名言名句)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자는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로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 솔로몬 -

의를 보고 행치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 공자 -

<연재>

노라매 日記

(1) 정 운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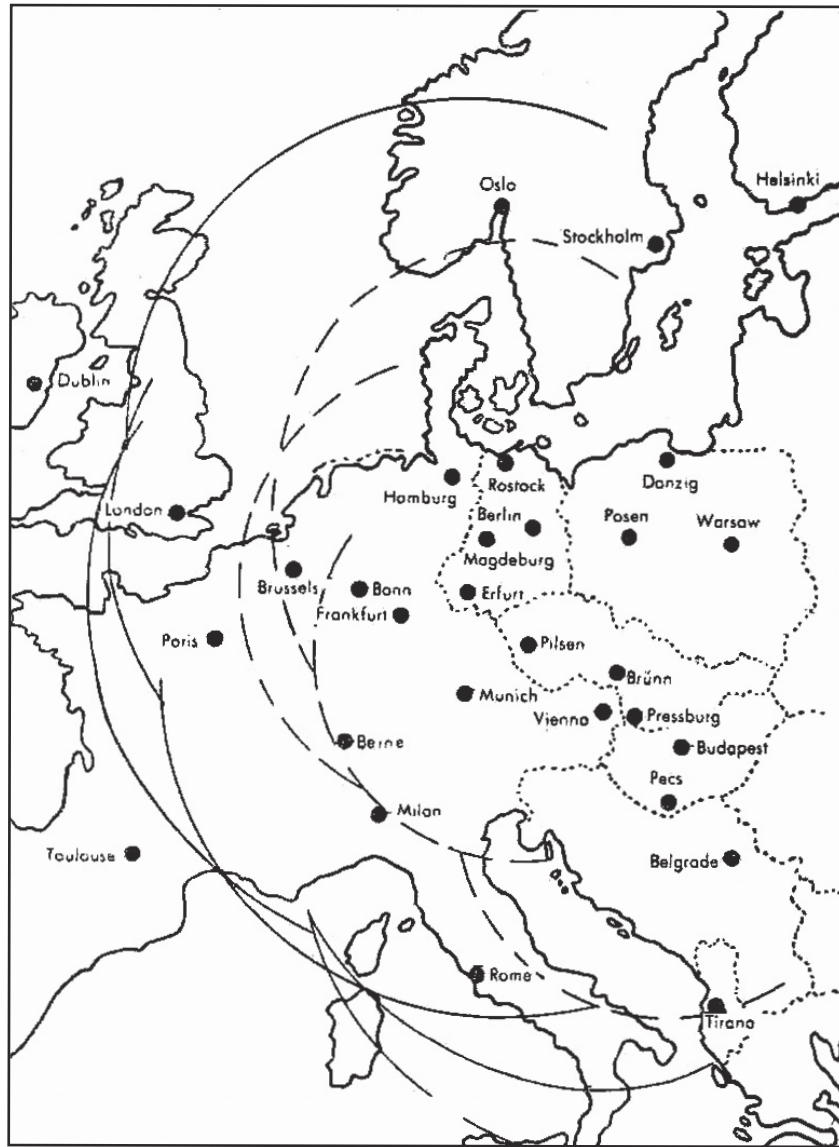
이 건 순 (李建淳) 역(譯)

Sukhoi 설계국(設計局)의 대표작(代表作)

현재(現在) 소련의 보유기중(保有機中) 가장 치사성(致死性)이 높은 무서운 전투기(戰鬪機)! 지난 5년내(年來) 서방진영(西方陣營) 군사전문가(軍事專門家)들이 Warsaw 조약(條約)의 군사능력(軍事能力)을 평가(評價)할 때에는 으레 이 “Fencer”기(機)가 지적(指摘) 강조(強調)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戰鬪機)는 소련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전술기중(戰術機中)에서 가장 설계기술(設計技術)이 앞서 있고, 또한 NATO제국(諸國)에 관(關)한 한(限) 가장 위협적(威脅的) 존재(存在)의 전투기(戰鬪機)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원래(元來) 이 Fencer기(機)의 설계의도(設計意圖)는 후방차단공격전문기(後方遮斷攻擊專門機)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70년대(年代)의 소련의 어떠한 세삼세대(第三世代) 전투기(戰鬪機)에서 보다는 소련전선공군측(前線空軍側)의 요구(要求)에 따라 방어위주(防禦爲主)에서 공격위주(攻擊爲主)로 그 취역(就役) 임무(任務)가 뒤바뀐 전투기(戰鬪機)이기도 하다.

이 항공기(航空機)가 도입적용기술상(導入適用技術上) 서방진영(西方陣營) 것에 비(比)해 크게 뛰어난 점(點)도 없고, 또한 전체(全體) 작전배치상(作戰配置上)의 수적(數的) 세력면 등(勢力面等)에서 그리 대단(大端)한 것은 못된다. 하지만, 지난 10년(年) 동안 소련공군(空軍)의 최신예기(最新銳機)로서 재인식(再認識) 내지 재평가(再評價)되어 왔고, 따라서 이 Fencer기(機)가 계속 소련전선공군(前線空軍)에 투입(投入)됨에 따라, 이들 공군(空軍)의 전반적(全般的) 세력강도(勢力強度)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는 우려(憂慮)의 빛으로 바라 보고 있다. Fencer기(機)는 매우 훌륭한 전투행동반경(戰鬪行動半徑)과 지형추적침투능력(地形追跡浸透能力), 그리고 상상(想像)키 힘들 정도(程度)의 무장적재공격능력(武裝積載攻擊能力)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므로 현(現) 소련전선공군보유(前線空軍保有) 전투기(戰鬪機) 서열중(序列中)에서도 매우 뛰어난 전투기(戰鬪機)로서 손 꼽히고 있다. 이 전투기(戰鬪機)는 NATO군(軍)의 제공(制空) 및 후방차단공격기(後方遮斷攻擊機)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안



〈자료(資料); IDR, 81.6. p.718.〉

전(安全)한 기지(基地)로부터 저공(低空)으로 NATO 영공(領空)을 침투(浸透)할 수 있다는 것과 짧은 활주로(滑走路)나 미포장상태(未鋪裝狀態)의 기지(基地)에서도 작전(作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適切)한 무장상태(武裝狀態)로 LO-LO-LO 행동반경(行動半徑)으로 NATO 최전선(最前線) 훨씬 후방(後方)까지 침투(浸透)할 수 있는 공격능력(攻擊能力)을 보유(保有)하고 있다는 것은 서구(西歐) 방어상(防禦上) 매우 심각(深刻)한 문제점(問題點)을 제기(提起)함과 동시(同時), 이에 대(對)한 강구책(講究策)이 시급(時急)히 요구(要求)되고 있다.

수(數) 백대(百臺)에 달(達)하는 Fencer기(機)가 Baltic해(海) 및 Caspathian 산맥지역(山脈地域)을 비롯하여 최근(最近)에는 극동군구(極東軍區) 등(等)의 소련전선공군(前線空軍)에 배치(配置)됨으로써, 이들 전선공군임무지원(前線空軍任務支援)을 위(爲)해 장거리공군기(長距離空軍機)나 Backfire기(機)와 같은 타(他) 임무항공기(任務航空機)의 지원차출(支援差出)을 받을 필요(必要)없이 자체임무수행(自體任務遂行)을 할 수 있는 결과(結果)를 가져 오고 있다.

이 Fencer기(機)는 작전 전개가능성(作戰展開可能性)이 매우 높은 동독(東獨), 체코 및 헝가리 등(等)의 작전기지(作戰基地)에서 최대(最大) 8ton까지의 작전무장(作戰武裝)으로서, LO-LO-LO Profile로서 서독(西獨), 덴마크의 전부(全部)를 비롯하여, 불란서, 스웨덴 및 이태리의 대부분(大部分)을 그의 공격권내(攻擊圈內)로 잡을 수 있다. 한편 표준형(標準型) 1,000kg 및 소형화(小型化) 750kg 2개(個)의 핵폭탄(核爆彈)을 적재(積載)하고 LO-LO-LO Profile로 영국(英國), 불란서(佛蘭西) 및 이태리(伊太利) 등(等)을 그의 공격권내(攻擊圈內)에 커버할 수 있다.

F-111기(機)의 유사품(類似品)

본(本) Fencer기(機)는 미국(美國)의 General Dynamics 사제(社製) F-111기(機)와 직접적(直接的)으로 비교(比較)될 수 있는 항공기(航空機)로서, 외견상(外見上)으로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크기에 있어서 약(約) 12% 축소(縮小)된 모양을 하고 있어 “꼬마 F-111기(機)”라 불리어 지고 있다. 그런데 본(本) Fencer기(機)가 그의 상대기(相對機)인 F-111기(機)가 모두 장거리침투기(長距離浸透機)인 점(點)에서는 같은 목적(目的)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Fencer기(機)가 F-111기(機)의 성능(性能)을 어느 정도(程度) 따라 잡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明確)치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두 항공기(航空機)의 주(主)된 특징면(特徵面)에서 비교(比較)하여 볼 때 Fencer기(機)는 매우 높은 치(值)의 익면하중치(翼面荷重值)를 가지며, 또한 상당(相當)히 높은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를 적용(適用)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항공기(航空機)가 장거리침투기(長距離浸透機)로서 어느 정도(程度) 자체방어능력(自體防禦能力)을 보유(保有)케 하자는데 그 설계주안점(設計主眼點)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明白)히 알 수 있다. 이에 반(反)해, F-111기(機)의 경우는, 모든 설계(設計)의 초점(焦點)이 장거리공격(長距離攻擊) 내지 강습임무전용기(強襲任務專用機)를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특(特)히 Turbofan Engine을 채용(採用)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소련의 Sukhoi 설계국(設計局)이 이와 같은 소련전투기(戰鬪機) 설계사상(設計史上) 일대혁신적(一大革新的) 제품(製品)을 출품(出品)하게 된 데에는 General Dynamics사(社)의 Fort Worth Division에 의(依)한 개발제품(開發製品)에 매우 강(強)한 영향(影響)을 받았을 것이 틀림 없다.

이 Fencer기(機)의 혁신적(革新的) 개발시기(開發時期)가 바로 F-111기(機)의 시험비행(試驗飛行)이 막 진행(進行)되고 있던 60년대(年代) 중반(中盤)에 시작(始作)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추측(推測)을 뒷받침하여 주기에 충분(充分)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美國)의 F-111기(機)에 상대(相對)되는 항공기(航空機)를 설계담당(設計擔當)할 중책(重責)을 당시(當時) 소련 내(內)에서 일인자적(一人者的) 위치(位置)에 서서 그 능력(能力)의 우수성(優秀性)을 인정(認定)받고 있던 Sukhoi를 장(長)으로 하여 설계(設計)팀을 구성(構成)시켜 설계개발임무(設計開發任務)를 부여(賦與)시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當然)한 처사(處事)라 할 수 있다. 이 Sukhoi설계국(設計局)은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 이래(以來) 소련 내(內)에서는 처음으로 성공적(成功的)인 후방차단(後方遮斷) 및 요격임무전투기(邀擊任務戰鬪機)라 할 수 있는 Su-7(Fitter-A)기(機)를 개발(開發)해 낸 설계국(設計局)이기도 하며, 또한 가변익(可變翼) 개발기술(開發技術)도 이 Su-20과 Su-22(Fitter-D, -G 및 -H) 후방차단기(後方遮斷機) 개발과정(開發過程)에서 충분(充分)히 구체화(具體化)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Fencer기(機) 개발(開發)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험부담(危險負擔) 없이 진행(進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Su-24 Fencer기(機)라고 불리어지는 이 새로운 전투기(戰鬪機)의 개발계획(開發計劃)에 입각(立脚)한 시작기(試作機) 제작(製作)이 지난 1969~70년(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推測)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0년대중(年代中)에 소련전투기(戰鬪機) 개발(開發)에 따른 개념정립단계(概念定立段階)에서부터 시작(始作)하여 첫 비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평균(平均) 소요기간(所要期間)이 4년(年)이었다는 점(點)을 감안해 볼 때 이 Fencer기(機)가 비록 최신기술개념(最新技術概念)들이 적용(適用)됨에 따라 다소(多少) 추가기간소요(追加期間所要)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소련의 평균(平均) 소요기간(所要期間) 범주내(範疇內)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항공기(航空機) 설계개발(設計開發)에 따른 주(主)된 책임(責任)은 동(同) 설계국(設計局)의 설계장(設計長)인 Ye A. Ivanof가 담당(擔當)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는 1975년(年) Sukhoi가 사망(死亡)하고 난 뒤 이 설계국(設計局)의 실질적(實質的)인 지휘관리(指揮管理) 책임행사(責任行使)를 해오고 있는 자(者)이면서도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者)이기도 하다.

전통적(傳統的)인 소련식(式)의 설계개념(設計概念)에다 미국식(美國式)의 외래설계개념(外來設計概念)을 절충(折衷) 조화(調和)시킴에 있어 Ivanof와 그의 설계(設計)팀들은 소련육군

항공대측(陸軍航空隊側)에서 요구(要求)하고 있는 미포장(未鋪裝), 짧은 활주로상(滑走路路上)에서의 작전요구조건(作戰要求條件)을 치중(置重)해 가면서, F-111기(機)의 촌수(寸數), 설계개념(設計概念) 등(等)을 빠짐없이 참고(參考)해 나갔을 것이다. F-111기(機)와 외견적(外見的)으로 많이 닮은 점(點)들은 다음과 같다.

◆ 가동주익(可動主翼) 지지점(支持點)이 미국(美國)의 NASA식(式)과 같이 고정익(固定翼) 외측(外側)에 설치(設置)되어 있다.

◆ 서방진영기(西方陣營機)들이 보편적(普遍的)으로 적용(適用)하고 있는 고양력(高揚力) Slat와 Flap 장치(裝置)를 쓰고 있다.

◆ 같은 수치(數值)의 종횡비(縱橫比)(Aspect ratio)

◆ 최대후퇴각(最大後退角)으로 후퇴시(後退時) 주익전연선(主翼前緣線)이 직선화(直線化) 형태(形態)로 된다.

한편 소련설계(設計)팀들이 미국제(美國製) F-111기(機)와 차이(差異)나게 설계(設計)하고 있는 점(點)은?

◆ 최대각후퇴시(最大角後退時), 주익후연(主翼後緣)과 수평안정판전연(水平安定板前緣)과의 사이를 미국(美國)것에 비(比)하여 넓게 잡고 있다.

그 이유(理由)로서는:

○ 수평안정판(水平安定板)에 충분(充分)한 선형조종감응성(線性操縱感應性)(Linear control response)을 갖게 하자는 점(點)과

○ 다루기에 매우 골치 아픈 후류현상(後流現象)(Wake situation)을 피(避)해 보자는 점(點).

◆ 또한 각(各) 조타면간(操舵面間)의 항공역학적(航空力學的) 중심위치(重心位置)를 서로 간(間)에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종적(縱的) 안정(安定)에 더 많은 신경(神經)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익가변장치기술적용(主翼可變裝置技術適用)에 있어 전자동가동기술(全自動可動技術)이 아닌 삼점가변기술(三點可變技術)을 적용(適用)하고 있는 것은 전자동가변기술적용(全自動可變技術適用)에 따른 매우 정교(精巧)하고 복잡(複雜)한 기술개발(技術開發)을 피(避)하자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소련이 머지 않아 이 전자동가변기술(全自動可變技術)이 등장(登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조종사와 무기체계조작수(武器體系操作手)가 서로 나란히 옆으로(Side-by-side) 앉는 방식(方式)을 소련에서도 채용(採用)하고 있는 것은, 미국(美國)의 General Dynamics사(社)가 개발(開發)한 매우 편리(便利)하고 안락(安樂)한 좌석배치(座席配置)가 항공기(航空機) 조작(操作)을 더욱 효과적(效果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着眼)하여 이 기술(技術)을 모방(模倣)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전방동체(前方胴體)의 단면적(斷面積)을 최소화(最小限)으로 억제유지(抑制維持)시켰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단면적(斷面積)이 종렬배치좌석법(縱列配置座席法)을 채택(採擇)했을 때 보

다도 훨씬 굳어졌기 때문에 Sukhoi 설계(設計)팀들은 자연(自然)히 이곳에 복합기능형(複合機能型) Radar(Multi-mode radar)를 설치(設置)했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F-111기(機)가 채택(採擇)하고 있는 것과 같은 승무원(乘務員)들의 안전(安全)과 안락성(安樂性)을 충분(充分)히 고려(考慮)한 비상탈출장치(非常脫出裝置)를 소련 설계(設計)팀들이 고려(考慮)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 내(內)에서는 항공기설계철학상(航空機設計哲學上) 이와같은 조치(措置)는 일종(一種)의 사치에 속(屬)하는 것으로 철저히 배척(排斥)하고 있기 때문에 F-111기(機)가 채용(採用)하고 있는 Side-by-Side Ejection Seats 대신(代身)에 그들의 전통적(傳統的)인 Seats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 모양에 따른 기술적용(技術適用)에 있어 F-111기(機)의 경우는 주익(主翼)날개 밑 부분(部分)으로 덮는 식(式)의 이른바 “Wing-Shrouded”식(式)의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를 채택(採擇)하고 있지만 소련 설계(設計)팀들은 이와같은 새로운 기술(技術)을 모방(模倣)채용(模倣採用)하는데 따른 복잡성(複雜性)과 위험부담(危險負擔)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이미 Su-15 Flagon기(機) 등(等)을 통(通)하여 설계경험(設計經驗)한 바 있는, 미국(美國)의 F-4 팬텀기(機)에서 채용(採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직(垂直)썰기형(型)”(Vertical-Wedge)을 동체(胴體) 양측(兩側)에 옆으로 달아 붙이는 형식(形式)을 취(取)하고 있다. 이와같은 흡입구(吸入口)를 적용(適用) 할 경우, 흡입공기(吸入空氣)의 역축현상(壓縮現象)이 자연(自然)히 흡입구(吸入口) 외측(外側)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비행특성상(飛行特性上) 마치 고직각기동(高直角機動)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감(感)을 주면서 기수(機首)를 밀어내려는 듯한 버릇을 내는 것이 보통(普通)이다. 또한 Fencer기(機)는 동체내(胴體內) 무장창(武裝倉)을 설치(設置)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구조(構造)를 함으로써, 기술적(技術的)으로 복잡(複雜)하고 어려운 문제점(問題點) 봉착(逢着)을 의도적(意圖的)으로 회피(回避)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Su-24, Fencer A기(機)의 기술적제원(技術的諸元)

승무원(乘務員)	
수(數) 2명(名)	기폭(機幅)
좌석(座席) Side-by-Side	70° 후퇴시(後退時) 10.0m
촌수(寸數)	16° " 17.4m
동체(胴體)길이(Pitot관(管) 불포함(不包 함)) 20.0m	익면적(翼面積)
기고(機高) 6.6m	70°/16° 49/38m ²
	중횡비(縱橫比)
	70°/16° 2.04/8.06

무게	Data Link ARL-S
자중(自重) 21,000kg	Intercom SPU-10
기내연료(機內燃料) 12,000kg	기타(其他)
최대전투적재(最大戰鬥積載) 8,000kg	Laser Rangefinder
최대이륙중량(最大離陸重量) 41,000kg	HUD
Engine	Map Display
수(數)와 형(型) R29B-300 Turbojet×2	Weapon Computer
최대정지추력(最大靜止推力)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B 무(無)/유(有) 7,850/11,000daN	SAU-?
비연료소모(比燃料消耗)	무장(武裝)
AB 무(無)/유(有) 25/55mg/Ns	기관포(機關砲) 30mm×2
항공전자(航空電子)	외부무장가(外部武裝架) 하부동체(下部 胴體)×4 각주익(各主翼)×2개식(個式)
Radar	특별자료(特別資料)
지형추적(地形追跡) Radar 미상(未詳)	(a) 최대이륙중량시(最大離陸重量時) 익 면하중치(翼面荷重值)
항법일공격(航法一攻擊)Radar	70°/16° 1,079/837kg/m ²
Radar Warning Sirena 3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 0.536daN/ kg
IFF SRZO-2	(b) Clean 상태(狀態) 60% 기내연료시 (機內燃料時)
항법(航法)	익면하중치(翼面荷重值)(70°/16°)
ADF ARK-15	742/575kg/m ²
Radio Altimeter RV-4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 0.78daN/kg
Radio-beacon Receiver MRP-56P	비행성능(飛行性能)
ATC/SIF SOD-57M	이륙거리(離陸距離)(이륙중량(離陸重量) 41ton) 1,400m
Doppler Navigation Radar Computer	15m 상승소요거리(上昇所要距離) (TOW 41ton) 1,800m
NJ-50BN	착륙속도(着陸速度)(기중(機重) 23ton) 240km/h
ILS SP-50	
Short-range Navigation System	
RSBN-4S	
Long-range Navigation System 관성 식(慣性式)	
Radio	
HF RSB-70/RPS	
VHF/UHF R-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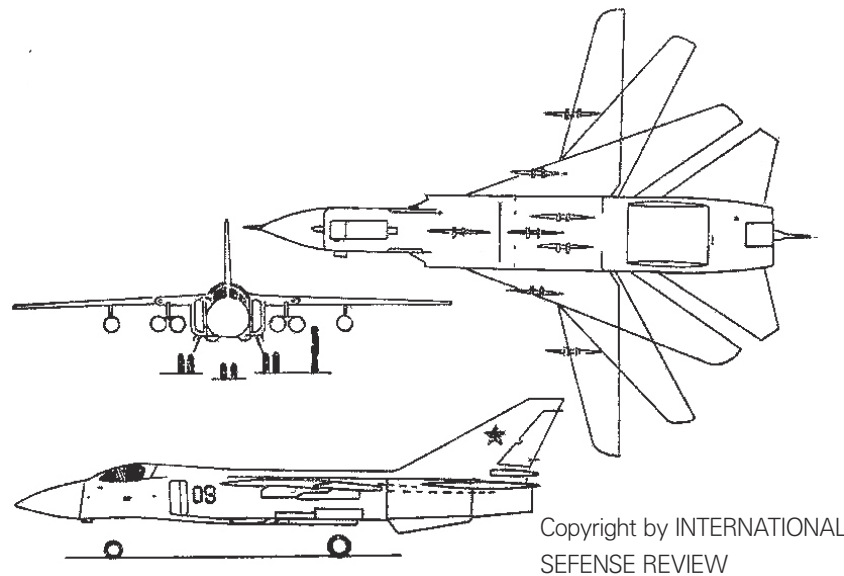
LO-LO-LO 행동반경(行動半徑) 최대(最大) 950km

전투성능(戰鬥性能)

(Clean상태(狀態) AB사용(使用), 60%
기내연료(機內燃料))
최대속도(最大速度)
Sea Level Mach 1.2
고공(高空) Mach 2.2
상승한도(上昇限度) 16,500m(54,000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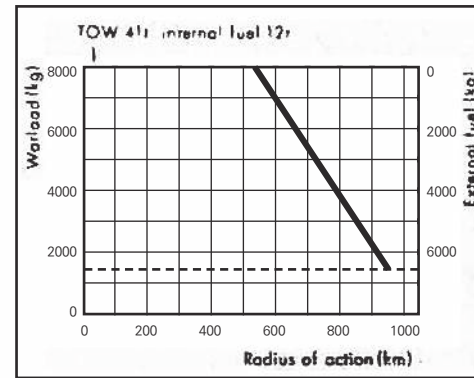
최대상승율(最大上昇率)
Sea Level 180m/s
11,000m(36,000ft)까지 상승소요(上昇所要) 1.8분(分)
최대(最大)g 부하치(負荷値) 5.0g
최대선회율(最大旋回率)(Sea Level) 8°/s
최소선회반경(最小旋回半徑)(Sea Level) 850m
최대수평가속성(最大水平加速性) 6.0m/s²

<그림 1>은 Fencer기(機)의 전투무장(戰鬥武裝)과 행동반경(行動半徑)과의 관계(關係)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본(本) Fencer기(機)가 8 ton이라는 놀라운 무장적재상태(武裝積載狀態)로 대단(大端)히 먼 전투행동반경(戰鬥行動半徑)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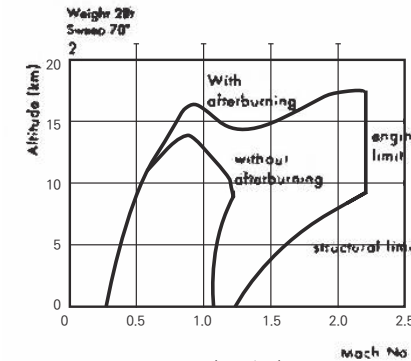


Su-24, Fencer기(機)의 삼면도(三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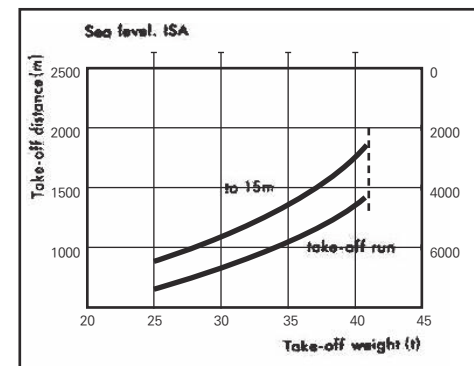
<자료(資料): IDR 81.6. p.719>



<그림 1> <자료(資料): IDR 81.6. p.718>



<그림 2>



<그림 3>

무장자체(積載武裝自體)의 유효사거리(有效射距離)는 포함(包含)되어 있지 않다. 그림 우측(右側)의 Y축(軸)(Extraat Fuel)과 좌측(左側)의 Warload축(軸)의 실제치(實際値) 표시(表示)는 되어 있지 않다(단(但), TOW는 Take-Off Weight의 약자(略字)임……역주(譯註)).

<그림 2>는 Fencer기(機)의 고도(高度) 대(對) Mach Number 관계 표시(關係表示) 그림으로서 전투중량(戰鬥重量) 28ton, 후퇴각(後退角) 70°, A/B 추력(推力) 유(有)/무(無) 시(時)의 비행성능영역(飛行性能領域) (Flight Envelope)를 표시(表示)하는 것이다. Sea. Level에서 상당(相當)히 고속(高速)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저고성능향상(低高性能向上)에 설계역점(設計力點)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큰 각도(角度)의 후퇴각(後退角)과 높은 익면하중치(翼面荷重値)를 채택(採擇)하고 있는 것은 저공상태(低空狀態)에서 장거리 침투작전임무(長距離浸透作戰任務) 수행(遂行)을 주임무(主任務)로 하기 위해, 저공비행상태(低空飛行狀態)에서의 안전대책(安全對策)을 크게 고려(考慮)한 설계개념(設計概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Fencer기(機)의 기중(機重)과 이륙(離陸) 및 15m 높이까지 도달소요거리(到達所要距離)를 표시(表示)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Fencer기(機)가 극단적(極端的)으로 높은 치(值)의 익면하중치(翼面荷重值)를 적용(適用)함으로써 이륙(離陸)에 애먹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본기(本機)가 이륙시(離陸時) 보조(補助)로켓트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보고(報告)를 받은 바 없지만 실제(實際)로 쓴다하더라도 Fencer기(機)와 같이 설계(設計)된 항공기(航空機)에서는 크게 효과(效果)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최대이륙중량(最大離陸重量)은 41ton에 달(達)하고 있는 바 이때 이륙거리(離陸距離)는 1,400m가 소요(所要)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本)항공기(航空機)가 작전가능(作戰可能)한 작전기지(作戰基地)가 전방지역(前方地域)에 충분(充分)히 확보(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형(新型) 항공(航空) 전자장비(電子裝備)

지난 60년대(年代)에서 70년대(年代) 초기(初期) 동안, 소련전투기(戰鬪機)들이 장비(裝備)하여 온 항공전자장비품(航空電子裝備品)들은 서방진영(西方陣營) 것에 비(比)해 많이 뒤떨어졌던 것으로서, 그 차이(差異)는 경우(境遇)에 따라서는 10년(年) 내지 그 이상(以上)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서방진영(西方陣營) 군사계획관(軍事計劃官)들은 Warsaw 조약군(條約軍)들의 수적우세(數的優勢)를 서방진영(西方陣營)의 질적(質的) 우세(優勢)로서 커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確定的)인 지론(持論)으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런데 Warsaw 조약군(條約國)들의 일선취역기(一線就役機)의 수(數)가 거의 같은 수적수준(數的水準)을 계속(繼續) 유지(維持)하여 오는 것은 물론(勿論), 그 성능면(性能面)에서도 크게 향상(向上)된 최신형기(最新型機)로 구형기(舊型機)들이 대폭(大幅) 교체(交替)되고 있음으로써 지난날의 서방진영측(西方陣營側)이 가져오던 안이(安易)한 가정(假定)들은 이제 그 현실성(現實性)들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서방진영(西方陣營)에서는 소련측(側)과 달리, 구형기(舊型機)를 신형기(新型機)로 교체(交替)함에 있어서, 신형기(新型機) 구입단가(購入單價)의 대폭상승(大幅上昇)으로 그 교체소요(交替所要) 절대수(絕對數)를 채우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實情)에 놓여 있다. 최근(最近) 생산(生産)되는 소련항공기(航空機)들의 전자체계(電子體系)는 서방진영(西方陣營) 것과 거의 동등(同等)하게 출품(出品)되고 있다. 예(例)를 들어, Su-24기(機)의 항법(航法) 및 무장조준체계(武裝照準體系)는 미국(美國)의 F-111기(機) A/ E형(型)의 적용(適用)된 기술수준(技術水準) 것과 거의 대등(對等)한 것이고 그 생산시기(生産時期)도 F-111기(機)에 비(比)해 불과(不過) 몇 년(年) 뒤떨어졌을 따름이다.

Su-24기(機)가 장비(裝備)하고 있는 Radar의 자세(仔細)한 형식(形式)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형추적형(地形追跡型)(Terrian-Following)Radar를 장비(裝備)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비성능면(裝備性能面)에서 좀더 자세(仔細)히 표현(表現)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지형회피형(地形回避型)(Terrian-Avoiding)Radar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妥當)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기(本機)는 레이저거리측정기(距離測定器)(Laser

Rangefinder)와 폭격(爆擊)을 더욱 정확(正確)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기발사용(武器發射用) 컴퓨터와 연계운용(連繫運用)되는 형식미상(形式未詳)의 Navigation-Attack Radar도 장비(裝備)하고 있다. 또한 Fencer기(機)는 지상(地上)에서의 보조체계(補助體系)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獨立的)으로 상당(相當)히 먼 거리(距離)를 항법비행(航法飛行) 할 수 있는 관성항법체계(慣性航法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최신기(最新機)들이 상당수준(相當水準)의 기술혁신(技術革新)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종전(從前)까지는 지상통제(地上統制)의 도움을 상당(相當)히 받아 왔던 것이 사실(事實)이었다. 이 관성항법체계(慣性航法體系)에 대(對)해 좀더 부연(附言)한다면 본기(本機)는 SAU라는 형식명(形式名)(단(但), Serial No는 미상(未詳)으로 된 자동조종체계(自動操縱體系)를 장비(裝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장비(裝備)는 지난 76년(年) 베렌코중위(中尉)가 일본(日本) 북해도(北海道)로 탈출비행시(脫出飛行時) 몰고온 MiG-25 Foxbat기(機)에서 처음으로 발견(發見)된 바도 있다. 이 자동조종체계(自動操縱體系)는 조종사가 필요(必要)하다면, 이륙(離陸)과 착륙동작(着陸動作)을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이 체계(體系)를 통(通)하여 자동(自動)으로 조종(操縱)하게끔 되어 있는 체계(體系)이다. 한편, 단거리항법체계(短距離航法體系)는 최신형지도전시(最新型地圖展示)(Map Display) 능력(能力)을 갖춘 RSBN-4S형(型)을 장비(裝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종석내(操縱席內) 장비(裝備)는 지난번 Finland와 France를 방문비행(訪問飛行)한 바 있는 소련의 MiG-23G Flogger기(機)에서 보여준 바 있는 전자식(電子式) HUD(Head-Up-Display)가 포함(包含)되어 있다. 그런데 본(本) Fencer기(機)가 장비(裝備)하고 있는 HUD는 소련이 종전(從前)까지 사용(使用)하여 오던 광학조준식(光學照準式)(Optical Sights)이었던 것을 탈피(脫皮)하여 서방진영방식(西方陣營方式)을 많이 모방(模倣)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무장(武裝)

이 항공기(航空機)의 기관포(機關砲)는 동체(胴體) 속에 장비(裝備)되어 있는 관계(關係)로 이에 대한 근접사진확보(近接寫真確保)가 어려운 실정(實情)에 있었다. 그런데 이 기관포(機關砲)는 그들이 새로이 설계(設計)한 다연신(多聯身) 30mm 기관포(機關砲)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포(砲)는 경목표물(硬目標物)에 대(對)하여는 HE(High Explosive)탄(彈)이나, 철갑탄(徹甲彈)을 발사(發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의 30mm 기관포(機關砲)는 단신포(單身砲)일 것으로 보며, 이 포(砲)는 Chaff탄(彈)의 발사(發射)와 같은 특수목적용(特殊目的用)의 포(砲)일 것으로 보여 진다. 탄약적재량(彈藥積載量)은 첫번째 포(砲)가 500발(發), 두 번째 포(砲)가 100발(發)의 특수탄(特殊彈)을 초과(超過)치 않는 범위내(範圍內)에서 운반(運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u-24기(機)는 매우 다양(多樣)한 목표물공격임무(目標物攻擊任務)를 수행(遂行)하고 있

는 항공기(航空機)로서 그 적재무기종류(積載武器種類)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多様)하고 또한 복잡(複雜)한 배합적재(配合積載)를 하고 있다. 폭탄(爆彈)의 경우, 500kg까지의 것을 적재(積載)하는 바 하부동체무기(下部胴體武器架) 4개소(個所)의 각(各) 1개식(個式), 내측고정주익(內側固定主翼架)(Inner Fixed Wing Glove Station) 한 쪽에 4개식(個式) 가동주익(可動主翼) 한 쪽에 2개식(個式)을 적재(積載)할 수 있다. 따라서 500kg 폭탄(爆彈)일 경우 도합(都合) 16발(發) 적재(積載)로서 최대적재량(最大積載量)이 8ton에 이르게 되며, 핵폭탄(核爆彈)인 경우, 1,000kg짜리를 후부중앙동체(後部中央胴體)에 1개(個)를 적재운반(積載運搬)할 수 있다.

제공임무비행시(制空任務飛行時) Fencer기(機)는 산탄살포기(散彈撒布器)(Scatter-Weapon Dispensers)를 적재(積載)할 수 있다. 또한 활주로파괴용폭탄(滑走路破壞用爆彈)(Dibber Bombs)도 적재가능(積載可能)하다. NATO제국(諸國)이 시설(施設)하고 있는 신형 항공기엄체호(新型航空機掩體壕)를 파괴(破壞)하여 그 내부(內部)의 항공기(航空機)를 공격(攻擊)할 수 있는 특수폭탄(特殊爆彈)도 개발(開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상(地上)의 항공기(航空機)나 또는 기타(其他) 특수목적(特殊目的)을 위한 Fuel/Air 폭발무기(爆發武器)를 소련군부대(軍部隊)들이 보유(保有)하고 있는바, Su-24기(機)도 이 무기(武器)를 적재(積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적재무기중(積載武器中)에서도 가장 정상급(頂上級)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500kg Laser 유도폭탄(誘導爆彈)이 될 것이다. 이 폭탄(爆彈)의 유도원리(誘導原理)는 AS-10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의 유도방식(誘導方式)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서 월남전(越南戰) 당시(當時) 미군(美軍)이 사용(使用)하였던 Paveway 폭탄(爆彈)의 유도체계(誘導體系)를 모방(模倣)하여 개발(開發)한 것으로 보여진다.

Fencer기(機)는 또한 다양(多様)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적재(積載)한다. 이들 미사일의 유도방식(誘導方式) 또한 다양(多様)한 것으로서 무선지령(無線指令)(Radio Command), 수동(受動)레이다 호밍(Passive Radar Homing) 종말(終末) 레이저유도(誘導)(Terminal Laser Guidance) 및 전자일광학유도(電子一光學誘導)(Electro-Optical Guidance : TV) 등(等)이 그것이다. 별표(別表)에서는 이들 개개(個個)의 미사일 특성자료(特性資料)들을 제시(提示)해 주고 있다(그중 어떤 자료(資料)들은 추정치(推定值)임).

이 Fencer기(機)는 서방진영(西方陣營)의 항공기(航空機)의 치(值)와 거의 맞먹는 전비중량(全備重量)(Gross Weight) 대(對) 적재중량(積載重量)(Payload : Fuel+Warload)비(比)가 50%의 치(值)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소련제(製) 전투기(戰鬥機)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事實)들은 이 Fencer기(機)가 적재능력(積載能力)의 증대(增大)를 도모(圖謀)하였다는 것은 물론(勿論), 항공기(航空機) 설계면(設計面)에서도 많은 발전(發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實例)로서, 항공전자제품면(航空電子製品面)에서, Print 회

로(回路)를 사용(使用)하고 있다는 것, 큰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의 Engine의 사용(使用), 티타늄재료(材料)의 도입(導入), 접합재료기술(接合材料技術)의 적용(適用), 또한 극(極)히 소량(少量)이긴 하지만 복합재료(複合材料)를 사용(使用)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Air-to-surface missiles for the Su-24

	AS-7	AS-9	AS-10	AS-11
Length(m)	3.5	5~6	3.5	6
Weight(kg)	300~400	c.700	200~300	700
Warhead wt(kg) ...	c.100	135~200	100	200
Guidance	radio command	Radar homing	Semi-active laser	TV
Range (km)	10	50~90	10	50

Fencer기(機)의 전술(戰術) 및 전략적(戰略的) 의의(意義)

본(本) Fencer기(機)의 작전운용상(作戰運用上)의 중요성(重要性)은 이미 서두(序頭)에서도 강조(強調)된 바 있지만, 그의 전임기(前任機)인 YAK-28 Brewer 경격폭기(輕擊爆機)와는 이제 완전교체(完全交替) 될 것을 목표(目標)로 추진중(推進中)에 있다. (지난 7개년(個年)동안 370대(臺)가 교체완료(交替完了)됨) 지금 현재(現在) 격폭임무(擊爆任務) 60대(臺) 정찰임무(偵察任務) 175대(臺), ECM형(型) 20대(臺) 등(等)의 Brewer기(機)들이 아직 현역취역중(現役就役中)에 있다. 이들 255대(臺)의 구형(舊型) Brewer기(機)들이 새로운 Fencer기(機)들로 완전교체(完全交替)될 시기(時期)는 지금 Fencer기(機)의 연간(年間) 생산율(生産率)이 60대(臺) 꼴로 잡고 있으므로 앞으로 1984년(年) 말(末)이나, 1985년(年) 초(初)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YAK-28기(機) 255대(臺)의 교체소요(交替所要)에 추가(追加)하여, 구식(舊式)이지만 아직 취역중(就役中)에 있는 135대(臺)의 Tu-128 Fiddler기(機)가 Fencer기(機)의 요폭변형기(邀爆變型機)로 교체(交替)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교체(交替)될 총(總) 대수(臺數)는 1986/87년(年)까지 총(總) 760대(臺) 정도(程度)의 Fencer기(機)가 생산(生産)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추정소요자료(推定所要資料)는 “The Military Balance 80/81”에 의거(依據)함). 이와 같은 소련측(側)의 잠재적(潛在的) 전투기보유세력(戰鬥機保有勢力)에 대처(對處)하게 될 NATO측(側)의 세력(勢力)으로서는 지금 영국본토(英國本土)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160여대(餘臺)의 F-111E 및 F형기(型機)가 구주지역(歐洲地域)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Tornado기(機) 부대(部隊)들이 배치중(配置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련측(側)과의 불균형상태(不均衡狀態)를 다소(多少) 덜어 줄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Tornado기(機)의 이륙중량(離

陸重量)이나 적재중량상(積載重量上)으로 볼 때 본(本) Su-24 Fencer기(機)와는 상당(相當)한 차(差)가 있는 형편(形便)이다.

Tornado (후방차단기형(後方遮斷機型))	Su-24	
단위(單位) : ton		
최대이륙중량(最大離陸重量)	26	41
자중(自重)	10	21
최대무장(最大武裝)	7	8
최대속도(最大速度)(Mach)		
저공(低空)	1.2	1.2
고공(高空)	2.2	2.2

소련은 미국(美國)이 F-111기(機)를 SALT 회담(會談)에서의 협상대상품목(協商對象品目)으로 포함(包含)시키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自己)네 Fencer기(機)의 성능(性能)에 대(對)하여서는 자세(仔細)한 것을 밝히려 하지 않고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있다(그러한 점(點)에서는 미국(美國)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련인(人)들은 Tu-22M Backfire기(機)까지도 전략기(戰略機)가 아닌 전술기(戰術機) 범주(範疇)에 포함(包含)시키려고 미국(美國) 사람들에게 설득 공작(說得工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지금 MiG-25 Foxbat기(機)에 적재운용(積載運用)하게 될 장거리형(長距離型) 공대지(空對地)미사일의 개발시험(開發試驗)이 거의 완성단계(完成段階)에 접어 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SALT 회담진행(會談進行)에 크게 영향(影響)을 미칠 음흉(陰凶)한 무기개발(武器開發)을 은밀히 소련측(側)이 계속(繼續)해나가는 한(限), 더 이상(以上) 회담(會談)을 진행(進行)시켜 나간다면 시간낭비(時間浪費)만 있을 뿐 어떤 초점(焦點)을 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앞으로 SALT 회담석상(會談席上)에서 NATO측(側)의 Pershing II와 순항(巡航)미사일 배치(配置)에 따르는 NATO군(軍)의 핵세력(核勢力) 현대화(現代化)에 따라 Warsaw 조약군(條約軍)이 직면(直面)하게 되는 위협증대(威脅增大)에 대(對)하여 논의(論議)가 집중(集中)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豫想)되는데(물론(勿論), 그렇다고 해서, 소련측(側)이 성공(成功)을 거두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소련측(側)이 그들의 준전략무기체계(準戰略武器體系)들을 본(本) 회담관심(會談關心)밖으로 제쳐 놓으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준전략무기체계(準戰略武器體系)들이 앞으로 구주전역(歐洲全域)에서 매우 큰 위협적(威脅的) 존재(存在)로 등장(登場)하게 될 것인 바, 여기에는 다름아닌 본(本) Su-24 Fencer 기(機)가 그 대표적(代表的)인 존재(存在)로서 등장(登場)하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최 양 수 (崔良洙) 역(譯)

현재 소련의 방공교리는 1941~1945년 사이에 있었던 Great Patriotic War 시대에서부터 성장하였으며, 대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어 취역 하게 됨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소련방공군은 적 항공기를 약 7,000대 이상을 격추시켰으며, 그중 약 60%는 공중전에서 나머지는 대공화에 의하여 격추시켰다고 소련의 공식적인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소련방공군은 전쟁 초기에 독일공군이 소련의 병력 집결소와 주요군사시설물을 강타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없었으며 병력과 장비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근의 소련 전술방공군 사령관인 Levchenko 장군은 전쟁 개전시에 PVO(방공군)부대의 재무장은 완벽하지 못하였고 주요 결점으로서의 소구경의 대공화가 부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전투지역을 집중 밀집방어하는 소련의 교리가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 지휘조직 및 전투기엄호문제 등에 관해서는 전략 및 전술방공군간에는 여러 가지의 긴밀한 협조문제가 있었다. 두 부대간에 긴밀한 연락이 없는 전략 및 전술방공작전계획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술방공군사령관은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선의 문제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고 전쟁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교훈은 현대전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련의 전략 및 전술방공부대를 최근에 대신하는 부대는 PVO Strany와 PVO Sukhoputnykh Voysk-PVO SV이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PVO SV의 발달과정을 취급하기로 한다.)

전쟁 초기에 소련의 요격기는 독일공군과 필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지상군은 그 자체에 통합된 방공부대를 보유했어야만 하고 공중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했었음을 소련의 Planner들은 1941~45년 전쟁 중에 즉시 알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전차들은 취약하였으며, 이 전차들은 대공포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치명적으로 정확하게 소련 전차들을 공격하였다.

소련지상군이 새로운 대공무기를 보유하였을 때에는 독일공군의 공중우세는 약화되었으며 또한 소련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한 소련 전투기들의 출격횟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 사단들은 1개 경량(37mm) 또는 중(85mm) 대공포중대로 무장을 하였으며, 야전군은 1~2개 대공포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침내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소련의 대공무기는 80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련 공군이 계속 공격할 수 있게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전(1950~53)-미 공군 우세

한국방공군은 전장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제트전투기로 무장한 적군을 반격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전례없는 위협이 되었던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Planner들은 새로운 제트전투기와 대구경 대공포를 소개하였고 초기모델의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북괴와 중공군의 대공무기 및 전술은 Great Patriotic War 당시에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무기 및 전술과 흡사하였다. 주요무기는 우선순위가 높은 지상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한 화력 조종레이다가 있는 85mm 대공포와 야전군에 대한 저고도 공격을 반격하기 위한 12.7mm, 37mm 대공포였다.

북괴와 중공군은 공격하는 적기로부터 그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종종 소형화기를 사용하였다. 한 서방 관측자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적의 대공방어전지들이 북괴전역에 점조적으로 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의 근접지원항공기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없었다.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 있는 공산주의 진지들은 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강타당하여 파괴되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며 남한에 있는 미 8군의 포위계획은 실패하였다.

적의 방공군 자신의 희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은 적의 AA 및 소형화기에 544대의 항공기를 손실하였으며, 이 항공기 대수는 공대공전투에서 손실한 항공기 대수에 비하여 거의 5배에 달하는 대수이다.

그 외에도 종종 적의 저고도 방공으로 인하여 미군조종사들은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소련은 미군의 항공전술변화를 경시하지 않았다. 국부전 수행의 권위자인 F. Shesterin대령은 적의 레이더장비의 집중적 사용은 전자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미 공군과 직면하고 있는 북괴 및 중공군 방공부대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미 공군 항공기들은 19,500ft와 26,000ft 사이로 비행하고 목표물 상공에서 시간소모량을 단축하도록 강요되었다.

그 외에도 초계 항공기 대수를 감소시키고, 지원부대는 적의 대공포부대를 제압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소련 고문관들의 지도를 받는 북괴군은 점점 소극적 방공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북괴 및 중공군은 대규모적으로 위장, 은폐, 기만 및 분산전술을 이용하였다. 미군의 전투정보도 활주로상의 위장 탄흔 및 기타 많은 위장장비 즉 항공기, 옹벽, 연료저장탱크 및 대공포 진지 등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많은 전술들이 후에 월남 및 중동전에서 이용되었다.

공중전(1967)-전투준비 태세를 위한 경우

1967년에는 아랍군 특히 이집트군은 다양한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는 SA-2, 18개대대(각각 6개의 발사대가 있음)와 37mm에서 10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이와같은 대공무기는 어떠한 잠정적인 공격기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1967. 6. 5. 계속적인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에 의하여 이집트의 16개 비행장이 작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26개의 레이더기지가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전쟁개시일에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2일째 되는 전투에서 418대의 아랍측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그중 393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의 이와같은 기습은 소련 및 서방 측의 관측자들에게 한결같이 효과적인 저고도 방공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대부분의 초파공격시에 해안으로부터 목표물에 접근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지중해 상공으로 이집트 영공에 진입하여 적레이다 탐색범위 아래로 비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방어된 지역에 접근할 때에는 SA-2 미사일의 최소유효고도 이하로 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하나도 지대공미사일에 손실되지 않았으며, SA-2는 발사가 느리다는 것을 최초 기습 중에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알게 되었다.

또한 항공작전도 기습의 이점과 방공요원들의 우수한 전비태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와같은 결점은 이스라엘의 최초 기습작전과 스에즈운하 서안에서의 계속된 작전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많은 미사일들이 발사진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거의가 다 발사되지 않았다. 당시의 이집트 방공체제는 모든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전비태세수준이 기술장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집트군이 전선에 버린 장비로 인하여 방공은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실해졌다. 이집트군은 미사일, 발사대 및 화력조종장비 등을 포함하여, 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었던 장비들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월남전(1965~1973)-월맹에서의 공중전

소련의 교리에 관한 문헌은 앞으로 지대공미사일(SAM)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SAM은 월남공중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바 있었다. 이는 공중공격과 방공간의 경쟁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었다.

소련은 SAM 운영에 관한 월맹의 연대별 3단계 방공작전을 인정하고 있다. 1965. 7부터 1966년 중반까지는 SAM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적공격기의 예상비행로를 따라 매복하여 놓은 SAM 기지에서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였다.

SAM 기지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방공작전은 2단계로 돌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지상목표물에 대한 고정 점방공법을 사용하였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이 때에는 SAM 부대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월맹은 몇 개의 중요한 목표물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요새방공법을 채택할 수 있었다. 제2, 3 단계 중에도 일부 소규모 SAM 부대들은 매복진지로부터 계속 미사일을 운용하였다. 또한 미군항공기들은 광범위하게 중첩되게 전개시킨 대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약 5,000개의 대공포가 하노이를 포위하여 방어하였으며, 그중 절반은 레이더로 통제가 되었다.

월맹은 3종류의 무기로 최적화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MIG기, SAM 및 대공포로 작전을 협조하였다.

월맹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대공무기가 집중되어 있었던 지역은 Red강 계곡이었다. 북·서·남·동 방향으로 Yen Bai 지역에서부터 하이퐁 및 톱킹만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확장 밀집되어 있었으며,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130km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방공무기들은 방공의 중추로서 하노이와의 길이 100km, 폭 65km의 인접계곡 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었다.

SAM의 대대적인 사용은 월맹지역에서의 미군공중작전의 비용과 복잡성을 신속하게 증가시켰다. 그 예로서 미 공군은 소규모 Group에 의한 제대작전을 채택하였고, 주요목표물을 공격하는 부대의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적지상 방공을 제압하는 지원 Group의 수를 증가시켰다고 소련의 관측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군의 Iron Hand 비행에 분명한 참고가 되는 것이며, 이 비행에서 F-105 조종사들은 목표물지역에서 공격비행을 개시하기 전에 공중에서 추적해오는 SA-2 기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기만기로서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때에 F-105 조종사들은 "위탁된" SA-2부대에 Shirke 미사일이나 방사성추적미사일(ARM)을 발사하였을 것이다. 이들 ARM의 발사는 재래식 공중공격법으로 계속 되었을 것이다.

미군의 항공기들은 종종 SAM 화망지역을 우회하여 목표물 지역으로의 접근을 숨기기 위하여 저고도로 비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소련은 주장하고 있다.

소련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ECM의 사용은 방공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가장 다양한 주파수와 ECCM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SA-2의 효과가 ECM에 의하여 계속 감소됨에 따라, 미군의 가장 높은 손실 비율은 대공포에 있었다. 월맹지역에서의 공중전을 통하여 미 공군은 SAM에 대해서 보다 대공포에 대하여 전투기와 전투폭격기를 여러배 더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대량으로 밀집된 대공포 교리상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월맹지역에서는 미 공군은 월맹지역에서와 같은 밀집된 지상기지화력에 직면하지 않았다. 월맹지역과는 달리 월남지역에서의 방공은 큰 차이가 있었다. 항시 미군과 월남군의 감시하에 있었던 Ho Chi Minh 루트를 통하여 방공무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동성이 필요했다.

Viet Cong의 주력부대는 항시 7.62mm 기총을 사용하였으며, 월맹의 육군부대는 공중공격기를 방어하는데 경량카빈과 자동소총 외에 주로 12.7mm 기총을 사용하였다.

SA-7은 월남지역에서 전쟁방공무기로서 아주 적합하였으며 1972년에 월남지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열추적미사일은 SA-7은 저고도 공격기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특히 헬리콥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미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하여 Flare 투하방법을 곧 배웠으며, 후에 헬리콥터 엔진의 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Heat Shield가 추가되었다.

월맹지역에서의 미군의 헬리콥터에 대한 신뢰는 방공무기에 대한 소련의 요구를 바꾸게 하는데 기여했다. 미군은 월남전에서 헬리콥터의 수를 1964년 중엽의 300대에서 1967년 초에 2,400대로 8배나 크게 증가시켰다고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헬리콥터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군의 절실한 필요성은 전쟁이 발전됨에 따라 고조되었으며, 소련은 구라파지역에서 바르샤바조약군의 기갑차량에 대하여 미군의 공격용 헬리콥터로부터 증가되는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병기제작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집착해서 방공교리를 발전시킴에 따라, 월맹에서 미군이 철수할 시기에는 미국의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많은 희생을 입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소모율은 일반적으로 반격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월맹지역에서 미 공군과 해병조종사들은 목표물로 항공기를 정확하게 유도하여 일발 명중의 정확도로 공격하기 위하여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 및 해군조종사들이 직면한 방공은 1960년대 초에 소련의 야전군이 사용하였던 방공, 즉 중고도 및 고고도 용으로 SA-2를 사용하고 저고도 및 중고도용으로 밀집된 대량의 AA를 사용하는과 유사하였다.

중동전(1973)-미사일비

소련이 2차기간동안(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걸쳐 이집트군을 재보강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항공세력에 의한 또 다른 패배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전에 없었던 많은 소련 방공고문단들이 이집트로 급파되었으며, 1970년에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던 10,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군사요원들은 SAM 및 AA무기의 조작수와 기술자들이었음이 분명했다.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2년 8월에 이집트를 떠났으나 소련은 이집트의 교리와 전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의 방공군에 미친 소련의 영향도 또한 대단하였다.

소련 방공부대의 전술교리는 월남전과 과거 중동전에서 배운 교훈의 결과를 혼합하였다. 1973년에 사용하였던 가장 중요한 소련의 교리상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 (1) 대량밀집방어-전장을 횡단하여 배치된 많은 대공무기로 밀집 중심있게 방어
- (2) 혼합배치-똑같은 중요한 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형의 미사일과 대공포로 결합된 화망(Coverage)을 구성
- (3) 기동성-신속하게 이동하는 지상군부대와 똑같은 보조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탑재 대공무기를 사용.

1967년의 참혹했던 교훈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소련은 저고도 위협에 대처하기에 아주 적합한 각종 무기인 SA-3 Goa, SA-6 Gainful, SA-7 Grail 및 ZSU-23-4를 소개하였다. 1973년에 SA-3, SA-6 및 ZSU-23-4가 최초로 전투에 사용되었다.

1973. 7. 경에는 이집트는 약 130개의 SAM사이트(SA-2, SA-3 및 SA-6)와 8개의 다른 형의 AA Gun 및 9개대대의 최신에 Fishbed J 요격기로 구성된 통합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모델의 지휘 및 통제망이 이들 부대와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시리아도 또한 막강한 방공부대를 보강하였다.

제4차 중동전(The Yom Kippur War)

이집트의 방공은 1973. 10. 6일에 최초로 시험되었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군의 스웨츠 운하 도하를 역습하였다. 또한 유사한 SAM과 AA Gun으로 무장한 시리아군은 골란공원지역에서 동시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날의 마지막쯤에서 여러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SAM과 AA사격에 파괴되었으며, 기타 항공기들은 부분파손이 되어 기지로 귀환하였다(수일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술과 ECM 장비로 인하여 손실율이 감소되었음).

스웨츠운하를 횡단하는데 사용된 교량을 대한 반복된 이스라엘공군의 출격은 이집트군이 스웨츠운하 동안에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집트군이 그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을 때 SA-6는 운하를 횡단하여 전

개되었다. 스웨츠운하 도하작전은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이집트군은 그들의 방공 엄호하에서 여러 개의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였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Stand off 공대지 무기를 발사하였으나 피아간에 안전한 자리에서 발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지상군에 대한 근접공중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다. 아랍군의 대전차부대를 격퇴시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지상군사령관들은 이스라엘공군의 근접공중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기동성이 우수한 ZSU-23-4와 SA-7 사격팀은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아랍측 방공무기의 성능은 1967년의 방공무기의 성능보다 광범위하게 향상되었다. 이집트는 ECM과 ECCM 임무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더우기 1973년에는 아랍측은 저고도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ECM과 지형위장전술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아랍군은 육안관측자탐에 의존하였다. 이 팀들은 예상되는 항공기 접근로에 전개되어 이스라엘 항공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SAM과 AA 부대에 경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밀집방공에 직면하게 되었다. 스웨츠운하를 따라 배치된 미사일 사이트를 가리켜 말하면서 Moshe Dayan 장군은 이와같이 밀집되게 미사일을 배치하여 완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의심할 정도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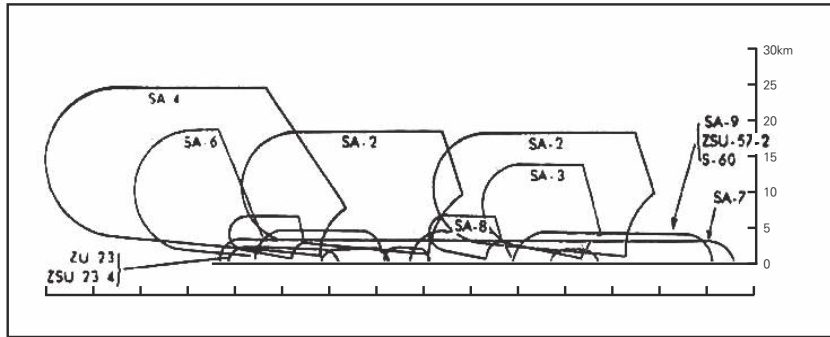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방공 Planner들은 SAM에 직면한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1975년 이스라엘공군의 실제 사령관이었던 Peled 소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감명 깊게 요약하며 말하였다.

“지대공미사일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기계적인 장난감이다. 이는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미사일은 비행로를 변경하면서 여러분을 추적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아주 제한된 로봇이다. 월남전과 이스라엘전에서 여러분들은 추적하는 이와같은 종류의 반충명함 무기에 의하여 받았던 감정적 스트레스는 미사일의 능력에 의하며 입증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무기의 효과는 미사일의 명중(Kill)률만으로 요약할 수가 없으며 미사일의 명중률과 그의 감정적 스트레스의 효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걱정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공군은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손실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SAM과 AA에 의하여 손실되었다. 이스라엘의 F-4기들은 1967년에 사용하였던 Mirage III 전투폭격기 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더 많은 정교한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집트의 SAM은 적 공군의 운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적 지상군 작전전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노년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

소련의 지도층들은 전쟁 그 자체에서와, 이집트 및 이스라엘 장교들이 쓴 과거 전의 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이 1973년 전쟁의 주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느냐고 Mohammad El-Gamasy 장군은 말하였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공군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방공체제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우세를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지대공미사일이 이와같은 “방공망(Air Defense Umbrella)”에 추가되어 방공망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SA-1001 현재 전개 중에 있으며, SAM(SA-11, 12 및 13)이 발전된 개발단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일부 이스라엘 장교들은 공중작전개념에 대한 전쟁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험하였다. 공중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인정된 개념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Chaim Herzog 소장은 시인하고 있다.

SAM은 “항공기를 노후하게 하지는 않으나” 경량의 기동성이 있는 미사일의 증가는 “근접공중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념을 면하게 할 것이다.”

전장을 고립시키는데 전념하고 공중우세를 유지하며, 전장 내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적 부대를 파괴하는 공군에 대해서는 미래에는 근접공중지원은 규정에서 예외가 된 것이다.

소련의 방공전문가들에 대해서는, 1973년의 사건(전쟁)들은 고도로 기동성이 있는 적 공군을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계열(Family of Weapon)의 기본개념을 보장시켰다. 1973년 이후 서방측의 방공전문가들은 미군과 NATO군이 이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국토방공군은 이를 결코 경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방공무기가 중복된 방공망의 형태로 사용될 때에는 다른 종류의 방공무기는 서로가 보완을 할 수 있고 재밍하기가 아주 곤란한 다양한 양상을 적기에게 제공하여 준다.

소련의 관측자들은 1973년에 있었던 “비와 같은 미사일망”을 형성한 SAM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고도 목표물에 대처할 수 있는 대공포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대공무기가 다른 방공무기와 혼합해서 사용하였을 때 얻어진 좋은 결과

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1973년의 아랍측의 방공의 성능은 완전하지가 못하였으며, 특히 지휘 및 통제면에서 더욱 그러하였고, 일부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랍군은 적 공격기에 대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래 어떤 다른 방공부대보다 더 많은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소련/바르샤바조약군의 방공부대의 앞으로의 계획된 사용은 1973년에 아랍군이 사용한 사용방법과는 다를 것이다. 제4차 중동전 중에는 아랍측은 바르샤바조약군이 구라파전쟁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대한 지역적인 각종 이점을 즉시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 아랍측의 방공은 항시 고정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 및 기타 바르샤바조약군의 방공부대는 신속한 공격을 지원하면서 구간전진을 해야만 할 것이며, 교대로 사격위치를 설치하면서 공격의 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은 방공요원들에게 많은 요구를 제시하며 이들은 하사라도 적의 공중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최신형 소련의 전술 SAM이라 할지라도 이동하면서도는 발사할 수 없으며, 기동성과 이들 무기들이 집중하는 집중화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아주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결과로 SA-8 Gecko와 SA-9 Gaskin과 같은 새로운 소련의 전술 SAM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같은 무기들은 1973년에는 아랍군에 이용되지 않았다. 이들 무기 체제들은 최소의 짧은 반응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주 짧은 정시시간 이내에 적기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취역 중에 있는 SA-11과 같은 미래전술미사일은 점진적으로 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레이더로 유도되는 SA-11은 저고도, 중고도 목표물을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함이 분명하다.

기동성이 있는 발사차량은 3~4개의 Missile Rail을 장착하고 있으며, SA-11은 SA-6체제와 같이 작전함이 관측되었다.

SA-11의 개발은 소련의 전술방공부대가 상당한 기동성이 있는 저고도용 전천후 체제를 배치하고, 이미 야전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SAM의 다양한 배치를 보충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기동성의 이점

소련의 전술방공무기는 기동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투시 큰 이점을 갖는다. 소련의 교리상에는 차량중대는 NATO의 공중공격을 받기가 쉬우며, 특히 신속한 이동이 어떤 지형이나 인위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받게 되는 Choke Point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공부대는 차량중대에 계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맞게 전개될 것이다.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SA-8, SA-9 및 ZSU-23-4와 같은 대공무기는 특히 이와같은 임무에 아주 적합하다.

또한 SAM 및 AA부대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소련의 지휘관들은 방공매복부대와 이동부대를 활용할 수가 있다.

매복부대와 이동부대 전술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매복부대는 근접해오는 적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동부대는 대부분 적 공중공격 예상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려는 부대의 작전지역의 기지정된 각종 위치를 점령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각종 작전위치는 기계화된 계획에 따라 서나 또는 방공부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이동부대가 점령한다.

이와같은 전술방공무기의 기동성은 다른 기초적인 소련군 교리 즉, 공격 및 돌파작전, 조우전, 적 추적 및 도하 작전에도 아주 적합하다.

소련의 방공전문가들은 이와같은 각종 형태의 작전을 Cover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리를 완성해 왔다.

일부 미국의 방공 Planner들과 전문 옵서버들은 Nike Hercules, Hawk 및 Chapareal과 같은 미국의 SAM 체제들이 상대적으로 그 기동성이 낮음을 유감스런 일로 생각해왔다.

미·소의 방공체제는 완전히 다른 2개의 교리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군은 NATO 지역으로 수백킬로 미터씩 진격해야만 하는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무장되었다. 반면에 미군과 구라파군은 서구라파의 NATO의 전체 방공을 지원하면서 작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의 SAM과 같이 유괴 또는 추적차량에 미국의 SAM 부대를 적제할 절실한 요구가 필요치 않다.

전술방공의 전투작전

소련의 모든 전술방공무기 중에서 SA-7 사격팀이 FABA 선에서 가장 가까이에 전개 될 것이다. SA-7은 중대급에서 발견되며 항상 Section 단위로 전개되고 중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전투지역의 도중에 있는 다른 SA-7팀은 보병부대가 하차할 때까지 BMP 기갑전투차량이나 다른 기갑차량에 탑승 같이 이동 할 것이며, 보병부대가 하차할 때 SA-7의 초수들도 또한 하차하여 항시 보병부대의 바로 후방을 따르고 중대장과의 거리는 20~30m 이내를, 각각의 거리는 15~20m 이내의 간격을 유지 할 것이다. SA-7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5~6km이다.

4개차량으로 구성된 ZSU-23-4의 소대는 SA-7 사격팀 후방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 될 것이다. 1개 ZSU-23-4의 Section은 약 400m의 거리를 유지하는 2개 선도자동소총중대의 각 중대를 따른다. 각각 ZSU-23-4는 항시 150~250m 떨어져 위치할 것이며 이는 저고도 목표물에 대한 적절한 사격의 자유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ZSU-23-4는 1쌍으로 작전할 수도 있다. 만약에 자체의 GunDish 레이다와 같이 작전을 할 경우에는 ZSU-23-4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3km이며 광학추적무드 시에는 최대유효사거리는 2.5km이다.

SA-9 Gaskin 소대는 ZSU-23-4소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ZSU-23-4와 같이 지상군 연대에 배속된다. 4개 차량으로 구성된 SA-9소대의 작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ZSU-23-4의 바로 후방에 전개 될 것이다.

SA-9는 연대의 제1 및 제2제대의 사이에 위치 할 것이며, 이는 적지상군부대의 직접화력에 노출되지 않고 양개제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SA-9 발사대차량은 레이다를 장착하지 않는다. SA-9의 조작수들은 ZSU-23-4나 또는 사단의 방공연대로부터 예비목표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SA-6 Gainful, 20개의 발사대나 또는 SA-8, 20개의 발사대로 무장한 부대로 SA-9 소대 후방에 위치할 것이다. SA-6 및 SA-8 체제의 유효거리에 따라 이들 무기 체제는 점방어(Point Defense)무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방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단규모의 모든 부대들은 SA-6/8의 교전유효범위(Engagement Envelopes)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같은 SAM들의 유효거리에 따라 이들 SAM들은 FABA선의 수 킬로미터 훨씬 후방에 전개될 수 있다. 이와같은 위치에서는 SA-6이나 SA-8은 FABA선 전방의 목표물과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다. SA-6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30km이며 SA-8의 유효사거리는 약 10~15km이다.

전투시 공중공격기가 작면하게 될 모든 SAM체제 중에서 SA-4 여단은 FABA선에서 가장 후방에 위치할 것이다. SA-4 여단은 중, 고고도 화망(Coverage)을 제공하며 사단의 방공자산을 증가하여 준다.

최초 제대군을 위해서는 SA-4의 화망은 FABA선 넘어 약 45km까지 확대 할 수 있으며, 인접군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 SA-4부대의 화망과 Overlap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SA-4의 최대 유효거리는 70km 이상이다.

소련방공의 취약점

바르샤바조약군은 전술 SAM/AA 체제 작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소련의 저서에는 암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교리 및 교리상의 실행, 장비, 통신 그리고 통제상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문제들이다.

미 방어정보기구에 따르면, 이와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소련의 교리에 알맞게 정통하고 그 교리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각개 지휘관들의 실패의 결과인 것 같이 보인다.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소련방공체제를 방해 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소오스, 즉,

- (1) 전투를 제압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전반적인 노력.
- (2) 기동부대가 성취한 보조(Tempo)와 똑같은 보조로 방공자산을 투입하는데 실패한 소련의 지휘관들
- (3) 방공사령부 및 통제지원시설에 대한 반복된 공격
- (4) 지연된 신속한 이동공격작전 중 탄약과 예비품으로 방공부대를 지원하는데 존재하는 본래 고유의 곤란성 등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

1980년 후반에 있었던 이란-이라크전 중, 이라크는 적어도 서류상으로 SA-6, SA-7, SA-9 및

ZSU-23-4는 물론 SA-2, SA-3의 막강한 전술방공체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전투기들은 항시 이라크의 영공상에서 무사히 작전을 하였으며, 이는 이라크방공의 지속성이 일부 붕괴되었다는 징후이다.

영공관리문제는 소련의 방공지휘관들에게는 영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전투상황하에서 방공지휘관들의 주요과제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전장지역에서 SAM/AA 부대와 아군전투기 간의 작전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것이다.

소련교리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해결책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소오스에 의하면,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소련은 방어하려는 영공에 대하여 지리적, 고도적, 시간적 분배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타 여러 가지의 취약점도 각개 무기에 대한 조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IR Homing SAM에 대한 소련의 지나친 의존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SAM의 성능은 다소의 기상조건에서도 감소될 수 있다. 더우기 소련은 도하작전의 방공을 위해서는 ZSU-23-4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ZSU-23-4가 수륙양용능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소련의 AA 및 SAM들은 또한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방공 무기들은 1960년대에 생산된 무기이며, 이에 상응하는 낮은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의 전술방공체제의 주요한 취약점은 미국/NATO의 Stand off 무기에 대한 취약성이다. 미래를 관망해 보건대 소련의 전술가들은 순항미사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무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결론

1960년대 후반 중 기동성이 있는 SAM과 대공포의 소개는 NATO/바르샤바조약군의 현대화 계획에 대한 행동-반응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주요한 예이다.

소련 교리전문가들은 NATO 항공세력의 효과를 오래동안 인식하여 왔으며 바르샤바조약군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서 이들 부대를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소련은 완전한 계열의 기동성이 있는 SAM/AA 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개발하였다. 이들 무기로 NATO의 항공세력의 효과를 약화시켜 서방의 공중우세를 상쇄시키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전술방공은 알맞게 전개된다면 소련의 전선지휘관들이 전반적인 공격으로 맹렬히 공격케 할 수도 있는 능력있는 세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박종언(朴鍾彦) 역(譯)

1. 개발경과(開發經過)

○ Tornado ADV의 탄생(誕生)배경

1980년(年) 9월(月)에 열린 “Farnborough” 에어쇼에서 가장 인기(人氣)를 모은 것은 Panavia Tornado ADV(Air Defence Version)였다. 대량생산(大量生産)에 들어가기 전에 제작한 3기중(機中) 1호기(號機)가 79년(年) 10월(月) 27일(日)에 처녀비행(2호기(號機)는 80년(年) 7월(月) 13일(日)에 시험비행)한 최신예기(最新銳機)로서는 처음 공개(公開)됐기 때문에 인기(人氣)를 모은 것도 당연했다.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미국(美國)의 F-18 호넷기(機)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Tornado ADV는 공격형(攻擊型) IDS(Interdictor Strike)가, F-18은 Northrop YF-17이 원형기(原型機)라는 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만큼 신선풀이 줄어들어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체(機體)가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확실히 흥미있는 일이다.

미국(美國)의 F-18과는 달리 토네도ADV는 영국(英國)의 영광(榮光)을 짊어져야 할 기대가 담겨 있다. 즉 오래 만에 영국인(英國人)의 손으로 제작된 영국형(英國型) 항공기로서 국제협동개발형(國際協同開發型)인 IDS와는 달리 이 방공형(防空型) ADV는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요구에 맞게 개발(開發)되어 특별(特別)한 장비(裝備)를 갖추고 있어 본래(本來)의 영국기(英國機)라고 불려도 좋은 것이다.

동시(同時)에 그것은 영국방위(英國防衛)의 장래가 전적으로 이 항공기(航空機)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이미 Bulcan 및 Buccaneer 공격부대(攻擊部隊)는 Tornado IDS로 교체(交替)할 것이 결정돼서 지금 그 계획이 진행중(進行中)에 있고 다음에는 Lightning 및 팬텀방공부대(防空部隊)를 Tornado ADV F-2로 기종(機種)을 바꿀 예정(豫定)으로 있다.

영국(英國)의 방공부대(防空部隊)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독특한 「뉴앙스」를 지닌다. NATO 공동방위체제(共同防衛體制)에 의해 서독(西獨)에 파견돼 있는 Buccaneer, Jaguar,

헤리어전술공격부대(戰術攻擊部隊)(이것이 Tornado IDS로 교체(交替))는 물론 중요(重要)한 제일선부대(第一線部隊)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영국방위(英國防衛)의 일환(一環)으로 존재하는 점을 부정(否定)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영국본토(英國本土)를 지키는 것은 방공부대(防空部隊)며 따라서 여기에 국민(國民)의 생명(生命)을 맡긴다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 확립(確立)된 영국(英國)의 기본전략(基本戰略)이다.

영국인(英國人)이 방공용(防空用) 항공기(航空機)에 거는 기대는 현지(現地)에서 정직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여보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Tornado ADV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영국인(英國人)이 지닌 감정(感情)과 그 절대절명의 입장(立場)을 전제로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영국(英國)에서는 1964년(年) 노동당(勞動黨)이 집권한 이래 독자적인 군용기(軍用機)개발이 없었다. 재정적(財政的)인 이유도 있었지만 「헤리어」기(機)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제협동개발(國際協同開發)에 의존해 왔고 그 점은 보수당(保守黨)이 집권한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불안감(不安感)이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거기서 취(取)한 타협책(妥協策)이 협동개발중(協同開發中)에도 필요(必要)한 주장(主張)을 최대한 살려 영국방위용(英國防衛用)을 주(主)로 하는 하나의 특별형(特別型)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ADV였다.

영국(英國)에도 차기 항공기개발(航空機開發)계획은 있다. 지금 서독(西獨), 프랑스 사이에 검토(檢討)되고 있는 미래 유럽 전술기(戰術機)인 ECA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3국(國)각자의 사정으로 불확정(不確定)한 요소(要素)가 많고 비록 합의(合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현(實現)되는 것은 1990년대(年代)에 들어가서 부터다. 그리고 영국(英國)이 ECA계획에서 요구(要求)하고 있는 것은 Jaguar기(機)를 교체할 전술공격기(戰術攻擊機) 뿐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年代)부터 90년대(年代)에 걸쳐 영국(英國) 본토(本土)의 방공(防空)은 Tornado ADV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달리 선택(選擇)의 길이 없는 단계(段階)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든 그 실용화(實用化)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신방공전투기(新防空戰闘機)에 대(對)한 요구(要求)

Tornado 개발계획(開發計劃)이 영국(英國), 서독(西獨), 이탈리아, 네덜란드 4국공동하(國共同下)에 MRCA(Multi Role Combat Aircraft) 이름으로 시작(始作)된 1968년(年) 7월(月)에 영국측(英國側)의 생각(生覺)에는 이미 방공형(防空型)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에 단좌형(單座型)과 복좌형(複座型)의 논쟁(論爭)이 있어서 일시(一時)는 단좌(單座)의 Panavia 100, 복좌(複座)의 Panavia 200을 병행(並行)해서 개발(開發)하기로 타협(妥協)했고, 그 뒤에 개발비(開發費)의 고등(高騰) 등으로 복좌형(複座型)으로 일원화(一元化) 됐지만 이 사이에도 영국(英國)은 기본선으로 시종(始終) 복좌형(複座型)만을 추진해 왔다. 그 하나의 이유(理由)

는 전천후(全天候)요격기에는 복좌형(複座型)이 적합(適合)하다는 점이었다. 그 계획은 화란이 탈퇴하여 3국 공동개발로 변했고 재정사정(財政事情) 등으로 서독이 계획을 축소한 1973년(年)에도 변(變)함이 없었다. 영국(英國)은 시종(始終) 165기(機)의 방공용(防空用) 개발(開發)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實際) 항공기개발(航空機開發)은 당초부터 공격형(攻擊型) IDS(Interdictor Strike)만으로 범위를 좁혀 추진되어 왔다. 영국(英國)(BAe)사(社)에서 4기(機), 서독(西獨)에서 3대(臺), 이탈리아에서 2대(臺) 조립(組立)된 원형기(原型機)는 전부 IDS였다. 이 사이 토네도 방공형(防空型)을 개발(開發)해야 할지 미국(美國)으로부터 F-15 같은 항공기(航空機)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論爭)이 있었다. 다만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에도 기본선(基本線)은 역시 토네도 ADV 개발(開發)이었다. 만일 이것이 중지(中止)되어 165기(機)의 소요(所要)를 잃게되면 3국공동(國共同)의 MRCA계획(計劃)이 근저(根柢)로부터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방공형(防空型)의 본격적(本格的)인 Full Scale 개발(開發)이 시작(始作)된 것은 1976년(年) 3월(月)부터였다. ASR 395라 불리는 공군(空軍)의 요구(要求)를 바탕으로 80년대(年代) 중기(中期)에 Lightning 및 팬텀 전투기(戰闘機)와 교체(交替)할 계획 속에 장거리(長距離), 다용도(多用途)요격전투기(戰闘機)로 출발(出發)했다.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요격기(邀擊機)에서 하나의 물징(物徵)이 되는 것은 담당해야 할 지리적(地理的) 범위(範圍)가 대단히 넓은 점이다. 북(北)으로는 아이슬랜드로부터 남(南)으로는 영국해협(英國海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해상(海上) 「루트」 및 항공(航空) 「루트」에서 점(占)하고 있는 영국(英國)의 위치는 북미(北美)와 유럽을 잇는 동서간(東西間)의 수송로(輸送路)로서 흡사 결집점(結集點)에 해당된다. 영국(英國) 자신과 서유럽 뿐만 아니라 아이슬랜드 및 노르웨이의 경제에 대해서도 이 Sea Line은 중요(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요격기(邀擊機)는 긴 항속거리(航續距離)와 전투공중초계(戰闘空中哨戒) 임무상(任務上) 이 해역(海域)의 선박(船舶)을 방호(防護)할 능력(能力)을 필요(必要)로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첫째 대상(對象)으로는 중형폭격기(中型爆擊機)와 장거리정찰기(長距離偵察機)가 상정된다. 이 먼 바다에서는 적(敵)의 엄호전투기(戰闘機)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전투능력(空中戰闘能力)은 크게 필요(必要)치 않다. 기본적(基本的)으로는 폭격기(爆擊機)에 대처(對處)할 수 있는 항공기(航空機)면 족하다.

다만 영국본토방위(英國本土防衛)에 덧붙여 영국(英國)은 「본」협정(協定)에 따라 서독(西獨)에 항공기(航空機)를 주둔시켜 평시(平時)에는 공중(空中)에서 경계(警戒)행동, 전시(戰時)에는 방공(防空)을 담당한다는 약속(約束)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성격이 달라져 그 거리면(距離面)에서도 제일 먼저 제공전투기(制空戰闘機)로서 항속력(航續力)보다도 대전투기(對戰闘機) 전투능력(戰闘能力)이 필요(必要)하다. 그러나 서독(西獨)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部隊)는

영국(英國) 공군전투기중(空軍戰鬥機中) 약(約)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앞에서 말한 방공용(防空用)에 해당된다. 따라서 ASR 395도 이 85%를 주로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요구(要求)라는 것은 다음 5가지로 요약(要約)된다.

① 방위력(防衛力)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적의 대량공격(大量攻擊)에 대처(對處)하여 요격기(邀擊機)는 될 수 있는 한 다수(多數)의 공대공(空對空)미사일을 갖추고 화기관제(管制)장치도 신속(迅速)한 복수목표처리능력(複數目標處理能力)을 가질 것.

② 적(敵)의 저공(低空), 고속(高速) 및 중고도(中高度), 초음속침입(超音速侵入) 기습공격(攻擊)에 대처(對處)하기 위해 요격기(邀擊機)는 최신형(最新型)의 항공요격(航空邀擊)(AI)레이다와 미사일을 갖추고 Snap Up, Snap Down의 능력(能力)을 가질 것.

③ 적(敵)의 공격(攻擊)이 고도(高度)의 ECM에 의해 원호(援護)될 것을 예측(豫測)하여 요격기(邀擊機)의 Weapon System은 높은 재밍능력(能力)을 갖고, 적(敵)의 재밍으로 방해(妨害)를 받을 수 있는 지상(地上)의 조기경계(早期警戒), 관제(管制)시스템으로부터 최소(最小)의 지원(支援)으로도 전투행동(戰鬥行動)이 가능(可能)할 것.

④ 넓은 범위(範圍)에 걸쳐 임무(任務)를 수행할 수 있을 것. 특히 해양임무(海洋任務)는 영국공군(英國空軍)의 Commitment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호(良好)한 항속력(航速力)과 전투초계능력(戰鬥哨戒能力)을 가질 것.

⑤ 피해(被害)를 받은 비행장을 사용하더라도 전투행동(戰鬥行動)이 가능하도록 양호(良好)한 단거리(短距離) 이착륙능력(離着陸能力)을 갖고 있을 것.

이상의 요구(要求)에 따라 토네도ADV(Air Defense Version)가 결정됐지만 그 결정까지는 단 항공기(航空機)의 채택여부에 대해서도 비교(比較) 검토(檢討)되었다. 그 대상(對象)에 든 것은 프랑스의 ACF(Avion de Combat Futur), 미국(美國)의 구라만 F-14, 맥도날드 더글라스 F-15, 제너럴 다이내믹스 F-16의 4기종(機種)이었다.

이중 ACF는 도중(途中)에서 계획이 취소되었고 뒤에 전천후능력(全天候能力)이 약한 「미라지」 2,000으로 바뀌었지만 검토대상(檢討對象)이 되지는 않았다. F-16도 전천후능력(全天候能力)을 중시(重視)하지 않은 기체(機體)로서 Dogfight 기능(機能)을 주(主)로 하는 것으로 판단(判斷)되었고 공대공무장(空對空武裝) 탑재량(搭載量)도 적기 때문에 대상(對象)이 되지 않았다. F-14는 요격전투능력(邀擊戰鬥能力)이 우수(優秀)하다는 것은 확실(確實)했지만 고가(高價)인 것이 난점(難點)이었다. 특(特)히 장비(裝備)하고 있는 Phoenix 공대공(空對空)미사일이 Skyflash의 3배(倍)나 고가(高價)인 것이 장비대상(裝備對象)이 되지 않은 주이유(主理由)였다.

가장 토네도 ADV와 경쟁이 된 것은 F-15로서 영국공군(英國空軍)에서 일부(一部) 비행평가(飛行評價)까지 받았다. F-15는 공력특성(空力特性)과 전투고도(戰鬥高度) 및 공중기동능력(空中機動能力)에서 Tornado 보다 우수하다. 그 점(點)에서는 유력(有力)했지만 영국공군

(英國空軍)의 주요(主要) 요구(要求)인 전천후능력(全天候能力)과 대(對) ECM능력면(能力面)에서는 토네도보다 낮다고 판정(判定)되지 않았다. 악천후(惡天候)와 고도(高度)의 재밍능력(能力)에서는 복좌기(複座機)편이 우수(優秀)하고 야간(夜間)을 포함한 장거리요격임무(長距離邀擊任務)에서도 복좌형(複座型)이 유리(有利)하다는 것이 영국공군(英國空軍)의 판단(判斷)이었다.

이렇게 해서 토네도ADV의 채택이 정식으로 결정됐고 FSD(Full Scale Development) 3대(臺)가 발주(發注)됐다. 그 제(第)1호기(號機)는 BAe사 「워튼」 공장(工場)에서 79년(年) 8월(月) 9일(日)에 생산(生産)됐고 10월(月) 27일(日)에 시험비행했다. 그리고 이 ADV는 영국공군(英國空軍)에서 Tornado FMK 2라 불리게 됐다.

2. IDS와 ADV의 차이점

○ 외형상(外形上)의 차이

Tornado ADV는 공격형(攻擊型) IDS(영국공군(英國空軍)의 정식명칭은 Tornado GRMKI)를 기초(基礎)로 한 개발형(開發型)이어서 기본적(基本的)인 기체(機體)의 구성(構成)은 같다. 가변후퇴식(可變後退式)의 주익(主翼),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 Flight Control 및 유압(油壓), 전기(電氣) 등(等)의 각 System도 원칙적(原則的)으로 같은 것을 사용(使用)해 80% 이상(以上)의 공통성(共通性)을 갖는다.

이 항공기(航空機)의 개발(開發) · 설계(設計)가 시작(始作)된 것은 아직 타기종(他機種)과의 비교검토(比較檢討)가 진행중(進行中)이던 1973년(年)의 일이지만 당시의 기본방침(基本方針)은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요구(要求)에 맞춰 최소한도(最小限度)로 변경(變更)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변경(變更)은 무장(武裝)과 Avionic 및 레이더에 한(限)해 고려되었다. 검토초기(檢討初期)에는 무장(武裝)으로 AIM-7 Sparrow 공대공(空對空)미사일 4발(發)을 생각했지만 그 후에 BAe사에서 개발(開發)한 중거리용(中距離用)미사일 “Skyflash”로 변경(變更)됐다. 다만 Skyflash는 Sparrow의 개량형(改良型)으로서 크기가 같아 어떤 점에서든 1대 1로 바뀌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당초는 AAM을 주익하면(主翼下面)에 4발(發) 탑재(搭載)할 생각이었지만 저항증가(抵抗增加)가 크기 때문에 동체 하면(下面)에 반매입식(半埋入式)으로 탑재(搭載)하는 것으로 변(變)했다. 여기에 탑재(搭載)하기 위해서는 전각(前脚)과 각실문(脚室門)과의 관계(關係) 때문에 동체를 조금 연장(延長)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Cockpit 바로 뒤가 2¼인치 연장(延長)되었고 여기에 여적(餘積)이 가능(可能)해 연료탑재량(燃料搭載量)을 증가(增加)시키는데 사용(使用)된다. 더구나 AAM은 좌우(左右)가 다르게 탑재(搭載)되지만 이것은 익폭(翼幅)과 주각실(主脚室)과의 관계에서 Skyflash의 적당한 조합(組合)을 선택(選擇)한 것이다.

신형(新型) AI레이다 탑재(搭載)를 위해 풍방(風防) 바로앞 동체 앞부분이 7½인치(19cm) 연장(延長)되었고 다시 Radom도 IDS에 비해 25인치(63cm) 연장(延長)되었다. 이 때문에 토네도 ADV의 전장(全長)은 IDS에 비(比)해 4.4ft 긴 59ft 3인치(18.06m)로 됐다. 주(主)로 동체 앞부분에서 연장(延長)되었으므로 IDS에 비해 기수(機首)가 길게 변(變)한 형(形)이 됐지만 항공역학적면(航空力學的面)에서는 정형(整形)된 셈이어서 속도성능(速度性能)과 가속성능(加速性能)이 대단히 향상(向上)됐다.

동체연장(延長)에 따라 동체 내의 전부연료(前部燃料)탱크가 대형화(大型化)되어 약(約) 900ℓ의 용량(容量)이 증가(增加)됐다. 또 날개부분에도 용량(容量) 533ℓ의 wing 연료(燃料)탱크가 붙어 토네도ADV의 기내(機內) 연료용량(燃料容量)은 좌우주익내(左右主翼內)의 Integral 탱크를 합쳐 약(約) 7,300ℓ가 된다.

더구나 이 wing 연료(燃料)탱크는 영국공군용(英國空軍用) 토네도GRI에도 장비(裝備)할 수가 있지만 서독(西獨)의 공(空) · 해군용(海軍用) IDS에는 장비(裝備)돼 있지 않다.

이밖에 기체의외형(機體外形)에서 변(變)한 점은 주익고정익(主翼固定翼) 끝의 전연후퇴각(前緣後退角)이 60°로부터 68°로 변경(變更)됐고 면적(面積)을 증가(增加)시킨 것과 수평안정판(水平安定板) 전연(前緣)이 2중(重) 후퇴각(後退角) 때문에 변해서 이것도 약간의 증적(增積)과 공력특성(空力特性)이 개선(改善)됐다. 주익(主翼)끝은 모양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部分)에 있던 Kruger Flap도 제거되었다. 이러한 전연(前緣)의 연장(延長)은 면적(面積)의 증가(增加)와 함께 동체 앞부분의 연장(延長)에 따른 위치(位置) 중심(重心)의 변화(變化)에 대(對)해 양력중심(揚力中心)을 합(合)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무장(武裝)으로서 는 기수측하면(機首側下面)에 Mauser 27mm 기관포(機關砲)가 우측(右側)에 1문(門)(탄수(彈數) 125발(發))만 장비(裝備)되고 좌측(左側)에는 인입식(引入式)의 공중급유용(空中給油用) 수유(受油) probe이 붙어 있다. 이 밖에 주익하면내측(主翼下面內側) pylon에는 안쪽에 AIM-9L Sidewinder 공대공(空對空)미사일용 발사(發射) Rail이 있어 좌우(左右) 각(各) 1발(發)의 단거리(短距離) Sidewinder 미사일의 탑재(搭載)를 가능(可能)하게 한다.

토네도ADV에 있어 주익내측하면(主翼內側下面) pylon은 1,500ℓ 들어가는 보조연료(補助燃料)Tank 전용(專用)이지만 미사일 부착은 미국(美國)의 F-15처럼 Pylon 사용과는 관계 없이 가능(可能)하기 때문에 토네도 ADV는 보조(補助)Tank를 장비(裝備)한 상태(狀態)에서 Skyflash 4발(發)과 Sidewinder 2발(發), 계(計) 6발(發)의 AAM장비(裝備)가 가능(可能)하다.

그리고 IDS에는 외측(外側) Pylon을 사용(使用)하여 ECM기재(器材) 등(等)을 싣고 다니지만 ADV에는 외측(外側) Pylon을 사용(使用)하지 않을 예정(豫定)이다. 다만 주익구조(主翼構造)에는 전혀 차이(差異)가 없기 때문에 외측(外側) Hard Point는 그대로 남아있어 장래에 다시 외부장비(外部裝備)가 필요(必要)한 경우에 대비한 Provision으로 취급된다.

○ 레이다-FCS의 차이

Tornado ADV가 지금까지의 IDS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AI(Airborne Interception)레이다와 화력관제장치(火力管制裝置)에 있다. 이 레이다는 Marconi Elliott사(社)에서 Hawk Finder의 이름으로 1974년(年)부터 개발(開發) · 시험(試驗)을 계속해온 것으로 최신(最新)마이크로파(波) 기술(技術)과 디지털방식(方式)에 의한 레이다신호 및 자료처리(資料處理)를 사용(使用)해서 소형(小型)으로 큰 성능(性能)을 발휘하는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基本的)으로는 I/J Band를 사용(使用)한 고(高) PRF(Pulse Repeat Frequency)의 Pulse Doppler Radar이지만 FMICW(Frequency Modulated Intermittent Continuous Wave)라 불리는 방식(方式)을 사용해서 목표추적중(目標追跡中) scan(주사(走査))을 가능(可能)케 해서 다수목표(多數目標)의 동시처리(同時處理)가 가능(可能)한 특징(特徵)을 갖고 있다. 처리목표수(處理目標數)는 공표(公表)되어 있지않지만 12~20개목표(個目標)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적(主目的)은 공대공(空對空)의 탐색(探索)과 발견(發見), 목표(目標)의 추적(追跡)과 조준(照準)으로 소련제(製) Backfire/Fencer급(級)의 중형항공기목표(中型航空機目標)에 대(對)한 탐지거리(探知距離)는 100NM 이상(以上)이 된다. 이것은 ADV가 장비(裝備)하고 있는 Skyflash AAM 사거리(射距離)의 4배(倍)에 해당되어 미사일에 의한 공격(攻擊)을 위해선 충분(充分)한 거리(距離)라고 할 수 있다. 후방석(後方席)의 항법사(航法士)에 의해 선택(選擇)된 목표(目標)는 자동적(自動的)으로 호밍되고 그 궤도변화(軌道變化)는 계속적으로 수정되면서 무기(武器) System에 정보(情報)를 제공한다.

레이다안테나는 Elliott사(社)가 개발(開發)한 Twist-Reflecting Cassegrain이라 불리는 고성능 Side Lobe의 작은 신형(新型)으로 Ground Clutter 및 Sea Clutter의 억제력(抑制力)이 커서 적(敵)의 ECM에 의한 방해도도 강(強)한 특성이 있다. 이 레이다에 의해서 Look-down 능력(能力)을 충분(充分)히 보증(保證)받고 동시(同時)에 Skyflash AAM에 대(對)한 호밍유도능력(誘導能力)도 얻고 있다. Scan의 유압(油壓) Drive와 고속(高速) Servo에 의해 충분(充分)한 목표처리능력(目標處理能力)이 있음과 동시(同時)에 기체(機體)의 고(高) 기동(機動)에도 안정(安定)된 목표보지(目標保持)를 가능(可能)하게 한다.

부차적(副次的)으로는 공대지(空對地) 거리측정(距離測定) 및 Ground Mapping 능력(能力)도 갖고 있어 상황(狀況)에 따라 다기능(多機能)의 Mode를 갖고 있다. 영국공군(英國空軍)의 토네도 ADV는 원거리(遠距離) 해상(海上)에서 선박(船舶)을 보호할 임무(任務)가 필수조건(必須條件)이어서 해상(海上)에서의 충분(充分)한 식별력(識別力)도 갖고 있다. 또 Radar System 전반에 걸쳐 넓은 대전자(對電子)방해(ECCM)능력(能力)도 갖고 있어 엄중한 ECM 환경하(環境下)에서도 기능(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特性)이 있다.

이 ECCM 능력(能力)은 지상(地上)의 경계(警戒) · 관제조직(管制組織)과의 사이를 연결하

는 Datering에도 미치고 있다. ADV와 지상(地上)과의 상호(相互) 충분(充分)한 정보교환(情報交換)이 이루어짐과 함께 공중(空中)에 있는 경계관제기(警戒管制機)와도 연결해서 합동전투(合同戰鬥)를 가능(可能)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ADV 각기(各機)의 독립운용(獨立運用)도 충분(充分)히 보증(保證)하는 것이다.

레이다와는 별도로 Tornado ADV에는 시각(視覺) 인식(認識) 증강(增強) System도 장비(裝備)되어 있다. 이것은 원리적(原理的)으로는 저광량(低光量) Television 장치(裝置)로서 고성능(高性能)의 Telephoto lens가 Head Up Display(HUD) 앞 연판(緣板)에 붙어 있다. 이 장치(裝置)에 의한 영상(映像)은 조종사석(操縱士席)의 전자식(電子式) Head Down Display와 항법사석(航法士席)의 TV형(型) Display 양쪽에 표시(表示)되어 중사정(中射程) AAM의 발사(發射)에 즈음해서 적정(適正)한 범위(範圍)에 있는 목표(目標)에 대(對)해 목시(目視)에 의한 식별(識別)을 가능(可能)하게 한다.

ADV의 화력관제(火力管制) · 전자(電子) System중(中)에는 Ground Mapping Radar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Hawk Finder 레이더 기능(機能) 속에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합(統合)되어 있기 때문에 요격(邀擊)을 위한 연락정보(連絡情報) 등은 후방석(後方席) 항법사(航法士)에 의해 파악(把握)되어 같은 데이터가 전방석(前方席)의 전자식(電子式) Head Down Display에 표시(表示)된다. 그밖에 필요(必要)한 각 Data에 따라서도 같은 모양으로 표시(表示)돼 조종사(操縱士)는 비행(飛行) · 조종(操縱)의 조작(操作)과 무장선택(武裝選擇), 목표조준(目標照準)과 무기발사(武器發射)에 전념(專念)하는 것이 가능(可能)하다.

또 하나 ADV의 전자(電子) System 중(中)에 중요(重要)한 것은 Radar 경계장치(警戒裝置)로서 수직안정판(垂直安定板) 상단(上端)과 양주익단(兩主翼端)에 경계장치(警戒裝置)의 안테나가 붙어 있는데 이 장치(裝置)는 보조(補助) Sensor(전자감지기(電子感知器))로서 전자(電子) System 속에 통합(統合)되어 적절(適切)한 지시(指示)를 승무원(乘務員)에게 줌과 동시에 수동적(受動的) 탐지장치(探知裝置)로서의 능력(能力)도 발휘토록 할 수 있다.

Display System도 최신형(最新型)으로 전방석(前方席)의 전자식(電子式) Head Down Display와 후방석(後方席)의 TV형(型) Display 외에 조종사용(操縱士用)의 시계(視界)를 확대(擴大)한 Head Up Display(HUD)가 장비(裝備)되어 있어서 필요(必要)한 비행정보(飛行情報)와 중사거리(中射距離) AAM의 조준(照準) · 발사정보(發射情報) 그리고 기관포사격(射擊)에 필요(必要)한 조준정보(照準情報)의 전부를 표시(表示)하고 있다.

☆ Tornado ADV의 주요 Data

전폭(全幅)	: (후퇴각(後退角) 25°)	13.68m
	(후퇴각(後退角) 68°)	8.59m
전장(全長)	:	18.06m
전고(全高)	:	5.73m

Engine	: RB 199-34R-04 Turbo Fan Engine×2
정규추력(正規推力)	: 4,080kg+
최대추력(最大推力)	: 7,260kg+
최대속도(最大速度)	: Mach 2.2/11,000m Mach 1.1/150m
실용상승한도(實用上昇限度)	: 15,240m
기내연료적재용량(機內燃料積載容量)	: 7,300/(5,690kg)
보조연료(補助燃料) Tank	: 1,500ℓ×2(1,170kg×2)
익면적(翼面積)(전개시(展開時))	: 30.0m ²
운용자중(運用自重)	: 14,090kg
총중량(總重量)(최대(最大))	: 27,270kg

3. System과 성능(性能)

○ 전자항법(電子航法)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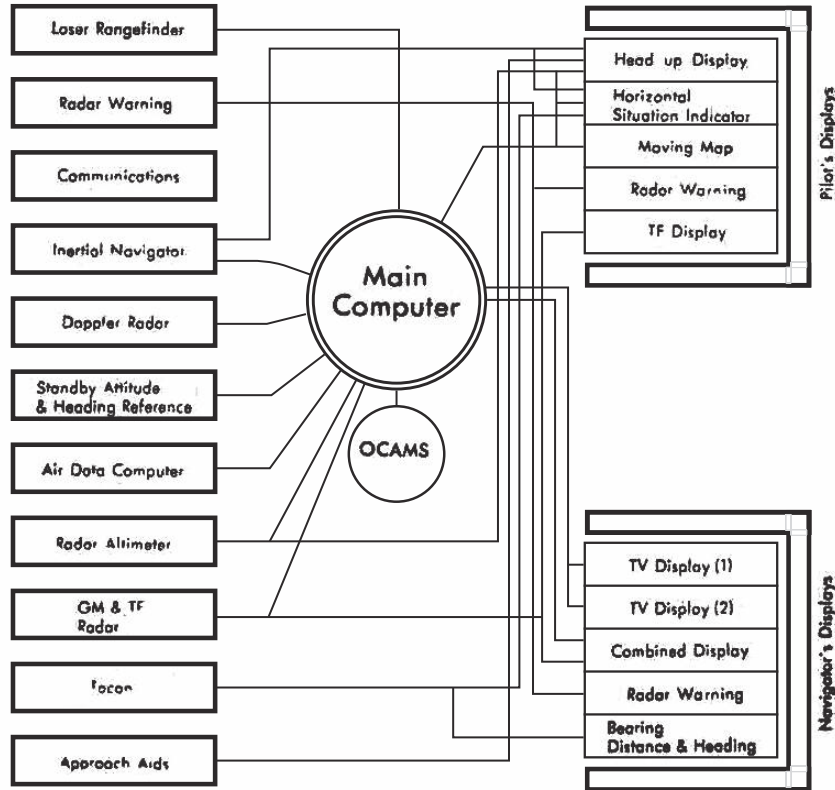
Tornado ADV의 항법(航法) System은 관성항법장치(慣性航法裝置)와 Main Computer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Secondary 자세지시(姿勢指示)와 Compass System, 그것으로부터 Air Data Computer까지의 Data(Main Computer를 경유(經由)하여 부여된다)에 의해 관성(慣性) Platform의 보정(補正)이 이루어진다.

관성항법장치자체(慣性航法裝置自體)도 만일 Main Computer에 의한 자동항법계산기능(自動航法計算機能)을 얻게될 수 없을 때 Way Point로부터 Way Point까지의 계산기능(計算機能)을 자장(自藏)하고 있다. 전체항법정보(航法情報)는 항법사석(航法士席)의 TV형(型) 표시기(表示器)에 표시되며 그 Key Board를 쓸 때 항법도형(航法圖形) Format에도, 침로(針路) 및 소요시간(所要時間) Data에도 표시(表示)할 수가 있다.

항법(航法)의 제원(諸元)은, 목적지(目的地) 및 Way Point 등(等)을, Key Board를 써서 투입(投入)한 수동조작(手動操作)에서도, 미리 기록(記錄)된 자기(磁氣)테이프 · 카세트(카세트)를 써서도 Input 할 수 있다. ADV의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계획(計劃)된 공중초계(空中哨戒) 버튼(Button)에 의해서 정확히 일정(一定)한 비행양식(飛行樣式)을 얻는 일이 많기 때문에 Input 방식(方式)은 대단히 편리(便利)한 것이다.

물론 IDS와 마찬가지로 Radar의 대지(對地) Mapping에 의한 항법(航法) 및 ADF와 TACAN에 의한 방위(方位), 거리정보(距離情報)를 써서 항법(航法) Data보정(補正)도 가능(可能)하기 때문에 관성항법장치(慣性航法裝置)의 높은 정밀도를 보다 강화(強化)시키는 것이 된다.

Avionic System



항법사석(航法士席)의 Radar 표시기(表示器)와 TV형표시기(型表示器)를 사용(使用)하여 실제(實際)로 실시되는, 보다 중요(重要)한 조작(操作)은 초계중(哨戒中)의 목표탐색(目標探索)과 목표평가(目標評價)다. 보통 목표탐색(目標探索)은 FMICW Mode를 사용(使用)한다. 이 때 TV형표시기(型表示器)는 가로가 방위(方位) Scale, 세로가 Velocity Scale이 되며 Radar 반사(反射)에 의한 목표(目標)는 표시기(表示器) 위에 기호표시(記號表示)된다. 이 목표(目標)에 Hand Contrder로 움직이는 Mark를 포개는 것으로 목표(目標)의 Positioning이 실시되고 그 뒤는 자동추적(自動追跡)을 계속함과 함께 목표(目標) Drogue, 자기(自機) Drogue, 방위(方位)와 거리(距離), 고도(高度) 등(等)이 계속적으로 표부(表不)된다.

최종적(最終的)으로는 항법사(航法士) 또는 조종사(操縱士)에 의해서 전술평가표시(戰術評價表示)의 선택(選擇)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포착(捕捉)돼 있는 모든 목표(目標)와 공중(空中)에 있는 다른 ADV의 위치(位置) 및 그 추적(追跡)하고 있는 목표(目標)를 표시(表示)하는 것으로 이 정보(情報)는 Dadaling에 의해 입수(入手)된다. 그것은 지상(地上)의 경계관제(警戒管制) Radar로부터도 공중(空中)의 경계관제기(警戒管制機)로부터도 Dataling을 통해서 보내져 ADV의 탑승원에게 전술상황(戰術狀況)의 전체상(全體像)을 보여주어서 전술적대응(戰術的對應)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항법사(航法士)는 자기(自機)가 대응(對應)해야 할 목표(目標)를 확실(確實)히 포착(捕捉)해서 탑재(搭載)하고 있는 Skyflash 중사거리(中射距離) AAM 전부를 최대한(最大限) 유효(有效)하게 쓸 수 있도록 복수목표(複數目標)에 대(對)한 최적공격계획(最適攻擊計劃)을 세운다. 이것은 Main Computer를 쓸 때 순간(瞬間)에 해답(解答)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 복수목표처리(複數目標處理) 공격(攻擊) System은 지금까지의 운용연구결과(運用研究結果) 종래의 단좌기(單座機)에 의한 단일목표추적(單一目標追跡) 레이더 System 보다도 1회(回) 출격당(出擊當) 요격적추효과(邀擊擊墜效果)가 1.5~2배(倍)나 높은 것으로 판정(判定)됐다.

공대공(空對空)의 공격목표(攻擊目標)가 결정(決定)되면 그것은 조종사석(操縱士席) HUD 위에도 표시(表示)된다. HUD Format는 그때까지의 비행항법표시(飛行航法表示)로부터 중사거리(中射距離) 미사일공격표시(攻擊表示)로 변(變)해서 비행(飛行) 제원의(諸元外)에 AAM의 전방(前方) Scan 한계(限界)를 포함한 허용조향오차(許容操向誤差)(Allowable Steering Error: ASE)의 Circle과 목표위치(目標位置)를 나타내는 작은 원, 거기에 목표(目標)가 AAM으로 요격(邀擊)되는 위치(位置)를 나타내는 Dot가 표시(表示)된다. 이 Dot가 ASE Circle 속에 들어가면 요격(邀擊)은 가능하며 그 뒤는 사정거리(射程距離)만의 문제(問題)다.

목표거리(目標距離)는 중형(縱型) Scale에 표시(表示)되는데 단지 1g 목표(目標)에 대(對)한 것만은 아니고 레이더가 Look on된 뒤는 목표(目標)의 기동(機動) g를 계측(計測)하는 능력(能力)이 있어 Main Computer는 AAM 공격(攻擊)의 성공권(成功圈)과 목표위치(目標位置)와를 계속적(繼續的)으로 비교(比較)해서 공격지시(攻擊指示)를 내리는 능력(能力)을 갖는다. 발사기회(發射機會)가 오면 음향신호(音響信號)가 조종사(操縱士)에게 주어져 HUD위 목표(目標) Dot가 점멸(點滅)하기 때문에 조종사(操縱士)는 완전(完全)한 목표포착(目標捕捉)과 최적(最適), 최대거리(最大距離)에서의 미사일발사(發射)가 가능(可能)하다.

공격(攻擊) Format의 수정(修正)은 무장선택(武裝選擇)과 연동(連動)하여 항상 자동적(自動的)으로 실시된다. 근접전투(近接戰鬥)기동을 위해서 조종사(操縱士)는 Throttle Lever 위의 Override Switch를 쓴다. 이 스위치를 1회(回) 누르면 근접전투(近接戰鬥)에서의 중사거리(中射距離)미사일 공격(攻擊) Format로, 다시 누르면 Sidewinder 공격(攻擊)으로 변(變)하고,

3회(回)째에는 기관포사격(射擊)으로, 그리고 다시 중사거리(中射距離)미사일로 돌아온다.

HUD 표시(表示) 외에 공격(攻擊) Format는 조종사석(操縱士席)의 Electric Head Down Display(EHDD)에도 표시(表示)되기 때문에 전천후상태(全天候狀態)에서의 공격(攻擊)에는 이것을 쓸 수 있다. 여기에는 HUD에서는 불가능(不可能)한 계획정보(計劃情報)가 표시(表示)되며 항법사석(航法士席)에도 같은 표시(表示)를 나타내 보조(補助)하는 일이 가능(可能)하다.

○ Engine

Tornado ADV는 기체구조(機體構造)와 기본적인(基本的)인 각(各) System, 엔진 등을 포함해서 원칙적(原則的)으로는 IDS와 마찬가지로.

엔진은 2기(基)의 Turbo union RB 199-34 R Turbo fan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3축방식(軸方式)의 Atter Burner가 붙은 강력(強力)엔진으로 저공비행시(低空飛行時) Dry 추력(推力)에서의 연료소비(燃料消費)가 적어 고공(高空)에서의 순항(巡航)과 마찬가지로 큰 항속능력(航續能力)을 얻고 Reheat System 사용시(使用時) 최대추력(最大推力)이 커져서 단거리이륙(短距離離陸)을 가능(可能)케 한다. 그리고 전투기용(戰鬥機用)으로는 진기한 Thrust Reverser(역추진 장치)를 장비(裝備)해서 단거리착륙(短距離着陸)을 가능(可能)하게 하는 등(等)의 특징(特徵)이 있다.

RB 199는 3축구조(軸構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식(可變式) Blade를 쓰지 않고서도 최적회전(最適回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構造)가 오히려 단순화(單純化)되어 있다. 총압축비(總壓縮比)는 23을 넘고 Turbine 입구(入口) 온도(溫度)는 1,600°K(1,327°C), Reheat 온도(溫度)는 1,900°K(1,627°C) 이상(以上)으로 최대(最大)의 After Burner 효율(效率)과 최소(最小)의 Jet Pipe 길이를 얻기 위해 Dual Reheat System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9, 000lb(40KN) 이상(以上)의 Dry 추력(推力)과 16,000lb(71KN) 이상(以上)의 Reheat 추력(推力)을 얻어 추력(推力) Weight 비(比)가 8을 넘는 소형(小型) · 경량(輕量)의 엔진을 만들어 냈다. 이 엔진의 Size와 중량(重量)은 토네오기체전체(機體全體)의 Size를 축소(縮小)하는데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現在)의 ADU 원형기(原型機)에 장비(裝備)되어 있는 엔진은 IDS용(用)과 한 가지인 Mk 101의 발달형(發達型)이지만 양산기용(量產機用)에는 더욱 추력(推力)이 향상(向上)된 Mk 102가 제안(提案)되고 있다.

RB 199 3단(段) Fan은 Blade가 전용접구조(全熔接構造)의 Disc Assembly로 보지(保持)되어 있고, Stator Ring(고정환(固定環))도 제각기 전용접구조(全熔接構造)로 되어 있다. 보통(普通) 쓰여지고 있는 개개(個個) Blade를 따로 따로 Casing에 붙이는 구조(構造)에 비(比)해 이 방법(方法)은 경량(輕量)이지만 진동원(振動源)이 될 가능성(可能性)을 감소(減少)

시킨다.

Blade에 손상(損傷)이 발생(發生)할 때는 절단(切斷)과 용접(溶接)에 의해 교환(交換)된다. Fan은 2단(段)의 저압(低壓) Turbine으로 구동(驅動)되고, 공기유입량(空氣流入量)은 약(約) 70kg/sec, Bypass 비(比)는 1 : 1 이상(以上)이다.

3단(段) 중압(中壓) Compressor의 Rotor Drum도 또한 용접구조(熔接構造)로서 공냉식(空冷式) 1단(段) Turbine으로 구동(驅動)된다. 3축설계(軸設計)(Three Shaft Design) 덕분으로 가변(可變) Stator가 필요(必要)없게 됐고 공기유량(空氣流量)은 Compressor의 Blow-On만으로 Trimming되어 있다. 고압(高壓) Compressor의 구동(驅動)도 공냉단(空冷段)의 고압(高壓) Turbine에 의한 6단(段) 축류압축기(軸流壓縮器)가 쓰이고 있다. 고압단(高壓段)(H.P)Shaft는 그 후부(後部)에 있는 Shaft내(內) Bearing을 통(通)해 저압단(低壓段)(I.P) Shaft로 지지(支持)되고 있다. 이 방법(方法)은 Rolls-Royce사(社)의 Pegasus Engine으로 사용(使用)되고 있는 것과 동일(同一)한 것이다.

Reheat System은 Turbine으로부터의 고온분류(高溫噴流)(Hot Efflux)를 위한 통상형식(通常形式)의 Gutter Flame Stabilizer와 Bypass류(流)를 위한 별계통(別系統)의 “Colander” Burner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타(他) Engine의 Plenum Chamber 연소(燃燒)의 경험(經驗)에서 나온 것이다. 내부단열재(內部斷熱材)는 최대(最大) After Burner 사용시(使用時) 용점(融點)에 가까운 온도(溫度)로부터 Jet Pipe를 보호(保護)하고 있다.

부분(部分) After Burning 설정시(設定時)에 최량(最良)의 효율(效率)을 주기 위해 Nozzle은 완전가변식(完全可變式)으로 되어 있다. 전환(轉換) Shroud에 의해 조정된 3중합(重合) Pedal로 구성되었으며 대단히 가볍고 빨리 작동(作動)하는 Nozzle이 있다.

엔진보기(補機)(Accessories)는 정비(整備)를 쉽게하기 위해 전부 하부(下部)에 모여 있다. 엔진 Gearbox는 엔진과 Reheat “Combustor”에 연료(燃料)를 공급(供給)하는 연료(燃料) Pump를 구동(驅動)하고, 엔진은 항공기(航空機) · 보기(補機) Gearbox를 구동(驅動)한다. 보조동력(補助動力) System은 2대(臺)의 엔진회전속도(回轉速度)가 크게 차이가 있을 때 자동적(自動的)으로 연결(連結)된 연결축(連結軸)에 결합(結合)되는데, 2개(個)의 엔진구동(驅動) Gearbox로 구성(構成)돼 있다. 각(各) Gearbox에는 유압(油壓) Pump(Hydraulic Pump), 정속(定速) Drive 교류발전기(交流發電機), 윤활유(潤滑油) Pump가 붙어 있다. 또한 우현(右舷) Gearbox에는 엔진시동(始動) 및 개체(概體) System을 가동(稼動)시키기 위한 보조동력(補助動力) Unit가 달려 있다.

보조동력(補助動力) System은 Tornado를 완전(完全)히 지상(地上) 지원장비(支援裝備) 없이도 운용(運用)하는 것을 가능(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동력(補助動力) Unit에 의해 엔진을 시동(始動)하는 것은 물론 정비원(整備員)이 필요(必要)로 하는 각(各) System의 점검(點檢)과 Avionic 점검(點檢)을 위한 동력(動力)을 공급(供給)하여 Tornado가 분산(分散)된

비행장(飛行場)에서도 충분(充分)한 운용(運用)이 가능(可能)하도록 배려(配慮)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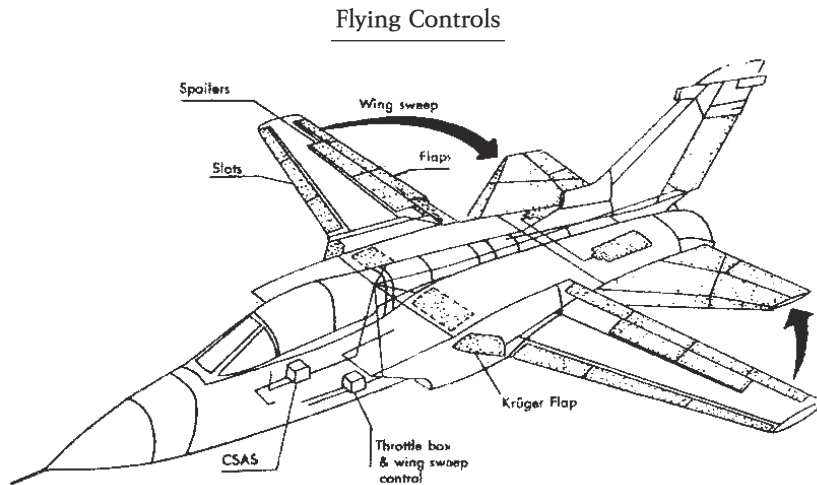
○ 조종계통(操縱系統)(Flight Control System)

Tornado ADV 조종(操縱) System은 완전(完全)한 Fly-By-Wire(FBW)방식(方式)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재래(在來)의 기계(機械) · 유압(油壓) System에 비(比)해 ① 고(高) · 저(低) 상태(狀態)에서도 조종사(操縱士)의 입력(入力)에 대(對)해 양호(良好)한 안정성(安定性)과 동추종성(動追從性)을 확보(確保)한다. ② 저고도(低高度)의 격(激)한 난류(亂流)에 대(對)해서도 양호(良好)한 대돌풍특성(對突風特性)과 Ride Characteristics가 개선된다. ③ 기체(機體)가 보다 안정(安定)된 무장운반(武裝運搬) Platform이 된다. ④ 자동조종장치(自動操縱裝置)와 Terrain Following Commander가 보다 간단(簡單)한 System으로 통합(統合)된다. ⑤ 실속(失速) (Stall), Spin 및 Buffet 특성(特性)이 개선(改善)된다. ⑥ Configuration 변경(變更)을 위한 자동보상(自動補償)이 쉽고 간단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용(採用)된 것이다.

실제(實際) 항공기(航空機)의 움직임은 항상 조종사(操縱士)가 요구(要求)하는 움직임과 비교(比較)되며, 만일 이상이 있으면 안정증강제어(安定增強制御) System(CSAS)의 컴퓨터가 기력제어장치(機力制御裝置)에 제어신호(制御信號)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만일 기체(機體)가 돌풍(突風)에 의해 동요(動搖)되더라도 System은 자동적(自動的)으로 수정(修正)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갖는다.

CSAS(Command Stability Augmentation System) 컴퓨터는 Air Data컴퓨터로부터 속도(速度) · 고도신호(高度信號)와 후퇴각제어(後退角制御) Unit, Air Brake, Spoiler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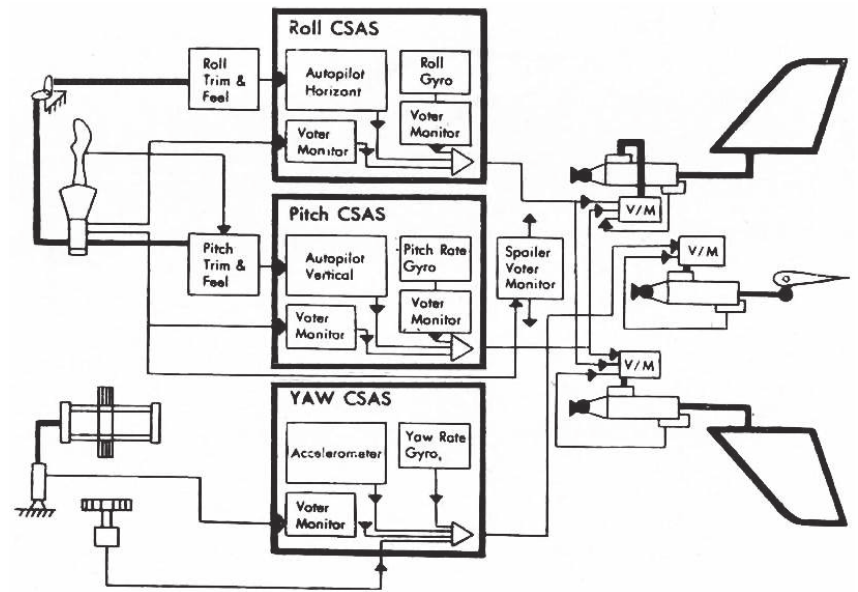


터 Input(신호(信號))를 받는다. 이들은 항공기(航空機)의 비행영역내(飛行領域內)에서 항상 최적(最適)의 Control 응답(應答)이 얻어지도록 여러 가지 Gain Scheduler 속에 사용(使用)된다. 이 특성(特性)은 Hard Ware 회로(回路) Board를 바꿈으로써 변경(變更)이 가능(可能)하게 되어 있다.

주운용(主運用) Mode에서 Fly-By-Wire의 종안정(縱安定)과 횡안정(橫安定) 컴퓨터는, 전비행영역(全飛行領域)을 통(通)해서 항공기(航空機)에 최적(最適)의 응답(應答)을 부여하도록 조작(操作)을 Control 한다. 또 이 System은 비행경로(飛行經路)를 어지럽히는 돌풍(突風)에 대(對)한 보정(補正)을 실시(實施)해서 목표기준(目標標準)과 무장발사시(武裝發射時) 안정(安定)을 더하고 그밖에 외부탑재장비(外部搭載裝備)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조작성(操作性)을 부여하는 기능(機能)도 갖고 있다.

기본(基本) Control은 방향타(方向舵)와 2매(枚)의 큰 수평안정판(水平安定板), 그리고 양주익상(兩主翼上)의 각(各) 2매식(枚式)의 Spoiler에 의해 실시된다. Lateral Control은 주(主)로 방향타(方向舵)에 의하지만 Pitch Control은 Taileron의 동시작동(同時作動)으로, Roll Control은 Taileron 각각의 동작(動作)으로 실시된다. 주익(主翼)의 후퇴각(後退角)이

Command and Stability Augmentation



작을 때에는 Spoiler의 비대칭동작(非對稱動作)이 Roll Control을 보조(補助)한다.

2차(次) Flight Control은, 주익후퇴(主翼後退), Flap, Slat Spoiler와 동체후부상면(後部上面)의 Air Brake들을 작동(作動)시킨다. IDS에는 주익(主翼) Glove 하면(下面)에 Kruger Flap이 붙어있지만 ADV에는 제거(除去)돼 있다.

주익(主翼)의 후퇴각변경(後退角變更)은 조종석(操縱席)의 Lever에 의해 제어(制御)되며 후퇴각(後退角) 25°의 최전진위치(最前進位置)로부터 68°의 최후진위치(最後進位置)까지 연속적(連動的)으로 변화(變化)된다. 양익(兩翼)은 각유압(各油壓) Motor와 별개(別個)의 유압(油壓) System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Re-Circulating Ball Screw Actuator에 의해 후퇴(後退)된다. Actuator는 동기축(同期軸)(Synchronising Shaft)에 의해 연결(連結)되며 한쪽 System 유압계(油壓系)가 고장(故障)난 경우에는 회전(回轉)을 다른 쪽으로 전(傳)할 수 있다. Actuator의 좌우작동(左右作動)이 5mm 이상(以上)의 불균형(不均衡)(약(約) 0.5°의 후퇴각(後退角) 비대칭(非對稱)에 해당한다)을 이룰 경우 System은 고정(固定)된다. 이 경우 착륙거리(着陸距離)가 다소 늘어나지만 날개가 완전후퇴위치(完全後退位置)에 고정(固定)돼 있어도 착륙(着陸)과 복행(復行)(Recovery)조작(操作)에는 문제(問題)가 없다는 것이 실증(實證)되었다.

Double-Slotted Fowler Flap과 Slat는 한개 Lever로 제어(制御)되고 상(上), 중간(中間), 하(下) 3단설정(段設定)이 가능(可能)하나 이들은 비행(飛行), 이륙(離陸), 착륙(着陸)을 위한 Flap 및 Slatdeflection을 나타낸다. 기동전투상태(機動戰鬥狀態)에서 사용(使用)은 Throttle Lever 우측(右側)에 있는 Switch로 제어(制御)된다. 모순(矛盾)된 전개(展開)를 피(避)하기 위해 고양력장치(高揚力裝置)와 후퇴각(後退角) Control System간(間)에는 유압일기계식(油壓一機械式) 연결(連結)이 되어 있다.

Flap와 Slat 작동(作動)도 유압방식(油壓方式)으로 Gear에서 연결(連結)된 2조(組)의 유압(油壓) Motor로 Control 된다. 한쪽 System의 유압계(油壓系)가 고장(故障)을 일으킨 경우에는 다른 쪽의 Motor만으로 양익작동(兩翼作動)이 가능(可能)하다. Flap Drive는 Flap 작동불량(作動不良)의 경우에 System을 보호(保護)하는 2방향성(方向性) Noback 장치(裝置)를 결합(結合)시키면서 8개(個)의 Screw Jack을 통해 4개(個)의 Flap을 작동시킨다. Slat도 비슷한 전개(展開)를 하지만 편익(片翼)당 4개(個)의 Re-Circulating Ball Jack을 쓰고 있다.

Airbrake는 동체후상부(胴體後上部)에 있어서 Manoeuvre Flap 및 Slat 위치선택(位置選擇)과 동시에 Switch에 의해 제어(制御)된다. Switch는 십자형(十字形)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종사(操縱士)는 Throttle, 고양력(高揚力) Manoeuvre 장치(裝置)와 Air brake를 한 손으로 조작(操作)이 가능(可能)하다. Air brake는 50°까지 전개(展開)하고 비대칭(非對稱) (Assymmetric Deployment)전개(展開)를 막기 위해 유압(油壓) · 기계식(機械式)으로 연결(連結)된 복동식유압(複動式油壓)잭(Double-Acting Hydraulic Jack)에 의해 작동(作動)된다.

○ 기타 System

Tornado 유압(油壓) System은 완전(完全)히 2중(重)의 고압(高壓) System이다. 2개(個)의 Pump가 Engine Gearbox에 달려있어 Engine 시동(始動)을 할 때 유압(油壓) Valve를 통합작용(統合作用)케 한다. Gearbox 사이에는 연결축(連結軸)이 있어서 한쪽 Engine이 고장(故障)난 경우에도 양쪽 Pump가 구동(驅動)된다. Pump는 저유(貯油)탱크로부터 기름을 빨아올려 Filter와 Pump의 맥동(脈動)을 막는 완충기(緩衝器)(이것은 고력(高壓) System에 있어서 특히 중요(重要)하다)를 통해 내보낸다.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 Taileron, 주익후퇴(主翼後退), Flap과 Slat는 모두 이 양(兩) System에 의해 유압(油壓)을 공급(供給)받는다. 보기(補機)가 손상(損傷)을 입을 때는 폐지(閉止) Valve가 있어서 Primary Actuator를 우선작동(優先作動)시킨다. System상(上)의 요구(要求)가 있는 경우 익후퇴(翼後退) Actuator에 유류량(油流量)을 감소(減少)시키는 역력조정(壓力調整) Valve도 있다. 이것은 익후퇴(翼後退)를 위한 다량(多量)의 유량요구(油量要求)가 다른 System의 작동(作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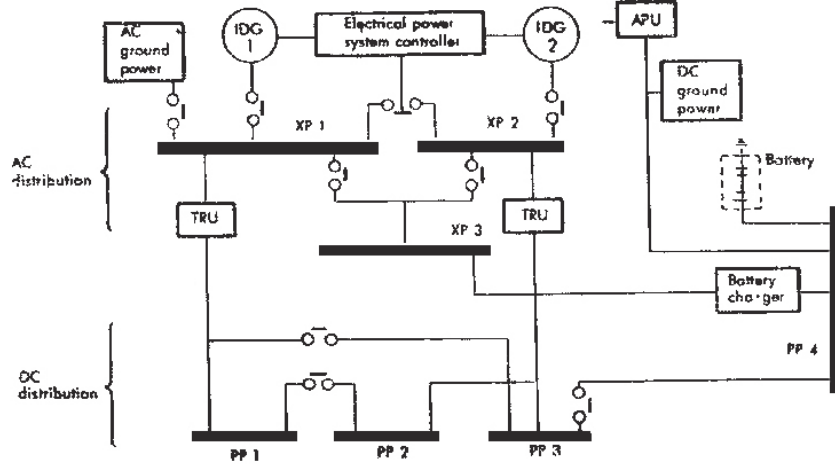
착륙각(着陸角)은 제(第)2 System의 유압(油壓)만으로 작동(作動)되지만 고장시(故障時)에는 20,000kpa(204kg/cm²)의 긴급 Bottle에 의해 다리가 내려진다. Brake와 Canopy용(用) Accumulator에 충전(充填)하기 위해 수동(手動)품폭도 준비되어 있고, 필요(必要)한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 Brake에 역력(壓力)을 공급(供給)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電氣) System은 교류(交流) 115/220V, 3상(相)400Hz 주(主) System과 직류(直流) (D.C)28V 부(副) System으로 이루어진다. 전력(電力)은 2개(個)의 자동제어유냉각(自動制御油冷卻) Brushless 발전기(發電機)가 고장난 경우에 나머지 발전기(發電機)만으로 전(全) System에 무제한(無制限)으로 공급(供給)할 수 있다.

발전기(發電機)는 2개(個)의 주(主) A.C Busbar와 1개(個)의 교류기본(交流基本) Busbar에 전력(電力)을 공급(供給)한다. 직류전원(直流電源)은 2개(個)의 공냉식(空冷式)(Fan Cooled) 변력정류기(變歷整流器)(Transformer Rectifier Unit)에서 제공된다. 이것들은 전력(電力)을 2개(個)의 주직류(主直流) Busbar, 1개(個)의 직류기본(直流基本) Busbar와 Battery Busbar에 공급(供給)한다. 하나의 주전기(主電氣) System이 고장(故障)났을 때는 Battery가 Thyristor Switching 회로(回路)(Circuit)를 써서 순간(瞬間)에 접속(接續)된다. Battery는 전(全) 전력(電力)이 고장(故障)난 경우에 기본전기부하(基本電氣負荷)(Load)만으로 전력(電力)을 공급(供給)한다.

공기(空氣)(Air) System은 고압(高壓) Compressor로부터 고압공기(高壓空氣)를 추기(抽氣)(Tap)한다. 그것은 감압(減壓) Valve와 Ram 공기(空氣)를 냉매(冷媒)(Heat Sink)로 하는 열교환기(熱交換器)를 통해 지나가고 By-pass 회로(回路)는 출구온도(出口溫度)를 100°C로 제어(制御)한다. 이 공기하류(空氣下流)(Down Stream)는 Wing Seal을 위해 추기(抽氣)

Electrical System



되고 그 나머지는 정상적(定期的)인 제어류(制御流)를 얻기 위해 Venturi를 통과한다. 그리고 공기(空氣)는 우적제거(雨滴除去)(Rain Dispersal), 대(對) Suit, Canopy 방담(防曇)을 위해 추출(抽出)된다.

주류(主流)는 Bootstrap 냉공기(冷空氣) Unit, 중간냉각기(中間冷却器) 수분제거기(水分除去器)를 통과해서 Avionic 실(室) 냉각(冷却)에 사용(使用)되고 나머지는 조종석(操縱席)에 공급(供給)된다. 조종석(操縱席)의 환경온도(環境溫度)는 냉공기(冷空氣) Unit By-pass Valve에 의해 5°C에서 30°C까지 ±2°C 내(內)에서 임의(任意)로 설정(設定)된다.

산소(酸素) System은 사출좌석(射出座席)에 붙어있는 Demand형(型) 조력기(調歷器) (Regulator)를 통해서 승무원(乘務員)에게 산소(酸素)를 공급(供給)하는 액체산소교환기(液體酸素交換器)(Liquid Oxygen Converter)를 쓰고 있다. 조압기(調壓器)는 고도(高度)에 따라 공기(空氣)와 산소(酸素)의 혼합기(混合氣)(Mixture)를, 긴급시(緊急時)에는 순산소(純酸素)만을 공급(供給)한다. 산소(酸素) Container는 그대로 재충진(再充填)(Replenish) 할 수 있다. 각좌석(各座席)에는 주(主) System의 고장(故障), 또는 탈출시(脫出時)에 사용(使用)할 긴급산소(緊急酸素) Bottle이 붙어 있다.

Martin Baker Mk 10 사출좌석(射出座席)은 Zero 속도(速度), Zero 고도(高度)에서 고고도(高高度) · 초음속시(超音速時)까지, 600kt 이상(以上)에서 사용(使用)될 수 있는 최초(最初)의 양산형(量產型) 좌석(座席)이다. Cockpit은 Rocket에 의해 사출(射出)되며, 다음에 항법사(航法士), 조종사(操縱士) 순서(順序)로 좌석(座席)이 사출(射出)된다. 조종사(操

縱士)의 사출(射出) Handle은 항상 항법사(航法士)를 우선으로 하는 Command 사출(射出)로서 항법사(航法士)의 Handle은 부상(負傷)한 조종사(操縱士)를 구(救)하기 위해서 Command 사출(射出)을 선택(選擇)한 때 이외(以外)에는 통상(通常) 항법사(航法士)만을 사출(射出)한다.

Tornado의 연료(燃料) System 특색(特色)은 대량(大量)의 기내연료탑재(機內燃料搭載)에 있다. 모든 유효공간(有效空間)을 이용(利用)하기 위해서 Bag Tank와 Integral Tank가 쓰이며 Bag Tank에는 자동누설방지(自動漏洩防止)와 대열재(對裂材)(Resistant Material)가 사용(使用)된다. 주익(主翼) Integral Tank는 주(主) Tank Group에 연료(燃料)를 공급(供給)하는 편축(片軸)(Single Ended) AC Booster Pump를 각기 갖는다. 연료(燃料)는 Engine 공급(供給) Line에 연료(燃料)를 보내는 2개(個)의 양축(兩軸)(Double Ended) AC Booster Pump를 모은 집합(集合)박스(Collector Box)에서 역지(逆止)(Non Return) Valve를 통해 중력낙하(重力落下)로 공급(供給)된다.

주익내측(主翼內側) Pylon에는 외부연료(外部燃料) Tank를 장비(裝備)한다. Tank내(內) 연료잔량(燃料殘量)은 용량측정(容量測定)(Capacitance Gauging) System에서 측정(測定)되며 조종석(操縱席) Digital에 전잔량(全殘量)이 표시(表示)된다. 그리고 조종사(操縱士)에 의해 각(各) Tank 잔량표시(殘量表示)(Contents Readout)도 선택(選擇)될 수 있다. 연료공급(燃料供給)과 중심위치조정(重心位置調整)(Gravity Control)은 전자동(全自動)으로 이루어지지만 만일 전투(戰鬥)에 의해 손상(損傷)되거나 고장(故障) 등으로 필요(必要)한 경우에는 자동(自動) System을 무효(無效)로 하고 폐지(閉止) Valve와 Crossfeed Valve를 수동(手動)으로 조작(操作)하는 것도 가능(可能)하다.

급유(給油)는 동체 우측(右側) 급유(給油) Panel과 그 옆의 1개(個) NATO 급유접적구(給油接續口)에서 실시된다. 각 Tank에는 고유면정지(高油面停止)밸브(High Level Cut Off Valve)가 있어서 모든 과정(過程)은 전자동(全自動)이 가능(可能)하지만 이것도 필요(必要)한 경우에는 각 Tank의 내용량(內容量)을 수동(手動)으로 제어(制御)할 수 있다. 조종석부근(操縱席附近) 동체좌상면(左上面)에는 인입식(引入式)(Retractable) 공중수유용(空中受油用) Probe가 있고 야간공중급유용(夜間空中給油用) Light도 있다. 또 기체(機體)를 급유기(給油機)로 쓸 수 있도록 동체중앙(中央) Pylon에 장비(裝備)된 Buddy/Buddy 급유(給油) Pod도 준비(準備)돼 있다.

○ 성능(性能)

가변후퇴식(可變後退式) 주익(主翼)과 저연료소비율(低燃料消費率) 3축(軸) Turbofan Engine RB 199는 Tornado기(機)에 뛰어난 항속성능(航速性能)과 전투초계능력(戰鬥哨戒能力)을 주는 결과(結果)가 됐다. 영국본토(英國本土)의 방공배치(防空配置)에는 해안(海岸)

으로부터 300~400nm 떨어진 지점에서 2시간(時間) 이상의 공중초계(空中哨戒)가 요구(要求)되는데 Tornado는 기지(基地)로부터 350km 떨어진 지점까지 최적고도(最適高度)로 진출(進出)해서 2시간(時間)의 초계비행(哨戒飛行)과 Reheat System을 써서 10분간(分間)의 전투(戰鬥)가 충분(充分)히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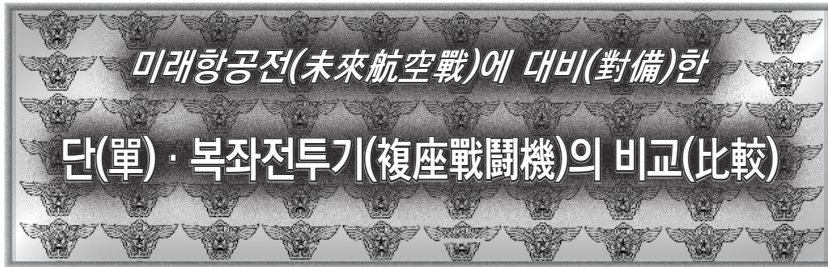
또 이 Turbofan 엔진은 저공(低空)에서도 충분(充分)히 적은 연료소모(燃料消耗)를 유지(維持)하기 때문에 저공(低空)에 있는 목표기(目標機)와 교전(交戰)하기 위해서 저공(低空)으로 강하(降下) 할 때도 연료부족(燃料不足)으로 곤란(困難)을 겪을 염려는 없다. Tornado ADV는 IDS보다 잘 다듬어진 형(形)으로 최대속도(最大速度)와 초음속(超音速) 가속성능(加速性能)이 향상(向上)됐다. 고공(高空)에서 최대속도(最大速度)는 Mach 2.2(IAS 802kt, TAS 1,260kt)를 넘는다. 실제로 ADV 양산전형(量產前型) 1호기(號機)에 있는 AOI은 80년(年) 7월(月)에 IAS 800kt를 넘는 속도(速度)를 기록(記錄)했다. ADV가 초저공(超低空)을 비행(飛行)할 필요(必要)는 거의 없지만 해면고도(海面高度)에서 Mach 1.2로 비행(飛行)이 가능(可能)하다.

상승성능(上昇性能)에 대(對)한 공표(公表)는 없지만 먼저 IDS가 지상(地上)에서의 Brake Off로부터 고도(高度) 30,000ft(9,150m)까지 2분(分) 이내(以內) 상승(上昇)한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ADV에서는 당연히 Reheat System 사용시(使用時) 상승력(上昇力)은 IDS보다 커서 전투상승한도(戰鬥上昇限度)는 Skyflash AAM을 4발(發) 장비(裝備)한 상태(狀態)에서 60,000ft(18,300m)를 충분(充分)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強力)한 Reheat System을 가진 Turbo Fan 엔진의 사용(使用)은 Tomado의 이륙활주거리(離陸滑走距離)를 크게 줄이고 있다. 현재(現在) RB 199-34R-04 MK102 엔진은 최대추력(最大推力)이 16,000lb(7,260kg)이 되지만 금후(今後) 개발기(開發機)에서는 더욱 추력증가(推力增加)가 가능해서 이륙(離陸)과 상승(上昇) 및 가속성능(加速性能)도 보다 개선(改善)될 것이다. 현단계(現段階)에서 ADV의 이륙필요활주거리(離陸必要滑走距離)는 약 2,500ft(760m)가 되고 있다. 착륙성능(着陸性能)은 Kruger Flap이 제거된 만큼 IDS보다도 나빠졌지만 그것도 역추력장치(逆推力裝置)를 써서 지상활주거리(地上滑走距離)는 1,200ft(366m)로 해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充分)히 단거리착륙(短距離着陸)이 가능(可能)하기 때문에 Kruger Flap을 장비(裝備)할 필요(必要)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착륙성능(離着陸性能)은 Tornado ADV가 3,000ft(915m)급(級) 활주로(滑走路)에서 운용가능(運用可能)하기 때문에 전선(前線)의 급조비행장(急造飛行場)과 민간비행장(民間飛行場)을 써서 행동(行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Tornado ADV에는 기내(機內)에 엔진시동장치(始動裝置)와 테스터기능(機能)이 완비(完備)돼 있어 연료(燃料)와 무장(武裝)만 준비(準備)돼 있으면 어디서나 운용(運用)이 가능(可能)해서 고정기지(固定基地)가 피해(被害)를 입기 쉬운 오늘날에는 대단히 융통성(融通性)이 큰 기체(機體)다. 빠른

속도(速度)와 우수한 선회성능(旋回性能), 양호(良好)한 Hand Ling 특성(特性)을 갖고서, 초저공(超低空)으로부터 고고도(高高度)에 이르기까지 넓게 대처(對處)할 수 있는 이 기체(機體)는 그 Radar에 의한 신속한 탐지(探知) · 요격기능(邀擊機能)과 강력(強力)한 무장(武裝) 등을 갖추고 있어 1990년대(年代)까지 충분(充分)히 그 능력(能力)을 발휘(發揮)할 수 있는 세계최신예(世界最新銳) 요격전투기(邀擊戰鬥機)임에 틀림없다. 그 실용기(實用機)가 영국공군(英國空軍)에 배치(配置)되기 시작(始作)하는 것은 1983년(年)으로 예정(豫定)돼 있다.





양 광 석 역(譯)

인류(人類)가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오랜 염원(念願)은 미국(美國)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發明)하고 나서 실현(實現)되었다. 그러나 제 1,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을 통(通)해서 항공력(航空力)은 전쟁수행(戰爭遂行)에 있어 새로운 도구(道具)로 높게 평가(評價)되었으며 아울러 항공기(航空機)의 발달(發達)도 가져오는 결과(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월남전과 중동전을 통(通)해 입증(立證)된 대공무기체계(對空武器體系)의 위협(威脅)은 조종사(操縱士)의 생존성(生存性)과 직결(直結)되는 문제(問題)로 오늘 날 그 해결(解決)을 위한 많은 검토(檢討)가 진행(進行)되고 있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볼 때 전투조종사(戰鬪操縱士)의 역할(役割)을 재조명(再照明)하고 미래항공전(未來航空戰)을 진단(診斷)해 보는 것도 그 의미(意味)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미공군(美空軍)의 평론지(評論誌)인 Air University Review 5~6월호(81년)에 실린 William A. Flanagan 소령의 "The Fighter Force How Many Seats?" 전문(全文)을 번역(翻譯)한 것이다.

미공군(美空軍)의 한 전투비행대대(戰鬪飛行大隊)의 브리핑실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별들의 전쟁(Star Wars)이라는 TV영화(映畫)는 기계를 가지고 후방석조종사의 역할(役割)을 대치(代置)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미공군(美空軍)의 F-15, F-16, A-10 항공기의 물품명세서(物品明細書) 속에 있는 안내문(案內文)에는 단좌전투기의 장점(長點)을 명백(明白)히 표시(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단좌전투기들이 과연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동시대(同時代)의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위협요소(威脅要素)에 비추어 과연 F-15 복좌전투기가 다른 단좌전투기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투기(戰鬪機) 발달사(發達史)

1차세계 대전에 이용(利用)된 최초의 전투기는 복좌였는데 한 사람은 항공기를 조종(操縱)하고 또 한 사람은 기총사수였다.

이 시대(時代)의 항공기들은 엔진추력이 고작 80~115마력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 비록 항공기의 설계시(設計時) 1,000파운드에 해당하는 기체의 무게를 감소(減少)시켰지만, 각종 장비의 무게를 보다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그 이상의 방법(方法)들이 모색(摸索)되었고 그 결과 후방석조종사와 그의 장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강구되었다.

그리고 전기적인 동기장치(同期裝置)의 기관총은 전투기 발달상에 있어서 대변혁(大變革)을 일으켰으며 단좌전투기의 조종사는 표적상(標的)에 있는 모든 적기를 이 기관총으로 조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Sopwith Camel, Spad(불(佛)), 그리고 Fokker Pr. I과 같은 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더 좋은 단좌전투기들이 출현(出現)했다.

"하늘의 기사(騎士)"로서의 단좌전투기 조종사의 인상(印象)은 참호전(塹壕戰)의 살육(殺戮)으로 인해 참담해진 당시의 국민(國民)들에게 대중보도(大衆報道)나 정부발표(政府發表)에 의해 환영받는 위안자(慰安者)로서 받아들여졌다.

1차대전 말기에 복좌전투기의 짧은 출현(出現)이 있었다. 200마력 추력의 새 경량급 엔진은 조종사 이외의 후미사수를 탑승시키고도 단좌전투기와 같은 성능(性能)을 발휘(發揮)했다.

1918년 가장 기대되었던 영국 전투기는 1차대전에 사용(使用)된 영국 전투기로서는 유일하게 1930년대까지 취역(就役)했던 복좌인 Bristol F-2B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세계각국(世界各國)의 공군(空軍)에서는 단좌전투기의 개발(開發)에 집중(集中)했기 때문에 복좌전투기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폐기처분의 한계(限界)에 있는 듯 보였다. 항공기의 속도(速度)가 증가함에 따라 국력(國力)의 증가로 후방석 사수가 표적(標的)을 조준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밀폐된 총좌가 무게, 항력 및 복잡성의 문제점을 안고 장착되어졌고 공중기동 중의 비행착각과 중력 또한 후방석사수의 효율성을 감소(減少)시켰다.

그리하여 미 육군항공단(미공군(美空軍)의 전신(前身))은 이런 문제점들에 관한 실험을 한 뒤 복좌인 P-30을 폐기시켰다.

영국 공군에서는 전기작동식의 4문의 총좌를 가진 Boulton-Paul Defiant를 만들었지만 기총의 부족(不足)으로 그 생명은 짧았고, 성능(性能)과 기동성(機動性)의 부족(不足)으로 요격기로서의 가치도 떨어졌다.

독일공군은 복좌이며 쌍발엔진을 갖춘 Messerschmitt BF 110을 만들었다. 이 항공기는 장거리폭격기에 대한 엄호전투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탑재하기 위해서 큰 크기로 만들어졌고 또한 후방석사수를 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전투에서 매우 기동성이 좋고 단좌이며 단발엔진인 Hawker Hurricane과 Supermarine Spitfire는 이 폭격엄호기 자체에 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事實)을 입증(立證)시켰다.

1~2문의 기총으로 무장한 후방석사수는 상대적으로 8문의 기총을 가진 기민한 공격기에 대해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영국전투에서 주간작전에는 BF 110을 투입시키는 것을 중지(中止)했지만 야간작전에서는 이상적인 항공기로 평가(評價)를 받았다.

폭격기편대의 야간출격과 공중레이다의 개발(開發)은 쌍발엔진의 복좌전투기의 새로운 가치(價値)를 인식(認識)시켰다.

조종사(操縱士)가 항공기(航空機)를 조종(操縱)하는 동안 레이다조작사는 공중레이다로 표적(標的)을 탐색하고 위치를 발견하면 조종사에게 육안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야간에는 공중전(空中戰)이 불가능(不可能)했기 때문에 대형(大型) 야간전투기의 기동성 부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쟁말기(戰爭末期)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런 상태(狀態)였지만 대형(大型) 2,000마력짜리 왕복엔진은 P-61 같은 대형(大型) 야간전투기가 단좌인 Mustang이나 Hell cat과 같은 성능을 부여했다.

그러나 Messerschmitt Me 262 제트전투기의 출현은, 전투기(戰鬪機)의 Jet화시대(化時代)가 도래(到來)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차대전초기의 왕복엔진 생산기술과 같이 1940년대말의 Jet 엔진 생산기술은 그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에 초기 Jet 엔진의 설계시 성능상의 잇점을 극대화(極大化)하기 위해 기체를 작게 했다.

전투기의 개발은 F-80이나 F-86 같은 기동성있는 주간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는 레이다가 장착된 야간전투기의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전쟁 초기에 있어서 F-86은 최초(最初)의 주간전투기였고 왕복엔진의 F-82 Twin Mustang이 최초의 야간전투기였다.

엔진공업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1950년대초 소련의 Tu-20(Bear) 프로펠러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복좌의 F-89 Scorpion과 F-94 Starfire가 선을 보였는데, 이 요격기들은 현재(現在)까지 어느정도의 전투능력(戰鬪能力)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소련의 Jet 폭격기 개발이 시작된 이후 요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는데, 또 다시 후방석을 제거하는 문제에 초점이 모여졌고 조종사로 하여금 레이다를 조작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요격에 관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로 처리되는 사격

통제체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많은 개발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격통제체계를 갖춘 F-86D(Sabre)와 F-102(Delta-Dagger)가 취역했다.

핵시대(核時代)의 전투기(戰鬪機)

1950년대 중반 이후, 미 · 소간에는 핵전쟁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存在)하기 시작했으므로 전투기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투기(戰鬪機)는 폭격기에 대(對)한 요격임무와 핵무기의 운반체제(運搬體制)로서 받아들여졌다. 또한 공대공 유도탄의 출현(出現) 역시 전투기의 역할에 관한 개념을 특색지었다.

고로 미 공군에서는 요격기로서 F-101, F-106 전폭기로서는 F-100, F-105와 단좌 제공 전투기인 F-104의 개발에 주력을 두었고, 미 해군에서는 장거리 전투초계가 가능하며, 공대공 유도탄을 사용하고, 공격항모 기동부대에 대한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제작된 F-4 Phantom을 개발했다. 1960년대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국지전에서 Jet 전투기가 사용되었다. 전투기들은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적기와 교전(交戰)했으나 미사일의 제한점이나 표적식별로 인해 종종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발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종사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종래의 기동성이 부여되는 공중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적기가 너무 근접(近接)했거나 기동성이 좋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관포는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고로, 핵전쟁과 같은 수준의 분쟁에서도 공중우세를 위한 전투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제공권(制空權) 확보(確保)를 위해서 미 공군에서는 F-4를 개량하여 공대공 유도탄외(外) 내부에 탑재된 기관포를 장착했는데 월남전에서 130대의 MiG를 격추함으로써 당시 최고의 훌륭한 항공기로 평가되었다.

1965년말 미 공군에서는 새 제공전투기에 대한 제작을 요청했는데 실제 시에는 동남아시아 상공(上空)에서의 전투경험이 많은 토대가 되었다.

새 전투기는 특별한 기동성, 고속, 그리고 Radar유도나 열추적의 공대공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청되었다.

1968년 9월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입증된 F-4에서 탈피하여 항공전자공학 계통의 조작을 1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주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런 요청과 변화에 의해 마침내 미 공군 최초의 제공전투기로 1990년대까지 운용될 F-15의 개발을 가져왔다.

1972년 미 공군은 당시의 항공공학기술을 평가할 목적(目的)으로 경량의 기동성있는 항공기모델에 관한 제작을 요청했으며 1976년 기동성과 적은 제작비용을 고려한 호천후(好天候) 전투기로서의 이 모델은 전폭기로서의 주 임무와 제공권 확보의 보조 임무를 갖춘 “Swing Force” 전투기인 단좌의 F-16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현상(現狀)에 의해 미 공군은 거의 다수가 단좌전투기로 구성된 제공전투기군을 가지고 1980년대에 돌입하게 된다.

과학기술(科學技術)과 현대전투기(現代戰鬪機)

종래에는 과학기술(특히, 엔진부분)이 단좌와 복좌의 선택을 좌우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설계자나 담당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는가?

현대전투기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를 비교할 때 크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F-15는 전장 64ft 중량 40,000LBS인데 F-51 Mustang은 전장 32ft 중량 9,200LBS로서 크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현대전투기의 성능(性能)이 증대되어져 요구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F-15의 엔진은 최고속도 M2.5(=1,650마일/HR), 고도 70,000ft까지 상승할 수 있는 충분(充分)한 추력을 갖추었으나 F-51은 최고속도 437마일에 상승고도는 25,000ft이다.

공중전에서 항공기가 기동할 때 추력은 증가하며 항력은 더 많이 증가하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력의 증가는 필요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엔진의 크기와 연료의 탑재량은 전투기의 크기를 결정짓는 주 요인이며 또한 저익항공기는 좋은 기동성을 부여한다.

이런 모든 요소가 결합(結合)되어 제작된 현대의 제트전투기는 2차대전 당시의 전투기보다 매우 크다.

무장 또한 전투기의 형(形)을 바꾸는데, F-51은 6문의 Caliber 50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다른 대부분의 기종도 사정거리는 600ft 이내였는데 F-15는 기종보다 매우 큰 위력을 가진 기관포를 장착했지만 주 무장은 야드단위가 아닌 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공대공 유도탄으로서 레이다유도 방식의 AIM-7 Sparrow 미사일은 전천후(全天候)에서 1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열추적 방식의 AIM-9 Side Winder는 흐린 날씨에는 성능이 저하되나 사정거리는 2~5마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이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종사의 탐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다가 필요하다.

F-4에서는 후방석조종사가 레이다를 작동했지만 F-15에서는 전자계산기가 이를 대신했는데 혼란한 레이다상(上)의 표적은 전자계산기를 통(通)해 정선(精選)되어 조종사의 레이다에는 단지 표적만 나타난다. F-15 레이다의 모든 조종계통은 조종간이나 Throttle에 위치해 있어 조종사가 레이다를 조작하면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조종사가 공격을 위해 표적을 선정하고 Lock on시키면 전자계산기는 표적거리, 표적고도 등을 산출하고 요격을 위한 조종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사정거리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기종 조준경에는 신호가 나타난다.

F-15의 사격통제체계는 위에서 말한 조종사의 위치와 단일표적에 대한 공격에는 매우 적합하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제한된 공중전투에서 오늘날 그 부대가 중앙유럽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이런 변화는 장차의 제공전투기 운용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F-15와 미래(未來)의 중앙(中央)유럽전장(戰場)

중앙유럽에서의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미래의 전쟁은 역사상 가장 격렬한 항공전이 펼쳐질 것이다.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독일 상공(上空)에서는 일일 6,000~8,000소티가 예상되며 제공전투기는 가장 위중(危重)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F-15는 적의 통신교란에 의해 전투기의 통제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중전투에서 숫자상으로 우세한 적과 교전(交戰)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힘의 비교는 그 충돌의 격렬함을 예고해 주는데, 소련과 동독의 15개 전투기연대(미 공군의 전투비행단 규모)가 동독에 전개되고 이와 반대로 NATO는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에 단지 7개 전투비행단을 배치하게 된다.

미국은 F-15의 생산량을 729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은 1,500대 이상의 최신형 미그 21과 1,000대의 미그 23/ 27을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소련의 군용항공기 생산량은 연간 1,1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간 500대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F-15가 적의 수적 우세를 누리는 지역에서 작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미 공군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전투기전술의 수정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어떤 간행물에 기고된 F-15 조종사의 글은 대규모 적 전투기군(群)에 대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반영(反映)한 것으로 그 내용(內容)은 조종사가 F-15의 레이다로 적 편대군(群)을 판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기습을 감행하여 첫발을 발사하면 적 편대군(群)에서 한, 두개의 표적이 갑자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와 동시에 F-15는 적이 요격하기전 그 지역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종래의 공중전은 중앙유럽에서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중전(특히 선회비행면(面)에서 F-15는 적기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비행방향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공격의 성공은 기습과 이탈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공중전투에 비추어 F-15 복좌기에 대한 객관적(客觀的) 평가(評價)는 가장 신중해야 한다.

복좌전투기(複座戰鬪機)의 분석(分析)

2명(名)의 승무원이 가지는 가장 뚜렷한 장점은 기내작업(機內作業)의 분담(分擔)이다.

1975년, 미국의 Hughes 항공기회사는 공중 강타임무의 모의실험으로 단좌와 복좌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기체외부(機體外部)에 위협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레이다 경보장치는 그 위협을 알리면 승무원이 역습을 감행해야 했다는 의미에서 그 모의실험은 독특한 것이었다.

연속적으로 부여되는 위협상황이 어떤 경우는 역시 레이다 경보장치에 의해 알려지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레이더를 작동치 않은 상태에서 비행할 때 적으로부터 육안 공격을 받는 실전과 비유될 수 있으므로, 모의실험에서의 승무원들은 공대공 전투와 유사한 상황에서 레이더 경보장치와 기체외부(機體外部)의 경계에 주의를 집중(集中)시켜야 했다.

레이더 경보장치에만 위협상황이 부여될 때는 단 · 복좌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레이더 경보장치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시(發生時)는 임무수행과 동시에 위협상황을 탐지하는 능력은 복좌가 월등히 우세한 것(40% : 95%)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후방석승무원이 기체내(機體內)의 일을 분담(分擔)하고, 중요한 육안 정사(精査)에 좀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외부(機體外部)의 육안감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의실험에서 입증된 복좌기의 경계능력은 제공전투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항공전사를 통(通)해 본 불변(不變)의 사실(事實)은 격추된 조종사들의 대부분이 적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1944년 5월 29일 제8전투기사령부의 전술 교범에 포함된 다음의 글-“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적기의 기습에 의해 격추된다.”-은 비행 중의 경계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例)로 월남전에서는 모든 공대공전투의 손실 중 80%는 보이지 않는 적 미그의 기습에 의해 이루어졌다.

많은 작업부담이 부여된 상황에서 복좌전투기는 보다 나은 외부(外部)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석승무원은 보이지 않는 적기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극소화시키고, 생존(生存)의 가능성(可能性)을 극대화시킨다. 앞서 기술(記述)한 바와같이 중앙유럽 전장에 있어서 F-15는 숫자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야 한다.

단일표적에 대해 Lock On 후 F-15의 사격통제체계가 공격지침을 제공했을 때 레이더 스크린상(上)의 다른 표적들은 사라지고, 다른 적기에 대한 정보도 산출되지 않을 것이다. 항공기가 사정거리에 접근하기까지의 "Lock On"의 지연은 적반적인 상황에 대한 레이더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나, 그 잇점과 아울러 기체내(機體內) 레이더상(上)을 추적하는 작업부담도 증대되고 한 편 요격에 관한 자료를 두뇌로 계산해야 한다.

숙련된 후방석의 레이더담당 조종사는 대부분의 그의 주의력을 레이더에 집중시킬 수 있고, 조종사로 하여금 육안감시와 항공기조종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요격을 하는동안 매우 귀중한 조력(助力)을 제공(提供)할 것이다.

사격통제체계가 작동불능이거나, ECM에 의한 사격통제체계의 성능감퇴 시에는 인적 전문 기술도 역시 유용하다.

베테랑 방공조종사의 대부분이 F-101에 탑승하는 레이더담당 후방석조종사가 F-101의 요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F-15에 있어서 후방석의 레이더담당 조종사는 가동성 있는 전투기형의 수적우세 속의 적 표적들에 대한 공격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복좌항공기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항공기의 크기는 어느정도나?

어느 정도의 성능이 감소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단좌 제트전투기를 복좌로 개조한 이전의 F-86/F-86A, F-100F/F-100D, F-106B/F-106A 같은 항공기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선 불리한 무게조건을 측정할 수 있다.

1,000~1,300파운드의 불리한 무게조건은 9,200파운드의 Mustang이나 18,000파운드의 F-86과는 달리 30,000파운드의 현대 제트전투기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어지지 않고 있다. 복좌인 F-15B는 F-15A보다 800파운드가 무거운데 비행교범에 나타난 성능은 두 항공기를 동일시 하고 있고, 복좌인 F-16B는 후방석을 장착함으로써 1,200파운드의 연료가 감소되지만 F-15B는 F-15A와 같은 연료량을 탑재하며 단지 항공기의 어느 곳이나 장착할 수 있는 전술전자전지원(TEWS) 장비의 내부(內部)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대의 제트전투기는 초기의 전투기에 비해 무게의 불리한 조건과 상대적 성능(性能)의 감소에 있어서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F-15 역시 성능상의 어떤 조그만 감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방석조종사는 증대된 생존성(生存性)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재상

『도구란 어디까지나 도구일 따름이다. 도구는 사용하는 것이지 도구에 의해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구조나 성능을 잘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용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장소 어떤 용도를 불문하고 만능으로 사용되는 도구란 없다. 또한 도구의 사용법에 숙달되지 않으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구의 외형만을 보고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간단한 형태의 도구라 할지라도 익숙한 솜씨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구의 특징이다.』

전쟁을 평면에서 입체적 공간으로 확산시킨 항공기의 출현도 일세기가 가까와 오고 이제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전투수단이 되고 있다. 1914.8.30. 독일의 단엽복좌 정찰기가 소형 폭탄 5개를 바스터유역 부근에 투하하여 부녀자를 포함한 3명의 파리시민을 살상한 것이 비행기에 의한 폭격의 시조라고 할 수 있으나 곧 이어 폭격기가 출현하였고 전투전문기가 출현했는가하면 대지공격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격기가 발달되어 공중화력에 의한 대지 지원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력요소가 되고 있다. 막강한 화력과 기습을 통한 충격 효과를 주요 전술로 채택하고 있는 소련식 훈련을 받는 우리의 적은 그러한 전술로 침입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막강한 기갑병력, 공중에서는 우세한 전투용 항공기를 동원 후방을 차단, 교란하고 아군의 전방진지를 유린코자 할 것이나 전차전력의 열세는 물론 대전차 병기 또한 충분치 못한 우리는 지형지세를 이용한 상당히 긴 전선에서 비교적 깊지 못한 중심방어를 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이어서 공중 화력에 의한 적 전차 전력의 파괴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기동장비가 우수하지 못한 아 지상군의 애로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은 물론 모든 가능한 침투예상모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 전력의 과다는 차치하고라도 부족한 대로의 공중전력이나 가장 긴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적재 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면 공지 협조는 긴밀해야 하고 끊임없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공지작전 체제 내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바 적과의 관계에 의한 것과 우군 스스로에 의한 문제가 있다.

통상 공지작전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를 간추려 보면,

첫째, 근접항공지원(CAS)의 우선순위는 지상군 지휘관에 의해 요청되므로 전투 상황에 따른 전선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이것은 즉, 공군의 전력을 육군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상군의 긴박한 전투 상황에 따라 공중 화력지원은 다급해 질 것이나 그 요청에서부터 공격기가 전장에 도착하여 목표물을 공격할 때까지 어찌 할 수 없는 지연이 따른다. 현 체제 내에서 보면 화력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위 전투부대에서 차 상급부대로 또 그 상급부대를 경유하여 군사령부까지, 또는 긴급 요청망에 의한 직접요청이라도 전황에 따른 육군 지휘관의 지원 우선순위 판단 또 목표물을 분석하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무장의 선택, 비상출동지시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도 사정이 긴박한 전선 지휘관에게는 긴 시간이며 혹 도중에서의 방해나 누락 역시 염려스러운 요소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군 전선 지휘관은 그 스스로가 즉각 운용 가능한 지원화력을 확보코자 할 것이며 이는 전투서열이나 공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 육·공군의 공격용 Hel기와 고정익 공격기의 선택을 두고 경쟁한 예가 좋은 본보기이다.)

셋째, 근접항공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상군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상군의 능력만으로는 제압키 어려운 목표물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군 화포의 사거리 밖의 주요 목표물이거나 또는 지상군의 화기로는 제압키 곤란한 견고한 목표물 또는 지상군의 화력에 부족이 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목표물들은 통상 견고하고 작거나 위장이 잘 되어 식별하기 어렵고 조용히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공격기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우군과 근접한 경우 오폭의 우려도 있고 전력의 낭비가 예상된다.

넷째, 우군이 공격하여 꼭 파괴하고자 할 정도로 중요한 목표물이라면 적 또한 중요한 전력 요소일 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대공방어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고 전자, 물리적 요소를 동원하여 방해, 저지코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고도에서의 고속이 필요하여지고 많은 기동이 요구되어 지므로 목표물의 식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공격은 점점 더 곤란하여 질 것이다.

다섯째, 적은 평시 우군의 훈련을 각종 수단을 통해 관찰 분석함으로써 우군의 전투 수행 형태, 전술능력을 분석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상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지상 전방 항공 통제관(G/FAC)이 ASOC에 공중공격 지원을 요청할 때부터 공격기가 공격할 때까지 적은 통신을 감청하고 방해 또는 개입함으로써 임무를 불능케 하거나 기만 오도하여 아군의 전투효율을 격감시킬 것이다.

이상은 예상할 수 있는 적과의 관계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군 스스로의 장애요인 또한 심각하다.

첫째, 전선에서의 전투현황에 따른 G/FAC의 기동성의 제한에 의한 관측과 최종공격기 유도에 장애가 있고

둘째, 통신망의 혼선에 의한 임무의 지연 또한 클 것이며,

셋째, 적의 신속한 기동에 대응하여 아군이 신속히 이동, 감시 추적 저지 격파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많은 산악과 강에 의한 장애도 있으며 우군의 충분치 못한 장비 또한 애로의 누적요소가 될 것이다.

가장 긴밀한 협조하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지 합동작전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가 빈번히 있을 것이다. 이의 적절한 해답으로 제공되어져서 여러 해 동안 훈련하여왔고 실제로 전장에서 많이 활약한 것이 바로 공중 전방항공통제(A/FAC)에 의한 근접지원이다.

전쟁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중화력지원을 위한 항공기 또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대지 공격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는 타목적에 전용할 기회가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경제사정이 넉넉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임무에 가장 알맞는 항공기를 각각 구비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전투용 항공기를 여러 가지 복합적 임무에 투입한다. 대지공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목표를 발견 포착하여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전투용 항공기의 고속 높은 고도 짧은 체공시간 충분치 못한 무장 때문에 CAS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A/FAC은 통상 작고 가벼운 기체에 간단한 무장을 하여 FEBA 근처를 천천히 비행하면서 좋은 시계와 충분한 체공 능력을 가지고 전장을 감시하면서 지상군과 협조하여 항공요청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유있는 Radio Network을 이용 통신을 중계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적당한 고도와 속도를 이용하여 고속공격기와 지상간의 Gap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적으로 A/FAC은 공격기 조종사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FAC is The Eye of Striker Pilot)

A/FAC은 또한 지형지세에 의해 제한되는 G/FAC의 통신능력을 보완하여 주고 기동능력을 크게 보충하여 주는 전선의 재주꾼이기도 하다.

A/FAC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격기를 유도 통제하여 지상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AS는 FEBA와 FSCL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이 우군과 인접해있는 목표물이나 많은 육군 장비의 증원에 따르면 전투지역에 우군 항공기가 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는 올라가나 우군 항공기에 의한 우군진지의 폭격은 상대 없는 분통만 터뜨리는 역올함만 쌓인다고 한다. 우군의 전력손실없이 적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최적이므로 A/FAC은 확실한 적의 식

별, 분명한 목표물 지시가 그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A/FAC의 두번째 임무는 육안정찰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투상황과 복잡한 통신망에 의한 지연이 불가피한 전장에서의 지상군 지휘관은 당장 그의 전면에 있을 적의 위협을 알고자 하나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한되므로 체공감시자에 의한 즉각적인 전황, 적 동태 보고는 그의 판단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적의 대공활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중 육안정찰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롬멜의 사막 전자전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호송업하는 저고도 기동 중인 Hel기에 대한 Air Cover를 제공함으로써 Hel기와의 탐색구조에 귀중한 조력자가 되며, 근 10km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 지상군 사단의 이동 공간을 엄호해 주는 공중의 감시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A/FAC은 그 항공기의 특성과 전장의 특성에 따라 Area Jamming을 실시하여 CAS 지역에서의 우군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PGM의 Terminal Control을 담당하기도 하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COIN에 아주 유용한 전력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A/FAC은 왕복엔진을 장착한 소형의 경비행기로서 가볍게 다루어왔고 공격기를 업고서 적을 제압하는 간접적인 지원요소이기는 하지만 전장의 형태 즉 적의 전술 우군의 전술에 따라 경항공기, Hel기 등에 의한 Low Level, Low Speed FAC이 있을 수도 있고 일선 전투임무에서 퇴역한 비교적 낡은 전술기에 의한 또는 공격편대의 일부분을 전용하는 FAST FAC(SCAR 포함)도 운용될 것이고 더욱 발달하면 무인기(RPV)에 의한 전장감시 및 유도통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L/L FAC의 작전 형태는 TOT 이전에 미리 목표지역에 진입하여 G/FAC과 교신하여 표적정보를 받고 전선을 관찰하여 피아를 확인한 후 대공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지상군 지휘관에게 이의 제압을 요구하고 우군의 포사격을 제한하여 공격기의 진입로를 연다. 여기에서는 가장 큰 전제가 적의 대공활동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은 자기의 위치 노출을 꺼려 A/FAC에게 사격하기를 꺼릴 것이다. 하지만 전선이 뚜렷하고 적의 대공위협이 큰 경우에는 이 L/L FAC의 생존성은 극히 저하되고 임무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진다.

적의 위협이 큰 지역에서는 비교적 대지속도가 크고 탑재량의 여유가 있는 FAST FAC이 투입된다. FAST FAC의 기체는 통상 한 세대가 지난 구세대의 전투용항공기를 사용한다. (Ex. OA-4, OA-37) FAST FAC은 L/L FAC에 비해 대지속도가 크므로 저고도 기동에 유리하여 대공화기의 추적으로부터 회피가 비교적 용이하며 여유있는 탑재력으로 대공화기의 제압, 충분한 표적지시로 공격기 조종사에게 표적 확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가 있고 목표지역으로의 진입이 빨라 기습효과 또한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FAST FAC은 체공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인 전장감시는 곤란하고 한 번 이륙에 한 두번의 유도로 만족해야 하는 운용상의 묘가 크게 요구된다. 가장 발달된 형태로서의 FAC은 전자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

는 RPV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인의 원격비행체에 TV Camera를 장착하여 적의 화기 사거리 밖 엄폐된 참호 속에서 전장을 감시하면서 그 정보를 우군 공격기와 연결하여 표적을 공격케 하는 시도이지만 적의 ECM, 위장 등에 취약하여 아직은 실전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야시장비(NOD : Night Observation Device)를 장착하거나 FLIR(Foward Looking Infra Red)를 장비하였을 경우는 전천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큰 방법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헬기나 수송기의 이동 시에는 별도의 FAC 항공기가 제공치 않더라도 그 편대의 조종사가 FAC 역할을 수행하여 같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음을 주지할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A/FAC의 필요성, 의의, 임무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모든 임무에 다 적합한 항공기는 있을 수 없고 다용도 항공기는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A/FAC에 대한 부분을 떼어서 생각할 때 그 임무에 필요한 요구와 추가적인 용도를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1. 유용성

A/FAC은 공지작전에 있어서 공군구성 부분의 최종 명령전달자이다. 하여 그는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통신장비와 유용한 항법장비(TACAN, NDB, INS)는 그 필수요소이고 TGT를 식별하기 위한 보조장비로서 망원경을 기초로 하여 TISEO, CAS의 전천후화 요구에 따르고 적의 야간 활동 증가에 따른 야간 가시 장치(LLL TV, FLIR, STAR LF SCPE), 등의 전천후 성능 장비도 그 임무의 성공가능성을 증대 시킨다.

2. 활동성

전선의 긴박도에 따라 CAS는 증가될 것이고 우군의 Air Density는 증가될 것이므로 긴급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와 CAS 임무기로서 불가피한 저고도 활동을 위한 적절한 저고도 기동성이 따라야 한다. 6·25의 기록에 T-6는 상승력의 부족과 항속력의 부족으로 Jet 항공기와의 작전에 애로가 있었고 L-19(O-1)은 저속으로써 적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FAC 임무를 맡기에는 부적함을 경험하였다. (UN 공군사 상(上) 402page, UN 공군사 하(下) 294page-공군본부)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A/FAC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O-1/O-2 등과 같은 전형적인 L/L FAC은 좋은 시계와 긴 체공시간을 이용하여 전선없는 전장인 비정규전에서 자기 노출을 꺼리는 적을 찾아 공격하는 월남전과 같은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였으나(월남 항공전 분석-정참부) 전선이 확정되고 자기들의 위치가 드러난 전장에서 적당한 대공화기가 있고 충분

한 병력과 화기가 있을 때 자기들이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은 A/FAC의 출현을 간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격기와 상대적인 적절한 속도, 기동력, 체공능력은 A/FAC기의 필수조건이다.

3. 생존성

김일성은 6·25의 경험으로 공중공격의 위협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준비를 하여 각 단위 부대에 많은 대공화기를 배치하여 전선에까지도 Radar로 유도되는 각종 대공화기에서부터 병사의 개인화기까지 대공훈련을 하여 왔다. 이는 자구책 없이 최첨단에서 공격기를 유도하는 A/FAC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A/FAC 스스로의 방호와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전력 소모의 방지를 위해서 FAC 항공기에 ECM, ECCM, IRCM의 능력을 구비하면 CAS AREA에 투입되는 모든 전력의 생존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융통성

서두에 이른대로 모두에 다 이를 수 있는 연장은 없다. 하지만 제한된 전력자원(조종사, 항공기, 무장)으로 다각화 되어 있는 적의 위협을 생각할 때 많은 조종사와 많은 댓수의 항공기를 A/FAC 단일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한한다는 것은 지대한 전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적은 정규, 비정규 혼합전술을 배합하여 침공해 올 것이다. AN-2에 의한 강습 전술기에 의한 공격 등 우리로써는 적절한 전력 분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혼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중한 전력 요소인 A/FAC 조종사를 단일목적의 금속적 위치를 지키게함은 낭비임에 틀림이 없다. 보다 융통성이 있어 어느 정도의 무장으로 제한된 공격을 할 수 있어 이동하는 적을 지연케하고 표적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2.75 WP FFA는 Smoke가 부족하여 식별이 어렵고 백색으로 한정되어 계절에 따라 제한이 크다)-UN 공군사 하(下) page 296 참조-

추가하여 호송엄호 임무나 SAR 임무 등과 차기의 COIN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는 특징있는 기체가 우리 처지에는 절실히 요구된다.

5. 기타

A/FAC은 전투지역을 지속적으로 넘나들므로 심리적인 부담이 크고 지상군 공격기, CRC, ASOC 등과 계속되는 Radio 교신 지점 파악 지도읽기 공격자료 산출 등 복잡한 업무가 항공기 내에서 계속되므로 단좌보다는 복좌가 편리하고 전후방석 보다는 좌우로 앉는 형이 좋으나 전투소모가 높고 반대편 조종사쪽의 시계가 나빠지는 것이 흠이긴 하다. 또 조종사 편의시설로 Cabin Condition Control이 가능하고 잠음정도가 낮아야 피로도가 덜하며 대적 노출이 적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전투는 개개인 전투기량의 우수함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System의 우수성이 전투의 성패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여 무기체계의 우수성은 그 무기성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운용자의 실력에 크게 좌우된다. A/FAC 조종사는 공격기를 통제해야 하므로 공격기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함은 물론 공군 명령권의 최후 집행자이므로 작전개념 전술, 무장성능 및 작전지역에 대한 일반적 상식까지도 능통해야 한다.

끝으로 전장에서 공군력의 현장 지휘관인 A/FAC는 적 대공화기의 발달과 우군 공격능력의 발달로 점점 그 형태를 달리해가서 L/L FAC 보다는 FAST FAC으로 변모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전투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공격기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켜 공격기겸 FAC으로서 Seek & Destroy 형태로 발달되어 간다. 우리 공군 역시 특정한 목적에 알맞도록 개발된 항공기에 전술을 맞추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욕적인 태도를 벗어나 전쟁 형태에 따라 그 개념에 알맞는 항공기를 개발 획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항공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전투조종사(優秀戰鬥操縱士)의 조건(條件)

박 범 진 (朴范鎭) 역(譯)



「공중전을 제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전투기 조종사라면 누구나 에이스를 동경(憧憬)할 것이다. 특히 2차대전 중에는 전투비행부대의 활약이 연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당시 미군의 전투기조종사는 훈련시간 350~400시간 정도의 예비학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결코 우수한 조종사는 아니었고 동기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기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기 과정을 종료하여 일년이 되고 조종시간도 600시간을 넘게 되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설마 남들에게 뒤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거기에다 선배들의 이야기에 도 자극을 받았다.

“그라만(Graman)은 우리 하야부사(준(準), 일본의 전투기명)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속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선회와 상승은 하야부사가 낫지. 그리고 선회전투만 안하면 하야테(질풍(疾風), 일본의 전투기명)로도 충분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은 산산히 깨져버렸다. 선배들의 충고는 F-4F를 두고 한 말이고 미군에서는 벌써 그라만 F-6F호 기종전환(機種轉換)을 하고 있었다. 모양은 같지만 성능은 획기적으로 향상돼 있었다. 무장의 질과 양, 거기에 조종사도 경험을 쌓고 숙련도도 높아져서 모든 점에서 일본 전투기와는 커다란 차가 있었다.

전후 22년이 지난 후 서독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 독일은 에이스의 「보고(寶庫)」이다. 그 유명한 할트만은 당시 쾰른의 공군국(空軍局)에서 전력평가반의 중령으로 근무하며 당시 실의(失意)에 빠져 있었다.

가란트는 콜름사(社)의 지배인이었고, 슈타인호프, 랄, 콜핀스키, 발크호른 등등 쟁쟁한 대에 이스들은 공군의 수뇌부에서 가끔 얼굴을 맞댈 기회가 있었지만 공중전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격추담(擊墜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항상 화제를 바꾸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것 같지만 대(大)에이스로서의 영광을 일생 어깨에 지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쟁 중의 영광으로부터 일전(一轉)하여 전후의 좌절감, 전사(戰死)한 부하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 그리고 매회의 출격이 100% 후회가 없는 임무 수행이었던지 어떤지 인간인 까닭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수년 전 일본을

방문한 슈타인호프를 만났다. 퇴역한 그는 솔직하게 전쟁 중의 이야기를 했다. 책임 있는 지위를 떠난 해방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에이스가 되었을까? 항공역사가 시작한 이래 에이스라 하면 독일이 단연 기타 제국을 압도하고 있다. 제1차대전시의 리히트호엔의 80대 격추로부터 제2차대전시에는 할트만의 352대를 톱으로 하여 100대 이상을 격추한 에이스를 100명 이상 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뢰크의 75대, 미국에서는 리처드 봉크의 40대, 소련은 코세도프의 62대, 일본에서는 니시자와 히로요시(서택광의(西澤廣義))의 70대가 최고이다.

초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과(戰果)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법 자질 신념……

79년 봄 퇴역을 기회로 9년만에 독일을 방문하여 옛친구들과 재회했다. 거기서 슈타인호프에게 몇 개의 질문을 했다.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어떠한 전법으로 싸우셨습니까?

전투기 조종사에게 있어 최초의 10~20회의 공중전에서 살아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운도 따릅니다. 나의 체험으로 보면 편대에서 뒤떨어져 있는 미숙련자이고 경계심이 부족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빨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2.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구비해야 합니까?

우선 첫째로 강인(強韌)한 정신력과 뛰어난 센스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조종사는 금방 신경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공중전에서 용맹과감하게 공격하는 자는 유리합니다. 주저하는 것은 적의 눈에 약하게 보입니다. 에이스는 스포츠로 잘 단련되어 있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어떠한 신념과 방침으로 부대를 지휘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왕성한 공격정신과 격추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편대장만이 격추 찬스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부하조종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여 우정으로 맺어진 굳은 단결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76대를 격추하고 전사개인(戰史個人)으로서도 발군(拔群)의 무공을 지녔을 뿐 아니라 9,500대를 넘는 독일 공군 제1위의 부대격추전과를 올린 제77전투 비행단장으로서 그리고 전

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신독일공군을 육성한 그의 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배출한 에이스의 수와 격추기 수 면에서 독일이 단연 다른 제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사람만이 비행적성이 우수할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에이스들의 놓여진 환경의 차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이다. 공군의 임무, 교전(交戰)공군의 상황, 전국(戰局)의 추이, 작전지역의 상황, 상대의 무장성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진 결과이다. 여기서 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조종사 개인의 조건으로부터 써보기로 한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반적인 상황파악」

실전(實戰)에 참가한 시점에서 전투기조종사로서 어느 정도의 기량수준에 달해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평상시의 출격에서 얻은 체험을 소화하고 몸에 배게 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전에 있어서도 기지에 귀환하고 나서 편대장은 공중전의 결과를 설명하고 요점에 관해서 부하를 지도한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중전에서의 피아의 움직임과 그 의도(意圖), 술책(術策)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초기(初期)에는 통상 요기(僚機)이기 때문에 편대장의 행동을 좇아 하면서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전투기 과정을 졸업하고 부대에 부임해도 이 정도의 숙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한 사람의 완전한 전투기조종사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 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부임 후 부대에서 적어도 1년 간 충분한 단련될 필요가 있다.

전쟁 초기까지는 전투기조종사로서 인정받는 것은 훈련기로 조종훈련을 개시해서 3년, 조종시간(비행시간이 아님) 500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전투기 과정 종료 후 그 부대의 기종으로 50시간(2~3개월)의 훈련을 종료하는 것이 최저한의 요구일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 약 250시간만에 전투기 과정을 종료하고 하야부사(준準). 일본의 전투기 명) 부대의 대원들은 부대로 직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 기종으로 나누어져 3~4개월 약 60시간의 훈련을 거쳐 제1선에서 산화(散華)했다. 미군은 전투기과정을 종료한 후 소속부대의 기종으로 3개월 100시간의 훈련을 걸쳐 전선(戰線)에 진출해 왔다.

「전투조종사의 3세대(世代)」

제2차대전 중의 조종사는 대별하면 3개의 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세대는 전쟁발발시 벌써 훌륭한 조종사였던 사람들로 구육군항공(舊陸軍航空)에서의 사관학교 53기생, 소년비행병 6기생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초전부터 각 전선을 전전(轉

轉)하여 마지막까지 싸워 전사해 버리고 극히 일부만 살아 남았다.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베테랑이었다. 가도우(가등(加藤))소장 · 구로에(흑강(黑江))소령 · 낭고우(남향(南郷))소령 · 시노하라(소원(篠原))준위 · 가나이(금정(金井))중위 등이고 독일에서는 가란트 · 델다스 · 랄 · 발크호른 · 슈타인호프, 소련의 코쉐도프 거기에 일본의 에이스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제2세대는 전쟁 중에 전투기조종사가 되어 실전의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로 사관학교 56기, 소년비행병 11기, 비행학생 91기 정도까지인데 57기와 특별조종견습사관 1기생의 일부 소년비행병 13기의 일부를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이 세대는 매우 폭이 넓고 전쟁발발시에는 비행훈련 중이었고 전쟁발발 후 2, 3개월부터 공중전에 참가하여 말기에는 전대장(戰隊長)근무를 한 54기부터 아직 요기(僚機)였던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전황(戰況)이 점점 어려움을 더해가는 전쟁중기 이후에 부대의 주전력이 되어 종전까지 시종 제1선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해당된다. 당연히 에이스는 옛날일 수록 더 많고 제1세대를 능가하는 에이스들이 혜성(彗星)처럼 나타났다. 스미노(우야(隅野))대위, 이케이(생정(生井))소령, 나까무라(중촌(中村))중령, 사사끼(좌좌목(佐左木))상사 등이고 독일에서는 할트만, 말세이유, 리헤르트 등이다. 옛날의 조종수첩을 펼쳐보면 나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기본 조종 10개월 125시간
- 중등교육 82시간
- 고등교육 43시간
- 아까노(명야(明野))비행학교 6개월 130시간

97형 전투기, 졸업전 “하야부사” 미습자(未習者)훈련 4개월 97형 전투기 “쇼우끼(일본비행기명)” 그리고 비행 340시간이 채 못되어 57기생의 교관이 되고 있다. 미군 조종사가 제1선에 나온 비행시간과 거의 동등하다.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지만 공중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 50시간 정도의 추가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세대의 조종사는 전쟁 말기에 전투기 과정을 졸업하고 급거 제1선에 보내진 사람들이다. 하루하루의 체험을 몸에 배게 하는 기초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중전에 참가해도 상황 파악을 못한다. 타기(他機)와의 협력도 못하므로 쉽게 적에게 먹혀버린다. 결국 특공대원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동경(憧憬)의 전투기조종사가 된 이상은 마음껏 만족스러운 공중전을 하고 싶다. 초진(初陣)이 폭탄 유도장치의 대용품(代用品)이란 것은 너무 불쌍한 이야기다.

1943년 후반에는 기본조종이 60시간, 그것도 중등훈련은 폐지하여 처음부터 저익단엽전금속제(低翼單葉全金屬製)인 99고등훈련용이 되었다. 전투기 과정도 5개월 약 6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정규교육과 비교하여 기간 비행시간 모두 ½이 되어 버렸다.

우수한 적성을 가진 자는 그런 속에서도 희망하던 기량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격 등에서는 훌륭한 명중률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공중전에서는 훈련부족이 뚜렷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감각과 판단력을 단기에 체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구육군 전투기 부대에서는 내가 아는 한 200시간 이하의 조종사는 공중전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개죽음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조종사들의 방해 내지는 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와 행동을 같이 했던 것은 특수조종 1기생 중 우수한 자들 뿐이었다.

독일 공군에서는 1944년이 되면 총 비행시간 70시간, 그 후에는 40시간의 조종사까지도 속속 제1선에 보내졌다. Me-109란 비행기는 랜딩기어의 철간(軸間)거리가 좁고 익면하중도 커서 이착륙도 그리 쉽지는 않다. 이 조종사들은 이착륙도 만족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회의 출격을 견딜 수 있었던 자는 적었다 한다. 전사한 자는 왜 격추 당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연료부족에 추가하여 전국토가 공습 당하여 훈련감소도 여유가 없었다. 훈련없이 실전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미친 것이라고 뿐만 할 수 없고 그 실체는 특공대와 다를 바가 없다. 승산이 있을 리가 없다.

미군에서는 제3세대 조종사는 물론 제1선에는 안 나왔다.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확실한 기초를 쌓은 후에 내보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저력이다.

「훈련내용이 전장(戰場)에서 나타난다」

300~400시간의 비행훈련이라 하더라도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어떠한 내용의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성적으로 비행클럽과 같은 비행체험은 전투기조종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연습기를 타기 시작한 후 하루하루의 훈련은 본인의 기량의 극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힘을 빼고 휴식하는 것은 금물이다. 내가 전투지역에 도착해서 신고를 끝내자마자 1년 선배인 제1중대장 모리노(삼야(森野))중위가 이렇게 말했다.

“야! 아까노(명야(明野))에서 교관을 하다가 온 자식은 1주일도 못 남아나, 학생 상대하고는 얘기가 틀려, 정신 똑바로 차려!” 내심으로 반발을 느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긴급발진 요격을 나가면서 긴박한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동기생들보다 100시간이나 비행시간이 많았지만 그 내용은 학생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전투와 사격, 표적기의 역할, 페리(Ferry)이며 기량향상과는 별로 관계없는 비행시간이다.

쇼우끼(일본비행기명) 중대에서의 교관훈련은 주 2회 뿐이고, 그것도 중대장 요기로서 직접 판단 행동하는 경험은 없었다. 더우기 하야페(질풍(疾風))는 출발할 때까지 5~6회 탑승했을 뿐 전투지역까지의 항법이 관속훈련과 같은 것이었다. 부대에서 단기전투(單機戰鬪)로 가혹한 훈련을 받고 편대장으로서 전화(戰火)를 뚫고 나온 자들이 우러러 보였다.

매일 극도의 훈련을 강요하고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관도 열심히 해

야 된다.

이런 시기에 기량 이하의 느긋한 훈련을 하고 있으면 기량의 발전이 중지되어 버린다. 반면에 비행기의 조종에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전투기다운 조종은 피하려하고 멋진 부리는 비행만을 익혀 버리게 된다. 돌진공격을 예로들면 상대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최고성능을 발휘하여 고속, 그리고 박력있는 돌진으로 충동을 각오하고 육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뱃심이 두둑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포락 기지에서 그라만의 대지공격을 받았다. 20도 정도의 급강하로 직진하여 들어 올렸을 때 지표 2~30미터까지 내린다. 박력 만점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느꼈다. 이와 같은 엄한 훈련을 통하여 이 시기에 전투기조종사로서의 기질이 양성되는 것이다. 능력극한의 훈련은 훈련 후의 만족감, 시원한 해방감, 그리고 여러 선배와의 인간적 접촉을 통하여 “전투기조종사”의 기질이 몸에 배어진다.

「숙련조종사의 결핍과 전환교육」

전쟁 말기에는 일본, 독일 모두 중대장급 이상의 숙련 전투기조종사의 보충에 고심하고 타병과의 조종사를 단기 전환교육을 하여 전투기로 전과(轉科)시켰다. 폭격 또는 정찰기로 이미 숙련조종사가 되어 있는 자들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수색전, 공중전, 사격에 있어서 본래의 전투기조종사로 변신하는 것은 일부 뛰어난 적성을 가진자들을 제외하고는 곤란했다.

할트만이 그 화려한 전투경력을 통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겨우 1대의 요기 밖에 잃지 않았다는 것(이 한 대도 다치지 않고 생환했으므로 1명의 요기도 전사시키지 않았다)인데 이 요기가 폭격기로부터 전과한 카피트 소령이다. 32세라는 그의 연령은 전과(轉科)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계속 조종사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 유일한 길이었다.

카피트 자신은 전환교육이 그에게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 것은 그가 완전히 폭격기의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할트만의 비행편대에 온 것은 전쟁 말기의 1945년이였다. 전쟁 전의 평화로운 시대에 교육을 받는 장교로서 계급은 같아도 당시 22살의 할트만보다 서열은 훨씬 위였다. 그는 꼭 할트만의 요기로서 출격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매일 건의했다.

할트만은 그의 부탁을 거부하고 폭격기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하여 출격하면 반드시 곤란과 위협에 직면한다고 얘기했다. 전쟁은 곧 끝난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끈질기게 고집하는 카피트에게 끝내 져버렸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옆에 딱 붙어서 떨어져 있지 말 것, 급선회시에는 특히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이는 공중전에서는 불가피한 기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격해 오는 2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그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피트를 불렀다.

“바짝 달라붙어 떨어지지 마라!” 이는 미리 내가 지적 설명한 대로의 상황이었다.

적이 사격을 개시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기체를 적에게 향하게 하고 급격한 수평선회에 들어갔다. 카피트는 나의 기동에 따라 올 수가 없었다. 그의 선회는 둔하고 바깥으로 많이 부풀어져 버렸다. 폭격기조종사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180도 선회하여 반대방향이 되니까 카피트와 나는 마치 대진(對進)하는 태세가 되어 버렸다.

“반대방향으로 선회하라!”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이 두 번째의 폭격기식 선회 중에 그의 기체는 피격당했다. 전경과(全經過)를 보고 있던 나는 그에게 명령했다. “급선회하여 탈출하고 낙하산 강하하라!” 지시대로 기동할 수 없는 그에게 나는 화를 내고 있었다. 카피트는 이 전쟁에서 살아 남아 할트만과 마찬가지로 신독일공군에 근무했다. 이 피격의 추억을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후회가 막심했다. 나를 격추시킨 러시아 조종사는 할트만에게 격추 당하여 전사했다. 그는 대위로 25대를 격추하고 내가 26대째 였다. 명백히 그는 나와 같은 초심자는 아니었다. 나는 밤의 「탄생축하파티(전통에 따라서 죽음을 면한 조종사의 생환축하파티)」에서 겨우 기력을 되찾았다”

전투기로 전과한 조종사가 전투정신이 결여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벌써 완성된 폭격대 또는 정찰대 등의 조종사의 기질이 전투기 조종사의 기질을 거부하는 것이다. 맹렬한 탄막(彈幕)속을 폭격 코스에 들어간 폭격대는 오로지 직진(直進)할 뿐이다.

수평(水平) 등고(等高) 등속(等速) 직진(直進) 비행이기 때문에 대공화기의 절호의 목표이다. 경폭대(輕爆隊)는 적함의 굴뚝만을 향해서 공격해 가는 것이다.

적 함대의 대공포화망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떠들썩하다. 1회 출격시는 무사히 귀환했더라도 2회, 3회 출격하면 틀림없이 피격 당할 것이다. 폭격대는 전력(戰力)이 다할 때까지 몇 회이고 출격해간다. 이는 그 병과의 조종사 기질에 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임무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평상시의 훈련과 선배의 충고, 부대의 분위기를 통하여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예외는 경폭기의 조종사이다. 경폭기란 오늘날의 전폭기로서 원래 전투기와는 형제별이므로 약간의 전환교육에 의하여 전투기조종사로 전과했다. 전쟁 말기의 일본 본토 방공전투기 부대의 지휘관급에는 경폭에서 전과한 조종사가 많았다.

제 244전대의 용맹성은 우리들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Ju-87급강하 폭격부대에서 에이스들이 나왔었고 Fw-190으로 기종전환하고 나서는 제공전투기 부대가 되어 활약했고 많은 에이스들을 배출했다.

적임자를 잘 선정하면 많은 에이스가 나올 수 있다. 비행기 뿐만 아니라 한참 클 수 있는 시기에 휴식하고 있어서는 결코 실력은 붙지 않는다. 매일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성(머리)의 좋고 나쁨에 관계 없이 일점집중형(一點集中型)은 진보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활동에 젊음을 발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은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놀아라”

전쟁중(戰爭中)의 일본에서도 예비학생을 ¼ 또는 ⅓을 줄여 우수한 적성을 구비한 사람들을 골라 충분히 깊이 있는 훈련을 실시했었다면 강력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고 많은 에이스들을 배출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공대 같은 셋길로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황(戰況)이 어려워지면 훈련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대개의 경우 훈련 비행시간은 거꾸로 증가한다.

양성조종사 수를 줄이면 연료는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특별 조종 견습사관은 1943년 가을부터 조종훈련을 개시했다. 다음 44년 말에는 미군 조종사 정도의 숙련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수보다도 무선의 질 향상에 보다 힘을 쏟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944년 말은 필리핀 결전이 한창이었다. 미·일 예비학생 조종사의 대결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미숙한 조종사는 100이 모여도 숙련자 1개 편대에 대항할 수 없다. 혼란상태에 빠져 마지막에는 그들 뜻대로 요리되기가 일쑤이다.

공중전에서 인해전술은 통용되지 않는다.

초전(初戰)으로부터 2~3개월간의 공중전에선 살아 남는다.

○ 여유 없었던 F-6F와의 첫 조우(遭遇)

이 2~3개월의 기간 중에 공중전에 있어서의 감(勘)이 양성되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배 조종사들의 지도이다.

어떠한 훌륭한 에이스라도 처음 조종사가 되었을 때는 젊은 미숙자였었고 첫 공중전에서는 누구나 공중전은 미경험이다.

선배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성의있게 지도해 주는 법이다.

그러나, 작전 양상과 부대의 실정이 그런 세심한 지도까지 허용하게 해줄지는 의문이다.

이는 다만 그 사람의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이 없어 생명을 잃는 조종사들도 많이 있다.

전호(前號)에서 설명했던 전투기 조종사의 제2세대 말기에는 이와 같은 불운했던 조종사들이 특히 많았다.

초전(初戰)부터 특공대였던 조종사들은 바로 그런 예였다.

대동아 전쟁 초기까지는 비행시간 500시간이 초전(初戰)의 목측(目測)으로 되어 있었다. 부대장은 예상하는 항공작전의 양상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장 조건이 유리한 찬스를 잡아 젊은 조종사들을 데뷔시켰다.

그리고 베테랑들이 젊은 조종사들의 주위를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점차 공중전에 관속시켰다.

“젊은 전투조종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다란 쇼크를 받지 않고 첫 격추를 해내는 것이다”

<웨나 델다스>

내 경우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다.

베테랑은 거의 전사해 버렸다.

첫 출격부터 편대장으로서 미지의 사태에 대처하여 판단, 결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적과 조우하여 당황한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였다. 적의 의도하는 행동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공중감각이 미숙했던 것이다. 공중전이 개시되면 어느 정도의 훈련은 받았으므로 용감하게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전단계(前段階)에서 대세(大勢)는 결정되어 진다.

이와 같은 감각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베테랑이고 또한, 편대 지도 경험을 필요로 한다. 중대 단위의 훈련은 몇 번이고 경험했지만 항상 요기(僚機)였었고 체험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한 기초기량은 충분치 못했다.

요(要)는 적의 배후에 돌아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능하면 태양을 등에 질 것, 적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적도 유리한 태세를 취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의도를 읽고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서 기동하는 쪽이 유리한 태세를 취할 수 있다.

적은 그라만 F-6F의 4대 편대로 우전방(右前方), 고도차(高度差)는 1,500m 정도였다.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적 진로의 전방을 차단하여 공격하면 태양을 등에 지게 된다. 적도 기동을 개시하고 우상승 선회(右上昇 旋回)로 아군기의 후방으로 돌아서 들어오려 한다.

그러므로 양자(兩者)가 원을 그리게 된다. 점점 고도차(高度差)가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대로 선회를 계속하면 선회 성능이 좋은 그라만의 의도(意圖)대로 되어버림에 틀림없다.

어떻게 할까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도(高度)의 우위(優位)가 있는 동안에 공격을 개시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였다.

F6-F는 도망쳐 버리고, 이것이 적의 함정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30대 이상의 적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이 도망칠 차례였다.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8대가 가지각각으로 흩어져 큰 손해가 났다.

베테랑인 다무라(전촌(田村)) 중위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라만을 충분히 끌어들이며 스로틀을 전폐(全閉)하고 플랩을 내서 급감속을 하고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사격을 해서 격추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 계급 이전에 전과(戰果)가 우선(優先)이다.

이 부근의 사정을 슈타인호프는 「시시리섬 공중전기(傳記)」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돼서 아군의 젊은 조종사는 고작 몇 회의 출격 횟수로 전사(戰死)해 버리는 것일까? 우리 같이 늙은 조종사도 옛날에는 젊은 조종사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처럼 힘든 환경에 점차적으로 관속해 왔다. 그러므로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도 놀라지 않는다. 보충요원으로서 부임한 조종사는 자신에 넘쳐 활발히 행동하고 말도 많이 한다.

최초의 출격에서 경악(驚愕)이 그들의 사지(四肢)에 퍼져간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히 말이 없게 된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편대의 최후미(最後尾), 또는 바깥쪽의 포지션에서 비행한다. 그곳은 특히 위험한 포지션이다.

수많은 공중전을 거쳐 비로소 2대 또는 4대의 편대를 인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은 편대 속에서 주어진 포지션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오랜동안 장남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그들은 적을 만나 전투 개시를 할 경우 적아의 태세를 간단히 꿰뚫어 보지를 못한다. 공간에 대한 본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 그들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어 버리게 마련이다. 적 전투기의 조종사는 그들의 공중전의 경험으로부터 이쪽의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벌써 초심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 탈출이라든가 불시착 등으로 그들이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재출격시켜야 한다.

만약 천천히 시간을 주어버리면 그들은 이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할트만이 신인 조종사로서 동부전선의 제52전투비행단에 착임하여 단사령(團司令)인 라바크 소령에게 신고했을 때 그는 상대를 뚫어 보는 듯한 파란 눈으로 신입자(新任者)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공중전에서 전과를 올리려면 근육보다도 머리를 써서 비행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까지 자네들이 받은 훈련은 전투 중의 기동을 마스터하는데 유효했었다. 러시아에서 살아 남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네들은 머리를 써야만 돼. 공격돌진(이것이 아니면 전과를 올릴 수 없다. 그러나 공격정신은 냉정 신중하게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행에 있어서는 우선 머리를 쓰는 것이 제1이고 그 다음이 근육이다.」

또한 제3비행군사령 휘 · 보닌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는 전과(戰果)만이 통한다. 계급이라든가 지위 등은 통용(通用)되지 않는다. 지상에서는 물론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여 계급 지위에 따른다.

그러나 공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전과를 올리고, 조종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자만이 부대를 지휘한다.

이 법칙은 전원에게 적용된다. -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나보다 격추대수가 많은 하사관과 함께 작전비행을 할 경우 편대장은 그 하사관이다.

그러므로 누가 전투 중의 지휘를 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자네들은 거의 대개 하사관과 함께 비행하게 될 것이다. 하잘 것 없는 계급에 구애되어 공중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와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휘 · 보닌은 스페인의 시민전쟁(市民戰爭) 중 「콘돌 의용비행대(義勇飛行隊)」에서 4대, 영국 본토 주변의 공중전에서는 제54전투항공단에 소속되어 9대,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40대 이상을 격추했다. 당시 32살로서 노련하고 날카로운 센스를 갖고 있던 조종사였다.

○ 주도권(主導權)을 쥐는 베테랑 조종사

일본에서도 하사관이 편대장이고, 장교가 요기(僚機)인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말기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편대장이 되는 것은 역전의 베테랑 하사관에 한정되고, 요기가 되는 장교는 신참조종사였다. 군대의 규율을 중시하여 장교는 장교의 요기(僚機)로 붙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무선이 통하지 않으므로 요기에 적절한 지시를 할 수가 없고, 요기는 편대장의 의도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므로 베테랑의 임무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관련한 상황에 직면하면 편대 속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베테랑이 자연히 주도권을 쥐게 된다.

군대의 규율은 지켜야 하리라 생각하지만 독일 공군의 경우는 무선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적절한 지휘가 가능했을 것이고, 개인의 전과(戰果)를 극도로 찬양하는 것을 사기 양양책의 최종점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할트만의 편대장이 되었던 것이 로스만 상사이다. 팔의 부상 때문에 Dag Fighting을 단념한 그가 몸에 익힌 기습일격이탈(奇襲一擊離脫)의 전법이 할트만에게 준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로스만은 요기를 육성하는 면에 있어서도 드물게 보는 명편대장이었다. 신참 조종사를 천천히 시간을 두어 공중전에 익숙케 하도록 배려하는 편대장이 점점 적어지고 그들의 대부분이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이렇게 떠들어댔다.

「나는 적을 격추한다. 요기가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야」

로스만은 어떠한 혼전(混戰)에서도 요기를 무사히 귀환시켰다.

할트만이 로스만의 요기가 되었을 때 중대(中隊)의 장교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이는 최고의 남자다. 80대 이상을 격추한 명사수다. 틀림없이 무사히 요기를 인솔하여 귀환한다. 나는 로스만과 편대를 짜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할트만의 시작은 매우 행운스러웠다. 말년에 그 자신이 요기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로스만의 강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2세대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초기의 조종사들은 많은 선배 베테랑에게 둘러 싸여 있었지만 말기가 되면 대부분의 베테랑은 전사해 버리고 초진(初陣)부터 힘든 환경 속에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부대장은 가능한 한 배려를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 이 조종사들은 훈련(戰訓)을 연구하고, 매번 스스로 전법(戰法)을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말로 머리를 쓸 줄 아는 자만이 살아남고 에이스가 될 수 있었다.

전선에 도착한 그날밤 동기생인 와끼모리 중위로부터 실전에서의 마음가짐을 조용히 전달 받았다.

「일주일은 공중전을 회피해라, 비겁하다고 남들이 말해도 신경쓰지 마라. 우선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결국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교육훈련 때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살아 남을 수 없어」

P-38에 대해서는 빠른 회피기동(回避機動)을 개시해라. 1,000m정도의 원거리로부터 사격을 하기 때문에 훈련과 같은 타이밍으로는 틀림없이 당한다.

적기 기수를 이쪽으로 향할 때 뱅크에 넣어 기수가 향하면 조종간을 앞으로 힘껏 당긴다. 전투 중에는 엔진을 전개(全開)하고 350km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라.

상승한 정상(頂上)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B-24에 대해서는 전방공격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속도가 빠르므로 후방공격은 쫓아가는 형태가 되므로 적의 미부기관포(尾部機關砲)에 당하기 일췌이다. 적과 접근할시에는 2,000m 이내에 다가가지 마라」 등등이었다.

임무상 일주일씩 공중전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당면한 직후의 이 충고는 절실히 마음에 느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요기의 경우는 대개 조종시간이 짧고, 편대장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도 힘에 겨워 전반적인 태세를 볼 여유가 없으므로 교훈(敎訓)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편대장 역시 공중전의 양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훈을 그대로 살리는 조건에 놓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교훈(敎訓)을 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응용능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환경하에서도 이를 견디어 성장하는 조종사와 그렇지 않은 조종사가 있다.

결국은 본인의 연구 노력과 센스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필승의 형(型)을 몸에 배게 할 것

○ 필승 전법을 갖는 에이스들

대 에이스가 된 조종사들에게 공통된 점은 필승의 형(型)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도와 같은 격투기나 씨름 선수도 이 형태가 되면 절대로 지지 않는 자기 독특한 자신있는 형을 갖고 있다.

부대의 손실이 크고 조종사가 대량으로 전사해 가는 속에서도 일부 베테랑들은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

오늘 전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리 뛰어난 그라드 명운(命運)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연료가 다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로 귀환해 온다. 피탄(被彈) 상황으로 봐서 매우 불리한 전투였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신기하게도 치명상이 없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칼날 몇 cm 앞을 예상하여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아슬아슬한 기동에 의하여 상대를 자기의 페이스로 몰고가 가장 적절한 전법을 취한 여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뭏든 나도 베테랑들의 흥내를 내기로 했다.

편대는 이륙하기 전부터 캐노피를 닫고 이륙하면 우선 바퀴를 올리고 초저공에서 가속을 한다. 그리하여 언제 적과 마주쳐도 싸울 수 있는 상태의 속도가 붙으면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승은 적이 날아오는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결코 서둘러서 고도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고도 7,000m 정도가 돼서부터 적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가능한 한 태양을 등에 지고 적과 접근을 개시한다.

적의 4발중폭격기(4發重爆撃機)와 함재폭격기군(艦載爆撃機群)은 몇 개의 편대로 분리되어 파상 공격(波狀 攻撃)을 걸어온다.

그 제일 후미의 편대를 노린다.

그러나 그 뒤의 후속편대(後續編隊)가 있을 경우는 공격을 중단하고 다시 태양쪽으로 퇴피(退避)한다.

적 엄호(掩護) 전투기의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되돌아 서서 폭격기와 엄호 전투기의 마지막 편대가 귀환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각기(各機)가 각각 목표를 정하여 전속(全速)으로 공격을 개시한다.

공격은 오로지 단 한번의 일제사격 뿐이다. 정중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돌아서서 퇴피(退避)한다. 베테랑일수록 이 부근의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미숙련자가 하면 즉시 적전투기(敵戰鬥機)에 붙잡혀 버린다. 어딘가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敵我)의 전반적인 태세를 읽는 능력의 차이다.

적 엄호전투기에게 쫓기는 상황하에서도 상대를 잘 보고 이 사격은 명중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도망치는 기동은 하지 않는다.

막바지에서는 적이 아무리 많거나 태세가 불리하더라도 연료가 남아 있는 한(限) 버텨 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적은 장거리(長距離)를 비행해 왔기 때문에 장시간(長時間)의 전투는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매회(每回) 생환(生還)하여 오고, 때때로 격추(擊墜)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부근의 숙련도가 베테랑의 숨은 능력인 것이다.

○ 할트만과 포크류스킨

할트만이 터득한 필승(必勝)의 전법(戰法)은, 기습과 최근거리(最近距離)로부터의 일격필추(一擊必墜)였다.

그는 이 전법(戰法)의 순서(順序)를 다음과 같이 定했다.

“적기발견(敵機發見)” - “행동결정(行動決定)” - “공격(攻擊)” - “이탈(離脫) 또는 중단대기(中斷待機)”의 4단계(段階)이다. 적이 아군(我軍)을 발견만 하지 못하면 승부는 벌써 난 것이다.

최량(最良)의 태세(態勢)로 기동(機動)하는 것보다도 돌풍(突風)과 같은 기습공격(奇襲攻擊)을 가한다. 적(敵)과 아군(我軍)이 모두 발견시에는 우선 적의 의도(意圖)를 읽는다.

적아(敵我)의 태세와 적의 기동으로부터 재빨리 그리고 정확히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 쪽이 주도권(主導權)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퇴피귀환(退避歸還)까지의 계획을 즉시 세워 바로 유리한 태세로 기동을 시작한다.

적기동(敵機動)의 개시(開始)를 빨리 알아차려 적을 항상 전방(前方)에 두도록 한다. 배후(背後)로 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수적(數的)으로 적(敵)이 우세(優勢)할 경우는 협격태세(挾擊態勢)가 되기 전에 공격(攻擊)을 완료(完了)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격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전반(全般)의 태세를 확인한다. 불리(不利)하다고(예를 들어 다른 적기(敵機)가 배후(背後)에 있을 경우) 판단하면 공격을 중단(中斷)하여, 일단(一旦) 이탈(離脫)하여 퇴피(退避)하고, 다음 찬스를 기다린다.

할트만이 대선배(大先輩) 케이스들을 짓히고 Top ACE의 좌(座)에 앉게 된 것은 이 신전법(新戰法)을 개발(開發)하고, 마스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반태세(全般態勢)의 판단, 기습공격은 반드시 할트만만의 전매특허(專賣特許)는 아니다.

이것은 공중전(空中戰)의 대원칙(大原則)으로 나도 학생 시절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Dog Fight는 결코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열세한 병력으로 Dog Fight를 해서는 언젠가는 명운(命運)이 끊어질 날이 꼭 온다.

가능하면 누구나 할트만과 같이 깨끗한 기습공격을 하고 싶다. 이 대원칙(大原則)을 실증(實證)해 보인 기간(機眼)과 행동력(行動力), 여기에 할트만의 비범(非凡)함과 Top ACE가 된 이유가 있다.

59대를 격추한 포크류스킨은 62대 격추의 코쉴도브에 이어서 소련 공군 제2의 ACE이다. 그도 기습공격의 신봉자(信奉者)로 그 전법(戰法)은 할트만과 매우 흡사하다. 그도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공중전(空中戰) 원칙(原則)을 확립했다.

“고도(高度),” “속도(速度),” “기동능력(機動能力),” “화력(火力)”이다.

그의 원칙은 전법(戰法)이라기보다는 전기(戰技)의 원칙(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상당(相當)히 장기(長期)에 걸쳐 독일 공군 제52전투항공단과 싸웠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할트만과 교전(交戰)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확증은 없다.

만약 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헛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끝났거나, 또는 서로 교전(交戰)을 했어도 승부가 나지 않고 끝났을 것이다.

○ 기습(奇襲)으로 인(因)한 아군(我軍)끼리의 혼전(混戰)

기습공격(奇襲攻擊)의 최대(最大)의 이점(利點)은 적(敵)에게 주는 심리적(心理的)인 쇼크가 매우 크다는 점(點)이다. 이 쇼크는 때로는 파닉크까지 발전되어 수습불능(收拾不能)의 대(大) 혼란(混亂)에 빠져 서로 판단(判斷)이 틀려 같은 편 끼리의 공중전(空中戰)을 벌이는 일도 있다. 저자(著者)도 위험하게 한 번 당할뻔 한 적이 있다.

공중전에서 편대가 뒤섞여 요기(僚樹)와 그대로 귀환 중이었다. 우전방(右前方) 1,000m 정도의 상공(上空)을 접근하여 오는 한 대의 소형기(小型機)를 발견했다.

단기(單機)로 가지 부근을 비행하는 것은 공중전(空中戰)에서 귀환하는 우군기(友軍機)임에 틀림 없다. 비행기의 모양으로 봐서 해군(海軍)의 시덴(시전(柴電))으로 알고 그대로 귀환을 계속했다. 기지가 가까와 오며 따라 긴장이 풀리고 일종(一種)의 방심(放心) 상태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우익단(右翼端)에 섬광만 한 덩어리가 날아가고 기체 오른쪽을 검은 그림자가 급상승(急上昇)으로 빠져 나갔다. 경악(驚愕)이 번개와 같이 전신(全身)을 스쳐가고, 반사적(反射的)으로 스포트를 전개함과 동시에 기체를 왼쪽으로 선회시켰다. “그라만이다” 문득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급상승하는 적을 보고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그 뒤로 붙었다. 적은 나를 잃어버렸는지 날개를 좌우로 흔들며 찾고 있다.

절호의 추미태세(追尾態勢)이다.

급강하이탈(急降下離脫)하려는 적의 배후로 돌아서 발포하려고 하면서 놀랐다.

날개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지 않은가! 시덴(시전(柴電))이다.

시덴(시전(柴電))이나, 그라만 모두 같은 정도의 크기로, 형태도 매우 비슷하다.

그대로 비행하던 우리를 그라만과 오인(誤認)했음이 틀림없다. 보니까 시덴(시전(柴電))은 날개를 흔들고 있다. “미안!” “미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날개를 흔들고 떠났다. 이것은 사사로운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할트만과 같은 기습의 명인(名人)에게 걸렸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무스탕”군(群)은 할트만 편대의 하방(下方) 약 1,000m, 소련 엄호전투기 편대의 상공(上空) 약 1,000m를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할트만의 편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태양을 등에 지고 유리(有利)한 고도(高度)를 차지하고 있던 그는 기습공격을 감행하는데 이 상적인 위치였다.

소련기와 미군기는 자기의 배후를 경계하는 것을 잊고, 서로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라디오에 대고 소리쳤다.

「공격은 한 번 뿐이다. 급강하를 하여 우선 “무스탕”군(群) 다음에 소련 엄호전투기군(群), 그리고 폭격기군(群)을 뚫고 나간다!

2대의 Me-109는 엔진을 전개(全開)하여 “무스탕”군(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후미의 무스탕에 번개와 같이 접근하여 전포화(全砲火)의 일제사격을 가했다. 그의 기체는 몸을 흔들리게 할 정도였다.

이 P-51은 잠시 가만 있다가 기수를 들고 이어서 뒤집어지면서 연기를 뿜으며 기체의 파편을 날리면서 추락해 갔다.

이 조종사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것이다. 얇은 선회로 다음 목표에 접근한 그는 적의 기체 마크가 전면 캐노피 가득히 되었을 때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이 P-51은 엔진을 피격 당하여 물을 하면서 그의 옆으로 떨어져 갔다. 시커먼 연기를 뿜고 파편을 날리며……

엔진을 전개(全開)하여 소련 엄호전투기군을 뚫고 폭격기군을 공격한다.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명중!

그러나, 격추까지는 안 갔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 수평비행으로 되돌린다. 요기는 그의 옆에 붙어 있다. 엘리먼트 편대(2대)가 미·소 편대군을 뚫고 따라왔다. 다시 4대편대를 짜고 전속력으로 전장(戰場)을 이탈했다. 기체의 위장무늬 덕분인지 적은 아직 독일기(機) 편대를 발견 못했다.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뜻하지 않던 광경을 보았다.

미·소 양 전투기군이 뒤섞여 공중전을 전개하고 있지 않는가! 평소의 불신감(不信感) 때문에 서로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당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소련 폭격기대 조종사들 사이에 파닉이 일어났다.

그들은 탑재했던 폭탄을 긴급 투하하고 즉시 기수를 돌려 도피기동(逃避機動)을 시작했다.

미·소의 공중전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다. 수십대의 전투기가 혼전하는 속에서 3대의 “YAK”기가 불이 붙어 추락해 간다.

한편 한 대의 무스탕이 연기를 뿜으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너무 놀라서 멍청해 있었다. 기지에 귀환하는 도중에 이런 뜻밖의 전과를 올려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는 공중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를 실증 할 수 있는 자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필승의 전법을 짜내고, 이를 실증해 보이는 곳에 대 에이스의 진가(眞價)가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무장(武裝)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과 전훈(戰訓)을 연구하여 적을 아는 것 등등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의 형성(形成)배경과 그 실태(實態)

홍종도(洪鍾道)

1. 서론(序論)

우리는 남북(南北)이 분단(分斷)된지 36년(年) 동안 줄곧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에 의한 무력침공(武力侵攻) 위협과 사상(思想) 및 심리전(心理戰)을 통한 간접침투에 대한 방어에 진력해오면서도 그들의 실체(實體) 및 실태(實態)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면서도, 당면한 적(敵)에 대해서는 감정적(感情的)인 측면(側面)에서만 “공산주의(共產主義)는 나쁘다”, “북한(北韓)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은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과 고유(固有)의 전통(傳統)을 말살시키고, 유일사상(唯一思想)에 의해 인민(人民)들을 맹신적(盲信的) 도구(道具)로 만들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을 신격화(神格化)하고 있다”고 비판과 비난은 하면서도 과연 그들이 공산주의(共產主義) 국가(國家)에서 “최고(最高)의 이념(理念)”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는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어 근본적(根本的)으로 억제(抑制)하고, 반대(反對)할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精神的) 무장(武裝)과 능력배양(能力培養)에는 소홀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무엇이며, 어떤 형성과정(形成過程)을 가져왔는지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여야 하겠다.

2. 본론(本論)

가. 정의(定義)

원래 주체(主體)라 함은 인간(人間)으로서의 결심(決心)을 결정(決定)할 수 있고, 자신(自身)의 변혁(變革)을 추구(追求)할 수 있는 요소(要素)를 포함하여 인식(認識)하고, 이해(理解)를 전개(展開)하고, 자기(自己)의 의견(意見)을 발표(發表)하고, 논리적(論理的) 결단(決斷)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主體)란 개인(個人)의 기본적(基本的)인 심성(心性)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인간(人間) 개인(個人)의 주체(主體)를 인정(認定)하지 아니하고 “당(黨)의 주체(主體)”를 강조(強調)하여, 모든 것의 결정(決定)은 당(黨)에서 하도록 하는데 북한(北韓)에서는 당(黨)의 주체(主體)가 아니라 “김일성(金日成)의 일인주체(一人主體)”를 강조(強調)하고 있다.

즉,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 철학강좌에서 주체(主體)란 “김일성(金日成) 사상(思想)”을 말하며, 주체사상(主體思想)이란 “인민대중(人民大衆)을 혁명(革命)하고, 건설(建設)하는 것으로서 김일성(金日成)에 의(依)해 창시(創始)되고, 김일성(金日成)에 의(依)해 지도(指導)되는 것”으로서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 이 네 가지를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實現)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人民)은 자기(自己)가 사고(思考)하고,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金日成)의 사상(思想)과 의지(意志)대로 사고(思考)하고,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구현(具現)인 당정책(黨政策)과 노선(路線)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實踐)하는 것”¹⁾이라고 규정(規定)하여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정의(定義)하고 있다.

나. 주체사상(主體思想)의 형성배경(形成背景) 및 과정(過程)

북한(北韓)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마르크스(Marx) 이래 아무도 해결(解決)하지 못한 어려운 이론적(理論的)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한 것이라고 설명(說明)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 주의(主義)에서 이탈할 수 없는 현실상황(現實狀況)을 고려하여 “마르크스·레닌 주의(主義)를 북한지역(北韓地域)에 창조적(創造的)으로 적용하고 있다”²⁾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北韓)에서 주체(主體)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50년대(年代) 중반부터이다.

즉, 한국전쟁(韓國戰爭)을 계기로 하여 소련(蘇聯)일변도였던 외세(外勢)가 중(中)·소간(蘇間)에 균형을 이루고, 중(中)·소간대립(蘇間對立)이 나타났으며, 1953년(年) 2월(月)에 스탈린(Stalin)이 사망(死亡)했고, 김일성(金日成)을 추천했던 베리아(Beria)가 숙청당했으며, 56년(年) 6월(月)에는 유고의 티토(Tito)가 자주노선(自主路線)을 천명했음에도 흐루시초프는 티토를 두둔했고, 56년(年) 2월(月)에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共產黨大會)에서는 스탈린을 격하(格下)시키는 상황(狀況)까지 일어나는 외세변화(外勢變化)에다가 내적(內的)으로는 김일성(金日成) 세력(勢力)의 확대(擴大)로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를 장악(始作)하기 시작(始作)했고 정치세력(政治勢力)의 안정(安定)을 이루어 반대파 숙청에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내외적(對內外的) 압력(壓力)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력기반(權力基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분(名分)을 창안(創案)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狀況下)에서 김일성(金日成)은 1955년(年) 12월(月) 28일(日) 당선전선동자대회(黨宣傳煽動者大會)에서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를 주장(主張)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당(黨)의 선전선동사업(宣傳煽動事業) 4)에서 주체(主體)를 확립(確立)하기 위한 운동(運動)을 전개(展開)하면서, 김일성(金日成)의 “항일 투쟁사”, “혁명사상(革命思想)”을 교양(敎養)시켜 김일성(金日成) 체제(體制)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정통성(正統性)을 수립(樹立)하려 했다.

초기(初期)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증가하여 확고(確固)하게 정권(政權)을 장악하고, 소련(蘇聯) 위주의 각종(各種) 제도(制度) 및 체제(體制)에서 탈피하고, 중공식(中共式)(Chinese Model)을 모방하여 토착화(土着化)를 시도(試圖)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로 확대되면서, 1960년대(年代)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정리했고, 1970년대(年代)에는 종교적(宗敎的)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

1955년(年) 12월(月) 28일(日) 당선전선동자대회(黨宣傳煽動者大會)에서 주장(主張)했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창조적(創造的) 적용이라는 명분(名分)아래 소련식(蘇聯式)이나 중공식(中共式)이 아닌 조선식(朝鮮式)을 주장(主張)함으로써 김일성(金日成) 지배체제(支配體制)의 확립(確立)을 위한 초보적(初步的)인 조치를 시도했다.

김일성(金日成)은 “매개 나라들의 실정(實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당(黨)이므로 그 나라의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당(黨)이 책임(責任)을 져야 하고, 다른 나라 당(黨)의 지배(支配)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자기(自己)의 독자적(獨自的) 두뇌로 문제(問題)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主張)하면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사상적(思想的)으로 자유(自由)로와야 하며, 주체의식(主體意識)을 가져야 하고, “사상적(思想的)인 면(面)에서 사대주의(事大主義), 교조주의(敎條主義), 대국주의(大國主義)를 반대(反對)하고, 민족적(民族的) 자부심(自負心)과 자주의식(自主意識)을 가지며, 자력갱생(自力更生)의 혁명정신(革命精神)으로 튼튼히 무장(武裝)하는 것”인데, 이것은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상(革命思想)인 조소노동당(朝蘇勞動黨)의 정책(政策)으로 무장(武裝)하고, 그것을 사상적(思想的)으로 주체(主體)를 실현(實現)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주체(主體)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自己) 나라의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에 대하여 주인(主人)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혁명투쟁(革命鬪爭)과 건설사업(建設事業)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問題)들을 자주적(自主的) 입장(立場)과 창조적(創造的) 입장(立場)에서 자체(自體)의 힘으로 자기(自己)나라 실정(實情)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립성(自立性)과 창조(創造)를 말한다”⁵⁾

결국(結局) 사상(思想)에서 주체(主體)를 세우기 위해서는

①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뿌리뽑고

- ② 당(黨)의 사상(思想)과 정책(政策)으로 인민(人民)을 무장(武裝)시키고
- ③ 이의 관철을 위해 힘있는 투쟁(鬪爭)을 전개(展開)하고
- ④ 실천활동(實踐活動)을 통하여 당정책(黨政策)의 정당성(正當性)을 확신(確信)시키고
- ⑤ 승리(勝利)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며
- ⑥ 당(黨)에서 지시(指示)하는 노선(路線)에 따라 당정책(黨政策)을 실현(實現)하기 위한 모든 힘을 다해야 하며

⑦ 당(黨)의 노선(路線)과 위반되는 온갖 사상(思想)과 경향을 배격한다고 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김일성(金日成) 일인독재(一人獨裁)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명분상(名分上)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를 창조적(創造的)으로 적용하여 주체성(主體性)을 갖고 당(黨)이 주체(主體)가 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향도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정립기에 들어가는는 당(黨)의 주체(主體)에서 김일성(金日成) 주체(主體)로 변화(變化)되었다.

즉, “자기(自己)의 머리로 사고(思考)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동지(金日成同志)의 사상(思想)과 의지(意志)대로 사고(思考)하고,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구현(具現)인 당정책(黨政策)과 노선(路線)이 가르치는 대로 꾸러 나가는 것”⁶⁾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은 오로지 김일성(金日成)에 의해서만 생각되어 지고 창시(創始)되어 지고 영도(領導)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민대중(一般人民大眾)은 오로지 김일성(金日成) 지시(指示)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모든 역량(力量)을 다해서 맹종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주체(主體) 속에서의 독재론(獨裁論)을 합법적(合法的)으로 전개(展開)하고, 전인민(全人民)들의 위에 군림하는 우상적 존재로 김일성(金日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라.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는 대국주의(大國主義)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내치(內治) 특(特)히 당정책(黨政策)에서 자주성(自主性)을 발휘(發揮)하자는 것으로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정치분야(政治分野)에 구현(具現)한 것이 바로 당(黨)의 자주노선(自主路線)이다.

이것은 1956년(年) 8월(月), 김일성(金日成)의 귀국사업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된 전원 회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 2세대에 의한 김일성(金日成) 축출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사건(事件)을 계기로 하여 김일성(金日成)은 정치적(政治的) 자주성(自主性)을 내걸어 본격적(本格的)으로 반대파 숙청을 단행했으나 소련과 중공(中共)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은 1966년(年) 8월(月) 노동신문(勞動新聞)을 통하여 “큰 당(黨)과 작은 당(黨)은 있으나, 높은 당(黨)과 낮은 당(黨), 지도(指導)하는 당(黨)과 지도(指導)받는 당(黨)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中央的) 지위(地位)에서 지시(指示)하고, 통솔(統率)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허용(許容)될 수는 없다.

그들은 다 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產主義運動)의 동등(同等)한 성원(成員)들이다”.

“세계(世界)의 모든 공산당(共產黨)들의 상호관계(相互關係)에서는 완전(完全)한 평등(平等), 자주(自主),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同志的) 협조(協助)의 규범(規範)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치적(政治的) 자주성(自主性)을 강조(強調)하면서 이의 합리화(合理化)를 위해 “원래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온갖 예속을 없애고,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실현(實現)하기 위하여 투쟁(鬪爭)하는 것을 자기(自己)의 초보적(初步的)인 의무(義務)로 삼고 있다.

정치적(政治的) 자주성(自主性)을 부인(否認)하고, 사대주의(事大主義)를 설교(說教)하는 것은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온갖 예속과 지배(支配), 아부와 굴종을 배격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에 대한 자신(自身)의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에 기초(基礎)하여 정치(政治)에서 자주성(自主性)을 철저히 행사(行事)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정치적(政治的) 자주성(自主性)을 잃을 때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빚고 혁명(革命)의 배신자(背信者)로 되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란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이 정치적(政治的) 및 민족적(民族的) 자결권(自決權)을 갖고 자기(自己)의 신념(信念)과 주견(主見)에 기초(基礎)하여 혁명노선(革命路線)과 정책(政策)을 독자적(獨立的)으로 작성(作成)하고 관철해 나가며, 대외관계(對外關係)에서 지배(支配)와 예속을 반대(反對)하고 완전(完全)한 평등권(平等權)을 행사(行事)하는 것을 의미(意味)하는데 당시 북한(北韓)의 상황(狀況)으로서는:

- ① 소련(蘇聯) 공산당(共產黨) 제20차 당대회(黨大會)의 결의사항(決議事項)의 거부
- ② 1956년의 대내적(對內的) 정치위기의 수습
- ③ 저항 민족주의적 특성(소련의 경제원조 중단과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비난 등 내정간섭에 대한 약자(弱者)로서의 강자에게 가지는 저항본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에 있어서 정치(政治)에서의 자주성(自主性)도 곧 소련(蘇聯)과 중공(中共)에 대해 계급적(階級的) 압박에서 벗어나고, 민족적(民族的) 압력(壓力)과 예속에서 벗어나서 내정간섭의 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정권 유지의 완전(完全)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김일성(金日成) 지배체제(支配體制)에 반대(反對)하는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는 데에도 그 목적(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마.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이 경제문제(經濟問題)에 적용된 것이 바로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이며, 이는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애국주의(愛國主義)에 입각(立脚)한 노동윤리(勞動倫理)를 창조(創造)하여 동원화(動員化)와 근대화(近代化)의 수단(手段)으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산업(產業)과 농업(農業)이 국유화(國有化)되고 집단화(集團化)되는 과정에서 경제적(經濟的),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변혁(變革)의 수단(手段)과 노동력(勞動力) 확보(確

保)를 위한 대중동원(大衆動員)의 수단(手段)으로 사용(使用)하고 있는데 경제(經濟)에서의 주체성(主體性) 제기는 1956년(年) 12월(月) 당중앙위원회(黨中央委員會) 전원회의에서 김일성(金日成)이 행한 연설에서부터 구체화(具體化)되기 시작(始作)했다. 자립적(自立的)이며, “자주적(自主的)인 경제(經濟)를 건설(建設)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自體)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급자족(自給自足)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고 하였으며, 자립적(自立的) 경제(經濟)를 건설(建設)하고 발전(發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혁명정신(革命精神)으로 자기(自己)의 기술(技術), 자기(自己)의 자원(資源), 자기(自己)의 민족간부, 자기인민(自己人民)의 노동(勞動)에 의(依)해 스스로 자립적(自立的) 민족경제(民族經濟)를 창설(創設)하고 강화(強化)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은 정치적(政治的) 독립(獨立)의 물질적(物質的) 기초(基礎)다. 경제적(經濟的)으로 외세(外勢)에 의존(依存)하는 나라는 정치적(政治的)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經濟的)으로 예측된 민족(民族)은 정치적(政治的)으로도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北韓)은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을 위하여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제도(經濟制度)로의 전면적(全面的)인 개편과 건설(建設)을 위하여 5개년(個年) 계획(計劃)과 7개년(個年) 계획(計劃)에 이르기까지 기술혁명(技術革命)도 아울러 강조(強調)했는데, 사회주의(社會主義) 제도(制度)를 내외(內外)의 계급적(階級的) 적(敵)으로부터 고수하고 발전(發展)시키기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적(思想的) 잔재를 뿌리 뽑아 그들을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인간(人間)으로 개조(改造)하고, 혁명사상(革命思想)으로 무장(武装)시켜 그 토대를 구축하고 높은 문화수준(文化水準)에서 이룩될 수 있는 기술혁명(技術革命)을 위하여 문화혁명(文化革命)도 동시(同時)에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強調)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경제문제(經濟問題)에 실현(實現)시킨 것은 바로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이 정치적(政治的) 독립(獨立)의 물질적(物質的) 기초(基礎)가 되며,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이 없이는 정치적(政治的) 자주권(自主權)을 행사(行使)할 수 없으며, 신생(新生) 독립국가(獨立國家)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고, 과거 사상(思想)에 젖어서 있는 낡은 사상(思想)의 혁명(革命)을 빨리 추진(推進)하여 당(黨)을 지배(支配)하는 최고(最高) 독재자(獨裁者)의 혁명적(革命的)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건설(經濟建設)에 정신적(精神的) 추진력(推進力)이 되도록 요구(要求)하는 데 있다.

김일성(金日成)이 경제(經濟)의 자립(自立)을 주장(主張)하게 된 배경(背景)을 보면, 북한(北韓)은 그들의 정권형성기(政權形成期)(1945~1950)와 전후복구기(1954~1956) 및 제1차 5개년계획(5年計劃) 추진기간(推進期間)에 있어서 중(中)·소(蘇)의 경제원조(經濟援助)로 인(因)한 내정상(內政上)의 간섭과 이로 말미암아 대내적(對內的) 도전(挑戰)을 겪었으며, 특(特)히 제(第)1차(次) 5개년(個年) 계획기간중(計劃期間中)에는 전후복구 계획기와 같은 경제원조(經濟援助)를 받을 수 없었고, 동계획(同計劃)에 대한 소련의 비판(批判)과 내부적(內部的) 도전(8

을 받게 되어 계획목표(計劃目標) 달성(達成)에 차질을 초래한 경험 등에 입각하여 경제건설(經濟建設)에서의 자립(自立)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57년(年) 전원회의에서는 최대의 증산과 절약을 구호(口號)로 채택하고, 1961년(年) 9월(月)부터,

- ① 중공업(重工業)의 우선적 발전(發展)
- ② 경공업과 산업의 동시발전(同時發展)
- ③ 기술혁명(技術革命)과 문화혁명(文化革命)에 의한 인민생활(人民生活)의 향상(向上) 등 기본목표(基本目標)를 내걸고, 자력갱생(自力更生)과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 등(等)의 뒷받침으로 인민경제(人民經濟) 7개년계획(7年計劃)을 추진(推進)하였다.
- ① 자본(資本) 및 기술(技術)의 부족(不足)
- ②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과 생산의욕 저하
- ③ 계획관리(計劃管理)의 미숙
- ④ 경제 각 부문간(部門間)의 불균형 등 9) 제요인과 경제자원 부족으로 실패하고, 그 실패원인(失敗原因)을 외부세력(外部勢力)에게 돌렸다.

바.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이 군사문제(軍事問題)에 적용된 것이 바로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라 할 수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63년(年) 10월(月) 5일(日) 김일성(金日成) 군사대학(軍事大學) 제(第)7기(期) 졸업식사(卒業式辭)를 통하여 군사력(軍事力)을 강화(強化)하기 위한 우리 당(黨)의 방침(方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위(自衛)의 방침(方針)입니다. 자기(自己)가 자기(自己)를 보호(保護)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保護)하여 줄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원조(援助)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도 문제(問題)없다. 이런 원칙(原則)입니다.……경제(經濟)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면(軍事面)에서도 완전(完全)한 자위(自衛), 즉 자기(自己) 힘으로 자기(自己)를 보호(保護)할 수 있도록 사상적(思想的)으로나 군사적(軍事的)으로 튼튼히 준비(準備)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주노선(自主路線)을 선언(宣言)하였다.

그는 외래 침략자(侵略者)들과의 전쟁(戰爭)에서 외부(外部)의 지원(支援)도 중요(重要)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補助的) 역할(役割)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제나라의 주체적(主體的) 역량(力量)이 준비(準備)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主張)하였는데,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는 자체(自體)의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역량(力量)과 함께 자체(自體)의 군사적(軍事的) 역량(力量)으로서 조국(祖國)과 인민(人民)의 안전(安全)을 믿음직하게 보위(保衛)하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하였다.

또한 경제건설(經濟建設)을 추진(推進)시키는 동시(同時)에 국방력(國防力)을 계속 강화(強化)하는 것은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의 기본(基本) 기능(機能)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전쟁(戰爭)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條件)에서 오직 방위력(防衛力)을 강화(強化)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의 침략(侵略)으로부터 인민(人民)들의 안전(安全)을 보위(保衛)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력(強力)한 방위력(防衛力)은 자주독립(自主獨立) 국가(國家)의 기본적(基本的) 표본(標本)이 되고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예측을 물리 칠 수 있으며, 국제적(國際的) 단결(團結)과 원조(援助)는 보조적(補助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自主的) 역량(力量)에 의한 방어태세를 갖추 것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교시(敎示)에 의거하여 1966년(年) 10월(月) 제2차 당대표자회의(黨代表者會議)에서는 인민경제(人民經濟)의 발전(發展)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經濟)를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國防建設)을 더욱 강력(強力)하게 진행(進行)시켜야 하겠으니, 경제건설(經濟建設)과 국방건설(國防建設)의 병진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하라고 지시하여 군수산업에 보다 역점(力點)을 둔 산업구조로 경제 구조가 전환되었고, 아울러 사대군사노선(四大軍事路線)이 창출(創出)되었고, 1966년(年) 8월(月)을 기준(基準)으로 하여 소련식(蘇聯式) 무기체제(武器體制)와 전략전술(戰略戰術) 개념에서 중공식(中共式) 인민전쟁전술(人民戰線戰術) 개념을 도입(導入)하여 북한(北韓)의 군사전략(軍事戰略)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국방(國防)에서의 자위노선(自衛路線)이 나오게 된 배경(背景)을 살펴보면, 김일성(金日成)은 1962년(年) 10월(月) 쿠바 위기와 중공(中共)과 인도간(間)의 국경분쟁을 경험하고 나서 소련(蘇聯)의 모든 조치가 그들의 국가이익(國家利益)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같은 이념(理念)과 체제(體制)를 가진 동맹국(同盟國)이라 할지라도 소련은 그의 동맹국(同盟國)을 포기할 수 있다는데 대한 위협을 느끼고, 결국(結局) 이념(理念)보다는 국가이익(國家利益)이 우선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因)하여 군사적(軍事的)인 면(面)의 자위능력(自衛能力) 필요성(必要性)을 강조(強調)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韓國)에서는 5·16군사혁명(軍事革命)으로 반공의식(反共意識)이 고조되었고, 사회(社會)의 점진적 안정(安定)이 추구(追求)되자 일단 군사적(軍事的) 침략기회(侵略機會)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判斷)하고 새로운 기회(機會)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準備)를 강화(強化)시키기 위한 필요성(必要性)이 절실했기 때문에 군사력(軍事力)의 증강을 위한 자위력(自衛力) 확보(確保)는 더욱 강조(強調)되었던 것이다.

3. 결론(結論)

이상(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사상(思想)→주체(主體), 정치(政治)→자립(自立), 경제(經濟)→자립(自立), 군사(軍事)→자위(自衛)로 요약되는데,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1953년(年) 스탈린의 사망(死亡)과 한국후진(韓

國休戰)을 계기로 노정된 국내(國內)파, 연안파, 소련파와의 치열한 당내(黨內) 권력투쟁(權力鬭爭)에서 자기(自己)의 당지도권(黨指導權)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상의 무기(武器)로서 출현(出現)했다”는 양호민(梁好民) 교수(教授)의 견해(見解)와 “국제적(國際的) 맥락에서 볼 때, 스탈린 사후(死後) 소련내(蘇聯內)에 대두되기 시작(始作)한 현대(現代) 수정주의(修正主義)의 위협과 대내적(對內的)으로 볼 때 권력 상부구조내에 잔존하는 이질적(異質的) 파벌정리의 현실적(現實的) 필요성(必要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안병영 교수의 견해를 종합(綜合)한다면 북한(北韓)의 주체사상(主體思想)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 스탈린 주의의 변형으로 철학적(哲學的)인 입장(立場)에서가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기능(機能)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北韓)에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대두된 동기(動機)는 당시 북한(北韓)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 10)를 해결(解決)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內容)으로서는;

- ① 당내(黨內) 권력투쟁(權力鬭爭)의 심화로 인한 적대 계층의 형성
- ②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민족(民族) 정통성(正統性)과의 갈등
- ③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혁(變革)과 경제계획(經濟計劃)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
- ④ 체제(體制)와 의식간(意識間)의 갈등
- ⑤ 주민(住民)의 계급교양 수준 저하
- ⑥ 전쟁기간(戰爭期間)을 통해 민주주의체제(民主主義體制)와 공산주의체제(共產主義體制)의 교류(交流)로 인한 반공성향(反共性向) 증대

⑦ 패전(敗戰)으로 인(因)한 주민(住民)의 사기 저하

⑧ 소련의 통제력(統制力) 약화(弱化)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이론(理論)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으로 인(因)하여 공산블럭 내(內)에서 자생적(自生的)으로 발생(發生)하게 된 블럭 내(內)에서의 다원화(多元化) 성향(性向) 등(等)의 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綜合的)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은 필요(必要)한 것이었다.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이론적(理論的) 기틀 11)은;

- ① 마르크스·레닌 주의-스탈린주의
- ② 인민독재(人民獨裁)
- ③ 항일 빨치산 혁명전통(革命傳統)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主義)만 제외시킨다면 다분히 실천적(實踐的) 요소(要素)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 스킨라피노 교수는 주체는 순수이론(이데올로기)으로, 기타는 실천적 이데올로기로 구분)

이의 추진(推進)에 있어서는 정신적(精神的)인 측면(側面)에서는 주체(主體)를, 물질적(物質的)인 측면(側面)에서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을 요구(要求)하게 되었는데, 자력갱생(自力更生)은 1935년(年) 12월(月) 23일(日) 모택동이 주장(主張)한 것을 모방했고,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은 대약진 운동을 모방한 것이었다.

1955년(年) 후반에 시작(始作)된 주체사상(主體思想)은 1960년대(年代) 후반에 와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정립된 이론(理論)으로 전개(展開)하고 있는데, 이것은

- ① 김일성(金日成) 이상화와 국가 신앙적 기능과
- ② 경제적(經濟的),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변혁(變革)의 수단과
- ③ 대중동원(大衆動員)의 수단과
- ④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정당화(正當化) 수단으로 그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實質的), 내면적(內面的)인 문제(問題)에 있어서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북한 주민(北韓住民)들에게 적용되는데 있어서;

- ① 김일성(金日成) 일인지배체제(一人支配體制)를 강화(強化)시키고
- ② 김일성(金日成) 개인에 대한 숭배 사상을 확립(確立)시켜 이상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용(使用)되고 있으며
- ③ 인민(人民)을 정치(政治) 사상적(思想的) 자극방안에 의한 대량동원을 극대화시켜 경제발전(經濟發展)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동원(動員)되고
- ④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중·소 이념분쟁에서의 피해를 극소화시켜 실리추구(實利追求)에 기여하고 있으며
- ⑤ 제3세계에 대한 접근과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도약으로 발전(發展)시키고
- ⑥ 대남(對南) 혁명(革命) 달성(達成)을 위한 전략목표달성(戰略目標達成)을 위해 사용(使用)되고 있다.

초기(初期)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국내외적(國內外的) 여건에 적응하고, 권력독점(權力獨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使用)되었던 것이 1970년대(年代)에 들어와서는 정권적(政權的) 안정(安定)을 찾는 다음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승격시켜 전인민(全人民)을 교화(教化)시키고,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인간완성(人間完成) 12)의 미명(美名)아래 김일성(金日成) 맹종분자 양성에 급급함과 동시(同時)에 김일성(金日成)을 전대미문의 유일신(唯一神)으로 한 이상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을 신성화(神聖化)시킨 것처럼 김일성(金日成)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통하여 이들과 동등(同等)한 지위(地位)를 확보(確保)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北韓)에서는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최소한 모택동 사상이나 스탈린주의와 동급이상(同級以上)의 개념으로 인식(認識)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의 기능적 요체가 김일성에 대한 개인(個人)과 가계(家系)의 이상화로 집중(集中)되어 있으며, 이의 실천(實踐)을 위하여 절대성의 원칙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강조(強調)하고, 당(黨)의 유일사상(唯一思想) 체계(體系) 확립(確立)을 위한 10대원칙(大原則) 13)을 다음과 같이 내걸고 있다.

- ① 김일성(金日成) 혁명사상(革命思想)으로 온 사회(社會)의 일색화(一色化)

- ② 김일성(金日成)에 충성(忠誠)
- ③ 김일성(金日成) 권위의 절대화
- ④ 혁명사상(革命思想)의 신념화(信念化) 교시(敎示)의 신조화(信條化)
- ⑤ 교시(敎示) 집행(執行)의 무조건성(無條件性)
- ⑥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思想意志的) 통일혁명적(統一革命的) 단결(團結)
- ⑦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풍토(風土), 혁명적(革命的) 사업방법(事業方法), 인민적(人民的) 사업작풍소유(事業作風所有)
- ⑧ 정치적(政治的) 신임(信任)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충성(忠誠) 보고(報告)
- ⑨ 유일적(唯一的) 영도하(領導下)에 전당(全黨) 전군(全軍)의 조직 규율 확립(確立)
- ⑩ 혁명과업(革命課業)을 대(代)를 이어 계승 완성할 것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인민(人民)의 가장 큰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는 “하나를 전체(全體)를 위하여 전체(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14)라는 집단주의(集團主義) 원칙(原則)을 헌법화(憲法化)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하나는 인민(人民)을 말하는 것이며, 전체(全體)란 당(黨)을 말하고, 뒤의 하나는 김일성(金日成)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민(人民)은 당을 위하고, 당(黨)은 김일성(金日成)을 위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김일성만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북한(北韓)에 있어서 김일성(金日成) 일인 독재와 이상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종교(宗教)는 아편과 같다”고 하여 종교(宗教)를 거부했었지만, 북한(北韓)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국가(共產國家)들이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反宗教) 선전(宣傳)의 자유(自由)” 15)를 향유하여 실질적(實質的)으로 종교(宗教)를 탄압하고 있는데 유독 극성스럽게 김일성(金日成)을 신격화(神格化)하고 있는 것은 개인 이상화를 했던 스탈린과 모택동이 사후(死後) 격하(格下)되는 것을 보아 온 김일성(金日成)의 불안(不安)으로 인(因)해 그들과 같은 결과(結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상화 노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더욱 강화(強化)될 것으로 보이며, 이의 계속적인 추진과 영구화(永久化)를 지키기 위해 김정일(金正日)에게로 정권(政權)을 세습시키려는 것은 최소한 김일성(金日成)에게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주해(註解)〉

- (1) 양형섭, 1972. 4. 15. 사회과학자 토론대회, 평양.
- (2) 조선노동당 규약, 1970. 11. 5.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 북한헌법 제4조, 1972. 12. 27. 개정헌법
- (3) 1955년 당시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과 구성 비율은 40%를 점했음
- (4) 당의 선전선동사업은 문학, 예술, 신문, 방송, 교육사업을 말한다.
- (5) 이영덕, 주체사상, 1967. 평양.
- (6) 주1과 동일

- (7) 이규홍, 논문;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P. 71, 1976.
- (8) ① 소련파, 연안파의 정치적 도전
 - ②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내자 동원부진
 - ③ 자원의 부족
 - ④ 주민의 사기 저하
- (9) 북한 총람, p. 323.
- (10) 이규홍, 논문, pp. 26~27.
- (11) 이규홍, 논문, p. 29.
- (12) 북한헌법 제39조
- (13) 이규홍, 논문, p. 31.
- (14) 북한헌법 제49조
- (15) 북한헌법 제54조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은 그것이 어떤 사회정의(社會正義)와 민주주의(民主主義)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革命)이 아니라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혁명전야(社會主義革命前夜)의 첫단계 혁명(革命)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론(理論), 방법론(方法論)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비판
(人民民主主義 革命論 批判)

편 집 실 (編輯室)

1. 머리말

지금 북괴(北傀)는 이른 바 남조선(南朝鮮) 혁명(革命)을 가리켜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김일성(金日成)이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괴(北傀)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을 부르짖으며 대남공작(對南工作)을 집요하게 벌여오고 있는 이상 우리가 북괴 김일성(金日成)의 대남(對南) 혁명전략(革命戰略)과 전술(戰術)을 앞질러 분쇄(粉碎)하자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통일전선(統一戰線) 전술(戰術)은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의 1단계 전술(戰術)」이라느니,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이론(理論)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통일전선(統一戰線)」이라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통일전선(統一戰線) 전술(戰術)과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을 혼돈(混沌)하는데서 나오는 그릇된 판단(判斷)이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현대(現代)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고창(高唱)하고 있는 세계혁명단계론(世界革命段階論)에서 새로운 혁명유형

(革命類型)의 하나이며 그것은 식민지(植民地) 반식민지(半植民地) 나라의 노동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프롤레타리아혁명(革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상이론 방법의 체계이다.

2.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이 나오게 된 역사적(歷史的) 유래(由來)

「마르크스」는 1948년 공산당(共產黨) 선언(宣言)을 선포(宣布)하면서 공산주의(共產主義)으로 이행하는 세계혁명(世界革命)의 유형(類型)을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 하나로 규정(規定)짓고 그 유일(唯一)한 수행방도(遂行方途)로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을 부르짖으면서 서구라파의 발전된 여러 자본주의(資本主義)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아성(牙城)을 때려부셔야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세계사적(世界史的)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고 단정(斷定)했다.

그 후 독점자본이 형성된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이 이론(理論)은 「레닌」에 의하여 수정, 보충(補充)되었다.

「레닌」은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체제하(經濟體制下)에서 부단한 자유경쟁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자본주의(資本主義)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혁명(革命)을 일으켜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일국(一國)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理論)을 내놓고 그것을 러시아에서 실현하였다.

그러나 「레닌」 역시 근대산업(近代產業)이 발달한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의 노동계급이 연속적(連續的)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革命)」을 일으켜 한 나라, 한 나라씩 공산화(共產化)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혁명(世界革命)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국(中國)이나 인도(印度)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革命)」이 수행될 때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포위를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포위로 바뀌어 제국주의(帝國主義)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정식화(定式化)했다.

그리고 식민지(植民地) 예속국가(후진국)들은 그 종주국(宗主國)이 공산화(共產化)됨에 따라 자동적(自動的)으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레닌」은 근대산업(近代產業)이 발달하지 못한 식민지(植民地)나라 즉 후진국 노동계급은 그 종주국(宗主國) 노동계급이 수행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의 후비군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그 후 사태는 「마르크스」나 「레닌」이 예언했던 것처럼 서구라파의 발전된 자본주의(資本主義)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革命)」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에서의 공산주의운동(共產主義運動), 노동운동은 오히려 침체의 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소련(蘇聯)에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10월혁명(月革命)의 영향은 발전된 자

본주의(資本主義) 나라보다도 식민지(植民地), 반식민지(半植民地) 나라들로 더욱 급속히 파급되었다.

역사적 경험은 「러시아」에서도 짜아르 전체제도를 전복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革命)을 거쳐서 사회주의(社會主義)으로 이행했듯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革命)」은 발전된 자본주의(資本主義)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후진국인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국제 「파시즘」이 대두(擡頭)되면서 세계(世界) 도처에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이 벌어졌고 이 불길은 구라파와 아시아 대륙을 휩쓸어 결국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으로 확대(擴大)되었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을 공산주의(共產主義) 운동(運動)과 결부시키면서 정상적인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社會主義)으로 넘어가는 또다른 지름길을 모색(摸索)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관계로 사회, 정치, 경제구조상 봉건적(封建的)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內包)하고 있었고 또한 공산당(共產黨)의 역량(力量)도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당장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 그 이전에 외래(外來) 제국주의(帝國主義) 침략세력과 자국내(自國內)의 봉건(封建)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革命)이라는 혁명(革命)의 새 유형을 고안해 내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3.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의 본질(本質)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일명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의 본질(本質)은 문자 그대로 외래(外來) 제국주의(帝國主義) 침략자들과 자국 내의 봉건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으로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식민지(植民地) 반봉건적(半封建的) 사회제도(社會制度)를 철폐하고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제도(制度)를 수립함으로써 금후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 수행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혁명(革命)이러는데 그 본질(本質)이 있다.

어떤 혁명에서든지 일반적(一般的)으로 「혁명(革命)의 성격(性格)과 임무(任務), 동력(動力)과 대상(對象) 그리고 전략(戰略)과 전술(戰術), 그 수행방도(遂行方途)」 등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이론과 혁명사상과 이론은 아무 때나 생각나는대로 꾸며 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른바 혁명이론(革命理論)과 전략(戰略) 전술(戰術)의 작전원리(作戰原理)는 우선 해당 사회(社會)의 성격(性格)과 사회경제(社會經濟) 구조를 먼저 규정하고 그 사회(社會)에 내

재된 모순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의 입장에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革命)의 성격(性格), 노선(路線)과 방침(方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략(戰略)과 전술(戰術)을 작성(作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식민지(植民地), 반식민지(半植民地) 나라들에서 수행해야 할 혁명(革命)의 새 유형(類型)을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이라고 이름 짓게 된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이론적(理論的)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정상적(正常的)인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후진국(後進國), 특히 식민지(植民地), 반식민지(半植民地) 나라의 사회성격(社會性格)을 규정함에 있어서 식민지(植民地) 반봉건사회(半封建社會)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면한 투쟁과 업은 외래(外來) 제국주의(帝國主義) 침략세력과 자국내의 봉건통치체들을 타도하는데 있다고 규정지음으로써 그 혁명(革命)의 성격(性格)도 반제(反帝)·반봉건민주주의(反封建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자국 내의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에는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들도 참가하며 노동자, 농민, 소상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종교인 할 것 없이 사회(社會)의 광범한 계급계층이 다 참가하게 되는데,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에서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혁명(革命)의 주도권을 공산당(共產黨)이 틀어쥘 수도 있고, 공산당(共產黨)의 세력이 미약할 때에는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들의 이익(利益)을 대표(代表)하는 우익정당이 그 영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主張)이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부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똑같은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에서도 그 영도권을 누가 틀어잡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革命)의 구체적인 성격도 두 가지로 규정(規定)짓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 할지라도 민족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우익 정당이 혁명(革命)의 영도권을 틀어쥐게 될 경우에는 그 성격(性格)이 「브르조아」 민주주의 혁명(革命)으로 되고 그와 반대로 공산당(共產黨)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성격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생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들은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없고 봉건세력과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植民地), 반봉건적(半封建的) 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반제(反帝)·반봉건적(反封建的) 사회경제(社會經濟)개혁이 혁명적(革命的) 방법(方法)으로가 아니라 개량적(改良的) 방법(方法)으로 수행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민족 자본가들은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

주主義) 혁명(革命)이 계급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브르조아」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끝날 것을 바라면서 자기 세력이 강할 때에는 혁명(革命)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성격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생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들은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없고 봉건세력과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植民地) 반봉건적(半封建的) 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반제(反帝), 반봉건적(反封建的) 사회경제(社會經濟)개혁이 혁명적(革命的) 방법(方法)으로가 아니라 개량적(改良的) 방법(方法)으로 수행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이 계급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브르조아」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끝날 것을 바라면서 자기 세력이 강할 때에는 혁명(革命)의 주도권을 틀어쥐려고 관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에서 민족자본가들과 비록 통일전선(統一戰線)은 맺을지라도 혁명(革命)의 주도권은 필사적으로 고수해야 하며, 만약 공산당(共產黨)이 우익 정당에게 영도권을 빼앗겨서 그 혁명(革命)이 「브르조아」 민주주의 혁명(革命)으로 수행된다면 자본주의(資本主義)가 더 부활되기 전에 공산당(共產黨)의 영도하에 이번에는 민족자본가들을 때려부시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을 계속 일으켜 사회주의(社會主義)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이란?

정상적(正常的)인 자본주의(資本主義) 발전단계를 마치지 못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당장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을 수행할 수 없는 주, 객관적 여건하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가면을 쓰고 우선 현재제를 전복함으로써 정권을 공산당(共產黨)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이л테면 혁명(革命)을 한단계 꺾어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북괴 김일성(金日成)이가 이른바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의 성격(性格)을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에서 기필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와 그 정권(政權)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통일전선(統一戰線)에 기초한 「연립정부」 형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광범한 각계, 각층 군중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이다.

혁명(革命)을 통해서 일단 자기수중에 권력을 틀어 쥔 다음 그들이 수립하는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에 의거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단계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정권을 필수적 요구로 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적 목적과 관련된다.

이 혁명(革命)단계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戰略的) 목적은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다음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를 무기로 하여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또는 식민지(植民地) 반봉건적(半封建的) 사회경제제도(社會經濟制度)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人民民主主義制度)를 수립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제도를 철폐하고 이른바 <민주개혁>을 단행하는 행정에는 불가피하게 자본가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되며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것만큼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에게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란 어떤 것인가?

김일성(金日成)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영토권을 다투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그 하나는 부르조아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이다. ……여기에서 정권은 지주,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르조아 독재와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의 노동독재라고 하는 것도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부르조아 독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독재는 둘 밖에 없다. 「통일전선독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2권 135페이지)

김일성(金日成)이가 말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 독재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통일전선독재 즉 「제3의 독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필경 「부르조아」 독재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독재이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란?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 근로인텔리 등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광범한 계급계층에게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시하고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여타의 착취 계급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의 차이는 그 양자가 적용되는 시기와 표현적 술어(術語)가 다르고 독재의 수법과 그 횡포성에 있어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공산당(共產黨)의 일당독재(一黨獨裁)이며 수령(首領) 일개인의 독재이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에서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나 독재자는 역시 공산당(共產黨)의 수령이며, 그 독재의 대상은 유산계급 이데올로기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며 또한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마음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공산당(共產黨)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인민>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는 계급계층 즉 노동자, 농민이라 할지라도 공산당(共產黨)의 독재에 순종하지 않는 일체의 <비 프롤레타리아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이른바 수령(首領) 일개인의 독재를 그 무슨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요 뭐요 하면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자 대중을 현혹시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며, 일인(一人)독재체제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산당(共產黨)이 지배하고 있는 공산독재하(共產獨裁下)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계급과 인민은 독재를 행사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공산당(共產黨)의 지배를 받는 독재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를 실시하는 그 시기(時期)는 반제(反帝), 반봉건민주주의(反封建民主主義) 혁명(革命)을 통해서 정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잡는 그 순간부터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제도가 수립되는 시기(時期), 즉 다시 말해서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단계(革命段階)에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내세운 전략적(戰略的) 과업이 완수되는 그 시기(時期)까지이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를 무기로 하여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사회(社會), 경제(經濟)개혁이 단행되고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으로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바꾼다.

이렇듯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맹아(萌芽)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독재의 보다 공공연한 연장(延長)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은 그것이 어떤 사회정의(社會正義)와 민주주의(民主主義)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革命)이 아니라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

전야(革命前夜)의 첫 단계 혁명(革命)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이론(理論), 방법론(方法論)이다.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가 특히 1970년대에 와서 더욱 요란하게 남조선(南朝鮮) 혁명(革命)을 추구하면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한국민(南韓國民)들의 반공사상(反共思想)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強化)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共產主義) 구호(口號)를 가지고서는 남한(南韓)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眩惑)시킬 수 없게 된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중·소간의 이념 분쟁과 그로 인한 분파의 형성, 월남·라오스·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1·21사태와 울진·삼척 등지의 무장공비 만행사건 등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共產主義) 특히 괴수 김일성(金日成)에 대하여 치를 떨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괴 김일성(金日成)의 대남혁명(對南革命) 전략(戰略)은 피할 수 없는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위기로부터 출로(出路)를 찾기 위해 전전공공하던 김일성(金日成)이 마침내 그 궁여지책으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론(革命論)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김일성(金日成)이가 그 어떤 색다른 구호를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털끝만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며 그 어떤 환상을 가지고 대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명장명언(名將名言)

지휘관(指揮官)은 자기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쟁(戰爭)에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한다. 앉아서 접수한 보고란 낱아 빠진 것이며 지휘관의 결심에 필요한 첩보(諜報)로서는 거의 가치(價値)가 없는 것 뿐이다.

- 롬멜 -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열 (1)

민풍진작(民風振作)과 김종직(金宗直)의 효관(孝觀)

1. 출생(出生)과 효관(孝觀)

김종직(金宗直)의 자(字)는 계온(季溫)이고, 그의 호(號)는 점필제(佔畢齊)이며 선산(善山)사람으로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에 유학(儒學)의 정통(正統)을 세워놓은 강호(江湖) 김숙자(金淑滋)의 아들로 1431년(年)에 태어났다.

그는 일찌기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 단정함과 공경함이 지극하여 집에 있을 때는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곤 하였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병이 들어 몸이 몹시 쇠약하여졌다.

그는 부친의 병을 염려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께 호소를 하기 위하여 글을 짓기도 하였다.

관직(官職)에 있으면서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효심(孝心) 때문에 세 번이나 정부에서 물러나와 어머니를 봉양하기도 하였다.

그의 형(兄)이 등창이 나서 몹시 앓고 있을 때는 의원의 말이 「지렁이의 즈」이 좋다고 하여 그는 지렁이를 잡아 즈를 만들어 먼저 맛을 본 다음에 형(兄)에게 주었더니 과연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형(兄)이 불행히도 객사하여 그는 형(兄)의 유해를 고향에 모셔다가 조용히 장사지내어 애도하는 정을 다하였다.

또한 형(兄)의 자제(子弟)인 어린 조카들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교육을 시켜 올바르게 길러 놓으니 그의 효도와 우애가 이와 같이 지극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효심(孝心)과 인간성(人間性)이 좋아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이요, 그가 벼슬에 있을 때나 평민(平民)으로 있을 때나 조용히 경건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는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이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선산교수(善山教授)로서 오로지 후진의 교육에 힘을 썼다.

점필제는 효심이 강하여 혼정신성(昏定晨省)을 정성껏 하였음은 물론이요, 일체의 시봉(侍奉)을 철저히 하여 효성을 다하였으며,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서도 한 모금의 물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였고 묘역에 지은 여막에서 3년(年)이 다 가도록 한결같이 생전(生前)에 부모를 모시듯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효자(孝子)였고, 한편으로는 후진을 교육함에 있어서 언행(言行)으로 사도(斯道)를 권장하여 마침내는 근세조선(近世朝鮮)의 교육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안음현신창향교기(安陰縣新創鄉校記)를 보면,

「학문을 위하는 정신의 근본(根本)은 효제(孝悌)로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언제나 어느 때이고 지녀야 할 것이다.

집에서는 부모가 계시고 학교에는 스승이 계시니 그 뵈옵고 살피는 것은 입에 혀같이 하여 정성으로 섬기면 비로소 그 공정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집에는 형제가 있고 학교에는 벗이 있으니 우애하고 공손하여 서로서로 깨우쳐 나아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비로소 신의(信義)의 도(道)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을 한다면 곧 배움이 학교를 떠나지 아니하고 덕(德)과 재주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이것이 다른 날에 향상을 떨치게 하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덕(德)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될 것이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효사상(孝思想)을 통한 그의 인간교육과 그의 교육정신을 살펴 볼 수 있다.

2. 향교(鄉校) 학생(學生)들에게 준 글

그가 효교육(孝教育)을 중시해서 밀양의 향교학생(鄉校學生)들에게 준 글을 보면,

「향려(鄉閭)의 풍속이 야박하고 조정의 정화(政化)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심(人心)이 나날이 거칠어 가므로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매 그 병적요인(病的要因)이 대개 학교에 있으니 이는 밝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原因)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참으로 교육을 옳게 실시하였더라도 곧 효제(孝悌)를 사람마다 익혀서 그 교화(教化)의 풍(風)은 여항(閭巷)에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륜(五倫)은 각각 차례를 얻을 것이요, 주위에 백성들은 각각 그 업(業)에 편할 것이요, 따라서 미풍가속(美風佳俗)도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다。」

고 한 것은 효교육(孝教育)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효(孝)로써 민풍(民風)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으로 인재(人材)를 육성(育成)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地方)의 민풍(民風)을 크게 일으키는데도 힘을 썼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보면,

「김종직이 성종(成宗)에게 아뢰기를,

향사례(鄉謝禮)와 향음례(鄉飲禮)는 지방의 교육상(教育上) 그 효과가 큰 바 있습니다.

신(臣)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에 「향사례」와 「향음례」를 매년 실시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위로하고 재예(才藝)있는 자를 다음 순서로 하고, 불공하고 불손한 사람을 이 행사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더니 이로부터 한 고을이 다 깨치게 되어 향풍조장(鄉風助長)에 매우 효

과를 보았읍니다」고 하니 왕(王)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교서를 내려 이를 행(行)하도록 하였다 고 한다.

그러면 「향음례(鄉飲禮)」와 「향사례(鄉謝禮)」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3. 「향음례(鄉飲禮)」와 「향사례(鄉謝禮)」

가. 향음례(鄉飲禮)

해마다 10월(月) 상달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나이가 많고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으로 삼고 사람을 초청하여 읍양(擘饗)과 주악(奏樂)을 울리면서 술잔을 돌리는데 단순한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禮儀)와 질서(秩序)를 엄숙히 하고 상계하는 서사(誓詞)를 읽는 의식(儀式)을 향음례(鄉飲禮)라고 한다.

그런데 이 향음례도 지방(地方)의 향교(鄉校)에서 행(行)하게 되는데 그 지역사회의 많은 선비들과 학생(學生)들이 모이게 되고 또 구경꾼도 오게 된다.

그 절차를 잠깐 소개하면, 매년 10월(月)에 주(州)와 현(縣)에서 좋은 날을 택하여 주인(主人)이 손님을 계고(戒告)한다.

당일에는 손님을 학당문(學堂門) 밖에서 맞이하는데 처음에는 지도자가 제의(提議)를 하고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 학당(學堂)에 들어온다.

이 때에 손님이 먼저 절을 두번 하면 주인(主人)이 이에 답(答)을 하고, 이 예(禮)가 끝나면 큰 소리로 낭독한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국가가 옛날부터 법(法)을 지켜 예교(禮教)를 숭상하니 이제 향음(鄉飲)을 오늘 거행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는 무릇 어른과 어린이는 각각 서로 근면하여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孝道)를 하여 안으로는 집안에서도 화목하고 우애를 지키며 밖으로는 서로 향당에 친(親)하며 서로 일러주고 깨우치며 서로 가르쳐 주며 도와감은 물론이거니와 혹시라도 잘못됨이 있어서 일생(一生)을 욱되게 함이 없게 할지 어다」

라고 고(告)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정(司正)이 고(告)하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처음 들어 올 때와 같은 절차로 두번씩 절을 하고 나오면 모든 손님(객(客))이 따라서 나오며 주인이 따라 나와서 문밖까지 나와 헤어지는 인사(人事)를 한다.

이와 같이 「향음례」는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외(目的外)에 상하(上下)백성이 근면 성실하고 국가에 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兄弟)끼리 우애를 지키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생활태도(生活態度)를 기르게 한다.

나. 향사례(鄉謝禮)

이 「향사례(鄉謝禮)」는 민풍진작(民風振作)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유래(由來)는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보면, 성종(成宗) 8년(年)에 왕(王)이 태학(太學)에서 대사(大事)를 행(行)하고 부읍(副邑)에서 향사례(鄉謝禮)를 행(行)하라고 명(命)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성균관(成均館)에서 실시하였던 대사례(大謝禮)와 향교에서 실시한 향사례(鄉謝禮)는 다 같은 예양(禮讓)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며 민풍진작(民風振作)을 위한 교육행사(教育行事)라고 볼 수 있다.

이 행사(行事)는 매년(每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부모에게 효도(孝道)하고(효(孝)), 형제(兄弟)끼리 우애를 지키며(제(悌)), 국가에 충성하고(충(忠)), 친우간에는 믿음(신(信))을 갖고 예의(禮儀)를 존경하는 의리(義理)있는 사람을 주빈으로 하여 읍양(揖讓)과 주배(酒盃), 궁사(弓射)(활쏘기), 풍악(風樂)(노래 부르기) 등을 통하여 주인(主人)과 객(客)이 모두 어울려 하루를 즐겼던 행사(行事)인데 가장 강조된 점이 바로 예의(禮儀)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행사(行事)에서도 「향음례」와 마찬가지로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옷사람을 공경하고 아름다운 향풍(鄉風)을 조성(造成)하여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孝)·제(悌)·충(忠)·신(信)하는 생활태도(生活態度)를 기르게 하여 밝은 사회(社會)를 만들고 국민을 교화(教化)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4. 국민교화(國民教化)에 노력

김종직(金宗直)은 이와 같은 행사(行事)로서 민풍(民風)을 진작(振作)시켜 아름다운 풍속을 기르고 덕행(德行)을 기르도록 하여 국민교화(國民教化)에 힘을 썼더니 당시 성종(成宗)은 매우 기뻐하고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왕(王)은 몹시 그를 사랑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에 발탁하고, 또 다시 도승지(都承旨)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겸손하여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양을 하였다.

왕(王)은 말하기를,

「경의 문장(文章)과 정사(政事)가 족(足)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는 곧 이조참판동지경연(吏曹參判同知經筵)으로 옮겼다가 호남의 관찰사(觀察使)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언행(言行)이 분명(分明)하고 인격(人格)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두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또 한성부윤(漢城府尹)과 공조참판(工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지자 병이 들어 사퇴하고 밀양의 전압(田厓)에 누워 있으니 비로소 관직(官職)에서 사직됨이 허락되었다.

그가 높은 관직에 있었으나 그 가정이 아주 가난하여 생활고(生活苦)에 놓여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청빈한 관리(官吏)였던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왕(王)은 그에게 본도(本道)에 명하여 쌀 70섬을 하사하고, 내의(內醫)를 보내어 보약(補藥)을 하사하기에 이르렀다.

임자년(壬子年)(1492년(年) 성종(成宗) 23년(年)) 8월(月) 19일(日)에 죽으니 그의 나이 62세(歲)였다.

그의 죽음이 왕(王)에게 전하여 지자, 이를 동안이나 임금에 조회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애도의 정(情)을 표(表)하였으며 그의 시호를 문간공(文簡公)이라고 하였다.

명장명언(名將名言)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混亂)이 계속된 전투상황(戰鬪狀況)하에서 상황(狀況)을 판단(判斷)하는 일이다. 즉 많은 정보(情報) 중에서 확실한 정보(情報)를 착오 없이 판별(判別)하며 신속히 결심하고 주저함이 없이 용감(勇敢)히 실행하는데 있다.

- 대(大) 물트케 -

김흠춘(金欽春) 장군(將軍) 삼대(三代)와 화랑정신(花郎精神)

1.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

삼국시대(三國時代)라고 하면 대체로 고구려가 성립된 다음에 백제 그리고 신라까지 성립된 1세기 전후로부터 삼국이 서로 힘을 겨루던 끝에 7세기 후반에 신라의 삼국통일(三國統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주위의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구려는 북쪽에서 다른 두 나라보다 훨씬 앞서 중국세력과의 투쟁과정에서 성립하여 이미 1세기 초부터는 사방으로 출로(出路)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이에 반하여 훨씬 늦은 3~4세기에 고대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만 4세기 초 무렵부터는 삼국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에 중국의 전연이란 나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데 이어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평양전투에서 왕이 전사하는 비운을 당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위난을 계기로 다음 소수림왕 때에 불교의 수용과 태학의 설립, 그리고 울령의 반포 등으로 국가체제의 정비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안으로 정비함으로써 고구려는 전대(前代)의 실패를 극복하고 밖으로의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광개토왕의 영토확장은 바로 그러한 정복국가에로의 실력축적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광개토왕의 위업은 다음대의 장수왕으로 계승되어 5세기 초에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이어 왕은 427년(年)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중국과는 남북조와 모두 외교관계를 터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하정책(南下政策)의 압력으로 백제는 개로왕이 전사하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겨야 했고, 비록 백제와 같이 국토가 축소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신라도 고구려의 남하에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정수동맹(政守同盟)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세는 다시 크게 달라진다. 고구려에서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고자 신라와 함께 북벌을 단행했던 백제는 신라의 맹약파기로 회복했던 영토를 신라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라 성왕이 전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반도의 중앙지대로 진출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을 격리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남양만에서 직접 중국과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따라서 신라는 반도 안에서 고립되는 형세였던 것이다.

2. 중국대륙(中國大陸)의 동향(動向)

한편 중국대륙에서도 이무렵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니 수나라(581~617)가 대륙 내의 오랜 대립, 분열을 통일하고 중원을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이러한 통일 대제국의 등장은 국경을 서로 접한 고구려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중국 북방 초원지대의 돌진과 연결하여 수에 대항하려 하였으며 급기야는 요서지방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수나라의 문제(文帝)는 30만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중도에서 실패하고 말았고 다음 양제(陽帝)는 즉위 후 온 힘을 기울여 준비한 끝에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전례없는 일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고구려는 을지문덕과 왕의 동생인 건무가 각각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여 적을 깊숙이 유인해 놓은 다음 먼저 건무는 대동강에서 적의 수군을 궤멸시켰으며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으로 적의 육군을 격멸한데 이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전멸시킨 전사상(戰史上)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승리를 쟁취하였다.

수나라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리한 전쟁(戰爭)의 참담한 패배로 나라 안에서부터 동요된 끝에 이연, 이세민 부자(父子)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말았으며, 이로부터 아들 부자(父子)가 세운 당나라가 중국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륙의 새로운 세력인 당(618~907년)이 일어날 즈음에 고구려에서는 건무, 즉 영류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거듭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력의 피폐를 감안하였음인지 당과의 화친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무신들의 주장을 당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여 사신을 교환하고 당의 요청에 따라 수와의 전쟁에서의 포로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은 세계제국을 건설할 야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력을 축적함과 아울러 주위의 몽고, 서장지방을 아우르면서 점차 고구려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니 고구려에서도 유화책을 버리고 천리장성을 쌓는 등, 대비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런데 천리장성의 공역이 끝나기도 전에 연개소문을 중심한 소장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보장왕을 새로 세웠으며 연개소문 자신은 대마리지가 되어 무단적인 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영류왕 때와는 달리 당나라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썼다.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 연개소문의 집권은 반갑지 않은 사태의 진전이었다.

이 무렵의 반도 안의 상황은 앞서 살핀 6세기 후반 이래 신라가 고립되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형세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당과의 연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 및 왜(倭)로 연결된 세력과 당과 신라의 연결세력이 서로 맞서 각축을 벌이게 된 셈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수, 당의 동양제패 기도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한 고구려의 승리는 민족의 영광된 긍지를 되새기게 하는 사실이었으나 끝내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실패한 당이 그 뒤로는 작은 규모로 자주 침공하여 고구려를 피폐케 하려 하는 한편 고구려 배후의 신라와는 더욱 밀착하여 먼저 백제를 쳐 없애으로써 고구려를 고립시켜 놓으려고 도모하였으며, 신라는 태종무열왕, 김유신같은 지도자 밑에 거국일치의 태세였던 반면에 백제는 지배층의 부패로 계백 한 사람이 버틸 수 없었고 고구려는 독재자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권력의 후계문제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3. 화랑(花郎) 반굴(盤屈)의 희생정신(犧牲精神)

신라의 삼국통일(三國統一)의 기틀은 한 세기를 수련해 온 화랑도의 승리인데, 삼대(三代)를 두고 화랑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일문(一門)이 있다.

즉 김흠춘(金欽春), 반굴(盤屈), 영운(令胤)의 삼대(三代)이다.

김흠춘(金欽春)은 진평왕 때 화랑이 되었으나 김유신과 같은 때 사람으로 자세한 활동은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인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다.

김흠춘(金欽春)은 김경신(金庚信)의 아우이니 서현(舒玄)의 둘째 아들이요, 김수로왕의 12대 손(代孫)이다.

김흠춘(金欽春)은 대장군 김유신, 황품일(黃品一) 등과 같이 정병 5만명을 이끌고 무열왕 7년(660년) 7월 9일에 황산(黃山)벌에 이르러 미리 진을 치고 신라군을 기다리는 백제 계백의 5,000결사대와 4번을 싸웠으나 싸움마다 불리해 군사들의 기력이 다했다. 이 전투가 삼국통일(三國統一)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었기에 신라군은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때 김흠춘 장군은 그의 아들 반굴을 불러 간곡히 말했다.

「남의 신하된 사람은 충성을 다 해야 하고, 남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 해야 하며 위급한 일을 당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일이다」

아버지 김흠춘(金欽春)의 말을 들은 반굴(盤屈)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창을 쏜아잡고 곧장 백제군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린 화랑 반굴(盤屈) 혼자로서는 백제군의 5,000결사대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수십 명의 적을 창으로 찌르면서 용감히 분전하였으나 백제군사들의 창칼 앞에 무참히 죽음을 당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품일(品一)장군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 관창(官昌)을 불러 용감히 싸우다가 죽을 것을 명령하였다.

관창은 말을 몰아 적진 깊숙이 쳐들어 갔다.

이 때에 계백 장군은 어린 관창을 한 번은 용서하였으나 두번째는 그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어 보내니 그의 아버지 품일(品一)장군은 관창(官昌)의 머리를 들고 흐르는 피를 씻으며,

「내 아들의 얼굴 모습은 산 것과 같구나. 국가의 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고 눈빛하나 변하지 않고 장엄하게 말하였다. 이것을 본 신라의 군사는 반굴과 관창의 죽음에 자극제가 되어 사기 백배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용감히 싸우니 백제군은 중과부적으로 결국 패하고 말았다.

신라군은 다섯 번 싸움에서야 겨우 승리를 하여 백제의 계백을 패하게 하였다.

4. 화랑(花郎) 영운(令胤)의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精神)

이 승전의 밑거름이 된 반굴이야말로 삼국통일(三國統一)의 대업을 완수하게 된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진 것이었다.

뒷날 문무왕은 김유신, 김인문과 함께 신라의 삼보(三寶)로서 김흠춘을 꼽았다.

반굴의 아들이요, 김흠춘의 손자인 영운은 그의 가문(家門)이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명예와 절개를 지니고 있었다.

신문왕(神文王) 때 고구려 잔적(悉伏)(실복)이 보덕성(報德城)에서 잠복해 반란을 일으키므로 왕(王)은 이의 토벌을 명하고 화랑 김영운을 황금서당보기감(黃衿誓堂步騎監)으로 삼았다. 김영운은 어명을 받고 출정함에 앞서,

「내가 이번에 출정하면 조상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출정하여 반란군과 부딪치니 누군가가 말하기를 반란군은,

「장막 위에 깃을 친 제비와 같고 숲 안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같아 반드시 죽을 목숨이면서도 하루의 삶을 다투는 것이다」

고 하며, 급히 쫓지 않아도 제대로 쫓아갈 것이니 서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운은,

「싸움에 임하면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예경(禮經)」에 있다. 군사는 오직 진격할 뿐 후퇴를 모른다는 것이다」

고 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어 맹렬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신문왕은 화랑 김영윤의 이러한 전사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에 아버지에 그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고 하면서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처럼 김흠춘(金欽春) 삼대(三代)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아끼지 않았으니 어찌 고귀한 정신이 아니겠는가



단편소설

하얀빛 라리에

유 금 호 (俞金浩)

죽음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친밀감과 유혹 같은 것. 전혀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빛깔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쩌면 불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어 온 죽음에 평소의 무관심과 객관성이 지워지며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 죽음이 지닌 그들의 습기찬 호흡과 끈적거림이 이미 우리의 내부에서 동화(同化)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죽음에 대해 그 친밀스러운 동화의 감정을 받아들인 건 성희(聖姬)의 죽음이 있고난 후였는지 모른다.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나는 꽤 많은 죽음을 보아 왔었지만, 언제고 그것은 먼 객관성 위에 있었고, 대개는 공포와 처절을 늘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이 옳은 얘기일 것 같다. 그러나 성희의 죽음은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들의 할머니와 그 할머니네 시어머니의 죽음에서 느꼈던 소란스러움, 수다와 삼베 두건, 외로 끈 새끼의 굵은 허리띠, 대막대기, 꽃상여, 선산, 지관(地官)이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나침반, 명당, 며칠이고 화롯불을 밝혀 놓은 마당 한쪽에서 끓이던 비릿하던 국 냄새와 떡을 손에 들고 뛰어다니던 동네 아이들의 기억에서 풍겨오는 장례(葬禮)에서 느꼈던 죽음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참으로 우리들의 할머니가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있게 되어, 늘 집안 어른들이 몇 번인가 그 마지막 임종에 참석치 못하는 불효를 범치 않기 위해 다른 일을 못하던 그런 죽음의 느낌과도 또 다른 죽음, 역시 우린 너무 많이 보아 왔었다. 하기가 장난감이라곤 칼빈총과 M1소총의 탄피들로만 이루어졌던 우리의 전쟁놀음들에서 어른들의 죽음은 그 꽃상여가 갖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우리의 가슴들 속에 형상화 시켰었다.

우린 개울 독 길을 꽤 오래 걸어서 국민학교엘 다녔다. 그 개울은 꼬불꼬불하게 저수지를 출발해서 눈독길을 뚫고 그 국민학교가 있는 바닷가로 연해 있었고, 우린 책보를 조금 느슨하게 어깨에다 메고는 그 개울 길들을 매일 매일 걸어다니며, 부엌계 구름같은 먼지를 항상 물고 다니던 군용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며 대곤 했었다. 그 군용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들의 모자와 등에는 나무가지들이 꽃혀 있기 일쑤여서, 우리는 그 먼지를 신나게 내며 달려가는 나무가지들을 멀끔히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하룻밤 사이에 신작로 가의 내가 뱀새집을 알아놓은 계곡에 덩굴고 있는 시체와는 전혀 관계지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때로 시체들은 밤새 천둥 소리처럼 요란스러운 총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늘 우리들의 호주머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신나게 탄피를 주울 수 있다는 초조로움 속에서 우리가 지우개와 몽당 연필이 달랑거리며 소리내는 책보를 끼고 매일매일 지나는 개울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그 시체들이 전혀 우리들 국민학생보다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시체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만은 질색이어서 우리는 늘 코를 쥐고 그 시체들 곁에서 탄피 수집에만 열중했었다. 때로 탄피에는 핏방울이 엉켜 묻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풀 위에다 문질러 닦고는 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 무렵의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고 우리 곁에 있을 것이어서 우리는 자라지 않고 늘 탄피놀이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로운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 늘 총 소리는 들렸고, 사람들은 가끔 죽어갔다.

그러나 그런 수 많은 죽음들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부산스러운 소란함과 그 소란함 속에서 괜히 들뜨고 신이 났던 일과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다.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때, 성희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 올 때였다고 생각된다. 성희는 계집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겁이 많았고 사실 울보였다. 그녀는 나보다 두학년 아래였는데 학교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서방각시」 「서방각시」 하고 놀리기도 하면 금방 눈물이 글썽해지곤 했으니깐, 그래서 나는 성희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학교 후문으로 나 혼자 들어가고 성희를 정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곤 했었다.

그리고 성희는 참 착한 아이였다. 전쟁이 나기 전 그 개울 가에서 탄피를 주워모으는 놀이같은 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들은 늘 개울에서 붕어새끼나 미꾸라지를 잡곤 했는데, 그 때는 언제고 내 윷도리를 들고 나를 기다렸다. 그 때 그녀는 나의 심한 장난과 싸움질 때문에 옷에 붙은 흙이나 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깔끔히 닦고 뜯어내 주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기껏 내가 고무신짝으로 잡아낸 붕어 새끼나 미꾸라지 새끼들을 집까지 가져가기 위해 그녀의 신발을 빌리기가 일쑤였다.

개울은 신작로를 뚫고 저수지에 연이어 있어서 우리는 개울 둑에서 신작로를 올라서면 따끔거리는 신작로 길을 붕어 새끼 때문에 맨발로 걸어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성희는 한 번도 신발을 빌리자는 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검정 고무신을 벗어서 내가 잡아 온 붕어 새끼들을 옮겨 담아 우리집까지 들고 가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한 발이 맨발인 그녀의 작은 발이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기 때문에 붕어들이 길 바닥에 쏟아져서 나는 그녀를 마구 욕한적이 있었다.

성희는 내 지독한 욕설에 소리도 못내고 훌쩍여 울면서 다시 개울까지 가서 고무신에 물을 채워 들고 왔었다. 그 때 나는 성희의 무릎이 깨뜨려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심히 욕을 했나보다고 조금 후회했지만 전혀 입 밖에 그런 말을 내진 않았다. 성희는 우리

집 앞까지 와서 고무신을 내밀었다. 내가 그 고무신의 붕어를 우물에 가서 다른 곳에 옮겨 담을 때까지 성희는 땀방울이 쪼는 문 밖에서 내가 신발을 가져다 주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성희는 울 보였지만 언제고 크게 소리내어 우는 일은 드물었다.

우리가 시체 곁에서 탄피를 줍는 일들을 하고 있던 그날은 성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기 시작했다. 그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내가 들은 것으로는 제일 큰 소리를 내면서 울어댔다. 내가 마구 욕을 퍼부어대자 성희는 내가 때리기라도 할까봐 물러서곤 하던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나를 올려다보며 「삼촌이야, 삼촌이 죽었어」 하면서 더 커다랗게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치면서 무서워졌고 그녀가 말한 그 삼촌의 시체를 겨우 내려다 보았다. 한 번도 그 시체들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던 내게 순간으로 휩싸여 들던 그 공포의 정체는 그 무엇이였을까? 우리들 완고하던 객관의 엄청난 흔들림, 나는 가끔 지금에야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시체는 고개를 옆으로 한 채 독에 얹어져 있었는데, 등에는 붉은 글씨로 「인민의 적」 「반동」 이라고 써어 있었다. 그런 글들을 여러 번 우린 시체에서 보아 왔지만, 옆으로 한 얼굴 위와 배에서 비어져 나온 창자 위에 수없이 내려 앉은 푸른 빛나는 작고 날쌔 파리떼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너무 많은 파리떼들 때문에 그 시체에서 빠져나온 창자는 햇빛에 눈이 부신 느낌이었다. 「삼촌이야, 삼촌」 성희는 계속 울었다. 그렇게 「삼촌이야, 삼촌」 하고 성희가 자꾸만 응얼대자, 내겐 문득 「죽인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생각되었고 조금 전의 공포가 더욱 무겁게 가슴을 옥조여오기 시작했다.

「어제 잡혀 갔어. 다락에 숨었다가.」 「다락에?」 그러다가 문득 나도 아버지가 멀리 친척 집에 갔다는 어머니의 얘기가 참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가끔 한밤중 나는 꿈결에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에게서 풍기던 그 독특한 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늘 내 꿈이었거니 생각해 왔는데, 점점 나는 무서움에 견딜 수 없어졌고, 새파랗게 질려 간신히 성희의 손을 끌고 신작로까지 뛰어 왔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저런 꼴로 「반동」 이라고 써붙여진 채 시체가 되어 있다면, 하는 상상이 성희를 이해하게 했고 성희가 불쌍해졌다.

내가 성희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아마 그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또한 죽음이 그런 식의 공포로 나를 엄습해 온 것도 처음인 셈이었다.

죽음은 늘 소란스럽거나 분주한 속에서 괜스레 신이 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거나 우리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죽음」 이었던 것이, 형체 잡히지 않는 공포로써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위협해 온 것이었다.

나는 시체가 있는 곳에서 탄피를 줍는 일은 그만 두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 또래의 아이들 중에는 계집에 같이 겁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시체 곁에서 옮겨붙은 핏방울들이 검붉게 묻어 있는 탄피를 풀섭에다 닦는 일 따위는 엄두도 못 낼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 우린 그들을 「겁

쟁이」라고 놀려주었는데, 그들은 그 놀림이 싫어서 조금씩 용기를 배워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아예 우리를 보기만 해도 뱀이나 지렁이를 본 듯이 비실비실 피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깨끗이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엄마가 그런데는 절대로 가지 말랬어」라고 그들은 그들의 겁이 많은 것을 변명했다.

성희 삼촌의 시체를 본 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언짢아서 나는 오후 내내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한되짜리 빈 소주병에 억지로 밀어넣어 두었던 붕어들이 훨씬 커다랗게 되어 병 꼭대기로 밀어올라와 죽어 있었다. 붕어는 병 속에 밀어넣어 두면 대개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버렸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서 우물가에 팽개쳐 버리거나, 때로 닭에게 주곤 했는데, 나는 그 날 오후 아마 닭이 마침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땡볕에 말라버린 붕어새끼들 위에 달라붙은 파리떼들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들은 성희 삼촌의 터져나온 검붉은 창자위에 물려 있던 것들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퇴둑 침을 뱉으며 그 자리를 물러 나왔으나, 사문 오래도록 욕지기를 느꼈다. 그토록 우리에게 무관한 것으로 스쳐갔던 죽음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공포감, 그것은 파리떼가 주는, 그 날샘 움직임과 빛남 때문에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듯 싶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푸른빛을 내고 있는 그 운동감과 완전한 정지의 차이, 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혈연에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두려움 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욕지기를 느끼다가 황혼 무렵에야 두려움이 가시면서 급격스럽게 밀려드는 무위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질 거라는 나의 어린 상식을 반복시킨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을 그 무렵 내가 겪어야 되었던 것에 있다.

그것은 그네들 붉은 군대의 철수가 시작될 무렵, 그들이 떠날 거라는 소문들을 지나는 애기로 알게 되었을 때였다.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꿈과 현실의 몽롱한 상황의 깊은 밤에 낮게 웅얼거리는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버지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독특한 몸 냄새와 함께 가끔 맡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최면 같은 것이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뒷문전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그런 똑같은 상황 지점에서 나는 아버지를 느끼고 그것은 아울러 그 붉은 군대가 곧 떠날 거라는 선입관을 주었다.

나는 이미 시체 곁에서 탄피를 쏘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들 멀리서 온 「나쁜사람」들이 빨리 떠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친척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바랐고, 학교가 빨리 시작되어서 우리 예쁜 여선생님을 보게 되고 성희에게 윗도리를 맡기고 붕어를 잡게 되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바램 속에서 엉뚱한 사건이 내겐 색다른 또 하나의 죽음을 가르쳐주었다.

황혼이었다.

서녘 하늘이 온통 빨갱게 물들어서 그 붉은 빛으로 하여 골목과 또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우리집의 담벼락들까지 그 색깔에 휩싸이는 느낌을 주는 때였다. 성희가 우리집 대문앞에서

나를 불러내지도 못하고 빠끔하게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 보는 걸 알아내고, 나는 살금살금 담벽 안을 돌아 성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대문개로 걸어가서 정면만을 열심히 살피고 있는 왼쪽 کن 문틈에다가 가만히 성희쪽에다가 오줌을 내 갈겼다.

성희는 열심히 내가 나오길 기다리던 참이어서 내가 자기 바로 가까운 판자 하나 사이에서 그 틈 사이로 자기 치마폭에다 오줌을 싸는 걸 한참이나 모르고 있다가 「아이그메!」 질겁을 하며 젖은 치마폭을 울상이 되어 거머쥐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나서며 「오줌싸개…, 오오줌싸개야…, 키쓰고 소금 얻으러 왔니? 키쓰고 소금 얻으러…」하고 놀려댔다. 성희의 얼굴은 그 황혼으로 해서 더욱 빨갱게 되어 어쩔줄을 모르고 훌쩍여 울기 시작했다. 「오오줌싸개…, 오오줌싸개야야…,」 나는 계속해서 놀려댔고, 성희는 더욱 큰 소리로 훌쩍거렸다. 「학교 가아서 소문낸대야… 오오줌싸개…」 「나는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손뼉까지 치면서 웃어대었는데, 그 때 어느 사이엔가 총을 맨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 두 명이 불쑥 우리 집 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의 웃음도, 성희 울음도 동시에 그쳐 버렸다. 그리고 우린 어느 새 언젠가처럼 손을 꼬옥 마주 쥐고 있었다. 성희의 얼굴은 해쓱하게 변해갔고, 좁고 가녀린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는 듯 보였다. 성희가 떨고 있다고 느끼자 내 몸도 갑자기 뻗뻗이 굳어갔다. 「도망가, 안 가면 죽일지도 몰라.」 성희가 간신히 소근거렸다.

그 무렵 집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소리의 욕지거리와 문짝을 발로 차는 소리에 어머니의 울음 소리가 섞여 들려 왔다. 집에는 어머니뿐이었다. 그 어머니의 비명과 더불어 내 눈 앞에는 무수하게 그 파란빛이 영롱하던 파리 떼들이, 그리고 터져나온 성희 삼촌의 창자에서 쥐었던 코를 놓았을 때 덩벼들던 지독한 냄새가 울컥 밀려들었다. 수십마리, 수백마리의 그 파란빛나던 파리 떼들이 부산스럽게 빨간 저녁놀 전체를 휘덮으면서 내 눈앞으로 몰려들었을 때, 성희는 다시 한번 「도망가」했다. 그러나 웬 일인지 심한 욕지기가 느껴지며 나는 주저 앉을 것만 같았다.

나는 성희가 손을 끄는대로 비틀거리며 움직였다. 어머니의 비명이 높아졌고, 그 남자들의 외치는 소리와 온 몸을 서늘하게 식혀 오는 웃음소리들이 뒤뉘뉘이 되어, 나는 이상스럽게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점점 움직일 수가 없어졌다. 우린 겨우 담벼락을 돌아 집 뒤 کن 언덕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성희의 얼굴도 파랗게 질려서 이마에는 땀이 송송 배어 있었으나 눈만은 말끔히 눈물이 걷힌 채 푸른빛을 날카롭게 띄우고 있었다. 「니 엄마를 죽일 거야.」 성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바다쪽에서 비행기 한 대가 재주를 부리듯 지나며 커다란 불기둥이 일었다. 계속해서 엄청난 큰 푼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의 외침을 빨아들여 버렸다. 그 소리는 연이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반의 개구장이 하나가 언덕 밑에서 주워 온 수류탄을 돌로 두드리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그 아이를 조각 조각 찢어버렸을 때보다 더욱 크게 들렸다. 나는 그애하고 탄환 껍질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서 그애의 조각난 몸뚱이들을 선생님 때문에 자세히는 못봤지만, 그 조

각들에서는 파리 떼들을 보거나 느끼진 않았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손을 대지 말고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던 선생 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그 녀석은 나보다 탄환 껍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 주근깨와 손톱자국이 많은 녀석이었다. 잠시 그 불기둥과 비행기, 수류탄 폭발로 죽은 반 아이, 계속해서 들려온 기관총 소리로, 우리는 귀를 막고 엎디어 있으면서 잠시 집안 일들을 잊고 있었다.

어둠이 점점 짙은 저녁놀을 밀어내고 덮여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워지면서 으스스 추워졌고, 성희와 맞닿아 있는 옆구리 부분이 따뜻하다고 느끼면서 다시 그 파리떼들을 생각했다. 배가 고파왔다. 「네 집에서 총소리는 안 났어」 바쁘게 우리 집을 뛰쳐나간 그 붉은 완장을 찬 나쁜 어른들의 그림자가 멀어졌을 때 성희는 가만히 내게 말했다. 「미국 비행기였어 아까」 사실 전에 안 느낀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성희가 나보다 두 반이나 아래인데도 나보다 훨씬 어른인 것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가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마당 안을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 보았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우린 조심해서 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큼 망설이다가야 어두컴컴하게 불을 아직 안 켜 방문을 열었다. 순간 방 안에서는 피 냄새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더불어 또다시 그 수 많은 파리떼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을 들었고, 나는 엉겁결에 방문을 꽂 닫아버렸다.

어머니는 아래옷을 몽땅 벗기운 채 다리 사이에 칼이 꽂혀, 피 냄새 속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마루를 뛰어내려 대문개로 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큼직하고 따뜻한 손에 안겨들어, 꿈인지 잠결인지 모르는 속에서, 늘 옆에 말았던 다정한 몸냄새를 맡으며, 그가 부득거리며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밤 새 무서운 꿈에 쫓기면서 땀을 흘렸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품 속에 안겨 있는 걸 알았고, 공산군이 몰려갔다는 아버지의 얘기와 어머니의 신음을 역시 옛날의 방들에서처럼 멀리로 들었다.

이튿날 마을에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그 숨어버렸던 태극기가 펄럭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 대들보에 목을 매어 숨겨버린 어머니의 시체를 앞에 두고 몇 사람 친척들이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는 흰 보자기가 덮여진 어머니의 시체 곁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만 있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경이 나오서는 알 수 없는 열등감과 불쾌감을 몰고 와서 나는 어머니의 시체가 싫었다. 더구나 한 마리도 날아들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파란 빛을 띤 파리들이 어머니의 피투성이 된 다리 사이에 몰려들어 있을 것같은 착각이 나를 깜짝거리며 놀라게 했다.

자살이라는 말과 그 자살이 라는 말이 갖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왜 어머

니가, 아주 잠깐 사이 아버지의 잠든 순간을 틈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를 엮고 다니던 흰 띠를 대들보에 매어서 목에 걸었나를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이 든 후였다.

그리고 어떤 의미 하나의 탈출구로서의 자살이 지닌 당위성을 인정할 만큼 나도 성장되어 갔다. 그러나 나의 뇌리에서는 우리들 주변에서, 때로 미화되고 감상성을 띤 채 자주 화제의 대상이 되는 그 자살이라는 어휘가 그 날 밤 방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끔직한 광경을 연상시켜서, 때로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게 했다.

적어도 죽음은 역시 고전적인 우리들 할머니의 죽음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향수가 내겐 늘 있었다. 빨강고 흰 꽃송이들이 줄레줄레 달리고 상복을 입고 그 꽃상여 뒤를 따르는 자손들, 구슬픈 요령소리, 「어허이 어허이」 끔결 같은 상두꾼들의 음성이 뒤범벅되어 호상이지, 암 호상이고 말고, 죽음은 그런 식으로 자연의 질서 속에 있어야 했다.

우리는 다시 나이 들면서 점차 우리들 주변에서 불쑥불쑥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죽음들에서 그 죽음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거나, 더구나 어떤 질서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노와 허무를 우리의 사색 속에 심어갔다.

더구나 저 1960년의 우리들 대학생들 때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들 갔을 때, 우리의 분노는 너무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를 지켜주고,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정규 경찰들 손에서 우리들이 알아온 정의 때문에 친구들이 숨겨 갔을 때, 우린 너무 당황했다. 그 젊음의 울분과 격정이 가시고 닳았을 때, 우리들은 몇 개의 병원에 입원된 우리의 동료와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친구들에게 둘러진 역사의 영광 속에서 커다란 허탈을 보았다.

깊숙한 심연으로 가라앉아드는 그 슬픔은 외부의 찬사 속에서 고독한 회의에 젖었다. 찬사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다. 더구나 비극과 희생 위에 쏟아져 내리는 영광은, 현란하면 할수록 그 진격한 내면으로는 동떨어진 고독의 미궁으로 그 찬사의 주인공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속성을 지녀버린다.

우린 변화된 역사 속에서 이미 눈을 감아버렸거나 영원히 불구가 되어 버린 각 개인을 생각했다. 집단으로 일어난 행동과 그 집단의 죽음이 가지는 객관적 장렬감과 전혀 별개로 개인 개인이 갖는 죽음의 의미, 죽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 단애였다. 하나의 끝, 모든 것의 무관심과 거부.

철이 들며 지켜본 동료들의 죽음에서 저 어린 시절부터의 수 많은 죽음들이 또 다른 어두운 색채로 덮이면서 무겁고 어지럽게 밀려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파란 빛나는 파리떼들의 웅성거림은 모든 죽음에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내 눈앞을 어른거리게 했다.

나는 그동안 사실 오래도록 옛날의 성희를 잊고 있었던 셈이었다. 어머니의 자살이 준 상처로 인해 아버지는 그 이듬해 나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버렸고, 나는 결국 그 시골의 독길과 하얀 신작로들을 꿈 속에서 본 것처럼 기억 속에 두고 서울나가가 되었다.

때때로 나는 외부가 멀쩡한 내과질환을 앓 듯 향수를 앓으면서, 그 「흠석」 속에서 성희를

동화처럼 그려보곤 했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나는 꼭 한 번 세일러 교복을 입은 시골 여학생이 된 그녀를 만났을 뿐이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웠지만 이상스럽게도 세월과 나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감 속에서 그 고향의 신작로에서 서먹스럽게 헤어지고 말았다.

시골에 남은 농토를 정리하러 내려갔던 아버지 곁에서 나는 늘 생각나던 그 신작로 위의 땀별과 고무신을 벗어서 봉어 새끼를 담아 들고 발이 따끔거리 절름거리는 것처럼 보이던, 가까웠던 성희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 고등학생을 만난 것만 같았다. 우린 서먹스럽게 어색한 미소에 안부를 겨우 서로 물었을 뿐, 나쁜 짓이나 한 것처럼 서로 황황히 헤어졌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척추를 다친 친구의 문병을 마치고 나오던 병원의 입구에서, 나는 국화꽃을 들고 들어서는 어른이 되어 버린 성희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늦봄의 햇빛 속에서 참으로 엄청난 경이로움으로 불쑥 내 앞에 마주섰다. 불우물 맨 처음 내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녀의 어렸을 때부터 늘 있던 왼쪽 볼의 불우물이었다. 그 불우물로부터 천천히 커다랗게 확대되어 버린 그 눈빛 속에 빨려들면서 나는 온 몸을 지나 전 발끝과 손끝으로 짜릿하게 퍼져드는 전율에 떨며 나는 겨우 「저 성희…… 성희아냐?」 했다. 그녀를 싸고 있던 긴장이 흔들려 떨어지면서 우린 거의 동시 손을 마주잡았다. 그녀는 입술을 씹룩였다. 세일러 교복으로 하여 탄 사람처럼 느껴지던 성희는 성인이 되면서 다시 옛 어린 시절의 그 얼굴과 눈빛으로 되돌아 간 듯했다. 그것은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였다. 우리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색스럽게 손을 놓았다.

언어라는 것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불안전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한참만에야 우리는 시선으로 더듬어가던 작은 찻집을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렸던 몇 송이 국화꽃이 손을 마주 잡으며 거기 병원 입구의 잔디 위에 버려진 채 4월의 나른스런 햇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 문병?」 찻집에 마주 앉으며 내가 물었으나 그녀는 「무사했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핑그르르 눈물이 돌아버렸다. 「여전히 울보군」 내가 담배를 꺼내 물자 그녀는 고개를 몇 번이고 흔들며 나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성희는 내가 데모대열 속에서 죽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다.

「여고 졸업하곤 곧장 서울에 왔지만, 주소도 학교도 알 수가 있어야죠.」 「벌써 4년」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숙이 담배를 빨아들었다. 「4년 전에는, 그렇게 반가웠으면서두……」 갑자기 나는 웃음이 터져서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색 원피스를 보자, 어렸을 때 대문틈으로 치마에 오줌을 싸 주었던 생각이 머리 속을 짹째 지났고, 그녀도 나의 웃음의 연상을 알았는지, 귓부리가 빨갱게 되면서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연상은 슬프고 불행스러운 더 많은 기억들로 해서 우울해졌다. 그녀의 출현이 준 환희로운 기쁨과 많은 죽음들, 수 많은 색깔의 죽음들이 가슴을 지긋이 눌러주는 중압감은 너무 이질적이면서도 결국 같은 동심원 속의 세계였다.

「기억나세요?」 그녀는 핸드백을 열더니 오래된 M1탄피 한 개를 꺼냈다. 「있었을 거예요. 학교가서 애들이 놀려서 내가 담 곁에서 훌쩍거리니까, 이걸 주었어요. 다른 애들이 안 볼 때 얼른 제 손에 쥐어주곤 황하니 운동장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 때, 아마 꽤 아팠던 거였을 텐데……. 내게 탄환 껍질을 준 건 그렇게 꼭 한 번이었어요.」 「아, 아!」 나는 갑자기 신음했다. 그 개울둑으로 연결된 학교 뒷길과 운동장 밖으로의 염전, 나는 탄피를 받아 들면서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의 여백들을 깡그리 잊은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 무렵 그토록 많이 모았던 탄피들을 지금의 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희는 그것을 핸드백 속까지 집어 넣고 다니는 것이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서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희는 내 손 안에서 다시 그 탄피를 가져다가 꿈꾸듯 시선을 모았다.

우리가 급격스럽게 가까와져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일러 교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긴장으로 혹은 잠시 현실들로 해서 덮어두었던 옛부터의 그 공동의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했다. 다만 우리들은 자라 있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무신에 봉어새끼를 담아 들고 다니거나, 뜰 한쪽에 가 소꿉놀이를 하지 않는 것 뿐이었다.

확실히 성장이란 신비했다. 이성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가까웠던 감정이 조금 자라며 경계로 바뀌고, 더 자라면서 더욱 깊은 흡인력 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으로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마력을 시간은 가지고 있었다.

성희는 무역회사의 사원이었다. 「상업학교였어요」 하고 그녀는 옛날 만났을 때의 그녀를 설명해 주었다. 「데모 때는 무서워서 혼났어요. 개구장이었으니까 옛날도」 「이번에도 맨 앞에 뛰어다녔는데, 괜찮았어. 탄환이 나를 비껴서 간 모양이지?」 「하긴 우린 너무 많이 죽음들을 보아 왔어요」 「이번에도 많았어. 친하던 애들이 쓰러져갈 땐 마구 악이 바치더군」 우린 때로, 친구들의 죽음을 얘기했고 부상당해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그녀 친구의 오빠, 그날 꽃을 들고 찾아가려다 나를 만나버린, 그런 많은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내가 무사한 걸 신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린, 내가 대문 틈 사이로 그녀의 치마에 오줌을 내갈린 일을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의 어머니의 자살과 그 자살이 빚어진 그 전의 끔찍스런 불행의 회상은 피했다.

그러나 나는 순간순간으로 그녀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 무수히 날고 있던 시선 위의 파란빛으로 반짝거리던 수백마리의 파리떼를 연상하고 몸을 떨었다.

그것은 언제고 죽음의 이미지에 연결된 끔찍스러운 연상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 노인들의 죽음이 주던 들뜨고 수선스럽던 분위기와 참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성희 그녀 자신의 죽음 외엔, 언제고 죽음에서는 그 파란빛 파리떼를 머리 속에 떠올렸다.

「우린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가끔 강조하듯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혁명으로 인해 가까운 동료들의 죽음으로 가깝게 인식되었던 죽음은 다시 우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먼 곳의 이야기로 조금씩 멀어져 갔고, 죽음이 차지하던 뇌리의 부분엔 그녀에게서 점차 개인이 시작된 이성으

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즐겁고 의욕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자라오면서 줄곧 우중충히 나를 휩싸온 그 죽음이 주던 각종의 그림자 속에서 해방되기 시작하고, 나는 서서히 가슴을 떨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평범스러워 보이는 사실이 이처럼 엄청나게도 찬란한 가능성이었나에 놀라며 들떠갔다.

그러던 5월의 아침, 성희는 불쑥 바보처럼 죽고 말았다.

도무지 의미를 붙일 수도 없이 그녀는 단 10시간 사이에 잠든 것처럼 하얗게 식어서 내 찬란하던 꿈빛을 퇴색시킬 여유도 없이 숨이 저 버렸다.

「아이구 학생, 병원에 좀 가서 가봐요.」

「병원에요?」 「아 글썄, 가스가 새었지 뭐유? 멀쩡하던 방이었는데..., 아이구,」 나는 갑자기 멍청해져 버렸다. 너무 급격한 그녀의 위급 소식은 놀라움을 일으킬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침에 시골로 전보를 했는데..., 아이구..., 만약 불행이라든 당하면 이 일일...」 주인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굴러대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 피어로의 표정처럼 우습게만 보였다.

5월의 햇빛은 너무 많았다. 모든 것은 생기에 넘쳐 있었고, 나는 환희로운 기억 속에서 아직 깨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성희의 죽음은 너무도 싱거웠다. 그것은 분노도 공포도 가질 수 없는, 참으로 여치구니 없는 무의미였다. 연탄가스, 그것도 내가 그녀의 방에서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버린 바로 그 밤 사이 나는 하얗게 식어있는 전혀 죽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시체를 보면서, 지난 밤 통금이 다 되어 그녀의 방을 빠져나온 나를 후회하고 있었다. 「제 요리 솜씨 한 번 보실래요?」 그녀가 그녀 혼자 살고 있는 방에 나를 초대했을 때 우린 이미 옛날의 어린애들로나 아닌 어른들로, 더욱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감에 한참만에야 고개를 끄덕이었다. 우린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고 많은 얘길 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혀에서만 맴돌았을 뿐, 우린 취한 것처럼 보다 가까운 확인에의 열망 속에 떨고 있었다.

「늘 숙명 같은 걸 느꼈어요. 사람에겐 태어나는 것, 이성을 사랑하는 것, 죽는 것, 그 모두가 일종의 숙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서투르게 안고 있는 내 가슴 속에서 오물거리며 떨면서 말했다.

우린 참으로 서로가 너무 서툴렀다. 우린 사실 아직 들뜬 감정의 비율만큼 서로가 육체를 사랑할 만큼 성장되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동정과 함께 그녀의 시트를 물들여 버린 빨간 핏자국에서 가슴 속에 차오르는 수 많은 긍정을 보았다. 나도 「사랑해」 하고 말했었다. 부끄러움과 희열 속에 꽃잎처럼 빨개진 성희의 육체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삶이 자랑스러웠고, 합일이 주는 불안, 깃든 소유의 희생이 주는 찬란한 감정의 무늬를 느꼈다. 순간으로 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리길 바랄만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강렬한 인식이었다. 「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숙명감이었으니까요.」 단 한번의 확인을 위한 숙명이었을까? 나는 시체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못들은 채 그녀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

두려움도 환상도 그렇다고 저 옛날의 전쟁 속에 쓰러져간 죽음들에 느끼던 객관성의 느낌도 없는, 그녀의 죽음 속에 내가 끼어들 수 없었던 현실감에, 어색한 채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5월의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몸을 섞은 남녀는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 하는 상식 속에서 그 새벽을 비워두고, 아버지를 염려해서 그 죽음을 빠져나간 내가 우스웠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는 바로 삶 속에 죽음이 동시에 있는 나는 혼란과 현기 속에 그녀의 침대 모서리를 붙든채 무릎을 꿇었다. 언제고 죽음이면 연상되던 그 날래고 작은 파리떼들이 날아들지 않는 공포나 거리감이 가신 채 창백하게 표백되어 서서히 살아있는 생명 위로 전혀 이질감 없이 덮여오는 또 하나의 죽음보다 강한 환희와 생명의 확인을 동반하고 성희의 죽음이 내 곁에 있었다. 극단의 이질적 상황은 결국 깊은 의미 같은 것일까?

나는 눈부시게 쏟아져드는 햇빛 속에서 그녀를 덮고 있는 흰 시트를 가만히 다시 내리며 끝없는 환각 속에 달려가고 있었다. 고무신짝엔 예쁜 금붕어가 담기고, 우린 바다로 연해 있는 독길에 서 있었다. 우린 마구 기뻐 소리치며 웃고 있었고, 그 위로 한 떼의 비둘기들이 무리지어 맴도는 사이로, 상두꾼들의 노래 소리가 꿈결처럼 행복하게 끝없이 퍼져 들었다.

5월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기 속에 발랄하게 꿈틀거리고, 나는 성희와 손을 잡은 채 그 5월 속에 같이 서 있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3월 15일 인쇄
1982년 3월 20일 발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827-2691, (호)-5241

◇ **군인(軍人)의 길** ◇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